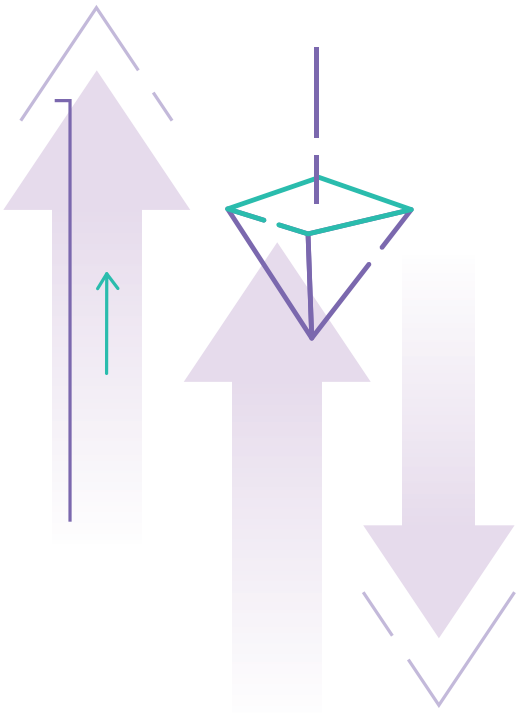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100152-10

www.moel.go.kr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5기준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목차 CONTENTS

Part 1 전국총괄

1 인구
1 인구동향 ····· 8
2 지역별 인구동향 ····· 15
3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 18

2 경제
1 경제동향 ····· 22
2 산업동향 ····· 24
3 소비 및 물가 동향 ····· 28
4 수출·입 동향 ····· 29
5 사업체 동향 ····· 30
6 분배 동향 ····· 33
7 지역별 경제동향 ····· 35

3 고용
1 노동력 현황 ····· 40
2 취업자 및 고용률 ····· 43
3 실업자 현황 ····· 52
4 비경제활동인구 ····· 54

4 노동이동
1 입·이직 현황 ····· 60
2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 64
3 미충원 인원 ····· 68
4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 72

5 직업훈련
1 직업훈련 현황 ····· 78
2 수료자 취업현황 ····· 82

6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 86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 91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 106

7 노사협력
1 노동조합 ····· 110
2 노사분규 ····· 113
3 노사분쟁 사건 ····· 116
4 근로개선 지도 현황 ····· 122

8 산업안전
1 산업재해 ····· 128
2 경제적 손실 ····· 131
3 산재보험 ····· 133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1 지역별 인구 현황 ····· 138
2 인구 이동 현황 ····· 140
3 지역내총생산(GRDP) ····· 142
4 산업단지 분포 현황 ····· 143
5 고용률 ····· 144
6 취업자 수 ····· 145
7 실업률 ····· 146
8 비경제활동인구 ····· 147
9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 148
10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 149

Part 2 대상별 현황

1 청년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154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 155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158
4 청년 근로조건 ····· 159
5 취업 활동 과정 ····· 160

2 여성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164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 166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172
4 여성 근로조건 ····· 175

3 장년 (50세 이상)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178
2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 179
3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182
4 장년 근로조건 ····· 183
5 정년 현황 ····· 184
6 장년층 동태 분석 ····· 188

4 비정규직

1 비정규직 취업현황 ····· 194
2 근로조건 ····· 201
3 고용형태 변화 ····· 208

부록

고용노동관련 OECD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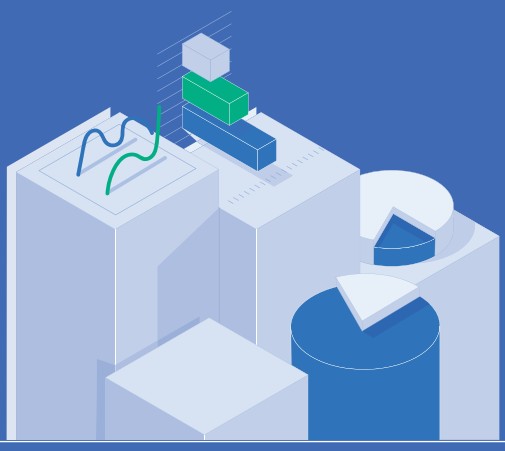
1 인구 및 고용 ····· 214
2 근로조건 ····· 226
3 분배지표 ····· 235
4 기타 고용노동지표 ····· 239

Part 1
전국총괄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인구
2. 경제
3. 고용
4. 노동이동
5. 직업훈련
6. 근로조건
7. 노사협력
8. 산업안전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인구

① 인구동향
② 지역별 인구동향
③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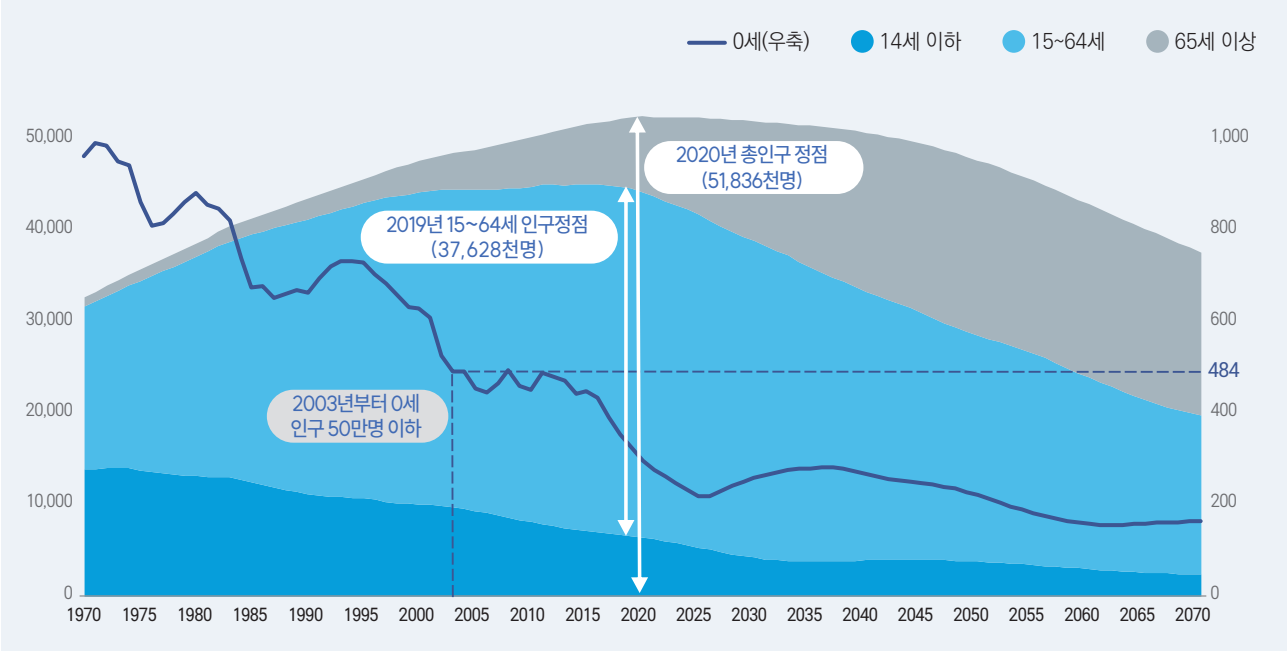


인구동향

연령별 인구추계

2025년 국내 총인구수는 5,168만명으로 1970년(3,224만명)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총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명)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에 있다.

- 연령별로 보면 15~64세 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14세 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0세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지속적 감소, 2053년 이후 20만명 이하일 것으로 전망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1 (100.0)	38,124 (118.2)	42,869 (133.0)	47,008 (145.8)	49,554 (153.7)	51,836 (160.8)	51,685 (160.3)	51,306 (159.1)	50,059 (155.3)	47,107 (146.1)	42,302 (131.2)	37,182 (115.3)
0~14세 이하	13,709	12,951	10,974	9,911	7,979	6,306	5,258	4,160	3,879	3,751	2,933	2,393
0세	950	870	656	622	447	292	217	255	263	219	156	161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5,912	34,166	29,029	24,448	20,687	17,111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366	8,152	10,514	12,980	17,151	18,908	18,682	17,67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 1970년 대비 비율
주 1)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인구임
2) 1970년 이후 자료는 「2019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중위가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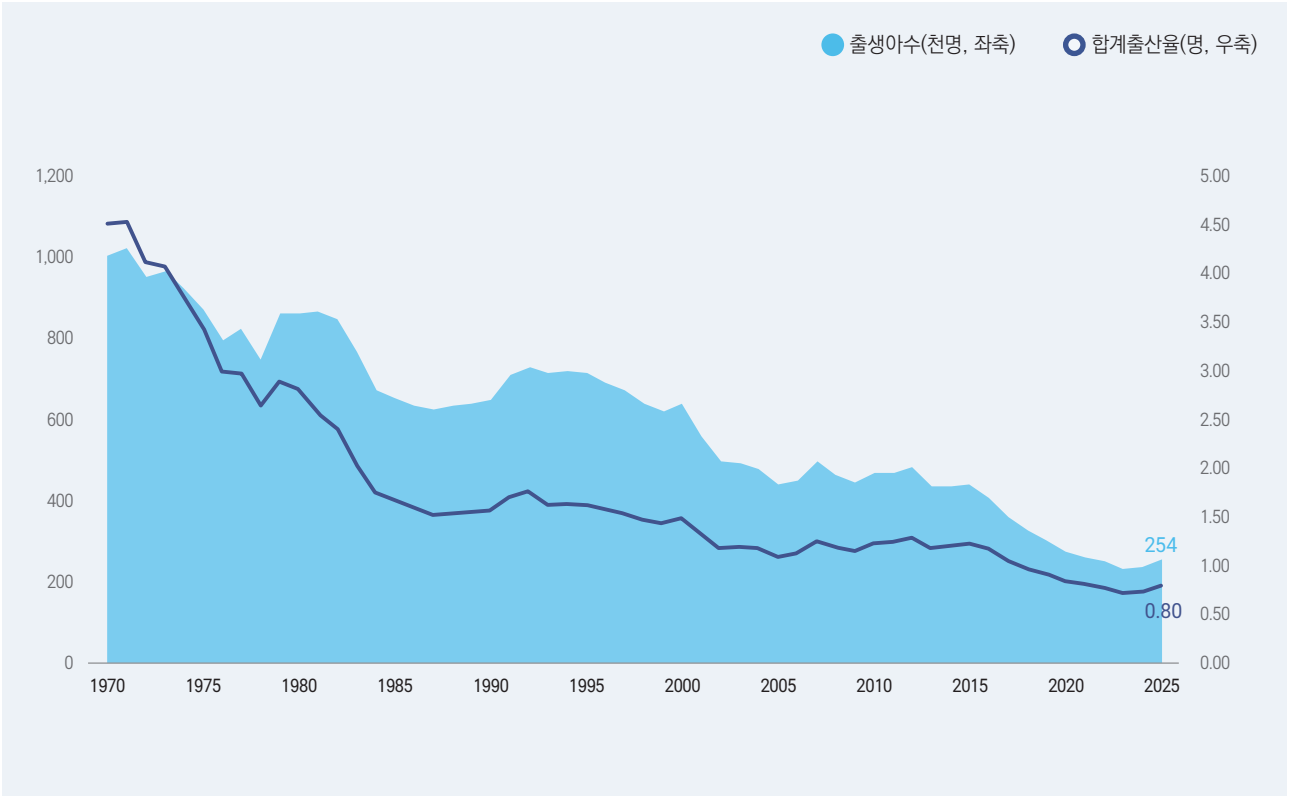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25년 출생아수는 25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6.7%) 증가, 합계출산율은 0.80명이다.

-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3년 0.72로 최저수준을 보인 후 반등
- 3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20대 후반 출산율도 소폭 증가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출생아수	1,007	874	863	655	650	715	640	439	470	438	272	254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단위: 명, %)

용어 정리

- **합계출산율(TRF,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연령별 출산율(ASFR):** 특정 1년 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성별 연령별 인구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고, 2025년에 처음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을 넘어섰다.

- 14세 이하, 15~64세는 자연출생성비를 보이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더 큼
  * 자연출생성비: 자연 상태에서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
- 65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여성 비율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전연령	남성	50.6	50.5	50.3	50.3	50.2	50.0	50.0	50.0	49.9	49.8	49.9	50.2
	여성	49.4	49.5	49.7	49.7	49.8	50.0	50.0	50.0	50.1	50.2	50.1	49.8
0~14세 이하	남성	51.9	51.8	52.0	52.9	52.1	51.4	51.2	51.2	51.1	51.1	51.1	51.1
	여성	48.1	48.2	48.0	47.1	47.9	48.6	48.8	48.8	48.9	48.9	48.9	48.9
15~64세	남성	50.1	50.5	50.6	50.8	51.2	51.3	51.5	51.6	52.0	52.3	52.1	52.0
	여성	49.9	49.5	49.4	49.2	48.8	48.7	48.5	48.4	48.0	47.7	47.9	48.0
65세 이상	남성	41.2	37.4	37.4	38.3	40.9	43.2	44.3	45.2	45.9	46.2	47.3	48.4
	여성	58.8	62.6	62.6	61.7	59.1	56.8	55.7	54.8	54.1	53.8	52.7	51.6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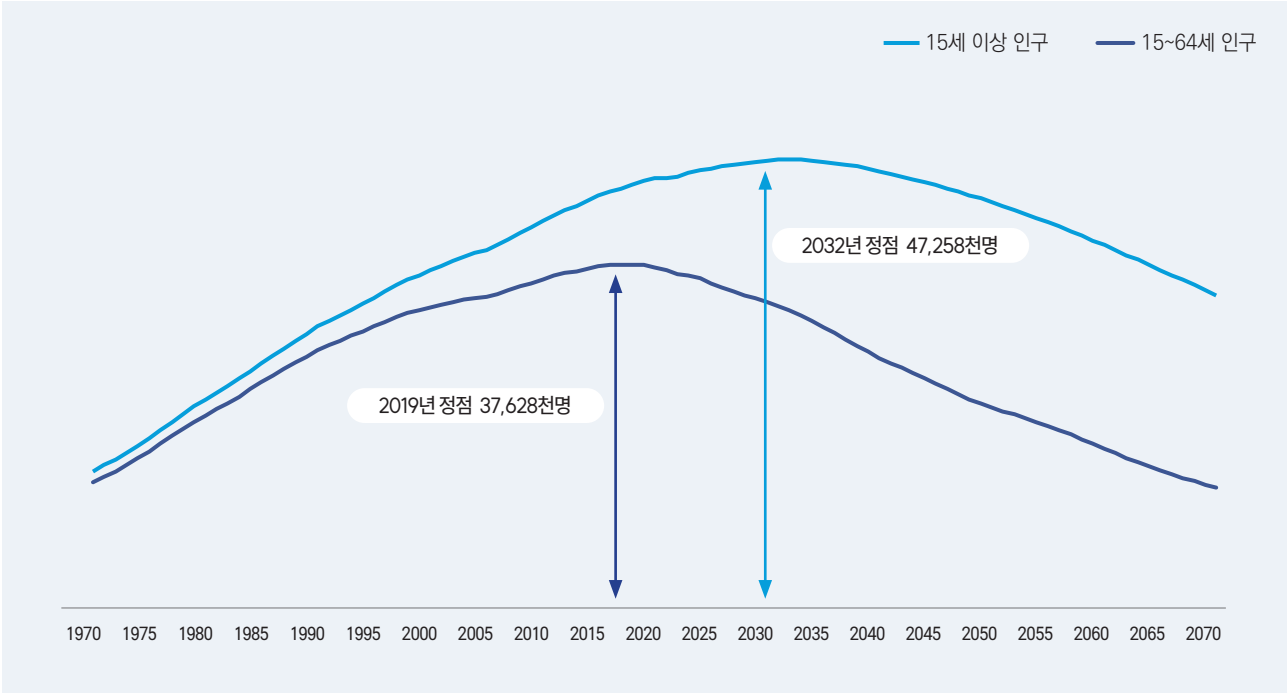
(단위: %)

15세이상 인구



15세이상 인구는 2032년 4,72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3,763만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약 4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전망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6,426	47,146	46,180	43,356	39,369	34,789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5,912	34,166	29,029	24,448	20,687	17,111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주)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로 지칭함

(단위: 천명)

성별 15세이상 인구



1970년 이후 15세이상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항상 많았으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15~64세 인구는 1969년부터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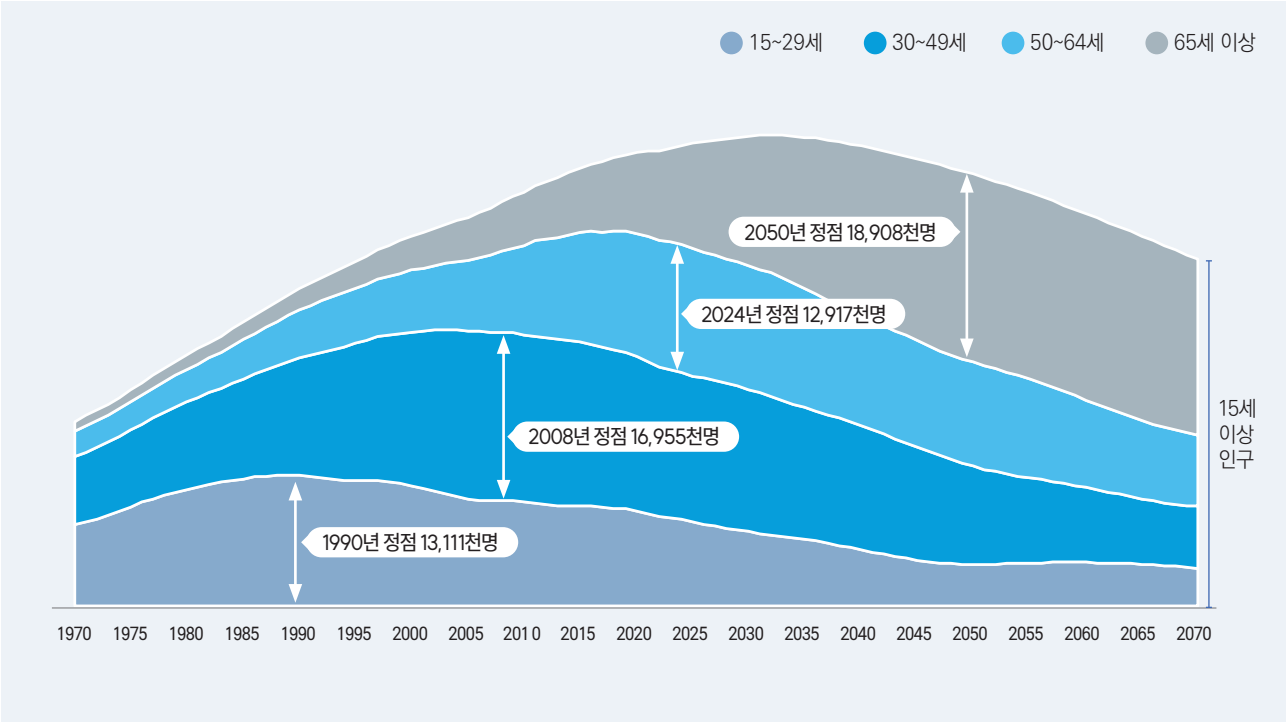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합계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6,426	47,146	46,180	43,356	39,369	34,789
	남성	9,195	12,528	15,861	18,422	20,725	22,685	23,143	23,498	22,973	21,526	19,616	17,448
	여성	9,336	12,645	16,035	18,675	20,850	22,846	23,283	23,647	23,208	21,829	19,753	17,340
15~64세	합계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5,912	34,166	29,029	24,448	20,687	17,111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482	17,636	15,099	12,789	10,782	8,898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7,430	16,529	13,930	11,659	9,905	8,213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연령별 15세이상 인구

15세이상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중년층(30~49세), 장년층(50~64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65세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70년에 고령자 인구 비중이 15세이상 인구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장년층 인구는 2024년을 정점으로 감소 진행 중
- 고령층 인구는 205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구 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15세 이상 인구	46,426 (100.0)	47,146 (100.0)	46,180 (100.0)	43,356 (100.0)	39,369 (100.0)	34,789 (100.0)
15~29세 인구	8,404 (18.1)	7,441 (15.8)	5,644 (12.2)	4,154 (9.6)	4,359 (11.1)	3,791 (10.9)
30~49세 인구	14,693 (31.6)	14,304 (30.3)	12,440 (26.9)	9,866 (22.8)	7,507 (19.1)	6,187 (17.8)
50~64세 인구	12,816 (27.6)	12,421 (26.3)	10,945 (23.7)	10,428 (24.1)	8,821 (22.4)	7,133 (20.5)
65세 이상 인구	10,514 (22.6)	12,980 (27.5)	17,151 (37.1)	18,908 (43.6)	18,682 (47.5)	17,677 (50.8)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는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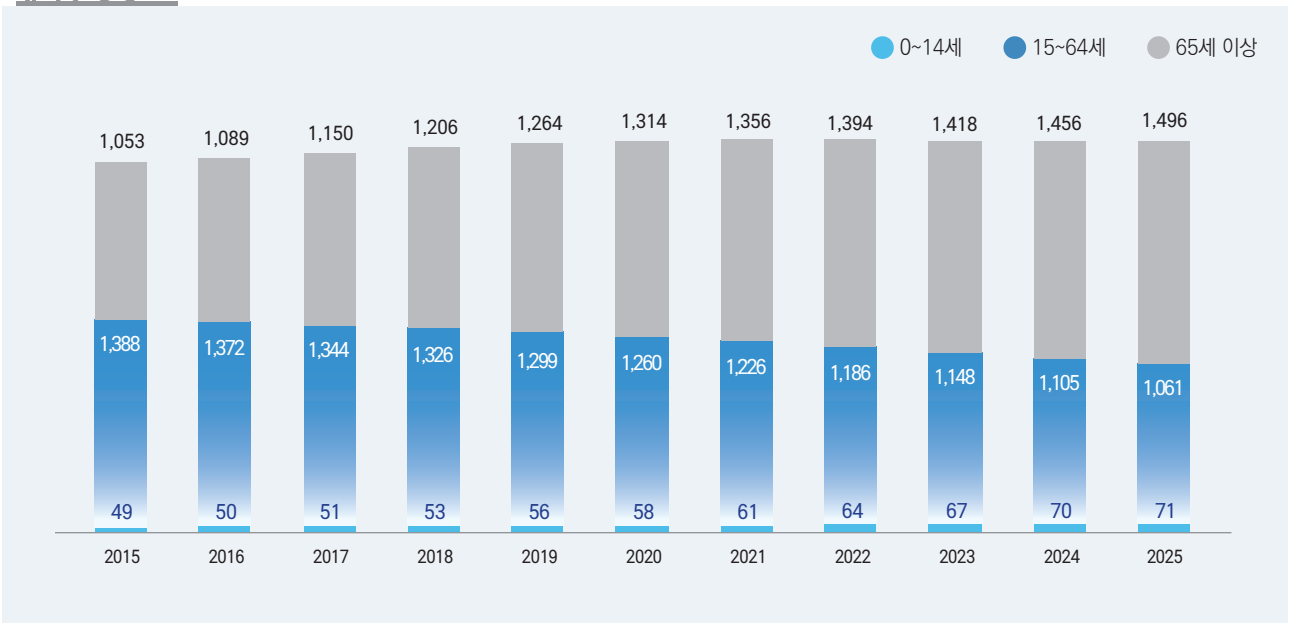
장애인 인구



2025년 등록장애인은 262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 매년 신규등록 장애인 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증가세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6.9%로 지속적 증가세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5년)42.3% 〈 ('20년) 49.9% 〈 ('24년) 55.3% 〈 ('25년)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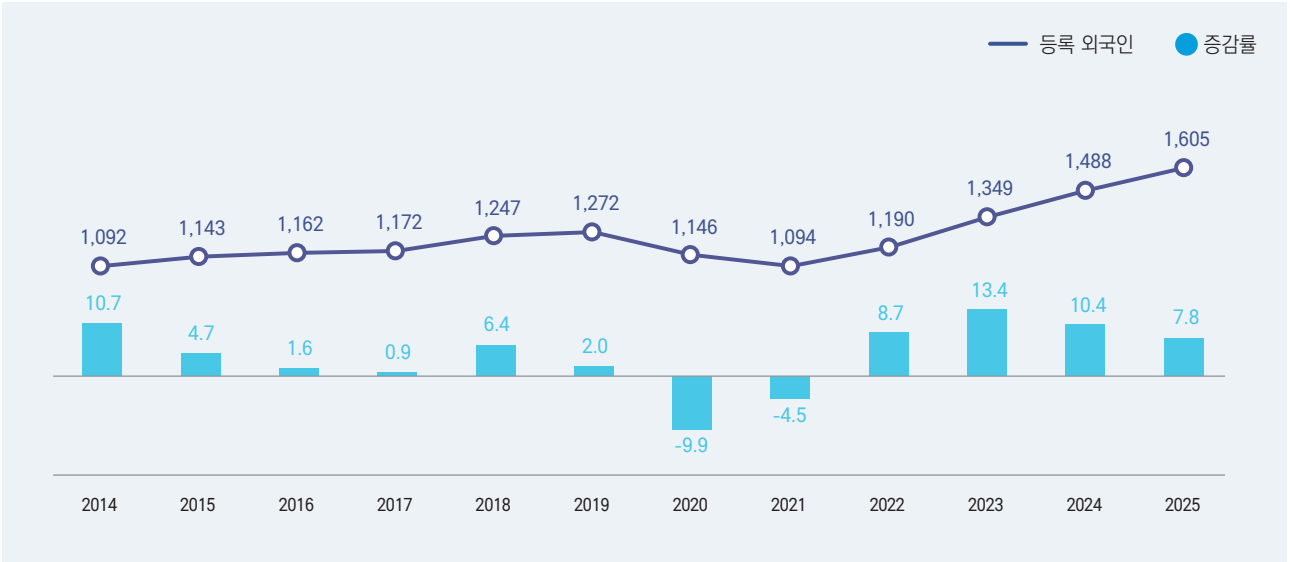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단위: 천명)

등록 외국인 인구

2025년 외국인 수는 160만명으로 전년대비 12만명(7.8%) 증가했다.

- 외국인 수는 COVID-19(2020년~2021년) 시기를 제외하고 점진적 상승 추세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주) 등록외국인: 90일 넘게 체류하려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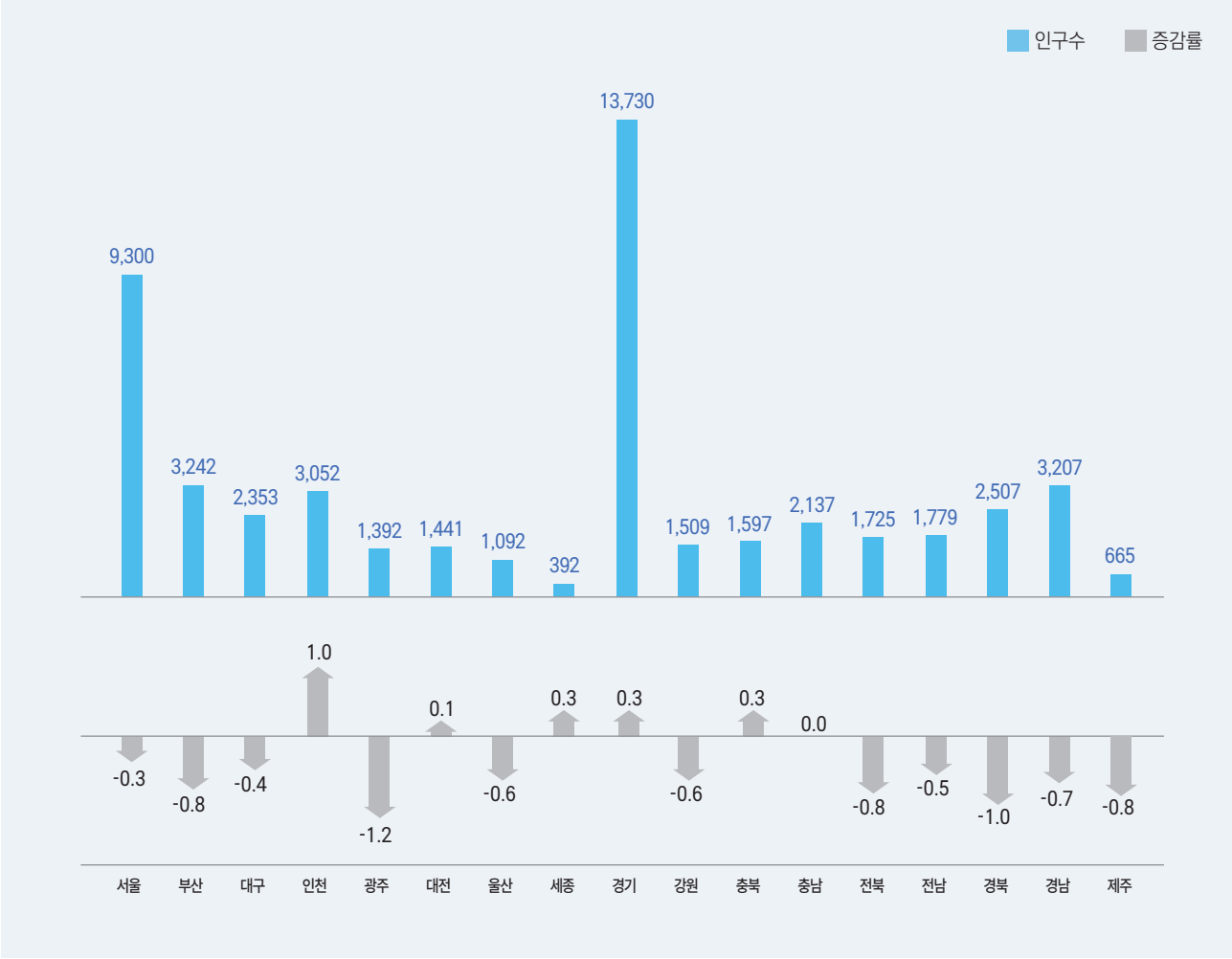
2

지역별 인구동향

시·도별 인구수 및 증감률

2025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51.0%를 차지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구증감률은 인천(1.0%), 충북(0.3%), 세종(0.3%), 경기(0.3%) 순으로 높으며, 광주(-1.2%)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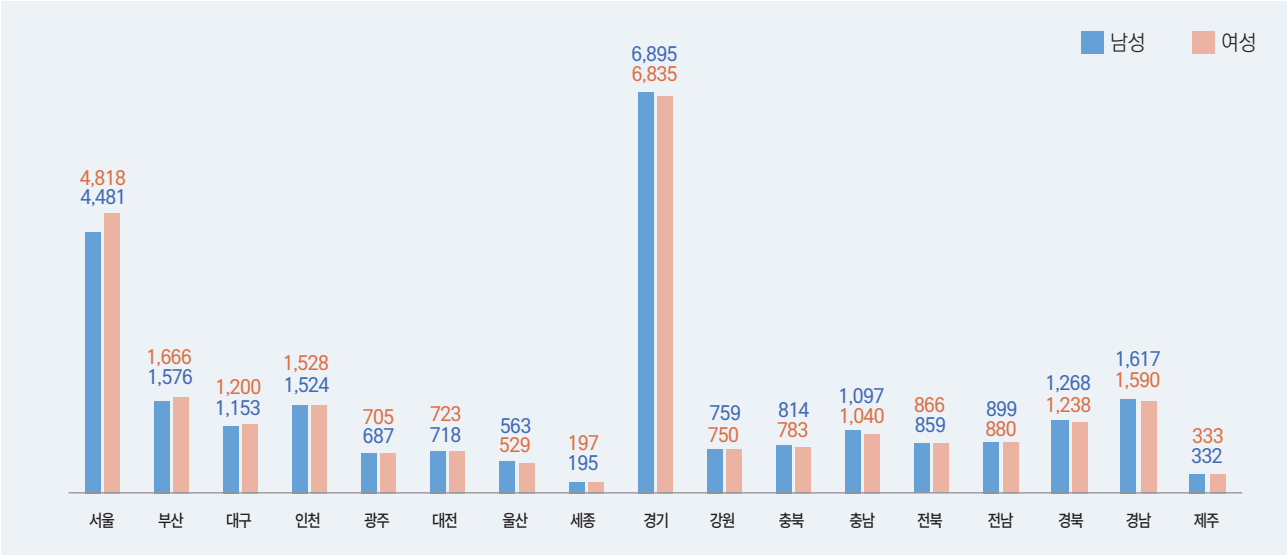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5년)

(단위: 천명, %)

시·도별 성별 인구

2025년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51.8%)이고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51.6%)이다.

-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시·도는 여성 비중이, 울산·충남·충북 등 8개 시·도는 남성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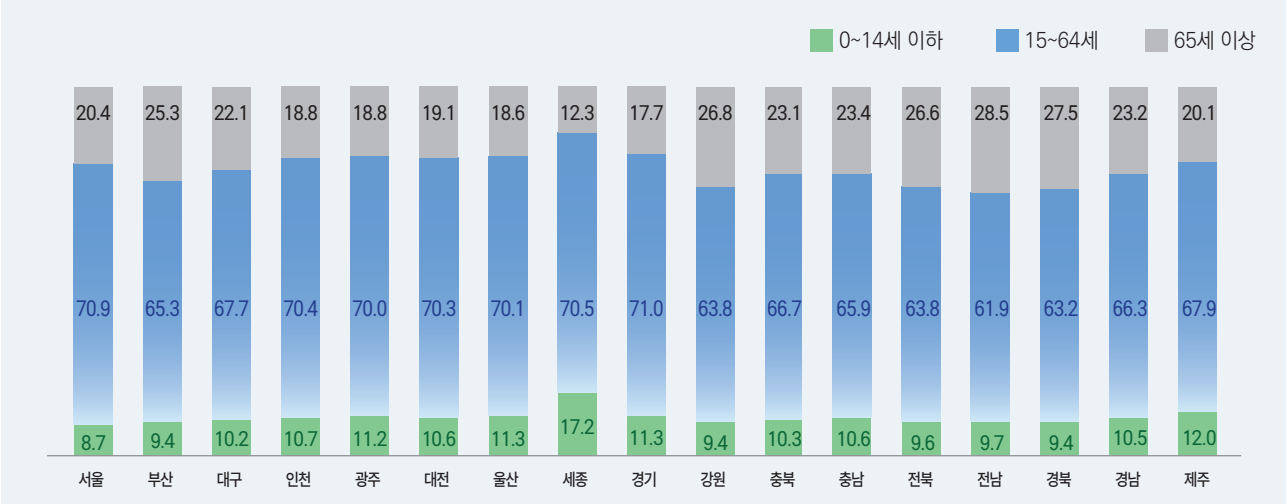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5년) (단위: 천명)

시·도별 연령별 인구

2025년 15~64세 인구비중은 대체로 특·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높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도지역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

- 시·도별 0~14세 이하의 비중은 대체로 8~11% 수준인데, 세종(17.2%), 제주(12.0%)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세종은 0~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고(17.2%),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낮음(12.3%)
- 전남은 15~6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낮고(61.9%),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높음(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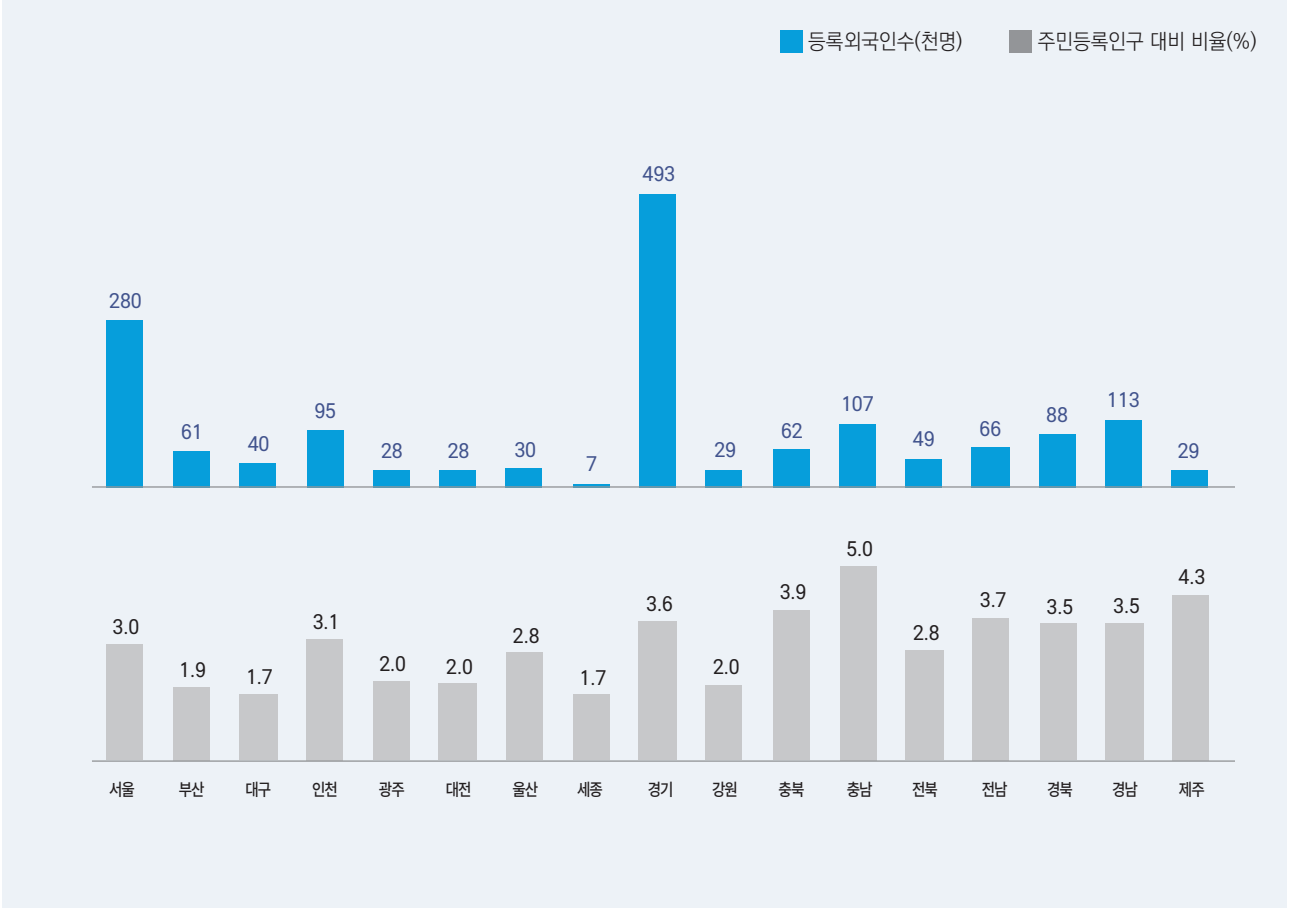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5년) (단위: %)

시·도별 등록외국인수



2025년 등록외국인은 160만명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 등록외국인은 경기(49.3만명), 서울(28.0만명), 경남(11.3만명) 순으로 많음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충남에서 5.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세종과 대구는 1.7%로 가장 낮음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25년)
주) 통계공표시기: 작성기준 연도 익년 7월

참고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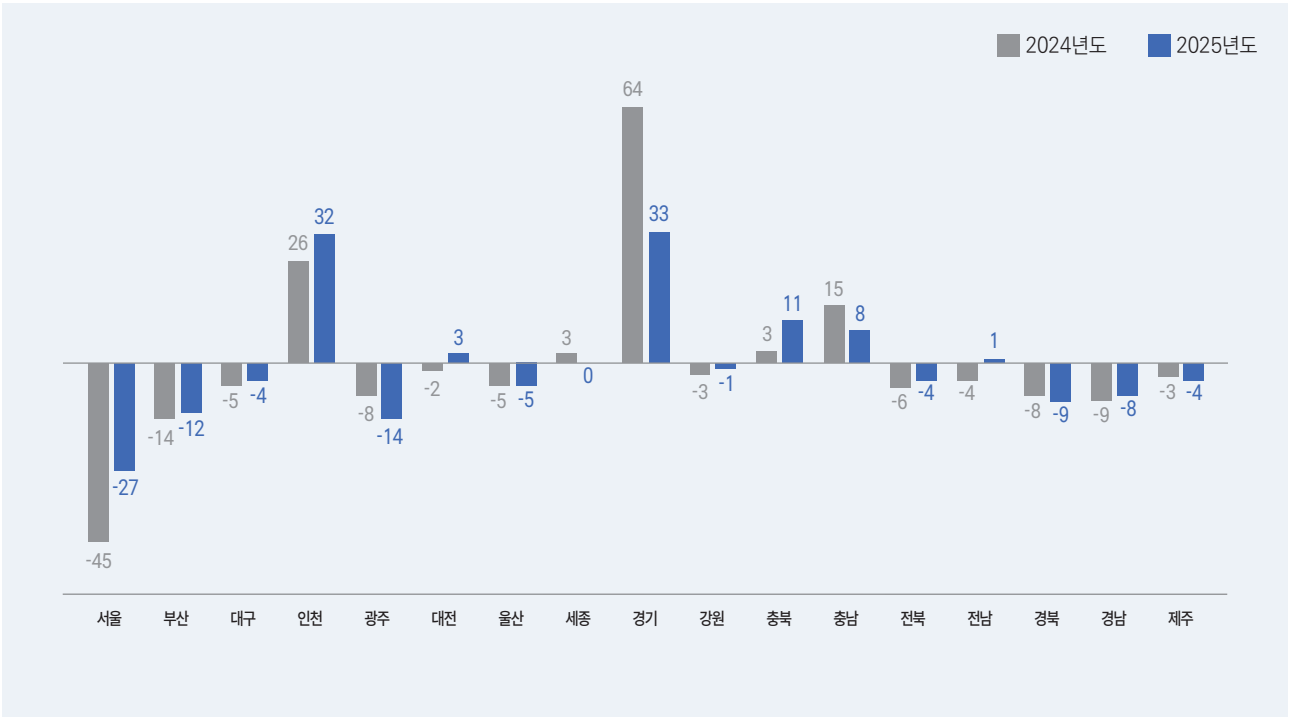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시·도별 인구 순이동



2025년 국내인구이동은 서울의 순전출(타 시·도로 이동)이 2.7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의 순전입(타 시·도에서의 이동)이 3.3만명으로 가장 많다.

- 경기(3.3만명), 인천(3.2만명), 충북(1.1만명), 충남(0.8만명), 대전(0.3만명), 전남(0.1만명) 6개 시·도는 순유입, 나머지 11개 시·도는 순유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이동=전입-전출, '25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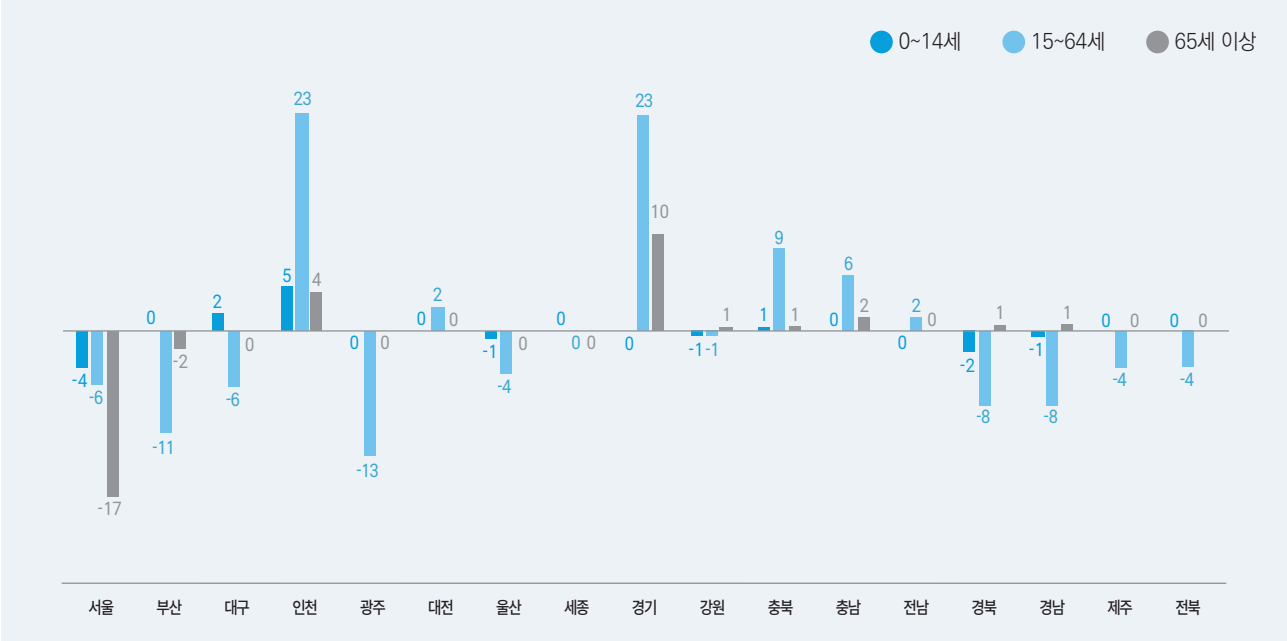
참고

- 국내인구이동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 부동산 경기나 고용상황 등에 따라 다소 증감을 나타냄
-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변화, 경제성장률둔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감소 추세
-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위장신고 등으로 사실 상의 이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도 간 연령별 인구 순이동

2025년 15~64세 순전출은 광주,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크고, 순전입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순으로 큼

- 특히, 서울은 전 연령대에서 순전출이 크고, 경기는 0~14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전입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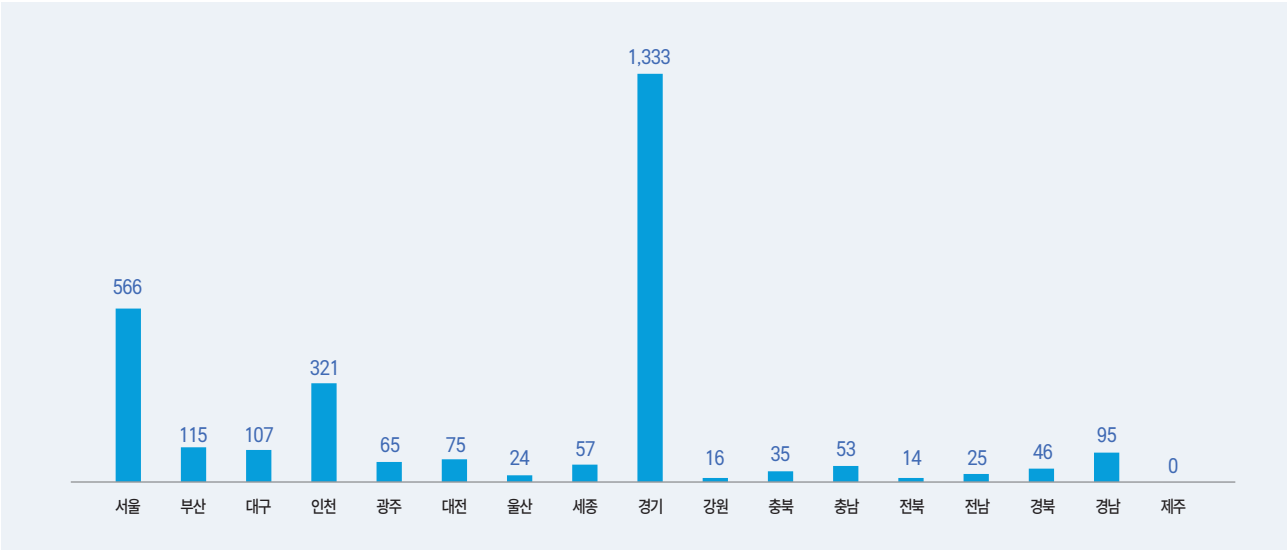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이동=전입-전출, '25년)

(단위: 천명)

시·도 간 통근자

시·도 간 통근자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고 이들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화된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20년)

(단위: 천명)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경제

① 경제동향
② 산업동향
③ 소비 및 물가 동향
④ 수출·입 동향
⑤ 사업체 동향
⑥ 분배 동향
⑦ 지역별 경제동향



1 경제동향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2025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년(2.2%)대비 1.1%p 하락하였고, 1인당 GDP(명목)는 3.6만 US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7%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약 4%대로 하락
- 2008년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3% 내외로 하락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7%)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증가 전환(+4.7%)하여 2024년까지 약 2% 대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1.1%로 둔화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1인당 GDP = GDP ÷ 총인구, 총인구수는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

(단위: 천US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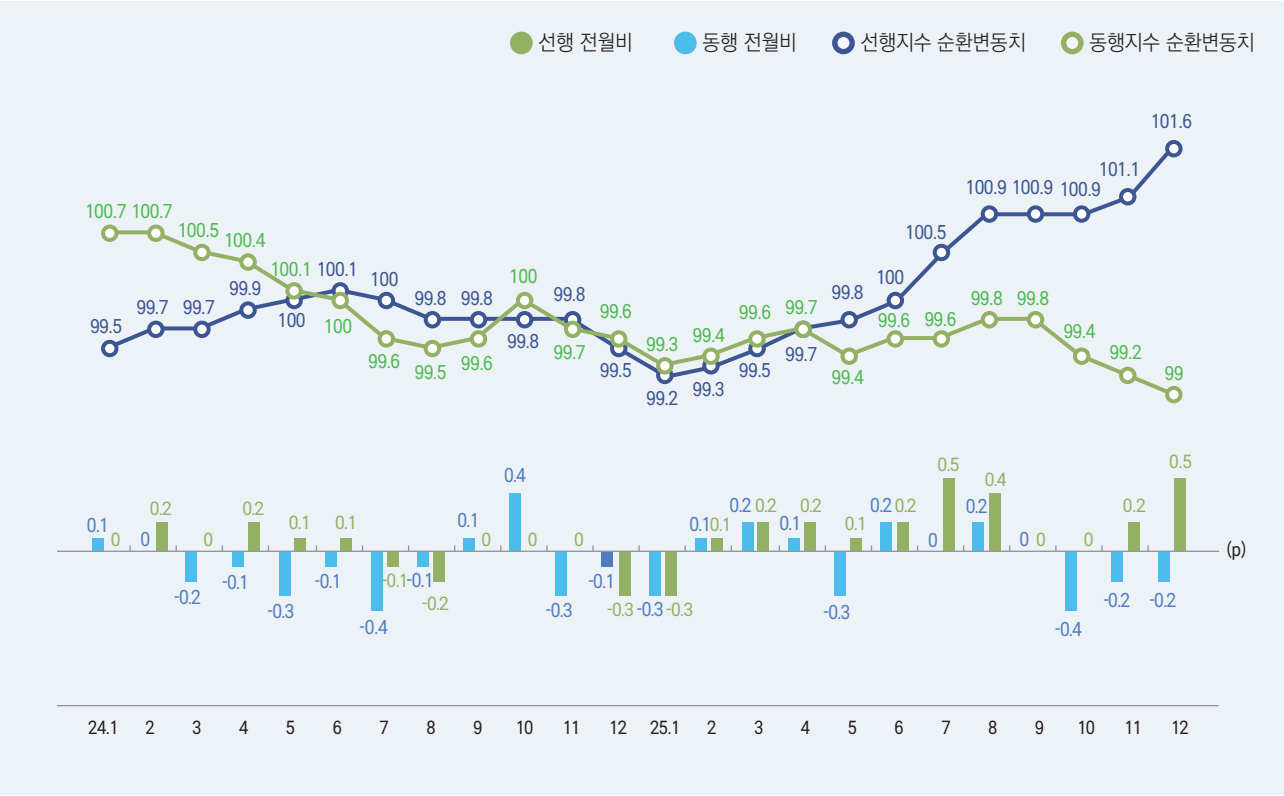
용어 정리

-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
- **국내총생산(GDP):**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도 포함

경기종합지수

2025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연중 100보다 낮게 나타나며 체감경기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예측된다.

- 추세치=100을 기준으로 순환변동치가 100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100을 하회하면 추세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순환변동치 수준보다는 방향 중심으로 해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불경기 〈 100 〈 호경기, p)

주 1) 선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7개 지표(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 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등)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2) 동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7개 지표(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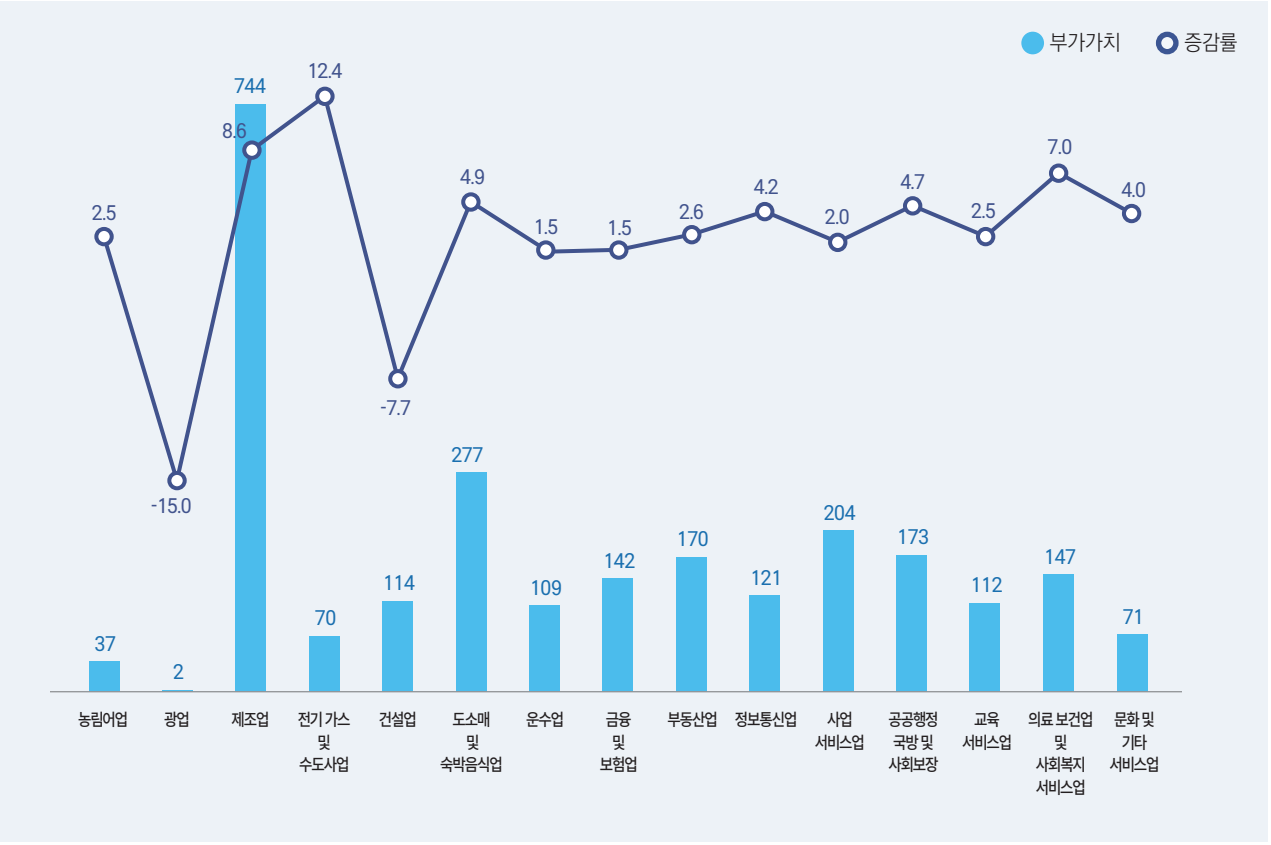
용어 정리

-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부문별(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
  ☞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대표적 종합경기지표로 활용

2 산업동향

업종별 부가가치

2025년 업종별 생산 비중(총부가가치 기준, 잠정치)은 제조업(29.9%),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1.1%), 사업서비스업(8.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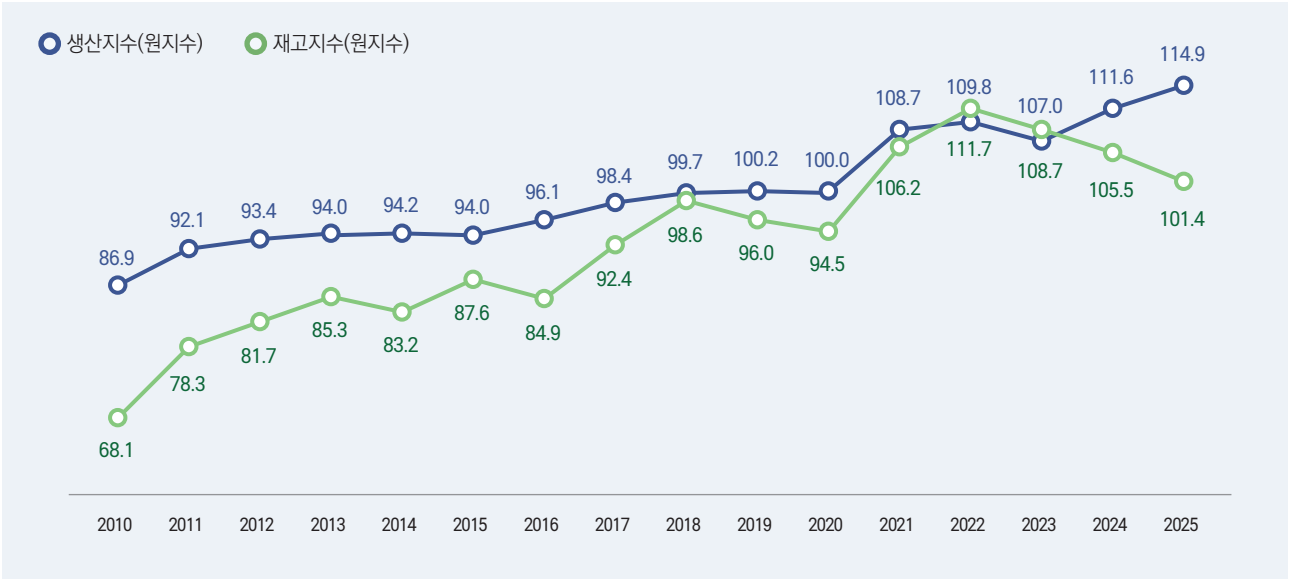
용어 정리

- **국민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회계규정을 근거로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시경제계정표, 대차대조표를 말함
  ☞ 경제분석, 의사결정, 정책입안을 위해 경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회계체계를 제공

제조업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2025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114.9로 2020년(=100) 대비 14.9% 높으며, 제조업 재고지수(원지수)는 10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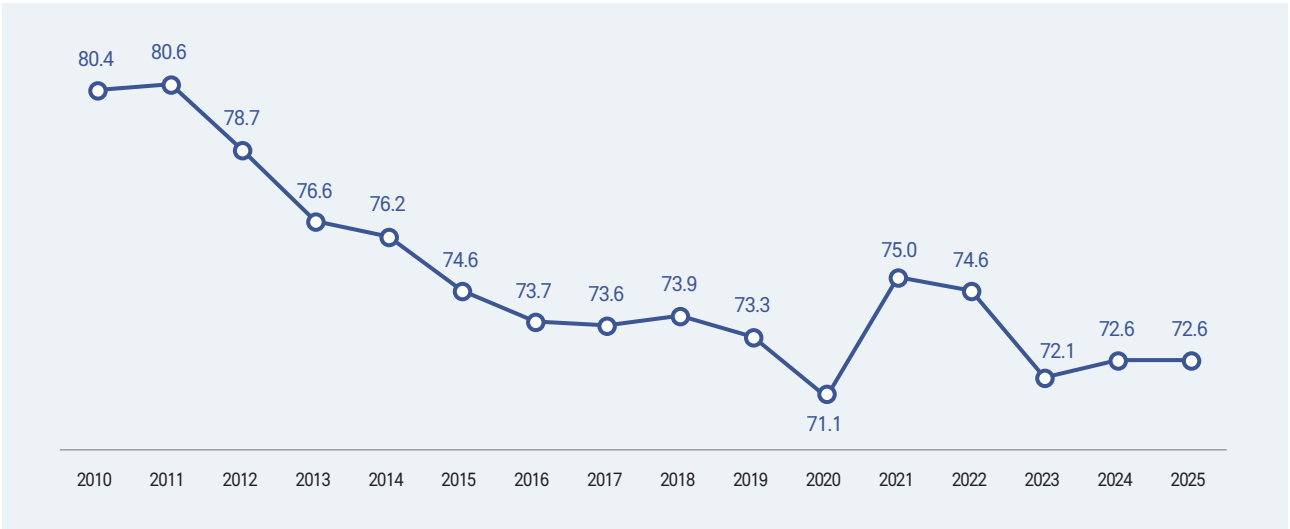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제조업 생산지수와 재고지수는 추세적 증가를 보이며, 2022년과 2023년은 재고지수가 생산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2020=100)
주 1)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의 생산량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산업 생산 수준을 반영
2) 제조업 재고지수: 제조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 수준을 나타냄, 경기 후행지표 역할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23년(72.1%)까지 생산활동 위축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반등한 이후 2025년에도 72.6%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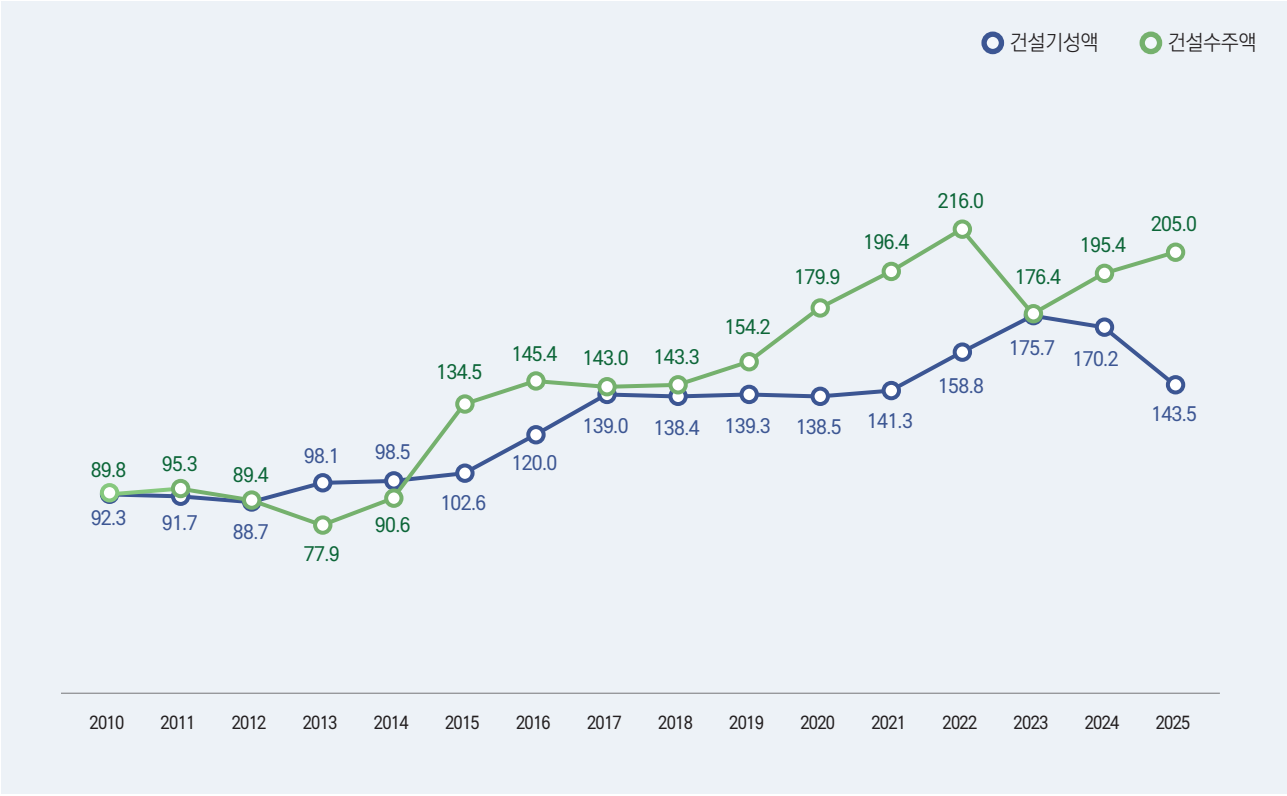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체가 보유 중인 생산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단위: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

2025년 건설수주액은 205.0조로 전년대비 9.6조(+4.9%)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액은 143.5조로 전년대비 26.7조(-15.7%) 감소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단위: 조원)
주) 국가데이터처 발표 건설수주액은 건설경기동향조사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와 결과치에 차이 발생

용어 정리

-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의미, 건축허가 통계와 함께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로서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실질금액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의 감안이 필요하고, 대규모 건설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월별 진폭이 큼

기계수주액 및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지수는 추세적 상승 중이며,
2025년 기계수주액은 34.6조로 전년대비 0.6조(+1.8%) 증가하였고,
설비투자지수(잠정)는 112.4로 전년대비 1.2%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기계수주동향조사, 산업활동동향(설비투자지수 2020=100)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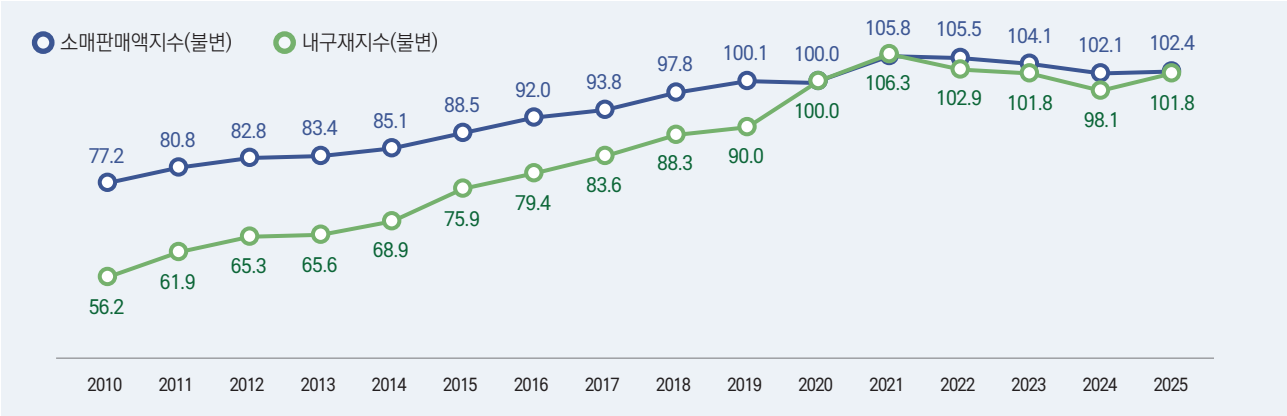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설비투자지수**는 신속한 설비투자 동향파악을 위해 매월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의 투자액을 추정하여 지수화한 것
- **설비투자**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중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함.
  - ☞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총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소비 및 물가 동향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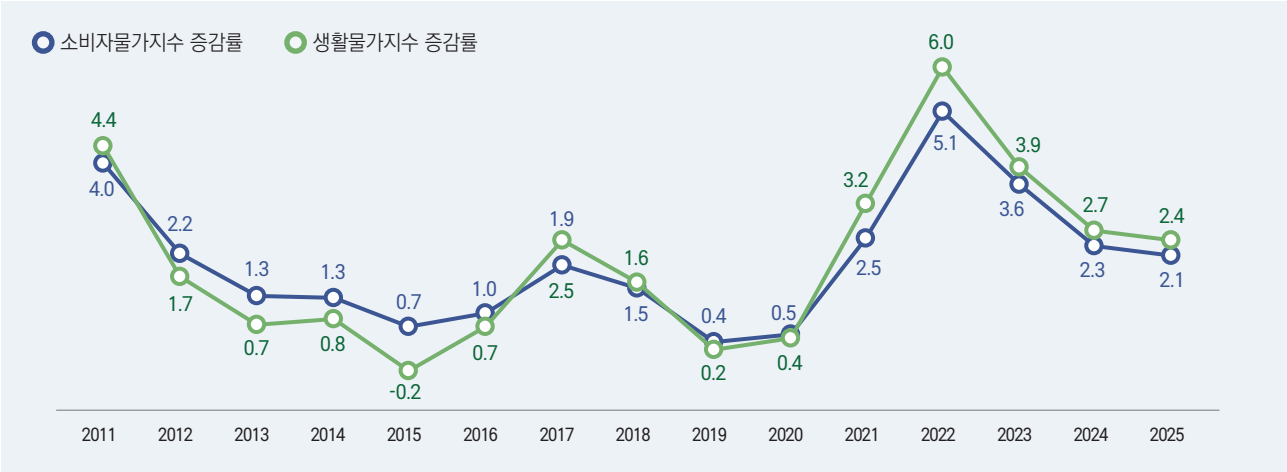
2025년 소비판매액지수는 102.4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고 내구재지수 역시 101.8로 전년대비 3.8%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2020=100) (단위: p)
주) 내구재: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고가 상품이 해당됨,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가구 등이 해당

물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년대비 2.1% 상승, 생활물가지수도 119.6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단위: %)

용어 정리

-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해야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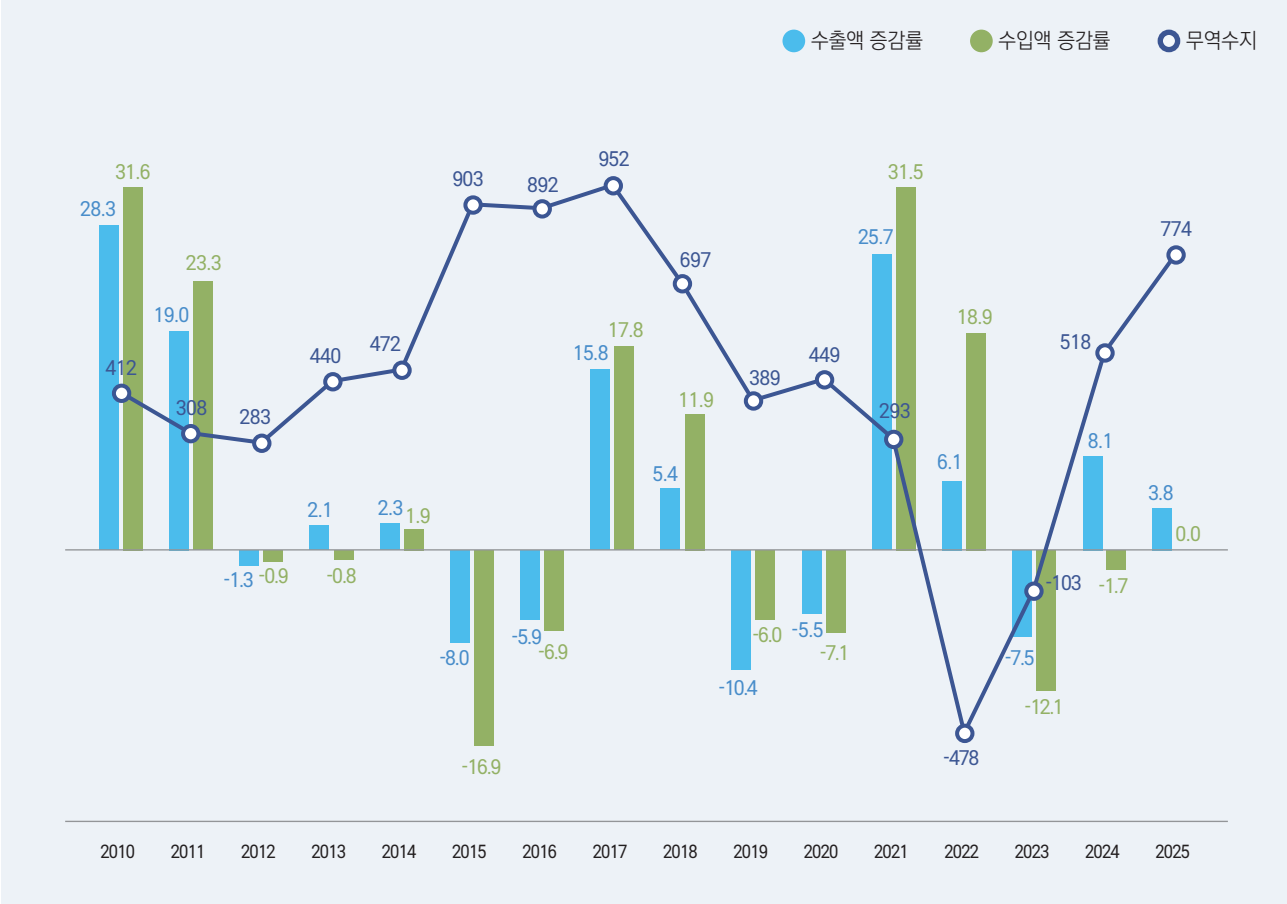
4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



2025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6,319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0.0%)이었다.
한편, 무역수지는 774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518억 4천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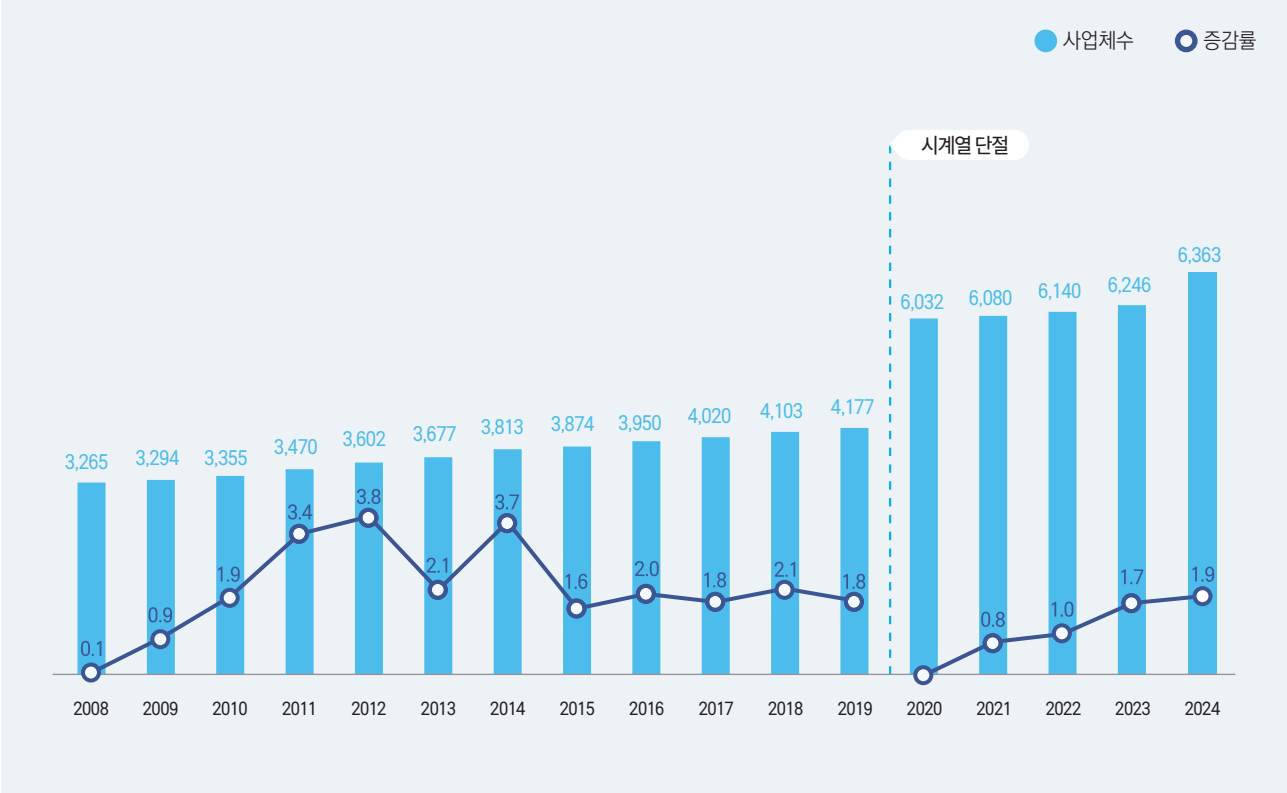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

(단위: 억달러, %)

사업체 동향

사업체 수

2024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636만개소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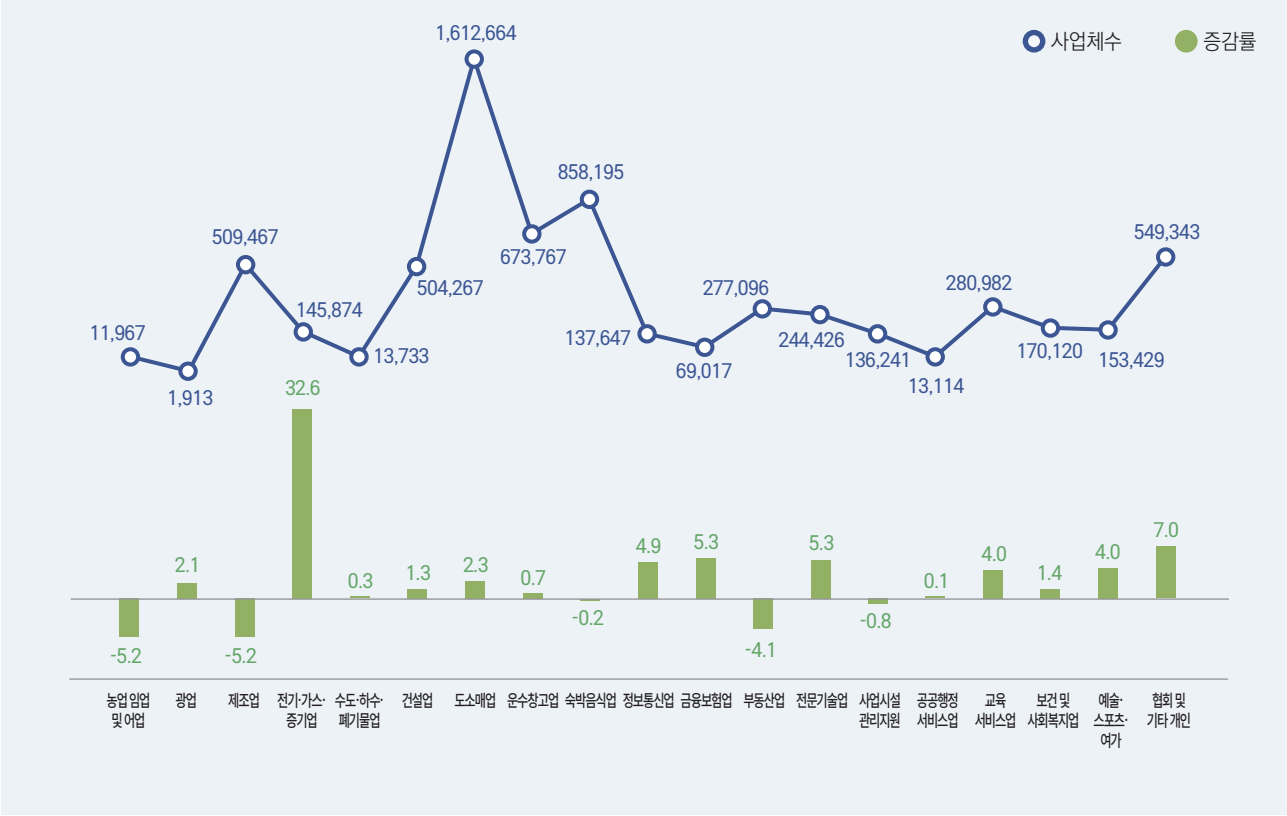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천개소, %)
주) 2021년 기준 조사부터 등록기반(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으로 작성하고 통계표는 2020년부터 수록하여 2020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 수

2024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도소매(161만개), 숙박음식업(86만개), 운수창고업(67만개), 협회기타개인(55만개) 순이며, 전기·가스·증기업(32.6%), 협회기타개인(7.0%), 금융보험업(5.3%)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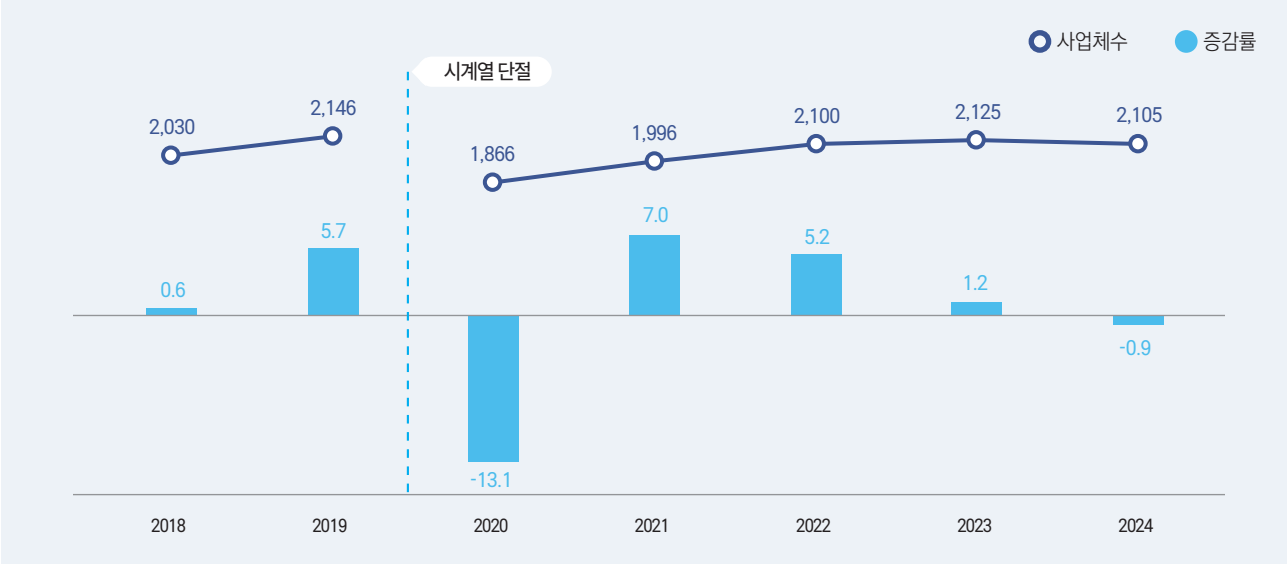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개소, %)

구 분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6,363,262	[100.0]	〈1.9〉	6,358,402	(100.0)	4,86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1,967	[0.2]	〈-5.2〉	11,962	(0.2)	5	(0.1)
광업	1,913	[0.0]	〈2.1〉	1,911	(0.0)	2	(0.0)
제조업	509,467	[8.0]	〈-5.2〉	508,674	(8.0)	793	(16.3)
전기 · 가스 · 증기업	145,874	[2.3]	〈32.6〉	145,840	(2.3)	34	(0.7)
수도 · 하수 · 폐기물업	13,733	[0.2]	〈0.3〉	13,730	(0.2)	3	(0.1)
건설업	504,267	[7.9]	〈1.3〉	503,885	(7.9)	382	(7.9)
도소매업	1,612,664	[25.3]	〈2.3〉	1,612,487	(25.4)	177	(3.6)
운수창고업	673,767	[10.6]	〈0.7〉	673,552	(10.6)	215	(4.4)
숙박음식업	858,195	[13.5]	〈-0.2〉	858,161	(13.5)	34	(0.7)
정보통신업	137,647	[2.2]	〈4.9〉	137,374	(2.2)	273	(5.6)
금융보험업	69,017	[1.1]	〈5.3〉	68,855	(1.1)	162	(3.3)
부동산업	277,096	[4.4]	〈-4.1〉	277,042	(4.4)	54	(1.1)
전문기술업	244,426	[3.8]	〈5.3〉	243,936	(3.8)	490	(10.1)
사업시설관리지원	136,241	[2.1]	〈-0.8〉	135,546	(2.1)	695	(14.3)
공공행정서비스업	13,114	[0.2]	〈0.1〉	12,542	(0.2)	572	(11.8)
교육서비스업	280,982	[4.4]	〈4.0〉	280,712	(4.4)	270	(5.6)
보건 및 사회복지업	170,120	[2.7]	〈1.4〉	169,485	(2.7)	635	(13.1)
예술 · 스포츠 · 여가	153,429	[2.4]	〈4.0〉	153,384	(2.4)	45	(0.9)
협회 및 기타 개인	549,343	[8.6]	〈7.0〉	549,324	(8.6)	19	(0.4)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4년) (단위: 개소, %)
주) [ ] 업종별 비중, 〈 〉 전년대비 증감률, ( ) 업종내 규모별 비중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는 210만개로 전년에 비해서 1.9만개(-0.9%) 감소하였다.



구 분	전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하수·폐기물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 음식업
전규모	2,105,093	7,225	897	299,548	1,938	9,270	136,496	449,833	49,980	345,257
1~4인	1,324,844	4,291	394	156,760	993	4,318	72,435	327,709	26,837	239,133
5~9인	442,699	1,654	172	65,952	266	2,028	36,105	83,753	8,956	84,311
10~29인	247,531	985	251	55,338	206	2,027	21,246	31,525	8,557	19,839
30~49인	43,455	203	58	10,801	147	548	3,311	3,678	2,375	1,183
50~99인	28,245	69	17	6,467	197	286	1,860	1,987	1,881	597
100~199인	10,896	19	1	2,715	66	48	885	847	900	125
200~299인	3,177	1	2	727	29	12	257	155	258	33
300인 이상	4,246	3	2	788	34	3	397	179	216	36

구 분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 관리·지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규모	55,249	43,394	93,072	118,771	56,655	89,836	151,635	45,244	150,793
1~4인	35,031	15,685	66,500	74,696	34,664	55,487	52,917	31,243	125,751
5~9인	8,324	10,868	18,035	23,773	8,480	19,927	45,396	8,948	15,751
10~29인	7,650	11,886	7,523	14,303	7,517	10,394	36,847	3,798	7,639
30~49인	1,854	2,712	560	2,613	2,231	1,832	7,847	501	1,001
50~99인	1,304	1,674	238	1,846	1,684	1,546	5,803	347	442
100~199인	629	317	117	777	961	340	1,665	324	160
200~299인	190	87	40	283	394	79	552	51	27
300인 이상	267	165	59	480	724	231	608	32	2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단위: 개소, %)

주 1) 규모는 전체 종사자수(자영업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기준

2) '21년 기준 조사부터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모집단인 전국사업체조사를 등록기반(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으로 작성하여 '20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

참고

-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국가데이터처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로부터 ①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②공무원 재직기관, ③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작성한 가공 통계임

  ☞ 산업분류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6

분배 동향

지니계수

2024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0.323)보다 소폭 높아졌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OECD 작성기준(Wave7)에 따라 작성
2)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다 '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
* 2024년 기준 OECD 평균(0.335)은 4개 국가의 평균치이므로 해석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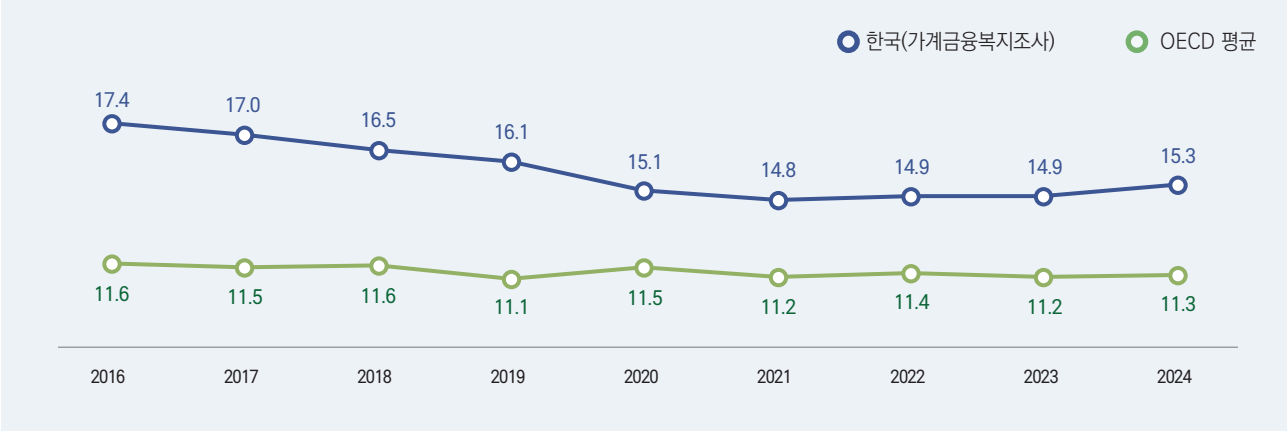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 ☞ 지니계수는 국가 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비교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가리키며, 소득 불평등의 증감을 알 수 있음

상대적 빈곤율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보다 0.4%p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1.3%)보다 4.0%p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
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OECD 작성기준(Wave7)에 따라 작성, 2011~2019년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급여 항목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재작성
* 2024년 기준 OECD 평균(11.3%)은 4개 국가의 평균치이므로 해석시 유의

용어 정리

-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곧 빈곤가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과 함께 자주 활용

저임금근로자 비율

2025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5.8%로 전년(16.1%)보다 0.3%p 소폭 낮아졌다

-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2024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6.1%)은 미국(22.7%), 캐나다(18.0%)보다 낮으나, OECD 평균(13.9%) 보다 높은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OECD「Benefits, earnings and wages」 (단위: %)
주) 저임금근로자 비율 = (월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 2025년 기준 OECD 평균(13.3%)은 10개 국가의 평균치이므로 해석시 유의

용어 정리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 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 ☞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7

지역별 경제동향

시·도별 총생산액

2024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 총생산이 전국의 52.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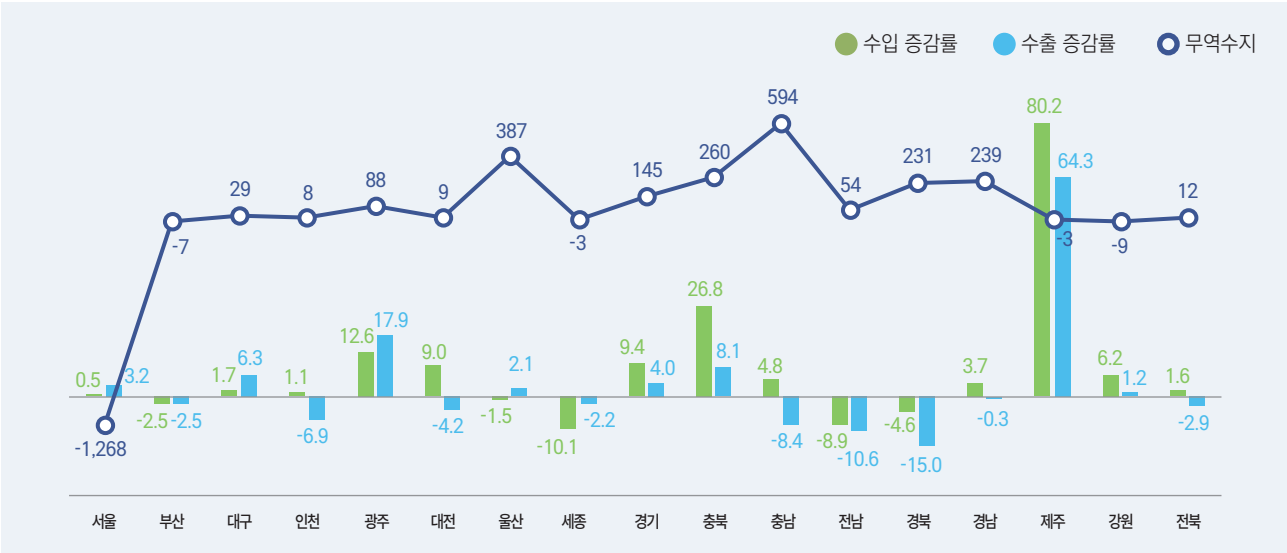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24년)

(단위: %)

시·도별 수출·입

2025년 무역수지는 서울, 강원,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적자로 나타난 반면, 충남, 울산 등 12개 시·도에서 흑자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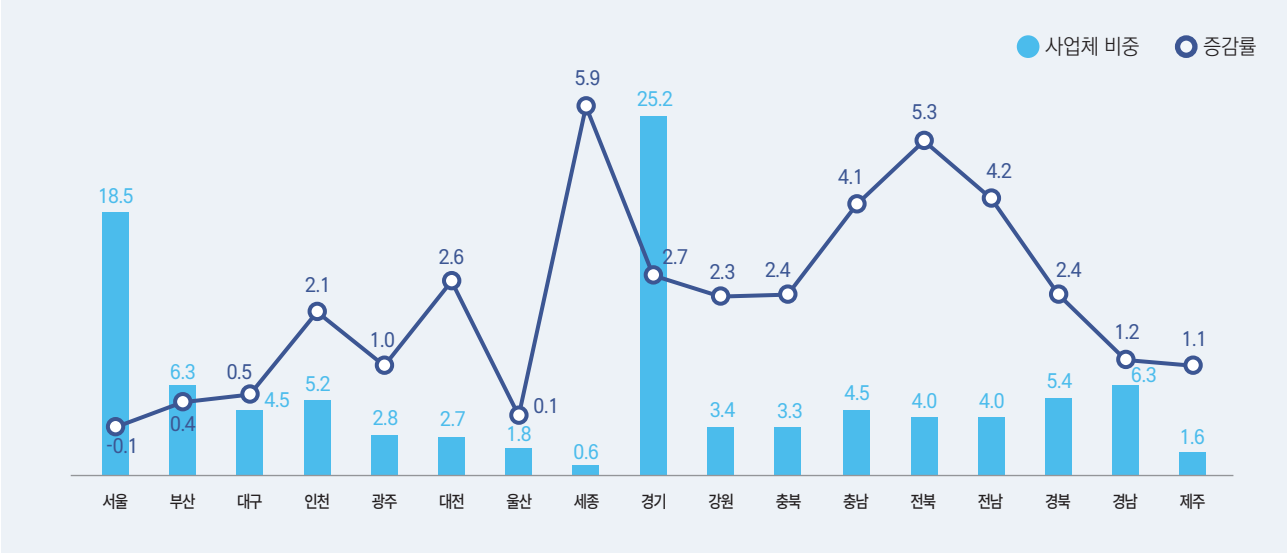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25년)

(단위: 억달러, %)

시·도별 사업체 수

2024년 사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8.9%로 집중되어 있고,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24.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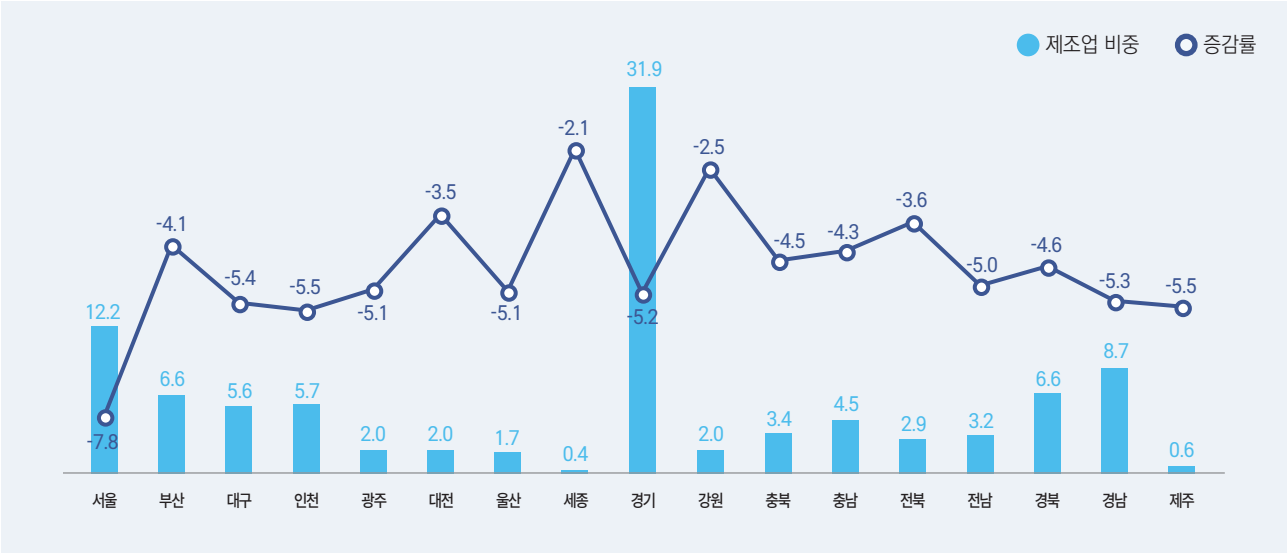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4년) (단위: %)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 수

2024년 제조업 사업체는 수도권(49.8%)과 영남권(29.3%)이 전체의 79.0%를 차지하고 있다.

- 제조업 사업체 증감률은 서울(-7.8%), 인천(-5.5%), 제주(-5.5%) 순이며, 17개 시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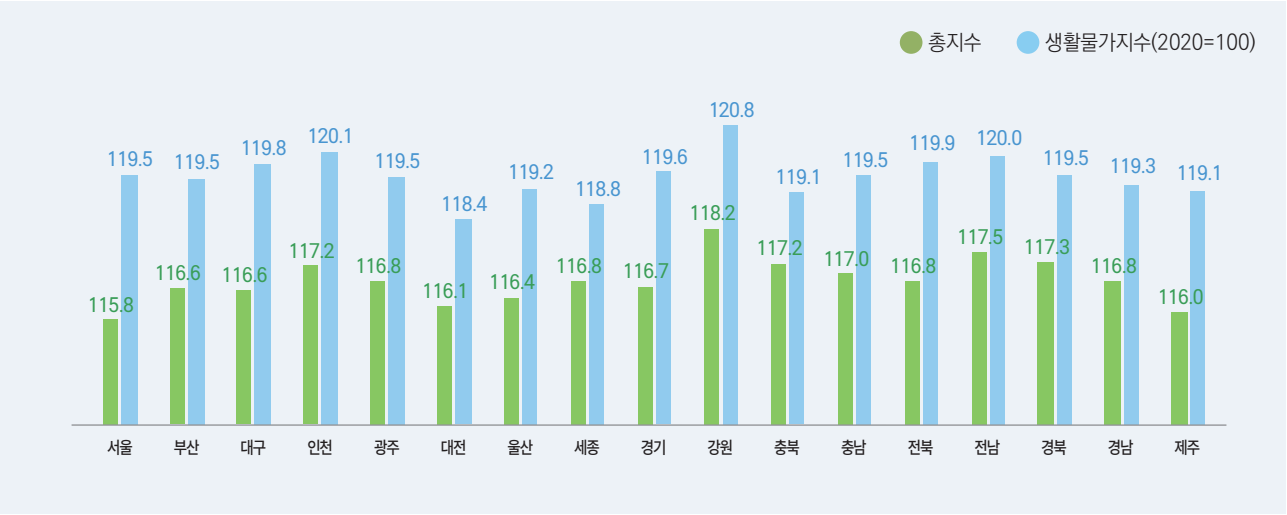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24년) (단위: %)

시·도별 물가

2025년 시도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1.8~2.4%, 생활물가 2.0~2.7%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는 강원이 118.2로 가장 높고, 서울이 115.8로 가장 낮음
- 생활물가는 강원이 120.8로 가장 높고, 대전이 118.4로 가장 낮음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국	102.5	107.7	111.6	114.2	116.6	103.2	109.4	113.7	116.7	119.6
서울	102.1	106.7	110.9	113.5	115.8	102.6	108.4	113.6	116.8	119.5
부산	102.5	107.4	111.3	114.1	116.6	103.0	108.7	113.0	116.5	119.5
대구	102.6	108.0	111.8	114.2	116.6	103.5	109.9	114.2	117.0	119.8
인천	102.6	108.0	111.9	114.8	117.2	103.3	109.5	113.8	117.3	120.1
광주	102.6	107.8	111.8	114.6	116.8	103.5	110.0	114.2	117.1	119.5
대전	102.5	107.5	111.2	113.9	116.1	103.1	109.2	113.0	115.9	118.4
울산	102.5	107.6	111.4	114.0	116.4	103.3	109.4	113.6	116.5	119.2
세종	102.7	108.2	111.5	114.1	116.8	102.9	109.4	112.6	115.6	118.8
경기	102.6	107.7	111.6	114.1	116.7	103.4	109.4	113.6	116.6	119.6
강원	102.8	109.0	113.0	115.6	118.2	103.6	110.6	114.9	117.9	120.8
충북	102.7	108.5	112.4	114.8	117.2	103.5	110.1	113.9	116.4	119.1
충남	102.8	108.7	112.4	114.6	117.0	103.6	110.4	114.2	116.7	119.5
전북	102.6	108.1	111.6	114.2	116.8	103.4	109.9	113.9	116.9	119.9
전남	102.6	108.4	112.2	115.0	117.5	103.4	110.1	114.0	117.2	120.0
경북	102.7	108.7	112.4	114.9	117.3	103.5	110.3	114.1	116.7	119.5
경남	102.5	108.0	111.8	114.3	116.8	103.2	109.5	113.6	116.3	119.3
제주	102.6	108.7	112.0	114.0	116.0	103.5	110.1	113.8	116.1	119.1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2020=100)

(단위: p)

용어 정리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품목 458개를 대상으로 작성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고용

① 노동력 현황
② 취업자 및 고용률
③ 실업자 현황
④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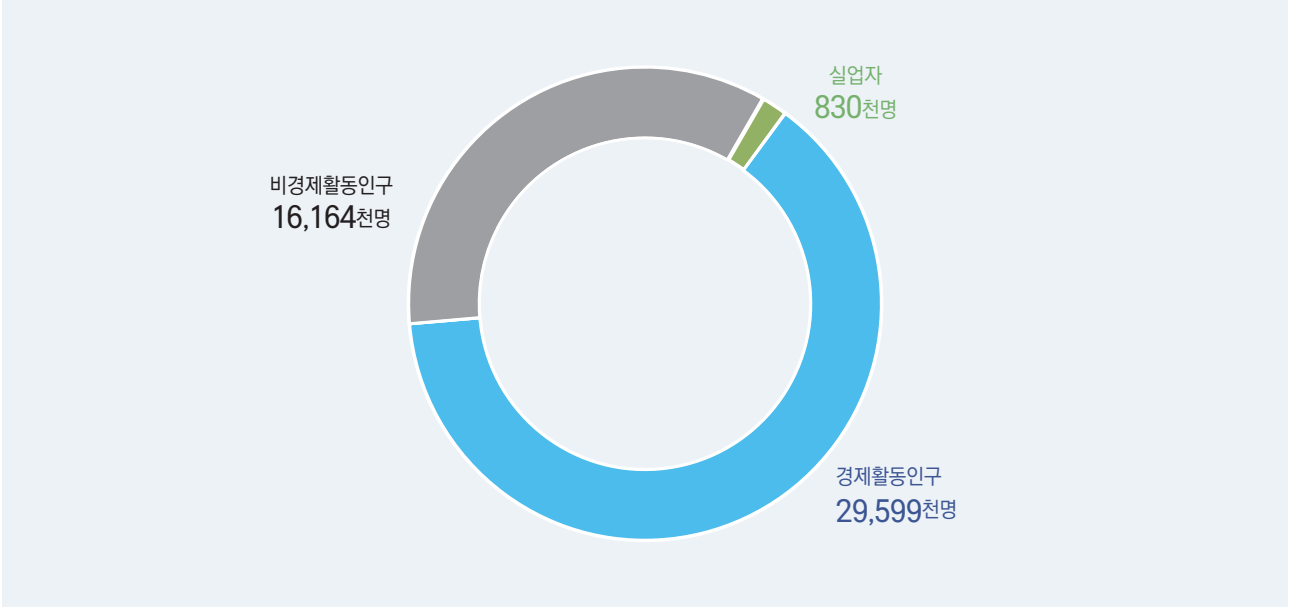
노동력 현황

15세이상 인구

2025년 국내 15세이상 인구*는 4,576만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960만명(64.7%)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명이다.

- '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9,599천명으로 이 중 취업자 28,769천명, 실업자 830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164천명
- 고용률은 62.9%(15~64세 고용률은 69.8%)이며, 실업률은 2.8%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이상 인구는 인구추계의 15세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구 분	합계		남성		여성	
15세이상 인구	45,762	(35,251)	22,575	(17,909)	23,188	(17,341)
경제활동인구	29,599	(25,324)	16,408	(14,109)	13,191	(11,215)
취업자	28,769	(24,622)	15,943	(13,705)	12,826	(10,917)
실업자	830	(702)	465	(404)	365	(298)
비경제활동인구	16,164	(9,927)	6,167	(3,800)	9,997	(6,127)
경제활동참가율	64.7	(72)	72.7	(79)	56.9	(65)
고용률	62.9	(70)	70.6	(77)	55.3	(63)
실업률	2.8	(3)	2.8	(3)	2.8	(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 )는 15~64세 기준 (단위: 천명, %)

2025년 고용동향 ('25년 경제활동인구 구조)



15세이상 인구
4,576.2만명
(+19.2만명, +0.4%)

경제활동인구
2,959.9만명 <64.7%>
(+20.0만명, +0.7%)

비경제활동인구
1,616.4만명 <35.3%>
(-0.8만명, -0.1%)

취업자, 고용률
2,876.9만명, 62.9%
(+19.3만명) (+0.2%p)

실업자, 실업률
83.0만명, 2.8%
(+0.7만명) (+0.0%p)

가사
601.5만명
(+0.7만명)

육아
67.9만명
(-6.4만명)

재학·수강 등
327.5만명
(+0.1만명)

임금근로자
2,231.8만명 <77.6%>
(+27.5만명, +1.2%)

비임금근로자
645.1만명 <22.4%>
(-8.1만명, -1.2%)

청년실업자 실업률
23.1만명 6.1%
(-0.4만명) (+0.2%p)

청년확장실업자 실업률
65.9만명 16.0%
(-1.5만명) (+0.4%p)

쉬었음
255.5만명
(+8.8만명)

청년쉬었음
42.8만명
(+0.7만명)

상용
1,663.6만명 <57.8%>
(+28.3만명, +1.7%)

고용원 有 자영
143.2만명 <5.0%>
(+0.0만명, +0.0%)

취업준비
63.2만명
(+0.5만명)

임시
481.7만명 <16.7%>
(+4.6만명, +1.0%)

고용원 無 자영
418.7만명 <14.6%>
(-3.8만명, -0.9%)

구직단념
36.6만명
(-0.5만명)

일용
86.5만명 <3.0%>
(-5.5만명, -5.9%)

무급가족종사자
83.2만명 <2.9%>
(-4.4만명,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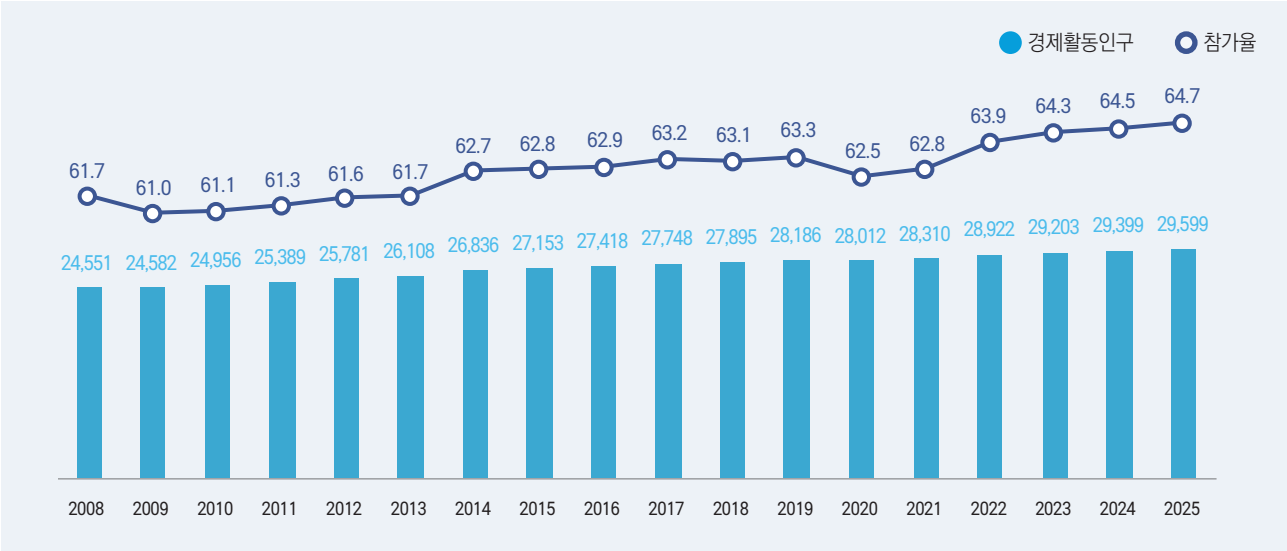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2) < >는 경제·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인구 내 비중, 그 외는 취업자 내 비중
3)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상태별 주요 항목만 기재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그 외의 취업준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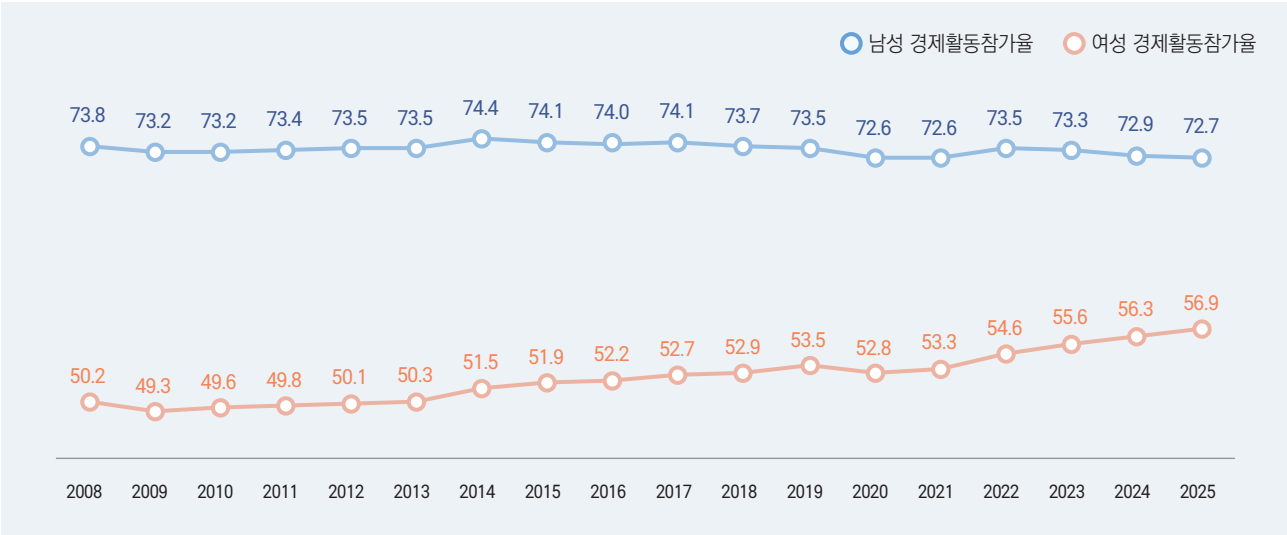


2025년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2년 큰 폭 증가(+1.1%p)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 2025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4.7%이고 이 중 남성은 72.7%, 여성은 56.9%
- 추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2009년부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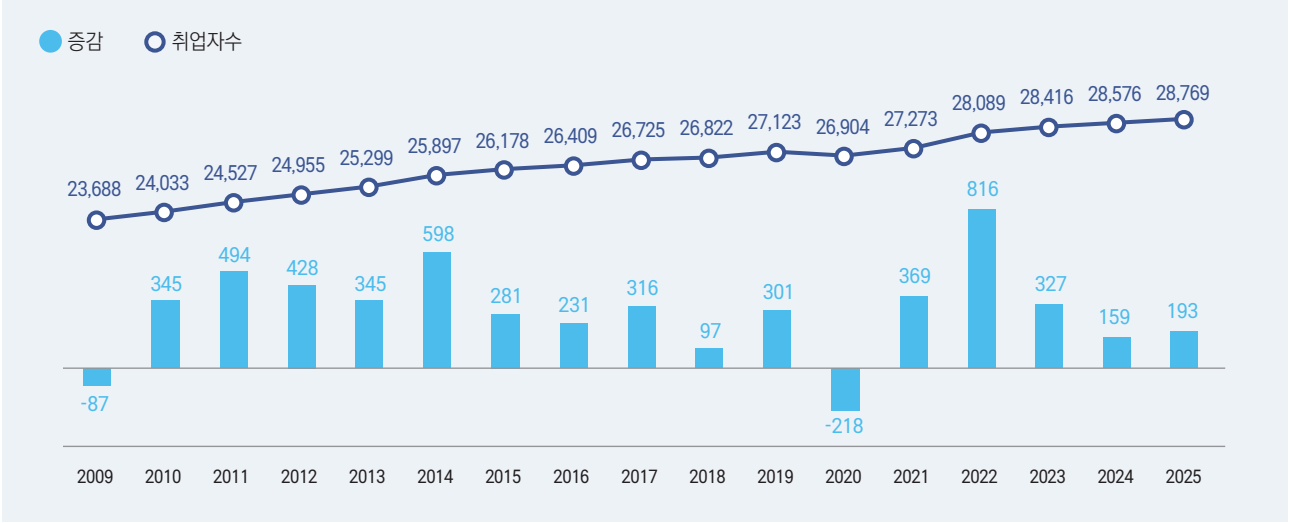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됨

2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15세이상)

2025년 우리나라 15세이상 취업자는 2,877만명으로 전년대비 19만명(+0.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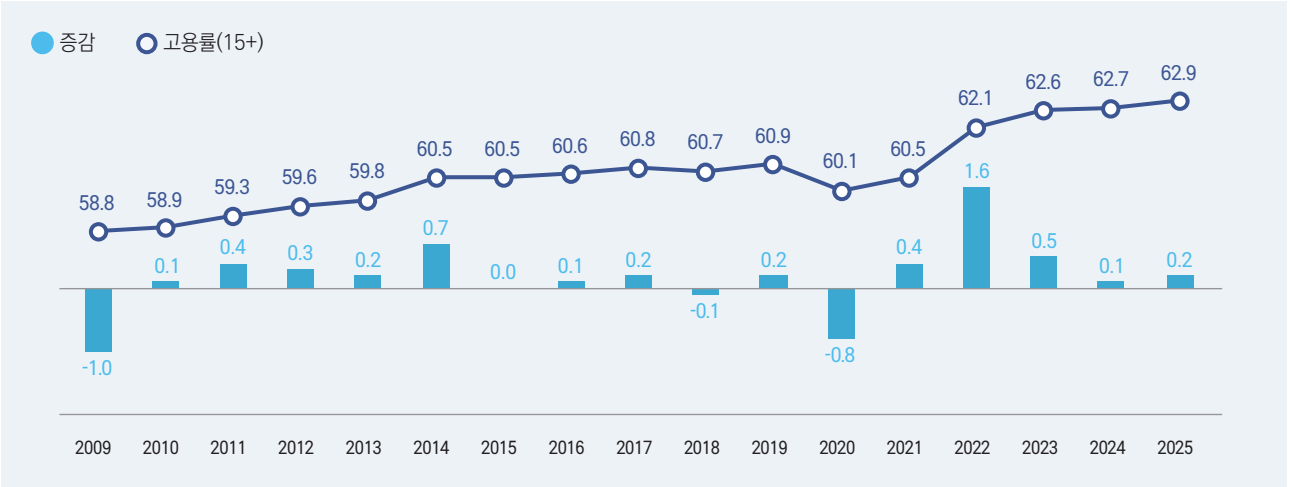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전년대비)

고용률(15세 이상)

2025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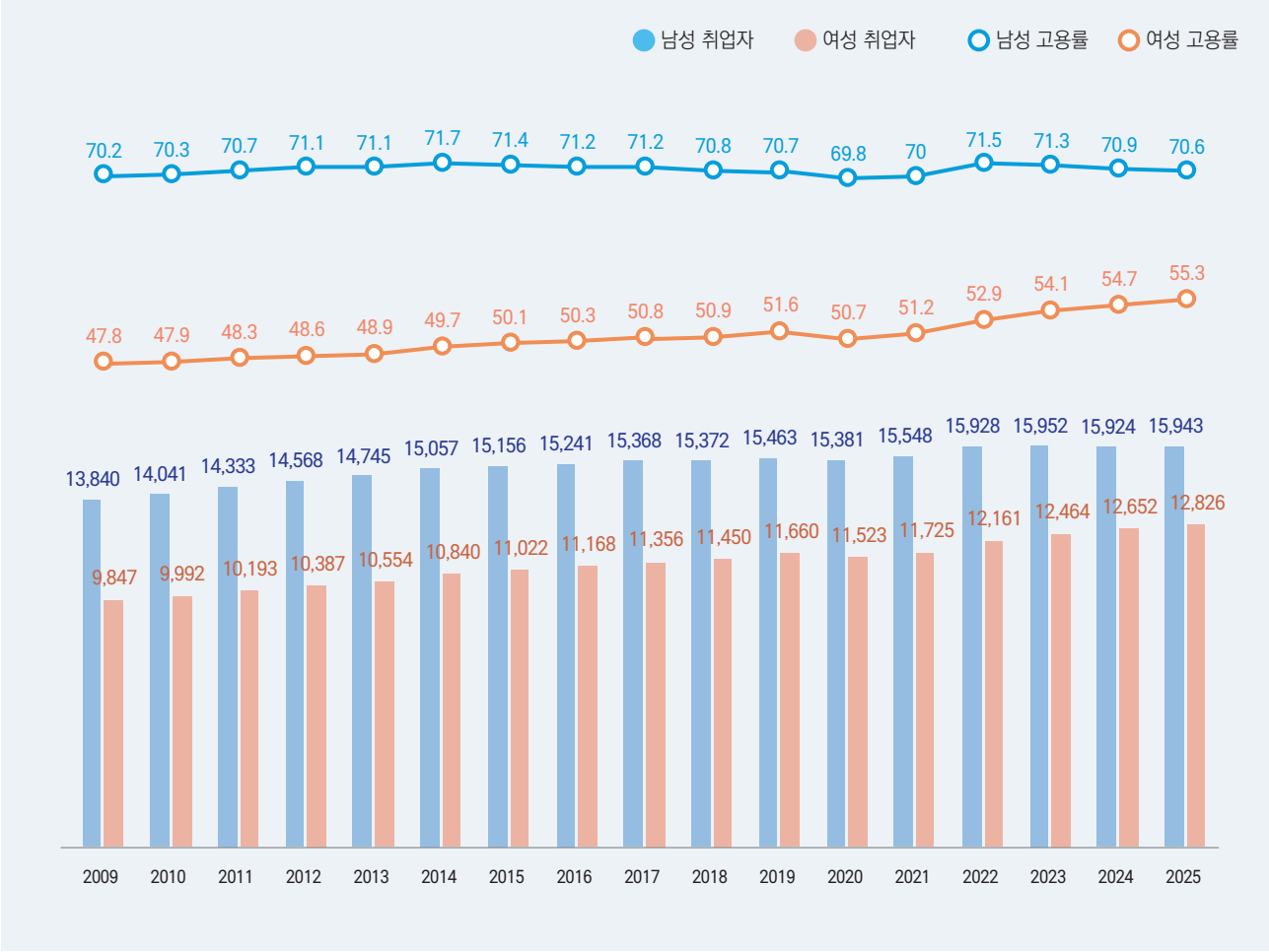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취업자**는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이상 인구 중 ❶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❷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❸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냄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15세 이상)

2009년 이후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5년 여성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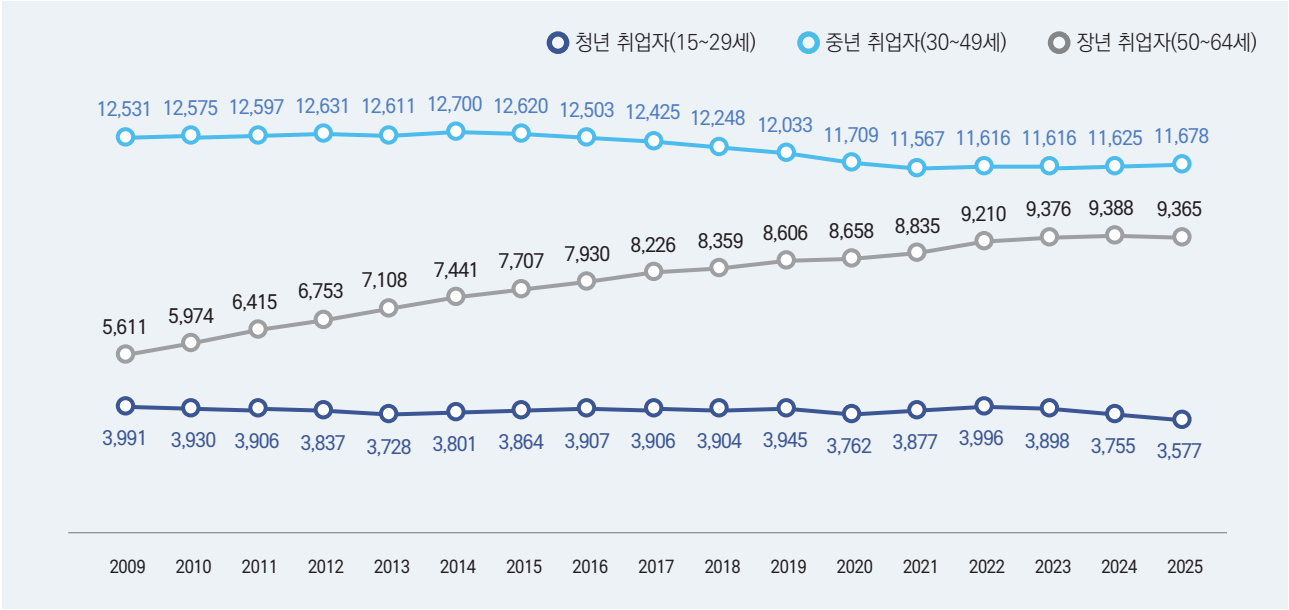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천명, %)



연령별 취업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장년(50~64세)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2025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중년(30~49세)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감소하여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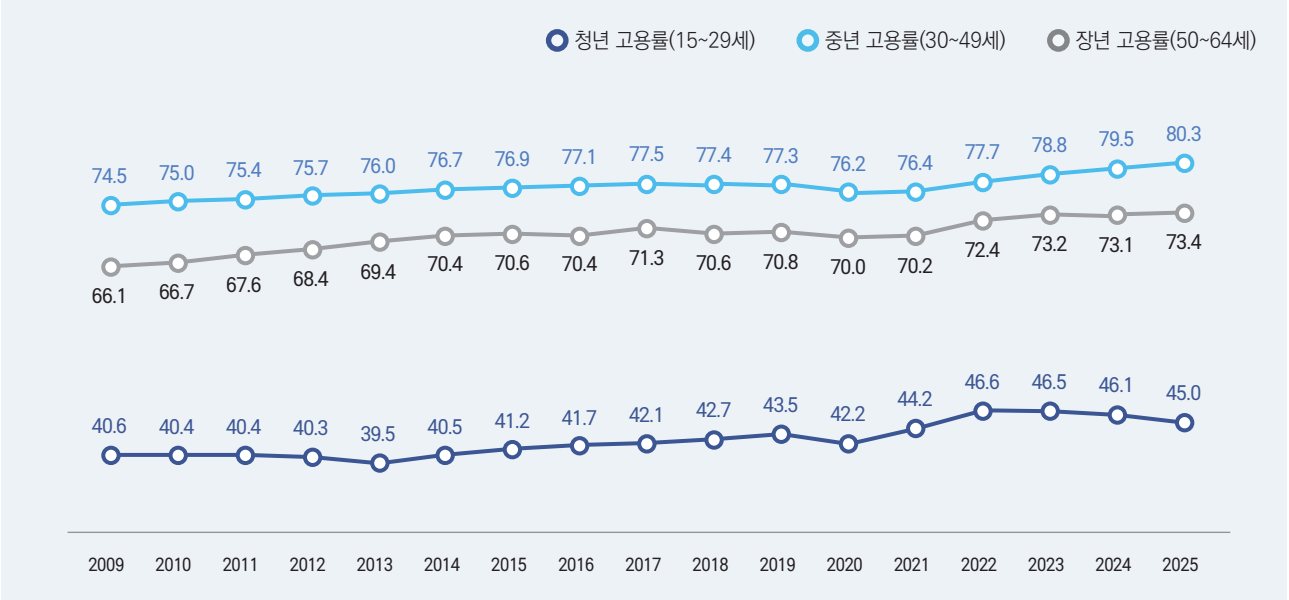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령별 고용률

2025년 중년(30~49세) 고용률이 8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며, 장년(50~64세) 고용률은 73.4%로 소폭 상승한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5.0%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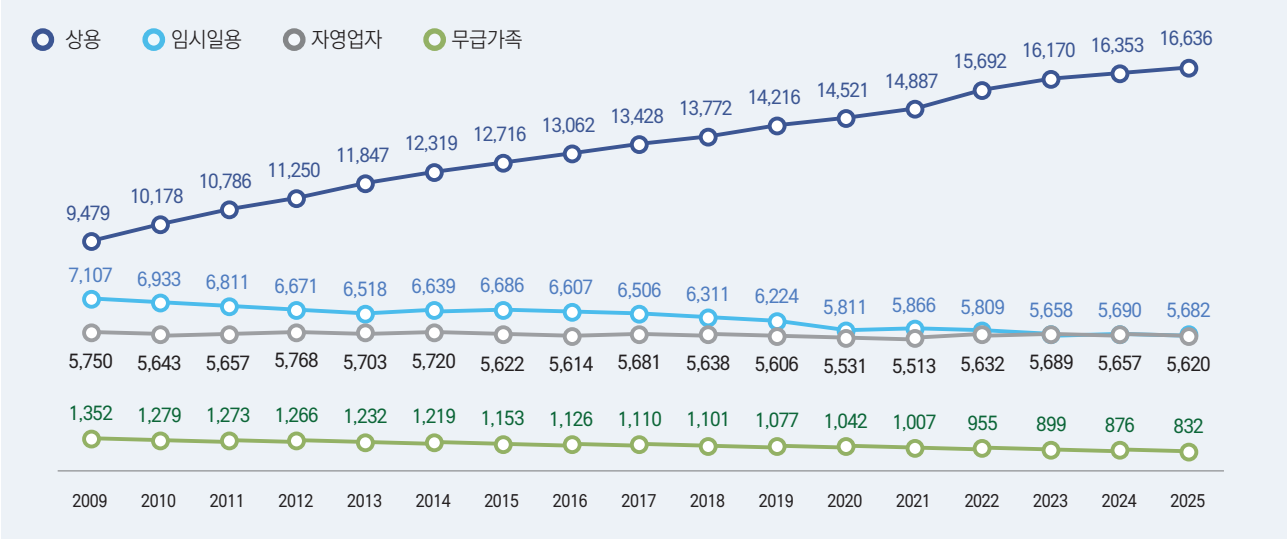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5년 취업자 증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형태인 상용직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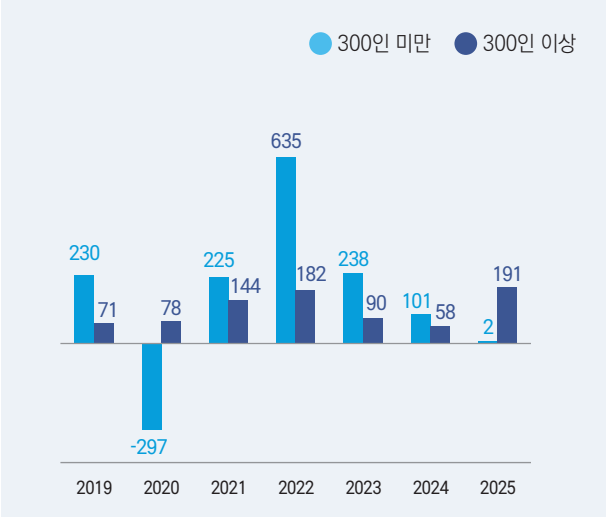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규모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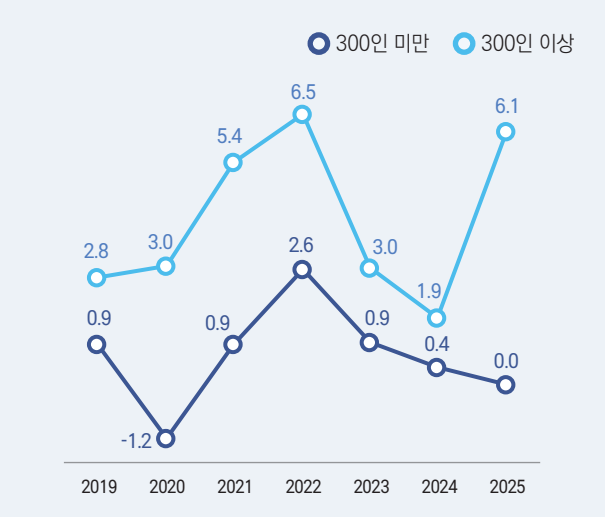
2025년 전체 취업자 2,877만명 중 88.4%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11.6%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 취업자 증감 규모는 2020년과 2025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보다 크게 나타남
- 증감률은 300인 이상이 300인 미만보다 높음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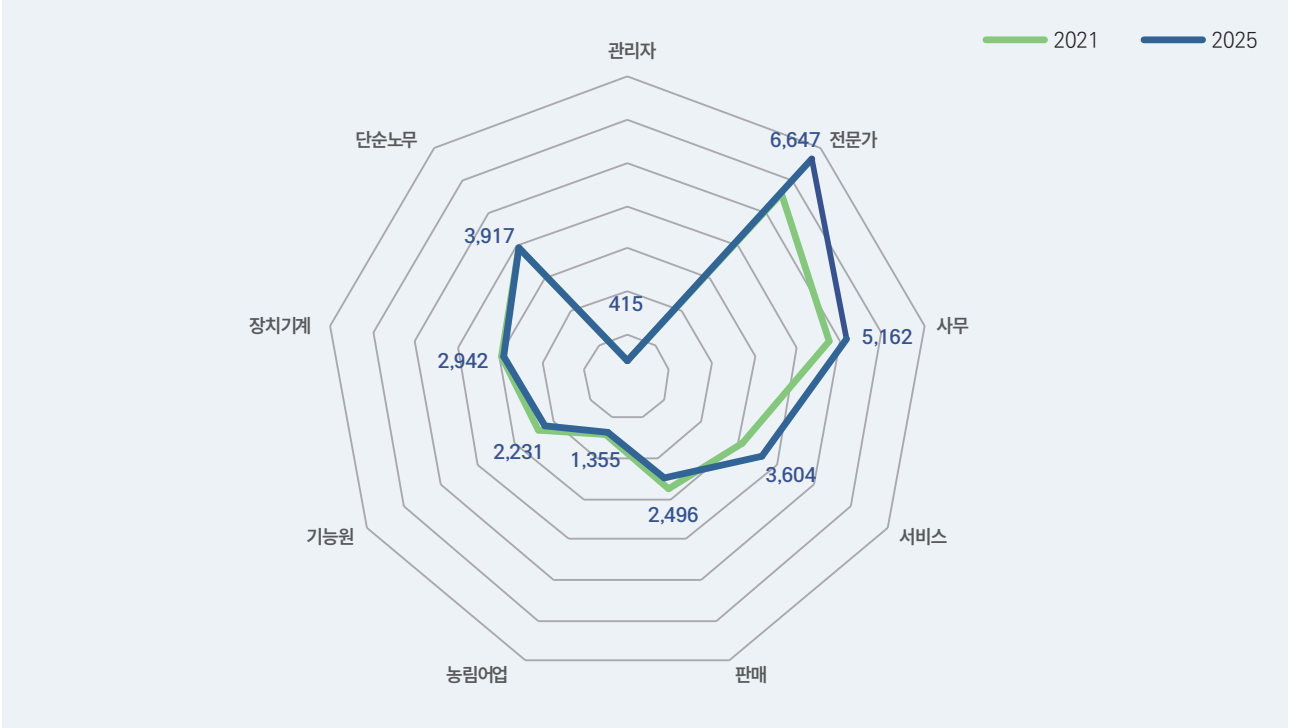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전년대비)

직종별 취업자

2025년 직종별로는 전문직(23.1%), 사무직(17.9%) 순으로 비중이 높다.
추세적으로 판매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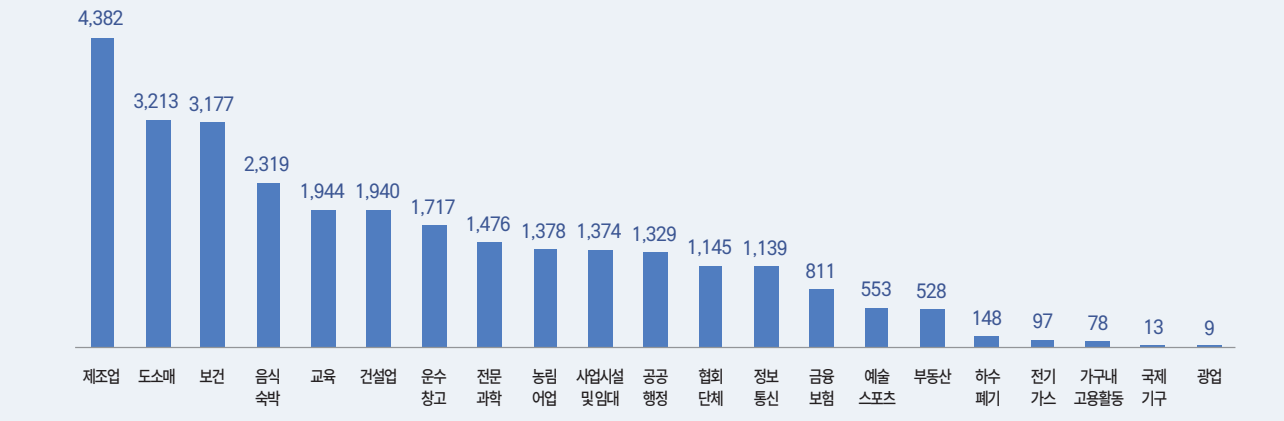
구 분	'21	'22	'23	'24	'25
전 직종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28,576 (100.0)	28,769 (100.0)
관리직	393 (1.4)	436 (1.6)	475 (1.7)	440 (1.5)	415 (1.4)
전문직	5,586 (20.5)	5,880 (20.9)	6,165 (21.7)	6,388 (22.4)	6,647 (23.1)
사무직	4,750 (17.4)	4,859 (17.3)	4,967 (17.5)	5,052 (17.7)	5,162 (17.9)
서비스직	3,073 (11.3)	3,269 (11.6)	3,465 (12.2)	3,526 (12.3)	3,604 (12.5)
판매직	2,766 (10.1)	2,681 (9.5)	2,621 (9.2)	2,512 (8.8)	2,496 (8.7)
농림어업 숙련직	1,396 (5.1)	1,463 (5.2)	1,481 (5.2)	1,450 (5.1)	1,355 (4.7)
기능직	2,406 (8.8)	2,403 (8.6)	2,311 (8.1)	2,261 (7.9)	2,231 (7.8)
장치기계조작직	2,965 (10.9)	3,039 (10.8)	2,988 (10.5)	2,968 (10.4)	2,942 (10.2)
단순노무직	3,938 (14.4)	4,060 (14.5)	3,942 (13.9)	3,978 (13.9)	3,917 (13.6)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438만명), 도소매업(321만명), 보건 및 사회복지업(318만명) 순으로 많다.

- 산업별 증가율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8.0%), 예술·스포츠·여가업(+5.9%), 금융보험업(+5.7%) 순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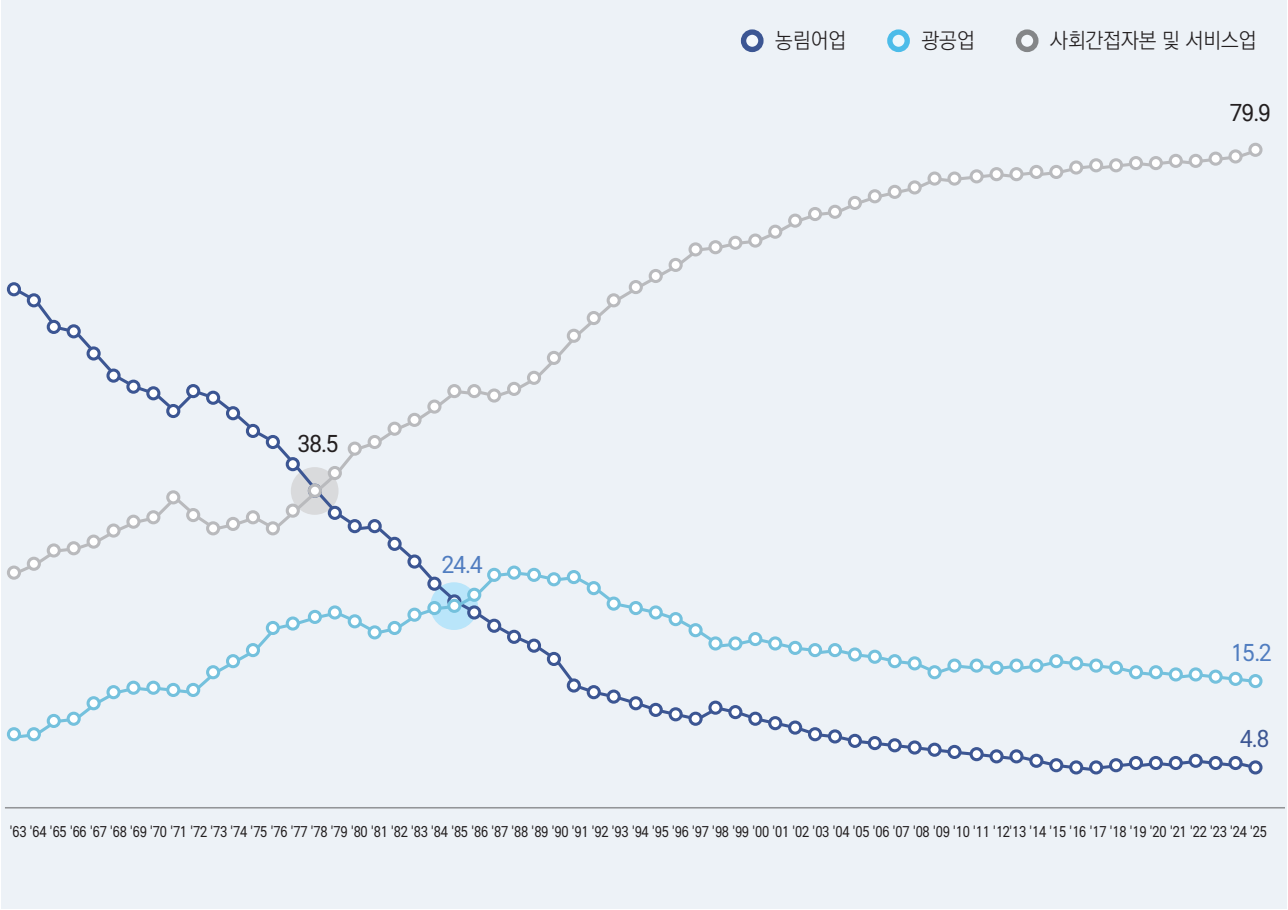
구 분	'21	'22	'23	'24	'25
전 산업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28,576 (100.0)	28,76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458 (5.3)	1,526 (5.4)	1,513 (5.3)	1,485 (5.2)	1,378 (4.8)
광업	12 (0.0)	9 (0.0)	8 (0.0)	8 (0.0)	9 (0.0)
제조업	4,368 (16.0)	4,503 (16.0)	4,461 (15.7)	4,455 (15.6)	4,382 (15.2)
전기 가스 증기업	71 (0.3)	80 (0.3)	89 (0.3)	92 (0.3)	97 (0.3)
수도 하수 폐기물업	169 (0.6)	154 (0.5)	147 (0.5)	142 (0.5)	148 (0.5)
건설업	2,090 (7.7)	2,123 (7.6)	2,114 (7.4)	2,065 (7.2)	1,940 (6.7)
도소매업	3,353 (12.3)	3,313 (11.8)	3,276 (11.5)	3,215 (11.2)	3,213 (11.2)
운수창고업	1,586 (5.8)	1,655 (5.9)	1,644 (5.8)	1,701 (6.0)	1,717 (6.0)
숙박음식업	2,098 (7.7)	2,182 (7.8)	2,296 (8.1)	2,322 (8.1)	2,319 (8.1)
정보통신업	901 (3.3)	981 (3.5)	1,037 (3.7)	1,109 (3.9)	1,139 (4.0)
금융보험업	759 (2.8)	728 (2.6)	751 (2.6)	767 (2.7)	811 (2.8)
부동산업	531 (1.9)	552 (2.0)	534 (1.9)	520 (1.8)	528 (1.8)
전문과학기술	1,219 (4.5)	1,288 (4.6)	1,357 (4.8)	1,422 (5.0)	1,476 (5.1)
사업시설관리지원	1,397 (5.1)	1,423 (5.1)	1,431 (5.0)	1,379 (4.8)	1,374 (4.8)
공공행정서비스업	1,184 (4.3)	1,259 (4.5)	1,270 (4.5)	1,308 (4.6)	1,329 (4.6)
교육서비스업	1,840 (6.7)	1,902 (6.8)	1,896 (6.7)	1,900 (6.7)	1,944 (6.8)
보건 및 사회복지업	2,534 (9.3)	2,714 (9.7)	2,858 (10.1)	2,941 (10.3)	3,177 (11.0)
예술·스포츠·여가	467 (1.7)	482 (1.7)	512 (1.8)	522 (1.8)	553 (1.9)
협회 및 기타 개인	1,135 (4.2)	1,119 (4.0)	1,130 (4.0)	1,131 (4.0)	1,145 (4.0)
가구내고용활동	87 (0.3)	80 (0.3)	77 (0.3)	79 (0.3)	78 (0.3)
국제외국기관	15 (0.1)	16 (0.1)	17 (0.1)	15 (0.1)	13 (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1960년대 이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

1963년에는 취업자의 6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다. 광공업은 '88년 28.5%까지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 농림어업은 60년대 초반에는 취업자의 60% 이상이 종사했으나, '78년에 서비스업보다 비중이 낮아지고, '86년에는 다시 광공업보다 낮아지면서 '25년 4.8%까지 축소
- 서비스업(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5년 기준 79.9%를 차지
- 광공업은 '88년 28.5%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5년 기준 15.2%의 비중을 차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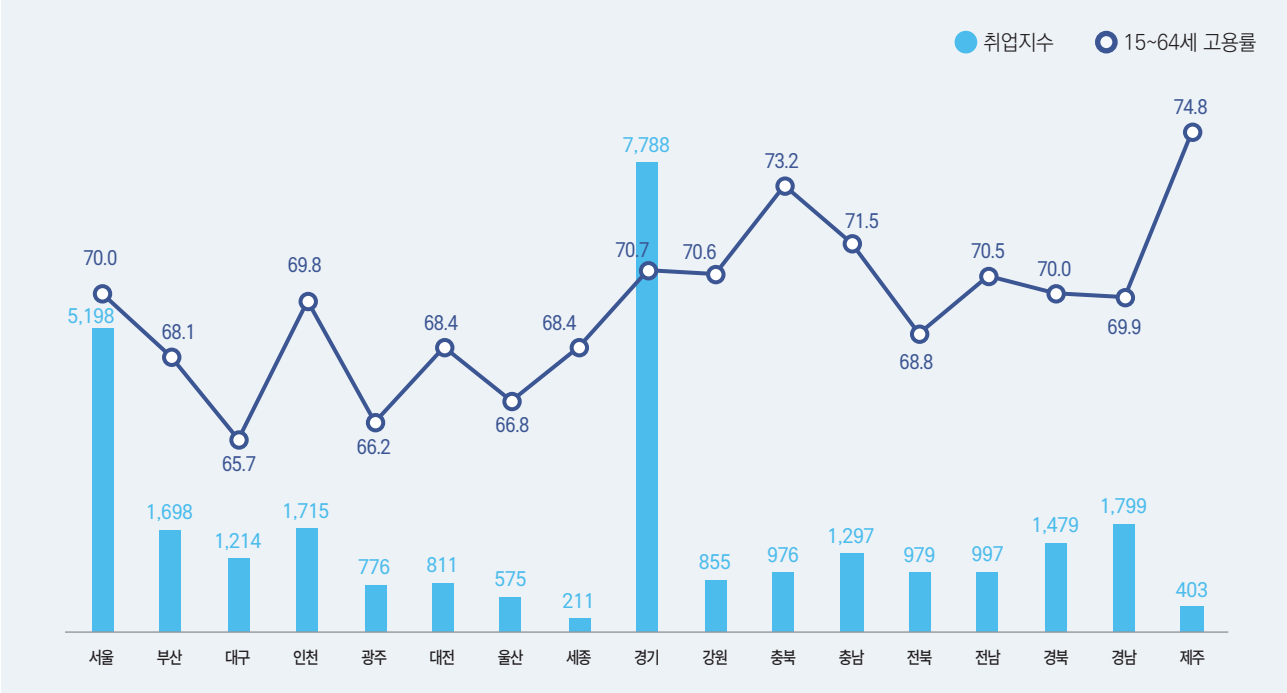
(단위: %)



지역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취업자 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으며, 전체 취업자의 5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15~64세 고용률은 제주가 74.8%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7%로 가장 낮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28,769	3,578	11,678	9,366	4,147	1,378	4,391	1,940	21,060
	(100.0)	(12.4)	(40.6)	(32.6)	(14.4)	(4.8)	(15.3)	(6.7)	(73.2)
서울특별시	5,198	802	2,298	1,519	580	0	392	299	4,507
	(100.0)	(15.4)	(44.2)	(29.2)	(11.2)	(0.0)	(7.5)	(5.8)	(86.7)
부산광역시	1,698	208	667	563	259	12	248	119	1,319
	(100.0)	(12.3)	(39.3)	(33.2)	(15.3)	(0.7)	(14.6)	(7.0)	(77.7)
대구광역시	1,214	138	474	431	171	12	227	89	886
	(100.0)	(11.4)	(39.0)	(35.5)	(14.1)	(1.0)	(18.7)	(7.3)	(73.0)
인천광역시	1,715	207	739	555	215	8	321	125	1,262
	(100.0)	(12.1)	(43.1)	(32.4)	(12.5)	(0.4)	(18.7)	(7.3)	(73.6)
광주광역시	776	91	316	262	107	17	105	70	585
	(100.0)	(11.8)	(40.8)	(33.7)	(13.7)	(2.1)	(13.5)	(9.0)	(75.4)
대전광역시	811	120	333	256	102	15	91	56	650
	(100.0)	(14.7)	(41.1)	(31.6)	(12.6)	(1.8)	(11.2)	(6.9)	(80.1)
울산광역시	575	66	241	205	64	4	180	48	343
	(100.0)	(11.4)	(41.9)	(35.6)	(11.1)	(0.7)	(31.3)	(8.3)	(59.7)
세종특별자치시	211	22	111	60	19	8	32	11	161
	(100.0)	(10.4)	(52.4)	(28.2)	(9.1)	(3.6)	(15.3)	(5.0)	(76.0)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경기도	7,788	1,009	3,386	2,551	842	120	1,323	567	5,778
	(100.0)	(13.0)	(43.5)	(32.8)	(10.8)	(1.5)	(17.0)	(7.3)	(74.2)
강원도	855	91	278	294	192	90	59	70	635
	(100.0)	(10.6)	(32.5)	(34.4)	(22.5)	(10.6)	(6.9)	(8.2)	(74.3)
충청북도	976	121	361	320	173	112	202	69	593
	(100.0)	(12.4)	(37.0)	(32.8)	(17.7)	(11.5)	(20.7)	(7.1)	(60.8)
충청남도	1,297	158	506	404	228	153	266	77	801
	(100.0)	(12.2)	(39.1)	(31.2)	(17.6)	(11.8)	(20.5)	(5.9)	(61.8)
전라북도	979	97	334	330	218	141	129	67	642
	(100.0)	(9.9)	(34.1)	(33.7)	(22.3)	(14.4)	(13.2)	(6.9)	(65.6)
전라남도	997	95	308	339	255	192	110	79	616
	(100.0)	(9.5)	(30.9)	(34.0)	(25.5)	(19.2)	(11.0)	(7.9)	(61.8)
경상북도	1,479	148	489	498	343	271	265	86	857
	(100.0)	(10.0)	(33.1)	(33.7)	(23.2)	(18.3)	(17.9)	(5.8)	(58.0)
경상남도	1,799	163	681	643	312	176	428	86	1,109
	(100.0)	(9.1)	(37.8)	(35.7)	(17.4)	(9.8)	(23.8)	(4.8)	(61.7)
제주도	403	42	157	137	67	49	15	23	316
	(100.0)	(10.4)	(39.0)	(34.0)	(16.6)	(12.2)	(3.6)	(5.8)	(78.4)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 ) 지역별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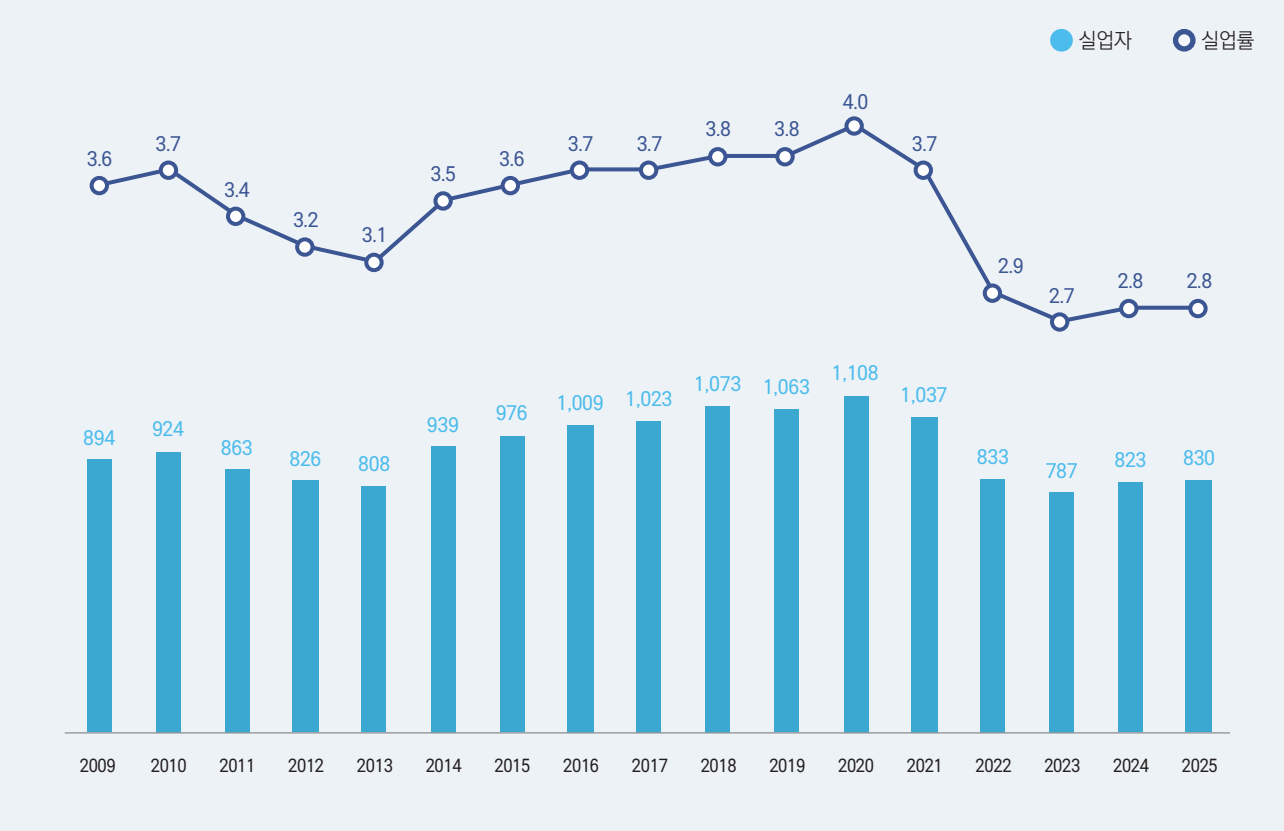
고용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국	65.6	65.9	66.1	66.6	66.6	66.8	65.9	66.5	68.5	69.2	69.5	69.8
서울특별시	65.7	65.5	65.8	66.4	66.0	66.3	65.9	66.6	68.4	69.5	70.4	70.0
부산광역시	62.7	62.7	62.6	63.4	62.9	64.2	62.9	63.9	65.4	66.5	66.9	68.1
대구광역시	64.3	65.4	65.3	65.0	64.2	64.2	63.0	65.5	66.9	67.8	65.6	65.7
인천광역시	65.4	65.9	67.2	67.3	68.6	68.3	66.9	67.4	69.4	69.4	70.0	69.8
광주광역시	63.4	63.2	62.5	63.8	64.6	64.5	63.8	63.4	64.3	65.6	66.0	66.2
대전광역시	64.1	64.6	64.6	64.0	63.9	65.3	66.2	66.7	67.9	67.8	67.2	68.4
울산광역시	61.4	62.5	62.4	63.9	63.6	63.7	62.9	62.9	64.7	65.5	65.9	66.8
세종특별자치시	-	-	-	64.8	65.6	65.9	66.3	66.2	67.4	67.9	69.0	68.4
경기도	66.5	66.8	67.0	67.9	67.9	67.6	65.9	66.9	70.0	70.4	70.7	70.7
강원도	62.9	64.3	64.6	67.1	66.7	68.3	67.0	67.2	67.8	69.6	70.3	70.6
충청북도	67.5	68.3	68.2	69.1	69.1	68.3	69.0	69.9	71.1	71.4	71.7	73.2
충청남도	67.4	67.9	67.5	67.9	69.0	69.3	67.8	68.2	69.5	69.8	70.3	71.5
전라북도	63.5	64.6	65.5	64.4	63.9	64.4	64.6	66.1	66.8	67.8	68.7	68.8
전라남도	67.0	67.9	67.5	66.8	67.6	68.8	69.1	69.4	71.2	71.8	70.8	70.5
경상북도	68.2	67.6	67.5	67.9	66.9	67.4	66.4	65.7	68.2	68.4	68.9	70.0
경상남도	65.5	66.0	65.9	66.4	66.9	67.0	65.5	65.4	66.4	68.2	68.0	69.9
제주도	71.8	72.9	73.8	76.0	73.7	72.5	70.7	71.6	74.5	74.6	74.7	74.8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5~64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고용률은 '17년부터 발표 (단위: %)

실업자 현황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2025년 실업자는 83만명으로 전년보다 0.7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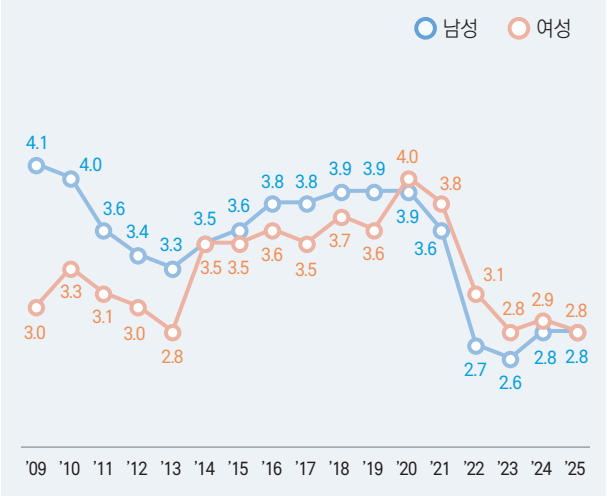


성별·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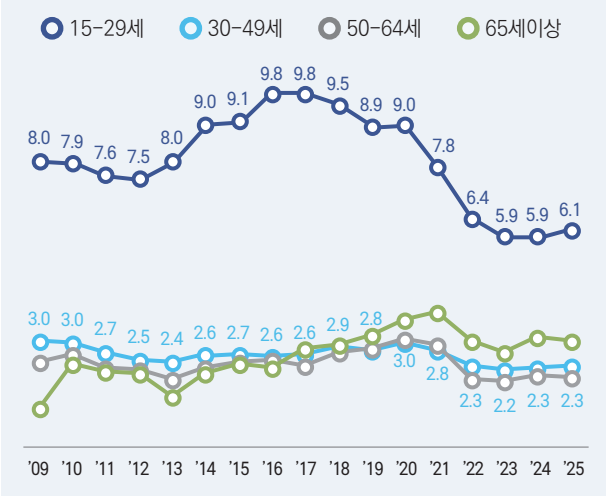
2025년 남성의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여성의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 2020년 이후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25년에는 남녀 모두 2.8%로 같아짐
-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세를 이어오다 2025년 6.1%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성별 실업률



연령별 실업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를 알기 위한 지표로써 '25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8.7%이다.

구 분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23	15세 이상	5.2	745	6.6	1,219	101	1,117	9.0
	15~29세	8.8	120	13.9	387	-	-	16.6
'24	15세 이상	5.4	776	6.3	1,091	108	983	8.8
	15~29세	8.8	118	12.9	321	-	-	15.6
'25	15세 이상	5.4	765	6.2	1,067	110	957	8.7
	15~29세	9.2	120	13.1	308	-	-	16.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29세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음

(단위: 천명, %)

지표 용어

$$\text{고용보조지표1}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①} +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2} =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②}}{\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보조지표3}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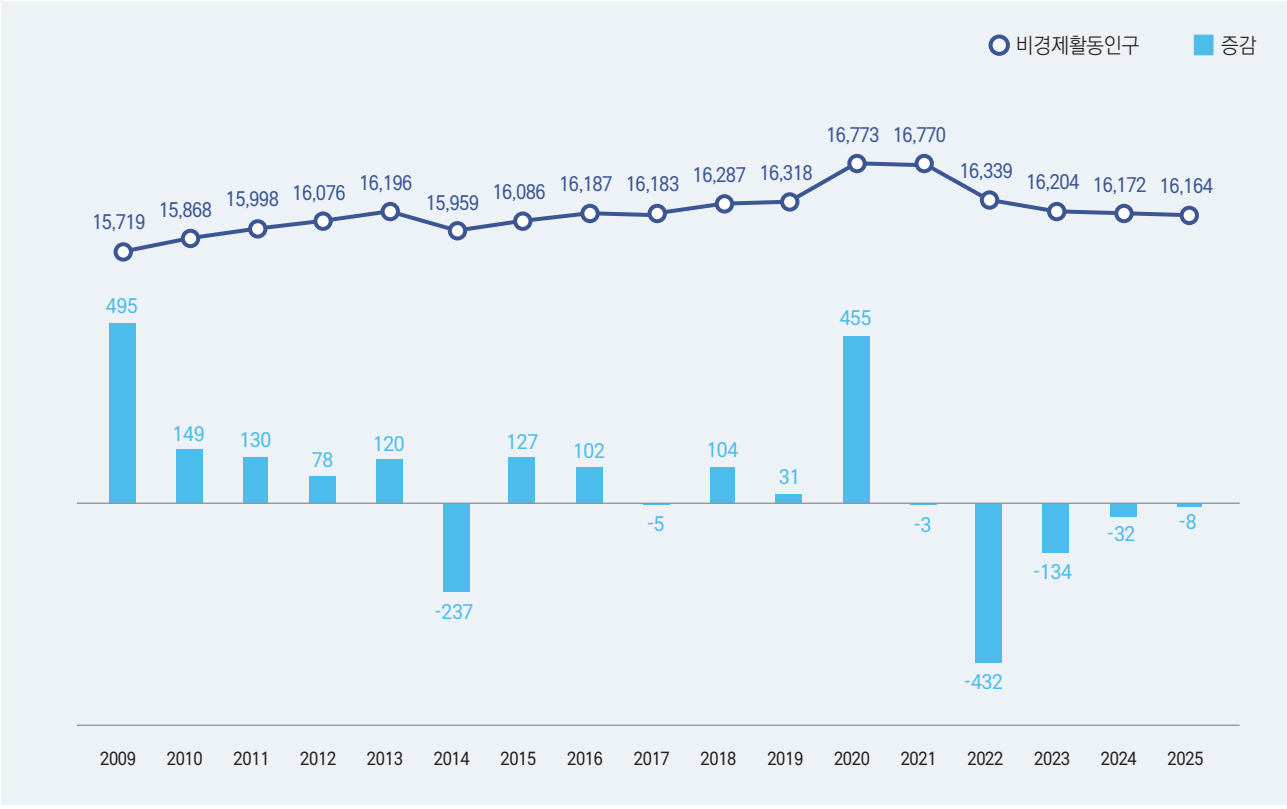
- 잠재취업가능자(취업가능성 없는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취업가능성 있는 비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25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명으로 전년대비 0.8만명 감소하였다.

- 비경제활동인구는 '05년부터 '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 유지
- 특히, '09년 금융위기와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으로 증가
- '22년에 가장 크게 감소(43.2만명)하였고 점차 감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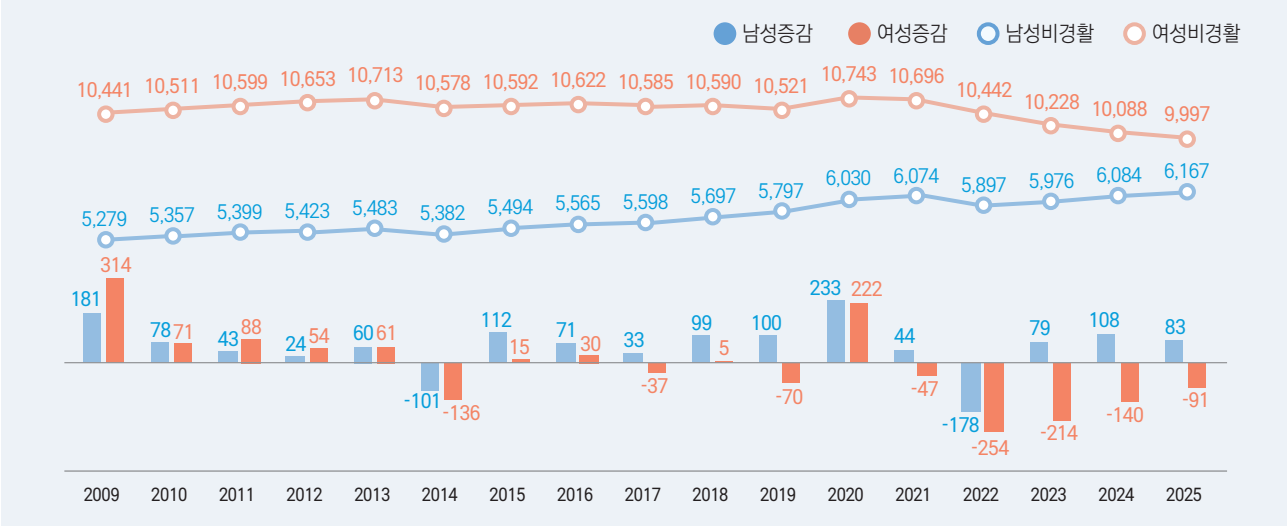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2025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남성은 617만명, 여성은 1,000만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는 383만명으로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금융위기 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경제위기에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남녀 모두 비경활인구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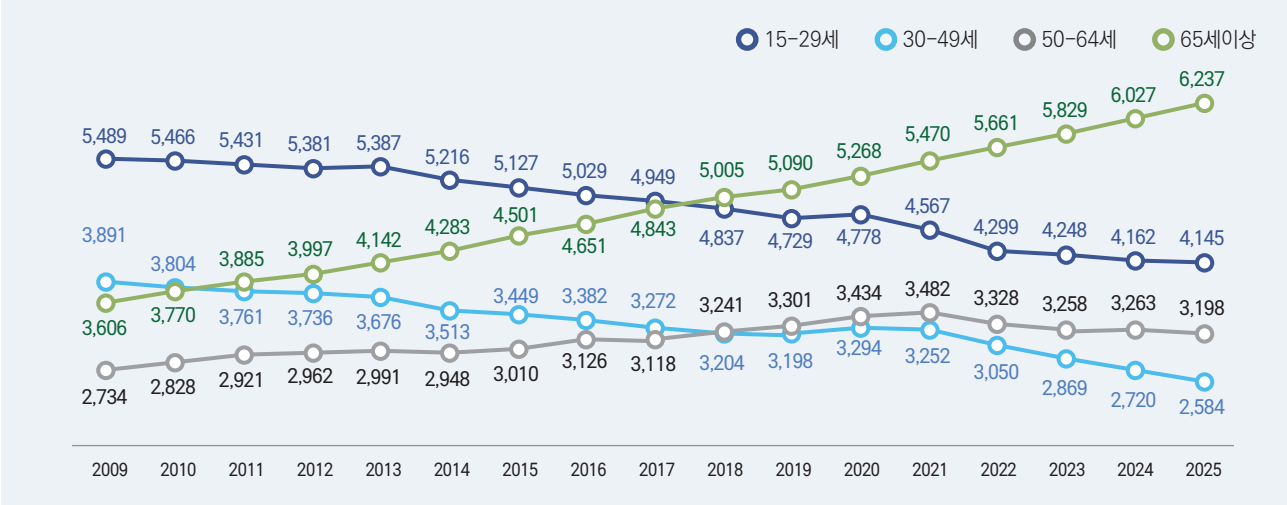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2025년 65세이상 고령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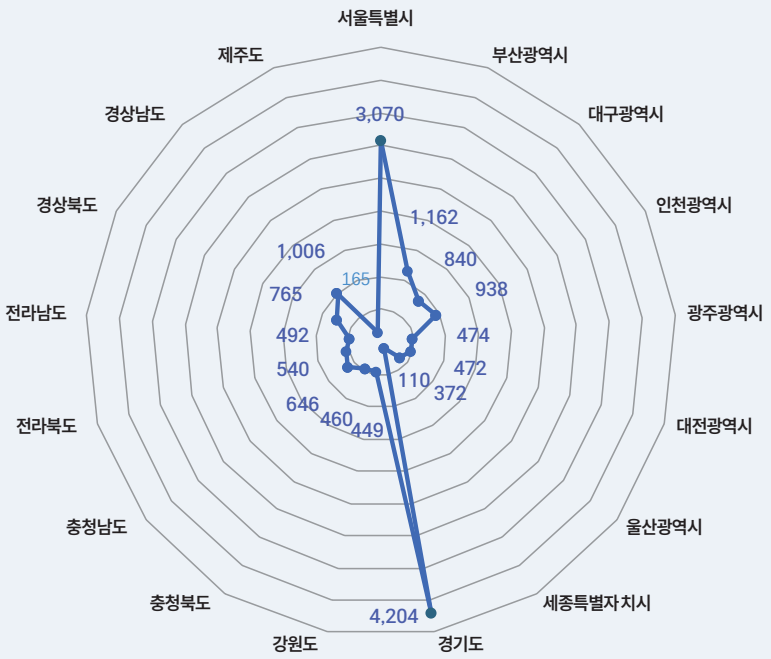
- 청년(15~29세)과 중년(30~49세)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9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
- 장년(50~64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2년에 감소 전환
- 고령층(65세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2025년 비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가 420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0.8%이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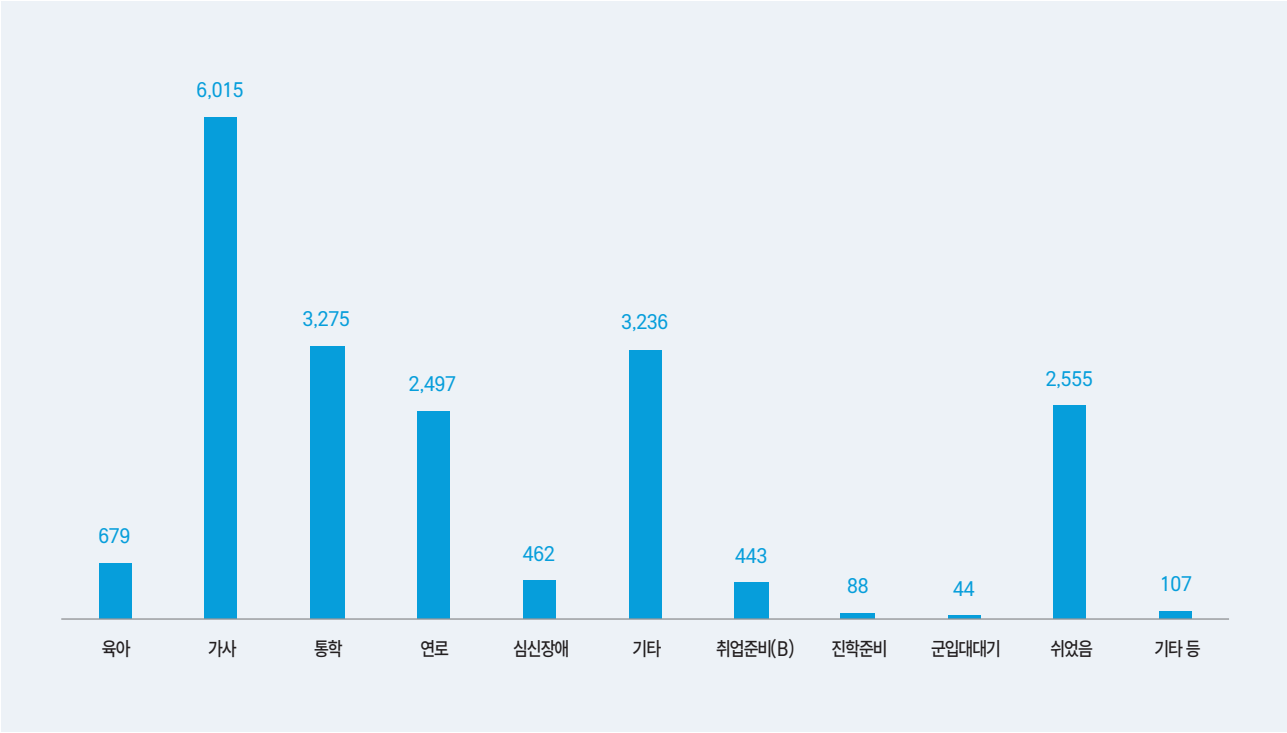
(단위: 천명)

	'19	'20	'21	'22	'23	'24	'25
전국	16,318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16,164
서울특별시	3,159	3,223	3,221	3,171	3,150	3,078	3,070
부산광역시	1,219	1,237	1,234	1,209	1,184	1,181	1,162
대구광역시	838	859	825	812	800	838	840
인천광역시	876	910	920	906	914	918	938
광주광역시	486	497	508	507	491	480	474
대전광역시	485	471	477	475	474	488	472
울산광역시	370	379	386	372	365	362	372
세종특별자치시	96	102	107	108	110	108	110
경기도	4,008	4,263	4,273	4,075	4,102	4,133	4,204
강원도	462	480	478	478	463	460	449
충청북도	492	489	496	478	474	470	460
충청남도	647	667	672	653	645	650	646
전라북도	610	600	582	564	545	536	540
전라남도	536	528	516	491	482	488	492
경상북도	830	842	855	826	802	784	765
경상남도	1,037	1,052	1,049	1,051	1,035	1,032	1,006
제주도	168	176	173	164	171	168	165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 사유

2025년 비경제활동 사유는 가사와 통학이 전체의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쉬었음은 255만명으로 전년대비 8.8만명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도	합계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
’18	16,287	1,191	5,949	3,835	2,218	428	2,667	459	116	71	1,855	166
’19	16,318	1,175	5,812	3,708	2,221	427	2,976	484	106	66	2,092	228
’20	16,773	1,188	5,966	3,616	2,257	442	3,304	543	121	63	2,374	203
’21	16,770	1,120	6,018	3,452	2,388	448	3,345	608	97	57	2,398	186
’22	16,339	996	5,964	3,317	2,509	445	3,108	553	91	48	2,277	140
’23	16,204	856	5,963	3,328	2,477	474	3,107	488	100	42	2,351	126
’24	16,172	743	6,008	3,274	2,524	469	3,154	438	101	39	2,467	109
’25	16,164	679	6,015	3,275	2,497	462	3,236	443	88	44	2,555	107

(단위: 천명)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4.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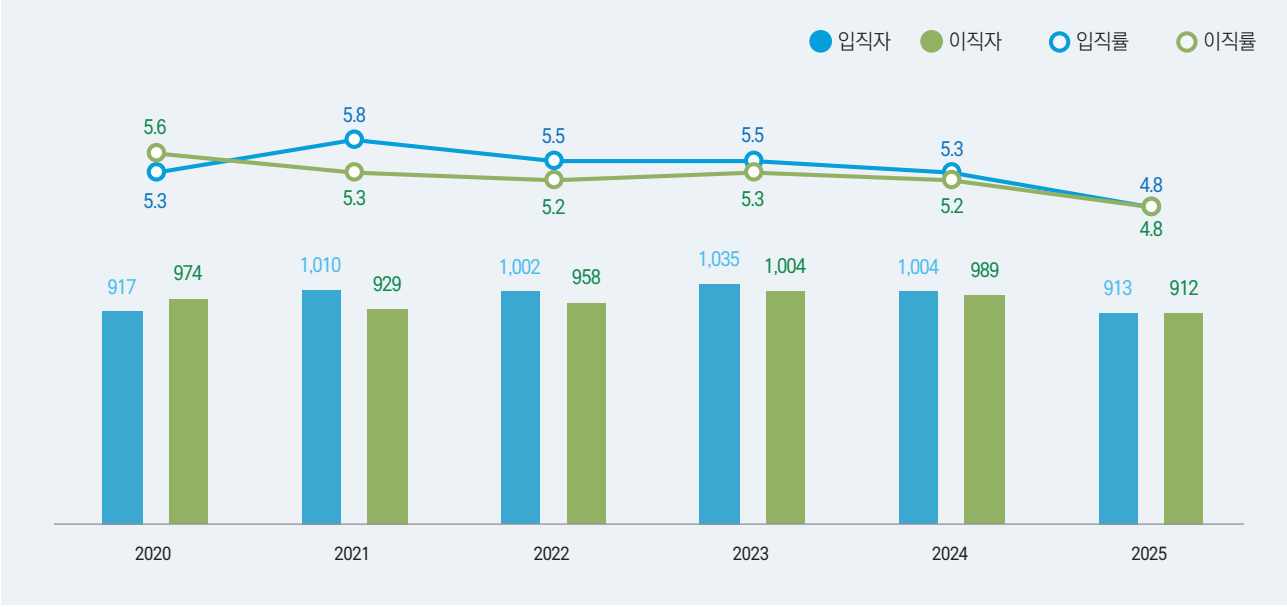
① 입·이직 현황
②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③ 미충원 인원
④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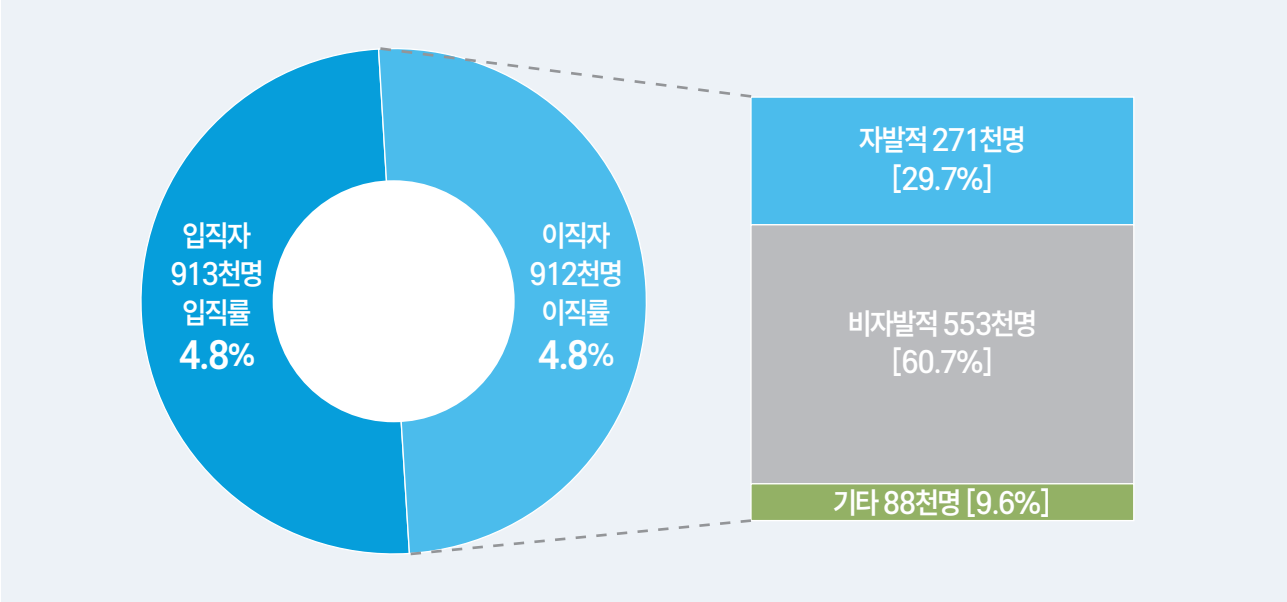
1 입·이직 현황

입·이직 및 자발성 여부

2025년 입직자는 91.3만명, 이직자는 91.2만명이다.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 60.7%로 나타났다.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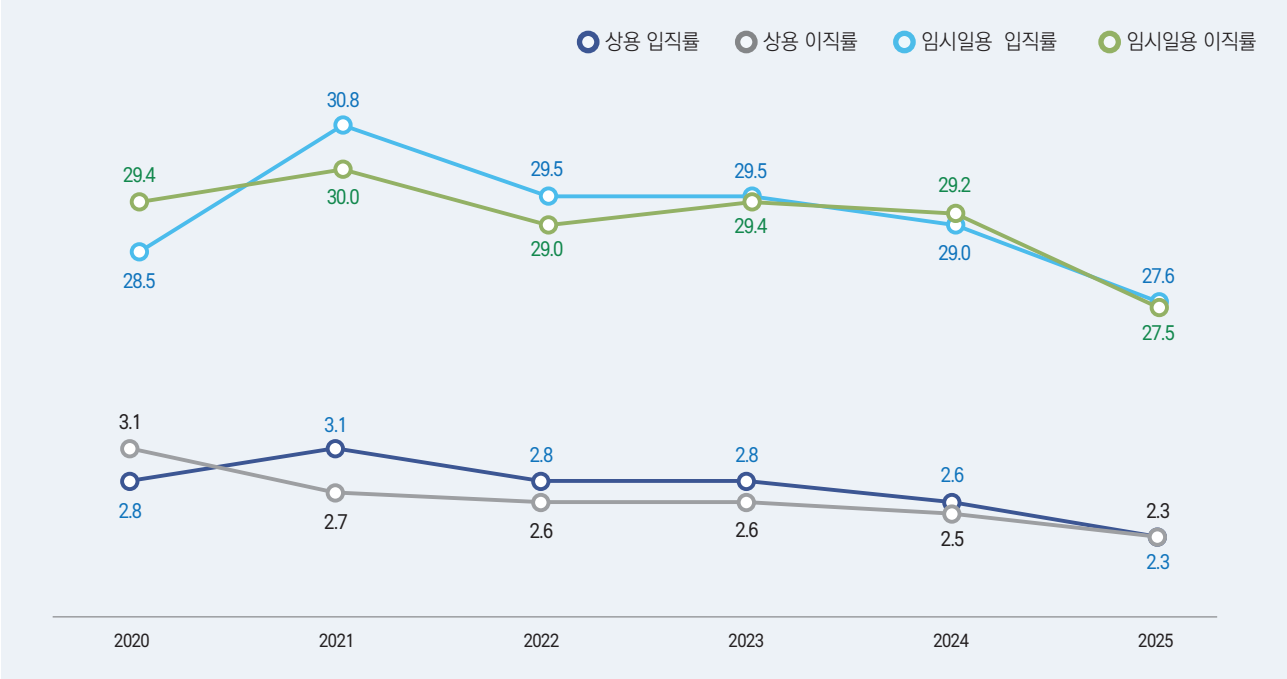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이직자 내 비율
주)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 사망,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상용근로자의 입·이직률은 2~3% 수준인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30% 수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5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58.8%인 것에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91.0%를 차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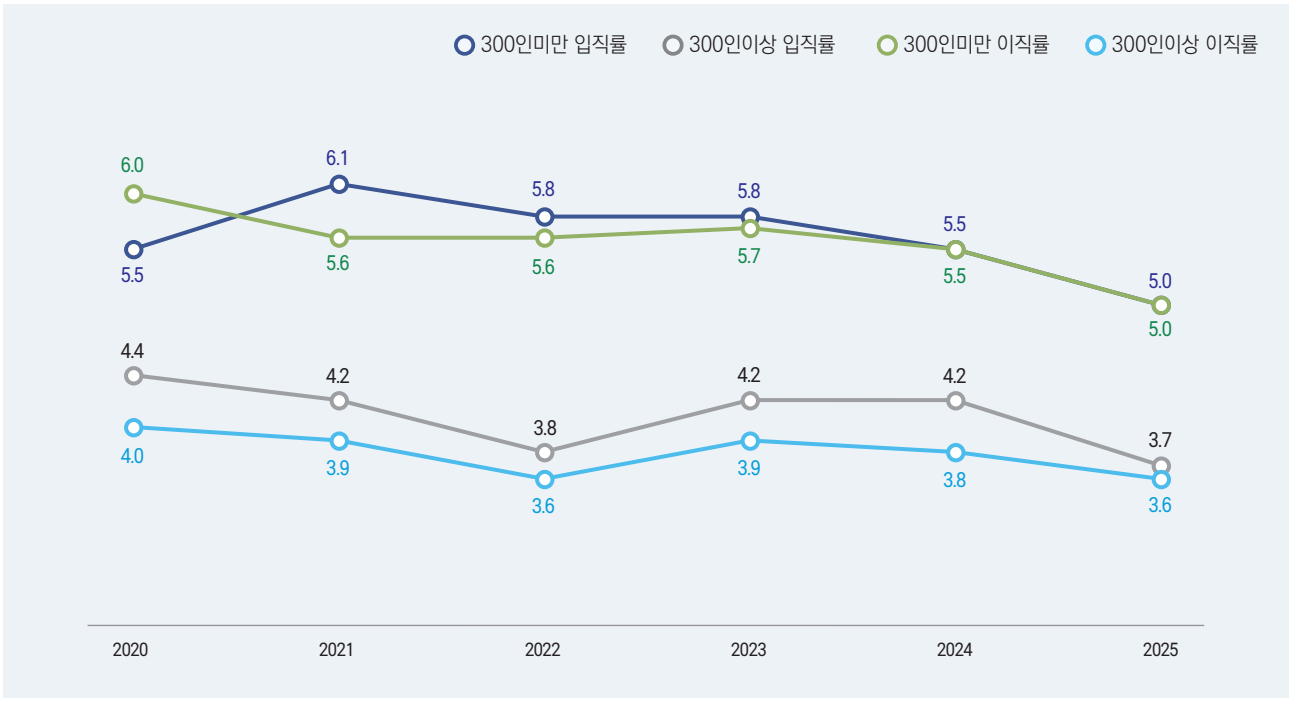
구 분		'20		'21		'22		'23		'24		'25	
상용	입직	441	(2.8)	489	(3.1)	460	(2.8)	474	(2.8)	452	(2.6)	392	(2.3)
	이직	482	(3.1)	422	(2.7)	426	(2.6)	445	(2.6)	434	(2.5)	394	(2.3)
	자발적	251	[52.1]	244	[57.8]	266	[62.5]	281	[63.3]	267	[61.4]	231	[58.8]
	비자발적	103	[21.3]	79	[18.8]	74	[17.3]	85	[19.0]	88	[20.3]	82	[20.8]
	기타	129	[26.6]	99	[23.5]	86	[20.3]	79	[17.7]	80	[18.3]	81	[20.5]
임시 일용	입직	476	(28.5)	522	(30.8)	541	(29.5)	561	(29.5)	552	(29.0)	520	(27.6)
	이직	491	(29.4)	507	(30.0)	532	(29.0)	559	(29.4)	554	(29.2)	518	(27.5)
	자발적	40	[8.2]	33	[6.6]	39	[7.4]	42	[7.5]	40	[7.2]	40	[7.6]
	비자발적	434	[88.5]	465	[91.6]	486	[91.3]	510	[91.2]	508	[91.6]	472	[91.0]
	기타	17	[3.4]	9	[1.8]	7	[1.3]	8	[1.3]	7	[1.3]	7	[1.4]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입직률, 이직률, [ ] 이직자 내 비율
주)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 사망,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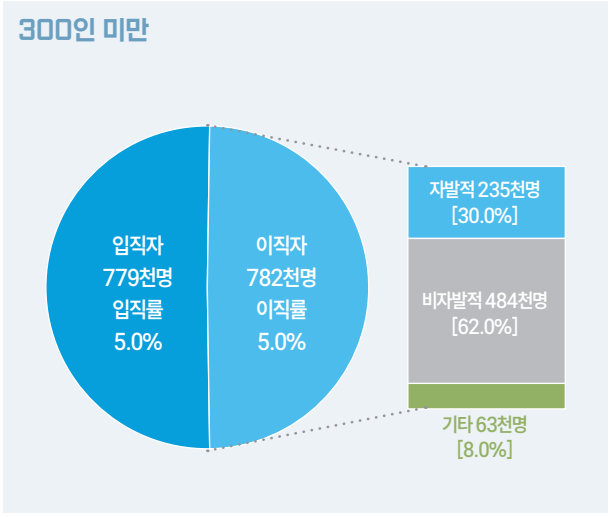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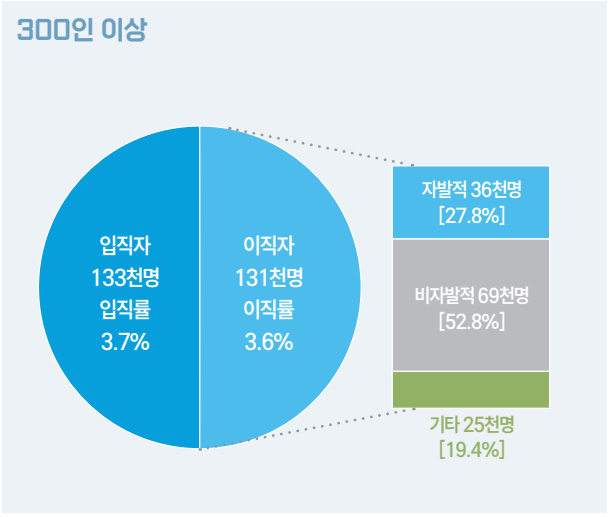
규모별 입·이직

300인 미만 사업체 이직자가 전체 이직자 중 85.7%이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62.0%로 높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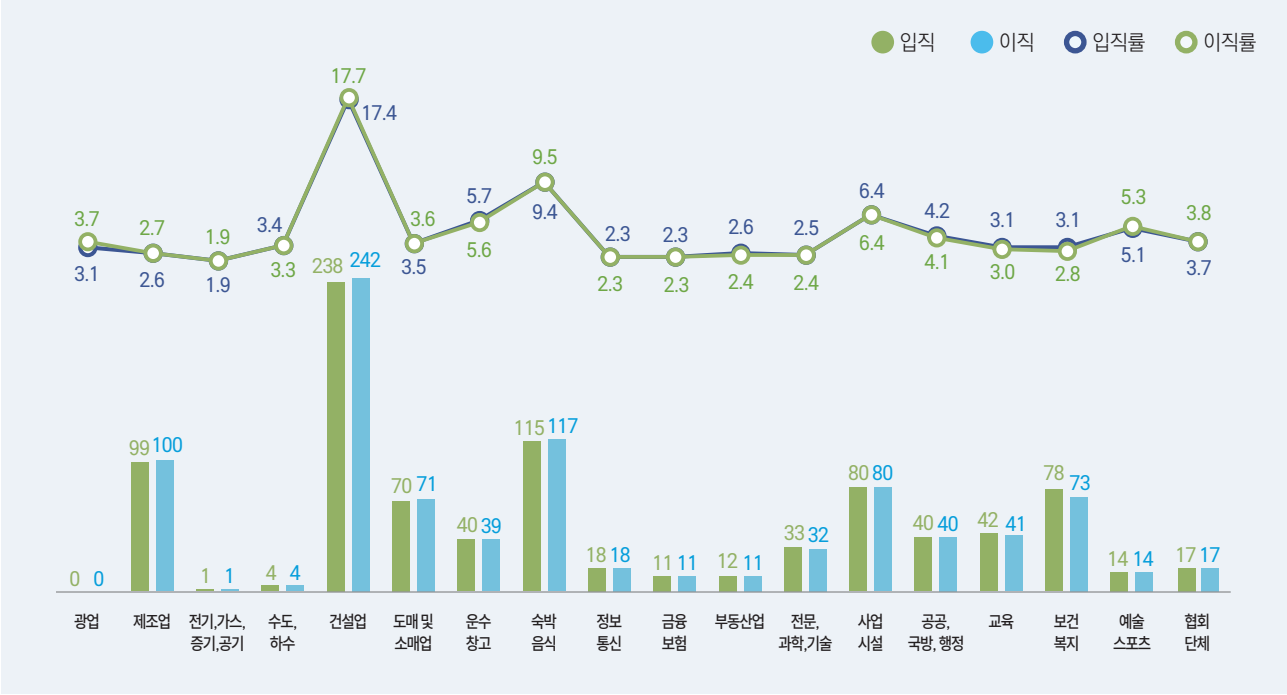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5년), [ ] 이직자 내 비율

산업별 입·이직

2025년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순으로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 이직자의 자발성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많음
- 업종별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등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많음



(단위: 천명, %)

구 분	입직		이직		자발적		비자발적		기타	
전 산업	913	(4.8)	912	(4.8)	271	[29.7]	553	[60.7]	88	[9.6]
광업	0	(3.1)	0	(3.7)	0	[35.8]	0	[57.2]	0	[7.0]
제조업	99	(2.6)	100	(2.7)	43	[43.0]	46	[46.0]	11	[11.0]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1	(1.9)	1	(1.9)	0	[12.5]	0	[19.0]	1	[68.5]
수도,하수·폐기물,재생	4	(3.4)	4	(3.3)	1	[27.8]	2	[53.9]	1	[18.3]
건설업	238	(17.4)	242	(17.7)	15	[6.2]	225	[92.8]	2	[1.0]
도매 및 소매업	70	(3.5)	71	(3.6)	32	[45.6]	32	[44.9]	7	[9.5]
운수 및 창고업	40	(5.7)	39	(5.6)	9	[21.9]	26	[67.5]	4	[10.6]
숙박 및 음식점업	115	(9.4)	117	(9.5)	42	[36.3]	71	[60.6]	4	[3.1]
정보통신업	18	(2.3)	18	(2.3)	9	[51.3]	5	[28.5]	4	[20.3]
금융 및 보험업	11	(2.3)	11	(2.3)	3	[25.7]	2	[13.9]	7	[60.4]
부동산업	12	(2.6)	11	(2.4)	6	[56.9]	4	[34.3]	1	[8.8]
전문,과학,기술	33	(2.5)	32	(2.4)	15	[46.9]	11	[35.2]	6	[18.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80	(6.4)	80	(6.4)	28	[34.4]	50	[61.9]	3	[3.7]
공공,국방,행정	40	(4.2)	40	(4.1)	2	[5.0]	19	[47.8]	19	[47.2]
교육서비스	42	(3.1)	41	(3.0)	7	[17.9]	23	[56.0]	11	[26.1]
보건 및 사회복지	78	(3.1)	73	(2.8)	47	[65.3]	20	[27.0]	6	[7.8]
예술,스포츠,여가	14	(5.1)	14	(5.3)	5	[35.4]	8	[53.9]	2	[10.8]
협회,단체,수리,개인	17	(3.7)	17	(3.8)	6	[33.1]	10	[59.2]	1	[7.7]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5년), ( ) 입직률, 이직률, [ ] 이직자내 비율

고용24 구인·구직 현황

구인·구직 추이

2025년 고용24 신규구인인원은 187만명으로 전년대비 37.5만명 감소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482만건으로 29.2만건 증가하여 구인배수는 0.39로 전년(0.50)보다 하락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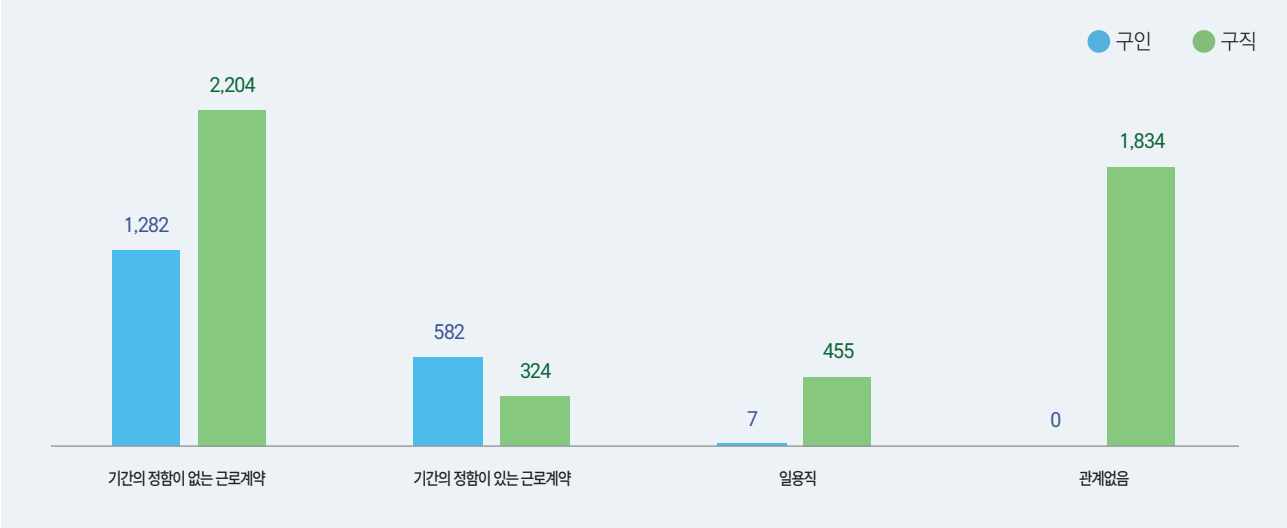
용어 정리

- **신규구인인원**은 구인인증일자 기준 한달 동안 등록된 구인신청 건에서 모집하는 인원수로 신청취소는 제외, 구인을 원하는 일자리수를 의미
- **신규구직건수**는 구직인증일자 기준 한달 동안 등록된 구직신청건수(신청취소 제외), 구직을 원하는 인원수를 의미

☞ 구인·구직 현황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구인·구직 유형

2025년 구인과 구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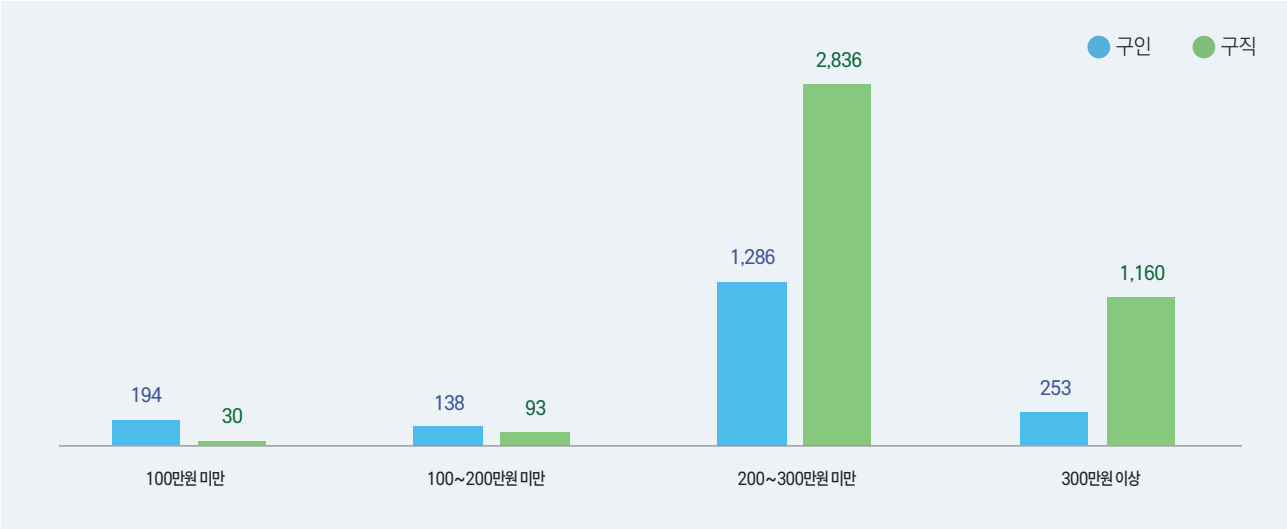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구인·구직자의 희망 임금

2025년 희망임금은 구인과 구직 모두 200~300만원 구간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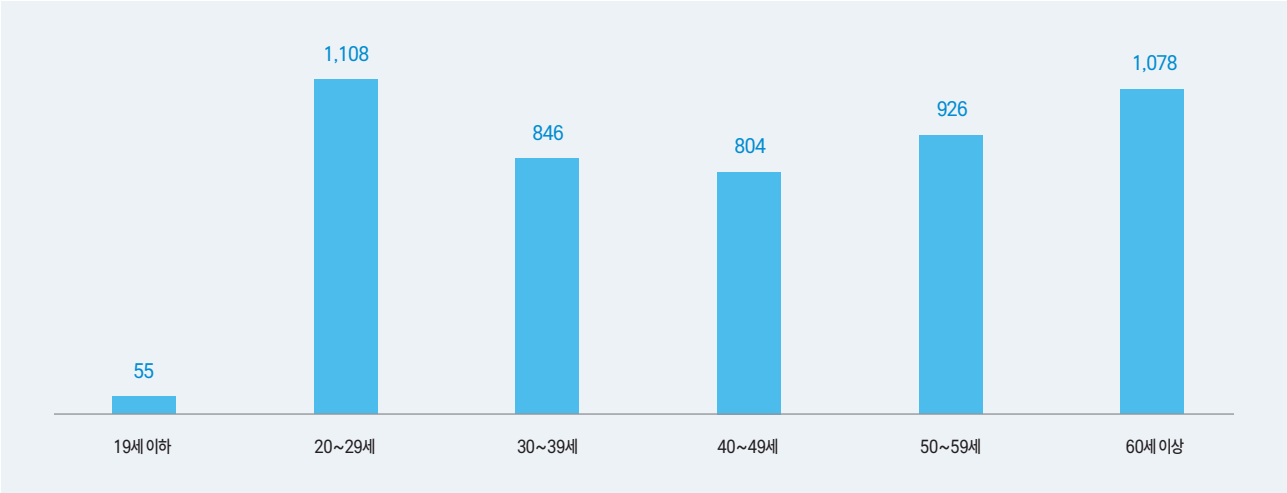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연령별 구직건수

2025년 20대의 구직건수가 110.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구직건수가 107.8만건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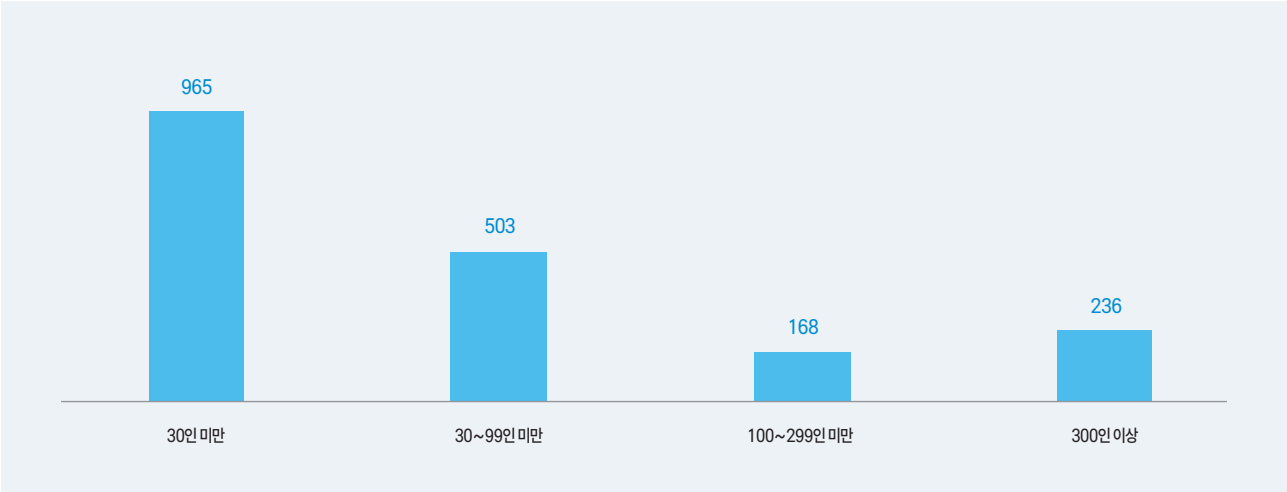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건)

규모별 구인인원

2025년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구인인원이 96.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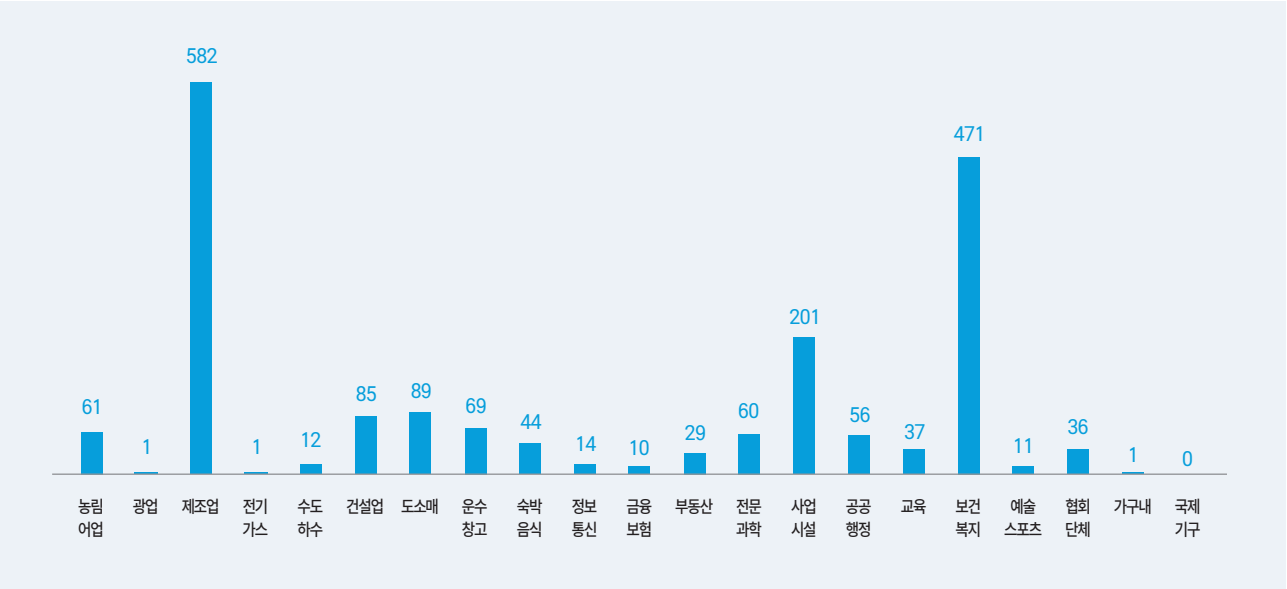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산업별 구인인원

2025년 산업별 구인인원은 제조업, 보건복지, 사업시설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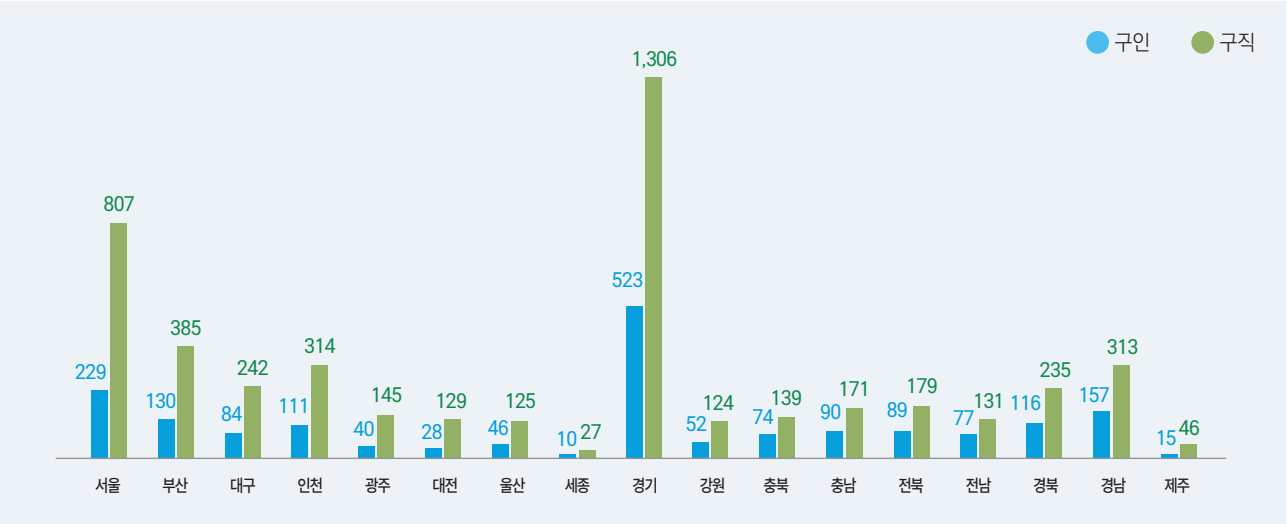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지역별 구인·구직

2025년 지역별 구인인원과 구직건수는 경기도에서 각각 52.3만명, 130.6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 17개 시도 모두 구인인원보다 구직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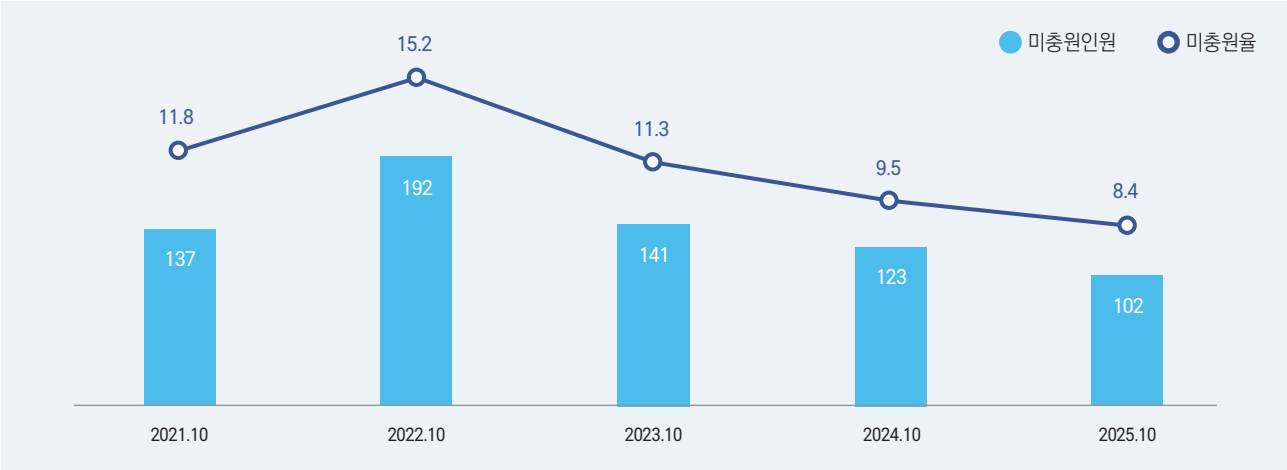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5년)

(단위: 천명, 천건)

미충원 인원

미충원 인원 추이

2025년 하반기 기준 7~9월 3개월간 구인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0.2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만명 감소하였고, 미충원율은 8.4%로 전년동기 대비 1.1%p 하락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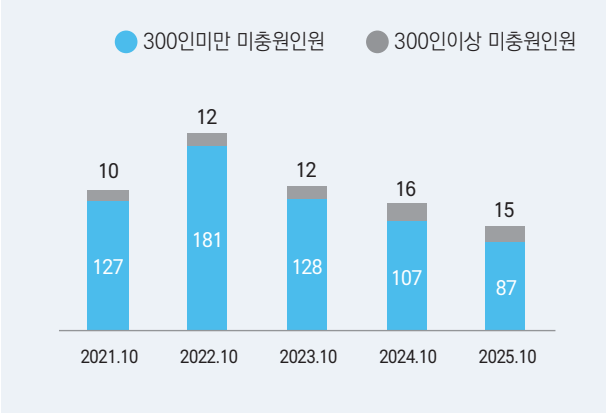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규모별 미충원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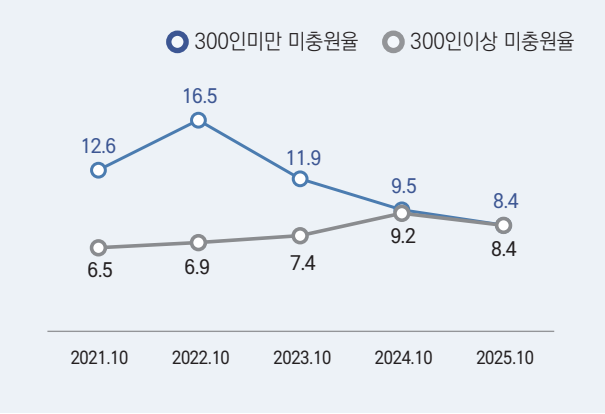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기준 규모별 미충원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많으나,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이 각각 8.4%로 비슷한 수준이다.

- 2025년 하반기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미충원율은 8.4%로 전년동기(9.2%)보다 하락

규모별 미충원인원



규모별 미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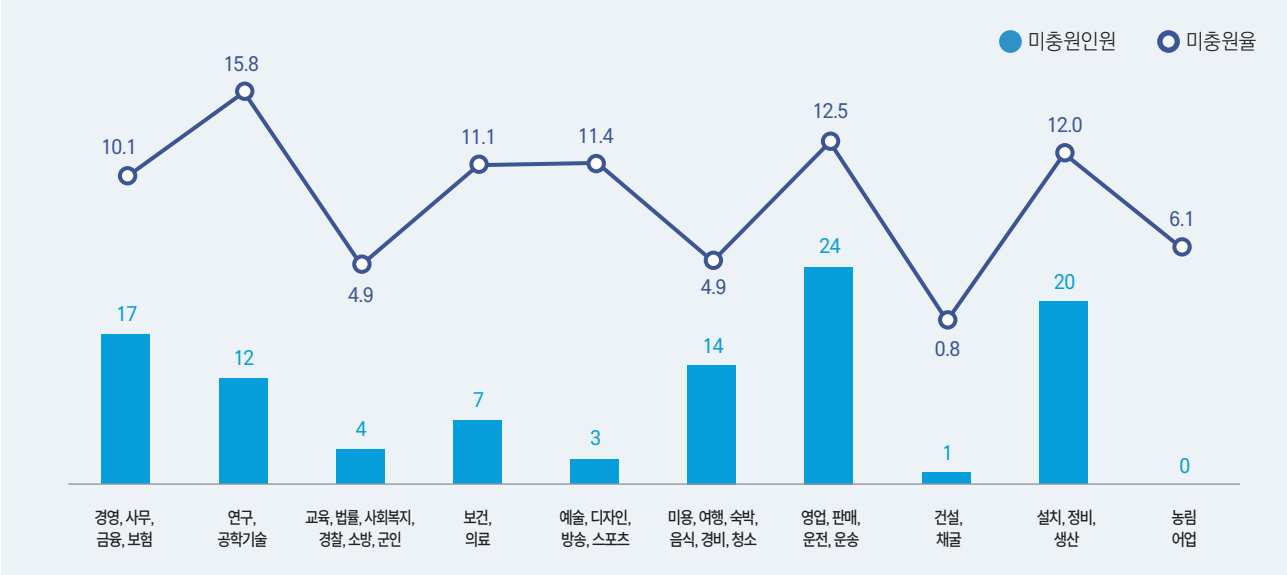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단위: 천명, %)

직종별 미충원 인원

직종별로 볼 때, 2025년 하반기 기준 미충원율은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5.8%), 영업,판매, 운전, 운송직(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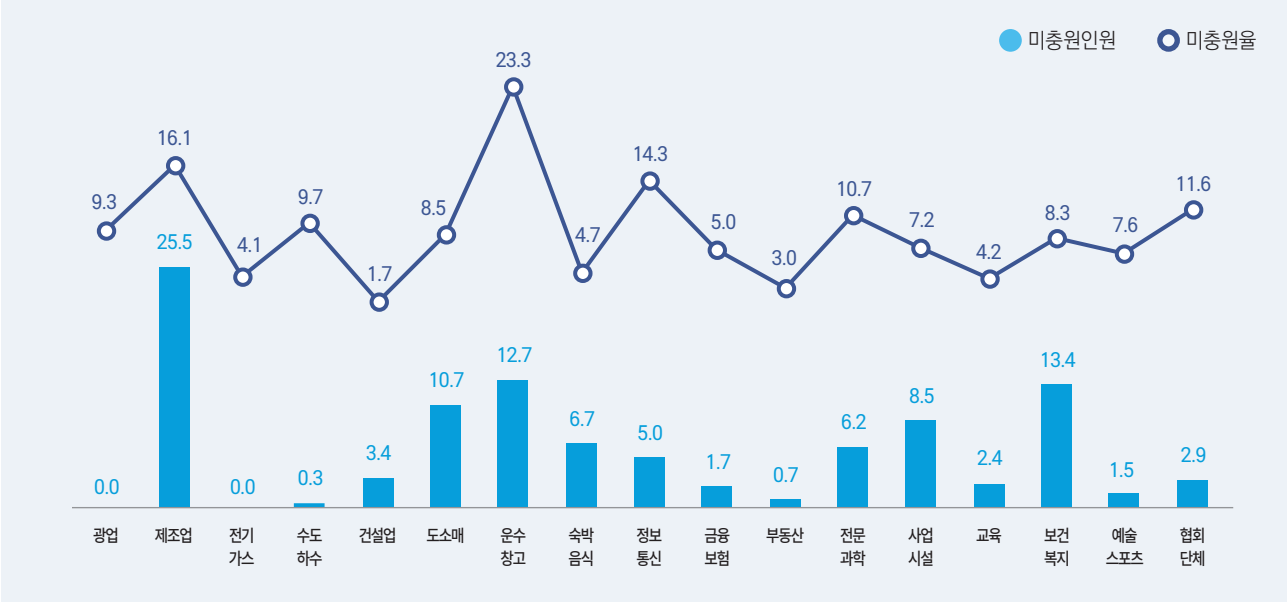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102	87	15	8.4	8.4	8.4
경영, 사무, 금융, 보험	17	13	4	10.1	9.8	11.3
연구, 공학기술	12	10	2	15.8	17.3	11.3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4	3	1	4.9	4.7	5.4
보건, 의료	7	4	3	11.1	10.7	12.0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3	2	1	11.4	9.9	23.3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14	12	2	4.9	5.0	4.1
영업, 판매, 운전, 운송	24	22	2	12.5	13.3	6.8
건설, 채굴	1	1	0	0.8	0.7	15.0
설치, 정비, 생산	20	19	1	12.0	12.6	6.9
농림어업	0	0	0	6.1	6.1	1.6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산업별 미충원 인원

2025년 하반기 기준 산업별 미충원율은 운수창고업(23.3%), 제조업(16.1%), 정보통신업(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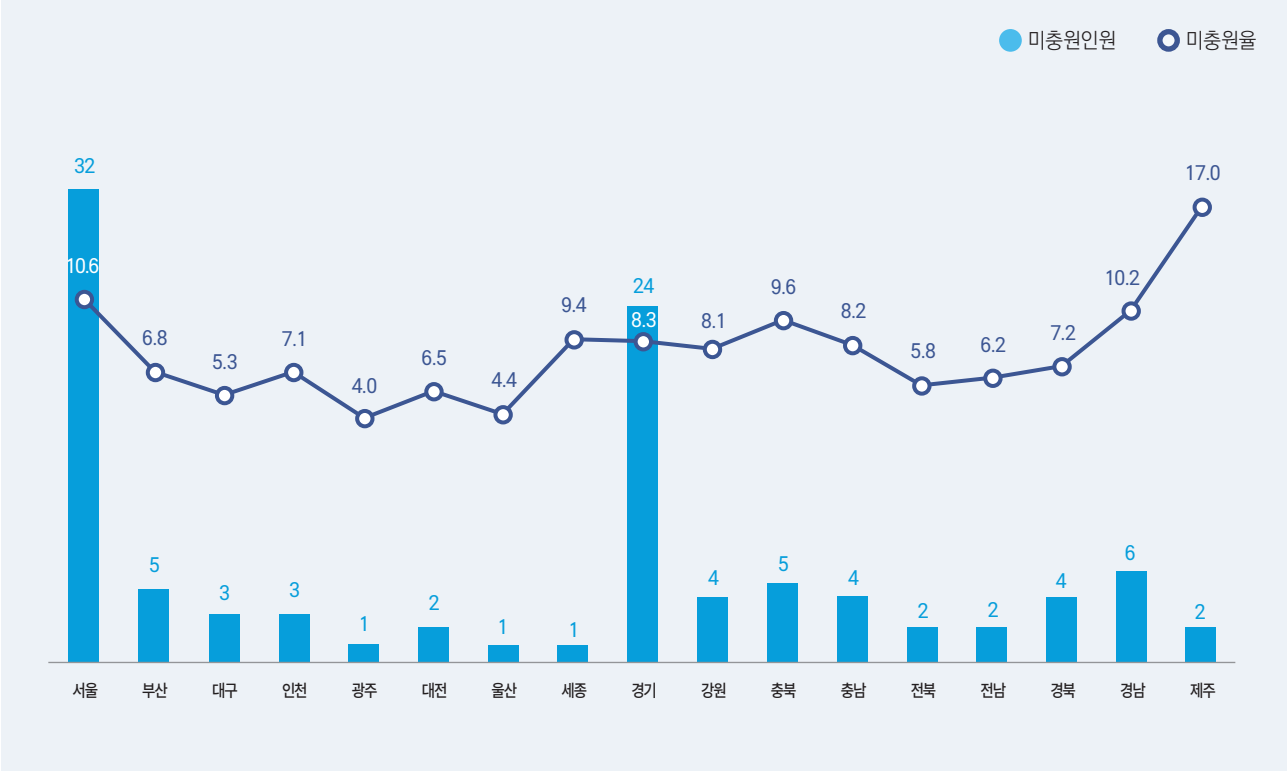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101.6	86.7	14.9	8.4	8.4	8.4
광업	0.0	0.0	0.0	9.3	9.3	0.0
제조업	25.5	24.1	1.3	16.1	17.2	7.3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0	0.0	0.0	4.1	4.6	2.7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0.3	0.3	0.0	9.7	9.7	0.0
건설업	3.4	3.1	0.3	1.7	1.6	12.9
도매 및 소매업	10.7	10.4	0.3	8.5	8.6	5.4
운수 및 창고업	12.7	12.1	0.7	23.3	27.2	6.5
숙박 및 음식점	6.7	6.4	0.3	4.7	4.6	12.2
정보통신업	5.0	4.0	1.1	14.3	14.6	13.4
금융 및 보험업	1.7	1.4	0.3	5.0	4.6	7.6
부동산업	0.7	0.6	0.1	3.0	3.2	1.8
전문, 과학, 기술	6.2	5.1	1.1	10.7	11.5	8.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8.5	3.1	5.5	7.2	5.7	8.5
교육서비스	2.4	1.5	0.9	4.2	3.9	4.9
보건, 사회복지	13.4	10.5	2.9	8.3	7.8	11.1
예술, 스포츠, 여가	1.5	1.2	0.3	7.6	6.8	14.6
협회, 단체, 수리, 개인	2.9	2.9	0.0	11.6	11.7	5.5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지역별 미충원 인원

2025년 하반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서울(3.2만명)과 경기(2.4만명)에서 많고, 미충원율은 제주(17.0%), 서울(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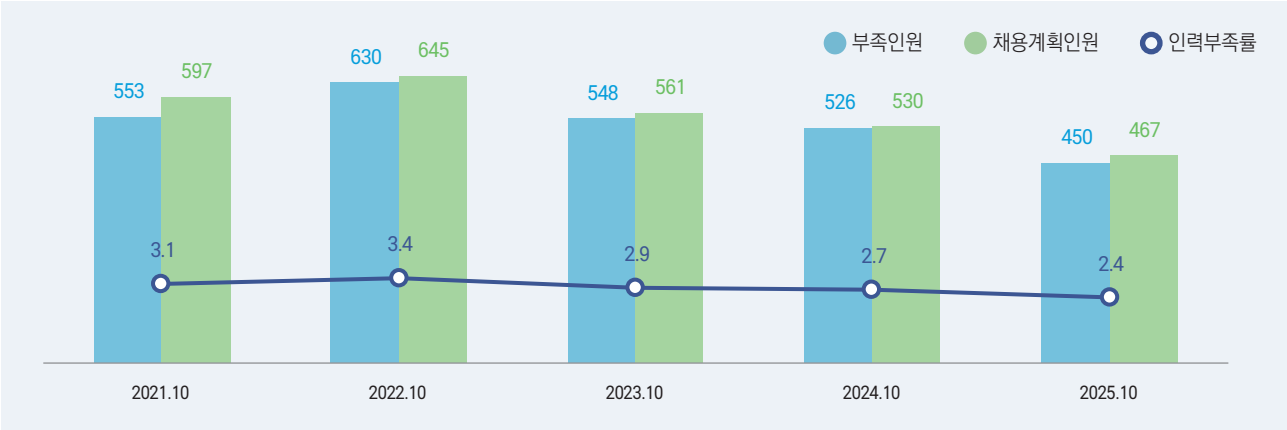
(단위: 천명, %)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2025년 10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45.0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6만명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4%로 전년동기 대비 0.3%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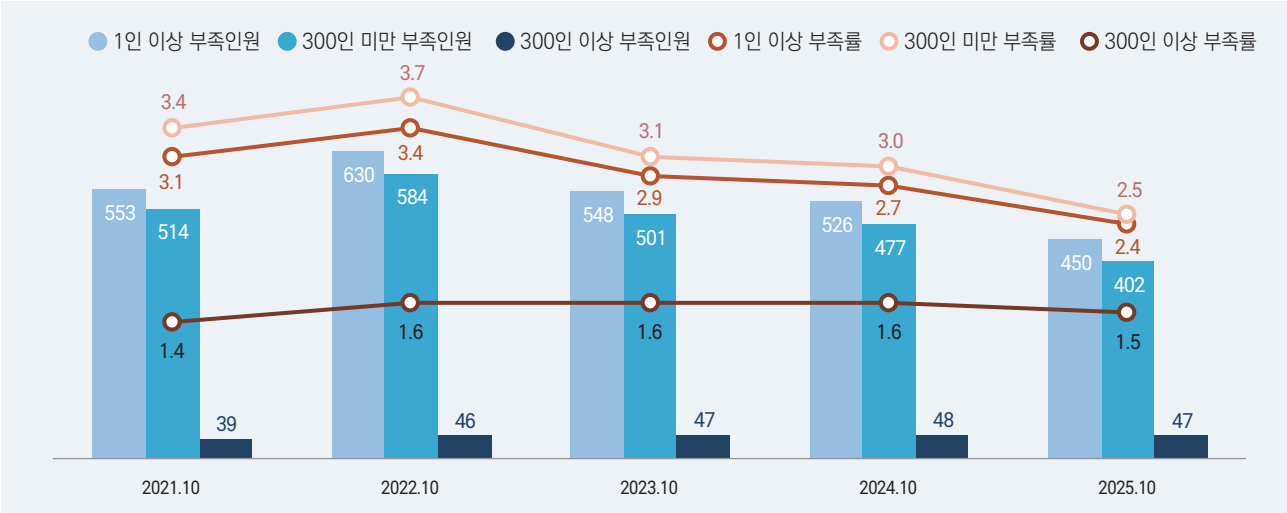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2025년 10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300인 미만에서 40.2만명, 300인이상에서 4.7만명으로 300인 미만의 부족인원이 월등히 많음

- 인력부족률은 300인미만이 2.5%, 300인이상이 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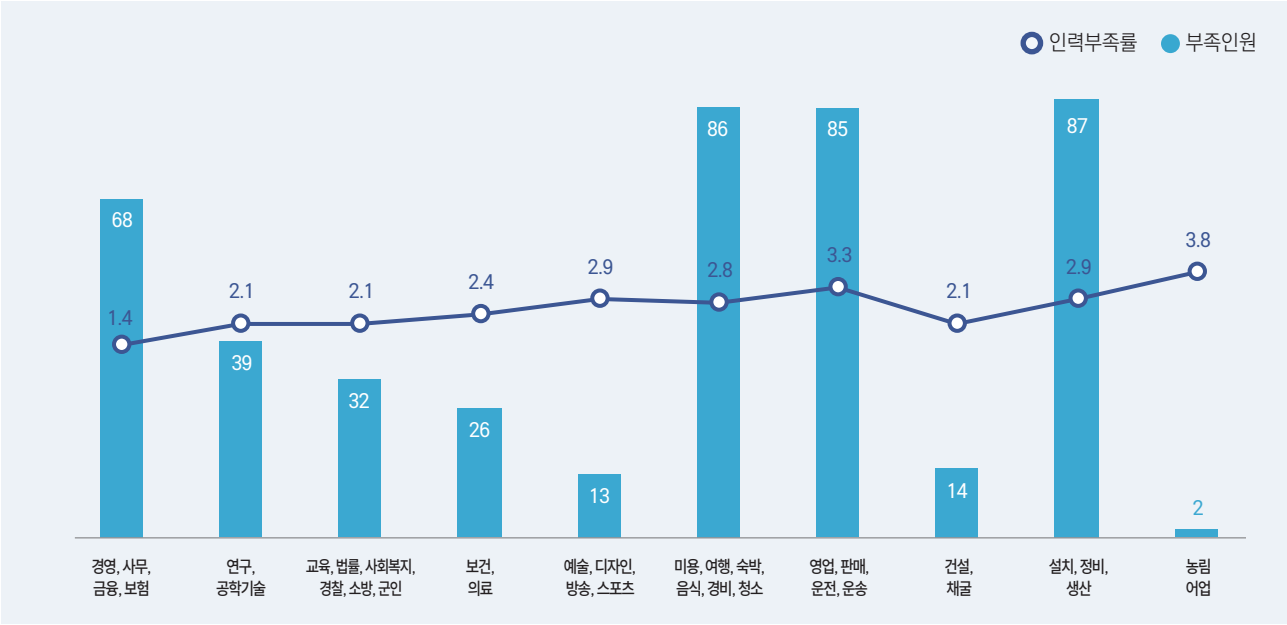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직종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10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설치·정비·생산직이 8.7만명으로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농림어업직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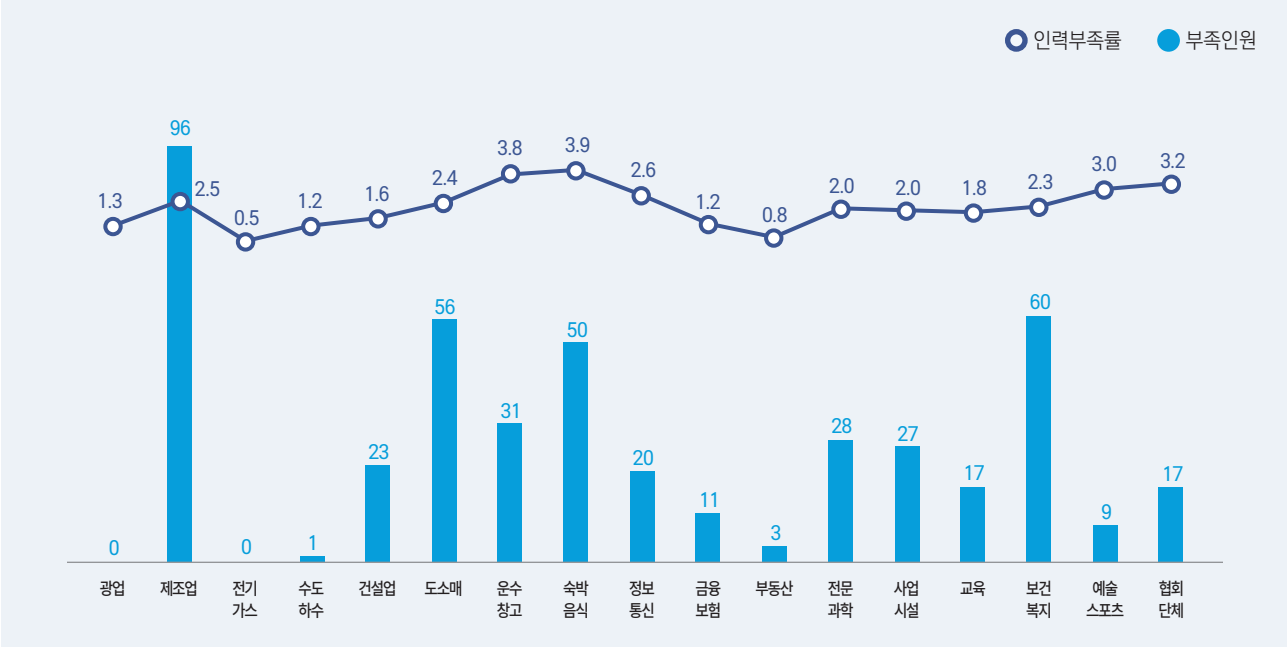
구 분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450	402	47	2.4	2.5	1.5	467	408	59
경영, 사무, 금융, 보험	68	56	11	1.4	1.4	1.5	72	54	17
연구, 공학기술	39	31	8	2.1	2.6	1.3	40	31	9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32	30	2	2.1	2.2	1.2	35	32	3
보건, 의료	26	19	7	2.4	2.5	2.1	27	19	7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13	11	2	2.9	2.9	2.9	13	11	2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86	80	5	2.8	3.0	1.3	90	83	7
영업, 판매, 운전, 운송	85	79	7	3.3	3.3	2.8	85	77	8
건설, 채굴	14	13	0	2.1	2.1	0.7	16	16	0
설치, 정비, 생산	87	82	5	2.9	3.2	1.0	88	82	7
농림어업	2	1	0	3.8	3.7	5.7	2	2	0

(단위: 천명, %)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산업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10월 1일 기준 산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9.6만명), 보건복지업(6.0만명), 도소매업(5.6만명) 순으로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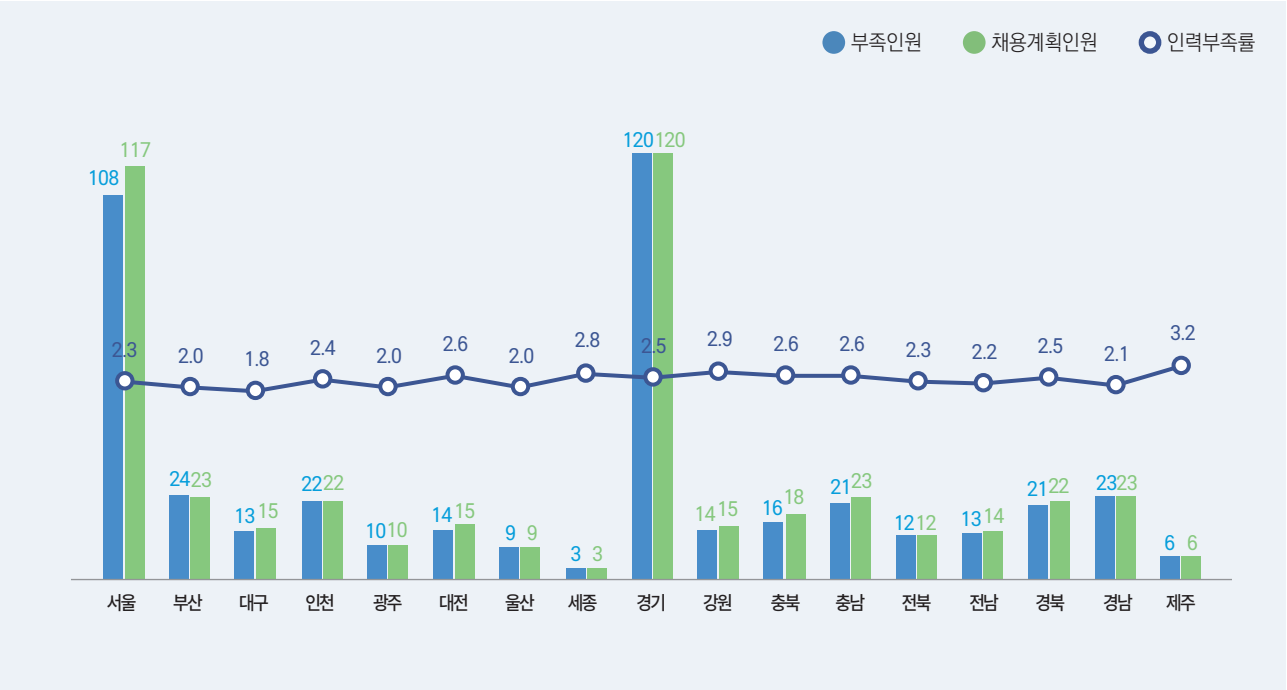
구 분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450	402	47	2.4	2.5	1.5	467	408	59
광업	0	0	0	1.3	1.5	0.0	0	0	0
제조업	96	90	6	2.5	2.9	0.8	95	88	7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	0	0	0.5	0.5	0.4	0	0	0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1	1	0	1.2	1.2	0.0	1	1	0
건설업	23	22	0	1.6	1.7	0.6	25	25	0
도매및소매업	56	54	1	2.4	2.5	1.3	56	54	1
운수및창고업	31	28	3	3.8	4.2	2.1	31	28	3
숙박및음식점	50	50	1	3.9	3.9	3.0	51	50	1
정보통신업	20	16	4	2.6	2.9	2.1	20	16	4
금융및보험업	11	8	3	1.2	1.1	1.8	11	8	3
부동산업	3	3	1	0.8	0.7	1.3	4	3	1
전문, 과학, 기술	28	22	6	2.0	2.3	1.4	28	22	6
사업시설관리및지원	27	15	11	2.0	1.9	2.1	35	15	20
교육서비스	17	15	2	1.8	2.0	1.2	19	15	4
보건, 사회복지	60	52	8	2.3	2.3	1.9	64	56	9
예술, 스포츠, 여가	9	8	1	3.0	2.9	4.8	9	8	1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7	17	0	3.2	3.2	3.3	17	17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지역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2025년 10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경기(12.0만명), 서울(10.8만명) 순으로 많고, 인력부족률은 제주(3.2%), 강원(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주) '25.상반기 자료부터 잠정치, 사업체노동력조사 모집단 정보 보정 후 동조사 결과도 보정 예정

(단위: 천명, %)

용어 정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용어정리 및 기준]

- **부족인원**은 매년 당해 사업체에서 조사기준일(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수를 의미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부족인원) × 100
- **구인·채용·미충원인원(미충원율)**: '25.3/4분기
- **채용계획인원**: '25.4/4분기~'26.1/4분기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 직업훈련

① 직업훈련 현황
② 수료자 취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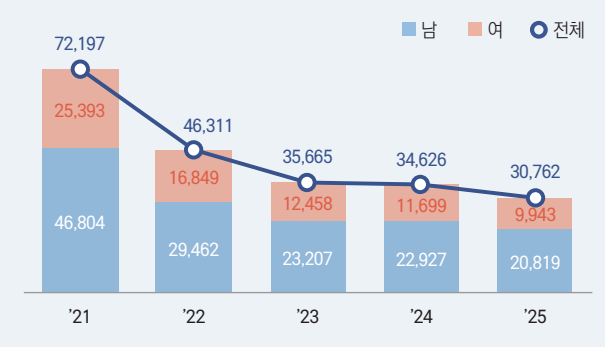
직업훈련 현황

훈련별 성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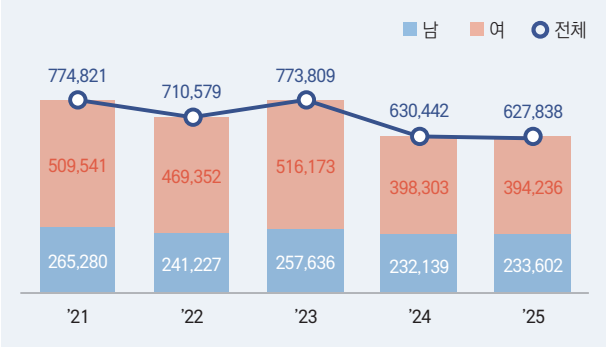
2025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실시 인원은 남성 비율이 높고,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은 여성 비율이 높다.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은 30,762명이며, 남성이 여성의 약 2.1배 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627,83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

성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성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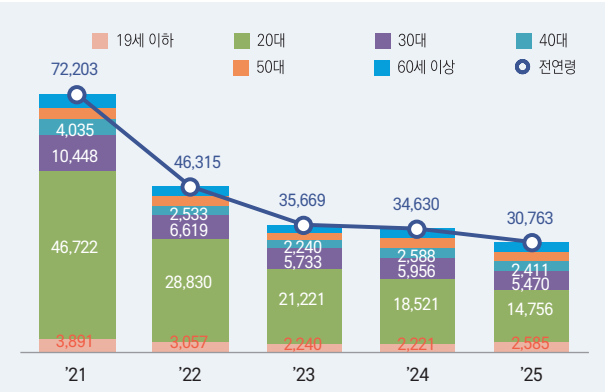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명)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훈련별 연령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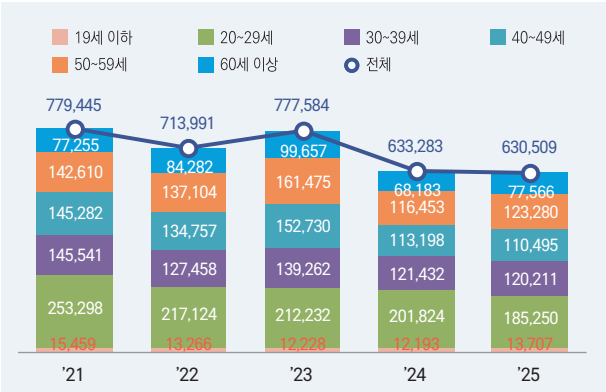
2025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주 참여연령은 20대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대가 가장 많고, 타연령대는 유사한 비중이다.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에서 20대 비율은 48.0%(14,756명)로 가장 많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전년에 비해 20~40대에서 감소한 반면, 19세 이하와 50대 이상에서는 증가

연령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연령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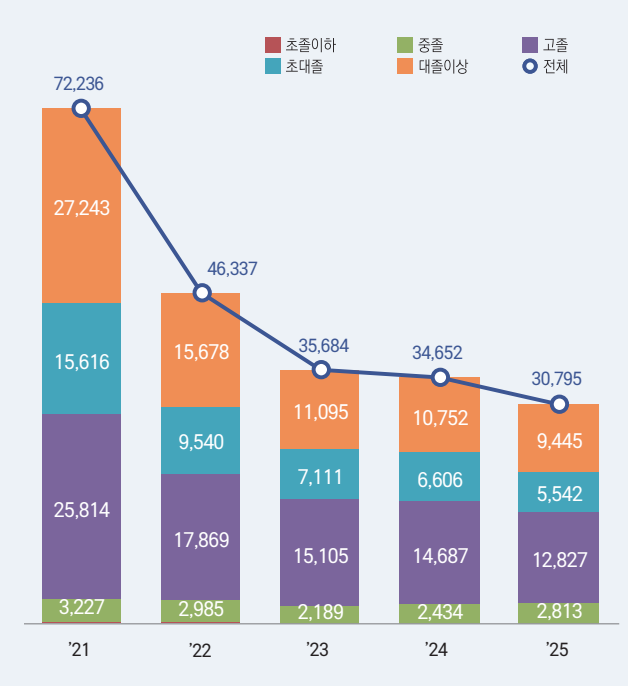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명)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훈련별 학력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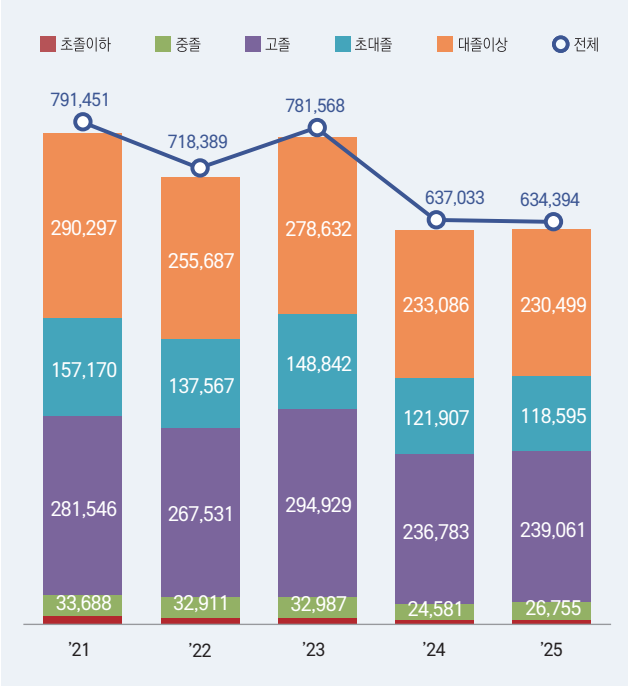
2025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은 모두 고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두 고졸, 대졸, 초대졸 순으로 많음

학력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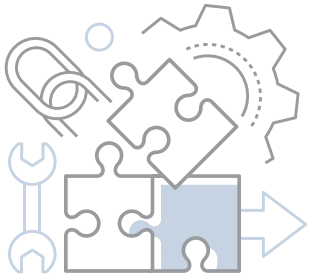


학력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 각 연도별 학력미분류자는 막대그래프에 미포함, 전체에는 포함
주1)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기준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 제시
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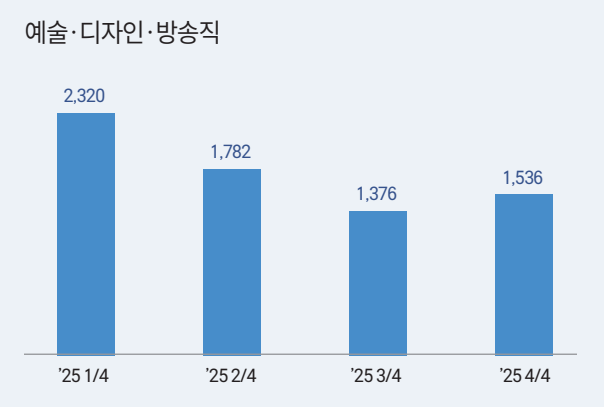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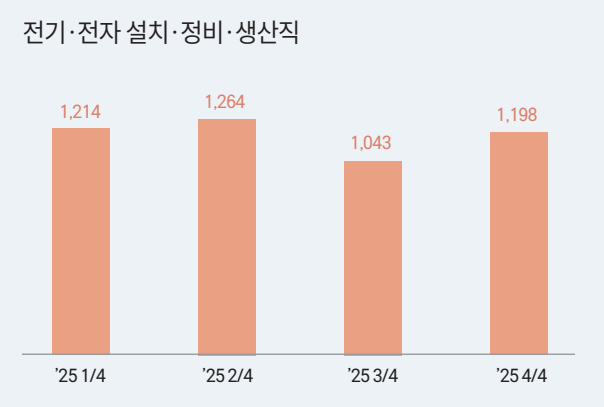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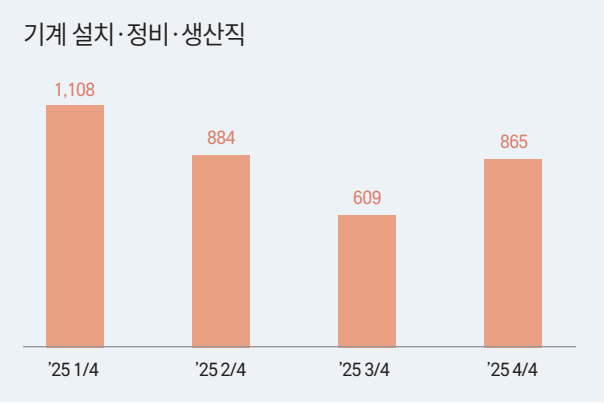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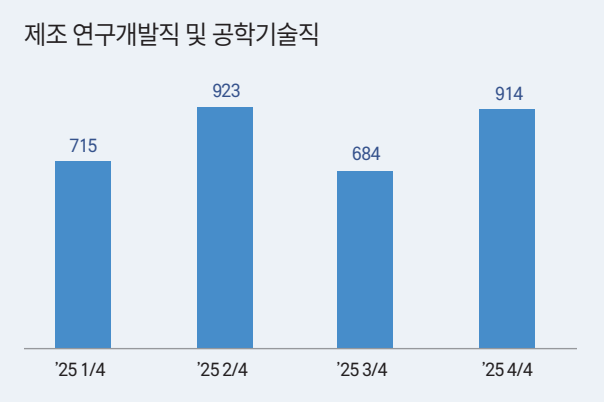
2025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에는 예술·디자인·방송직,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순으로 많다.

주요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









구 분	분기합계	'25.1/4		'25.2/4		'25.3/4		'25.4/4	
전 직종	30,911	8,961	(100.0)	8,024	(100.0)	6,624	(100.0)	7,302	(100.0)
경영·행정·사무직	2,414	554	(6.2)	723	(9.0)	612	(9.2)	525	(7.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65	52	(0.6)	33	(0.4)	59	(0.9)	21	(0.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102	1,110	(12.4)	786	(9.8)	625	(9.4)	581	(8.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21	685	(7.6)	449	(5.6)	549	(8.3)	538	(7.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236	715	(8.0)	923	(11.5)	684	(10.3)	914	(12.5)
예술·디자인·방송직	7,014	2,320	(25.9)	1,782	(22.2)	1,376	(20.8)	1,536	(21.0)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08	30	(0.3)	42	(0.5)	17	(0.3)	19	(0.3)
건설·채굴직	2,115	668	(7.5)	476	(5.9)	503	(7.6)	468	(6.4)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466	1,108	(12.4)	884	(11.0)	609	(9.2)	865	(11.8)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471	318	(3.5)	370	(4.6)	355	(5.4)	428	(5.9)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719	1,214	(13.5)	1,264	(15.8)	1,043	(15.7)	1,198	(16.4)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53	12	(0.1)	19	(0.2)	0	(0.0)	22	(0.3)
섬유·의복 생산직	71	0	(0.0)	41	(0.5)	21	(0.3)	9	(0.1)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33	175	(2.0)	222	(2.8)	171	(2.6)	165	(2.3)
농림어업직	23	0	(0.0)	10	(0.1)	0	(0.0)	1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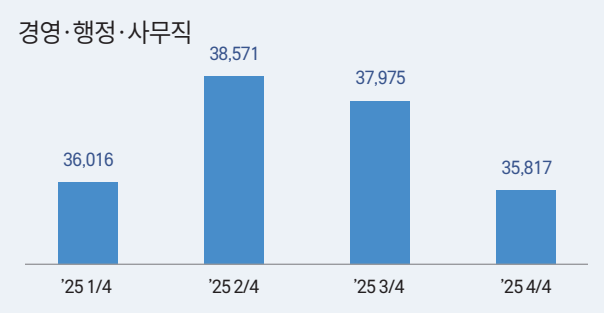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주: 분기합계는 4개 분기를 단순 합산한 값, 여러 분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중복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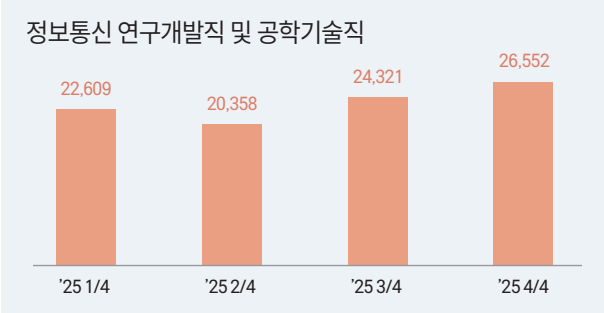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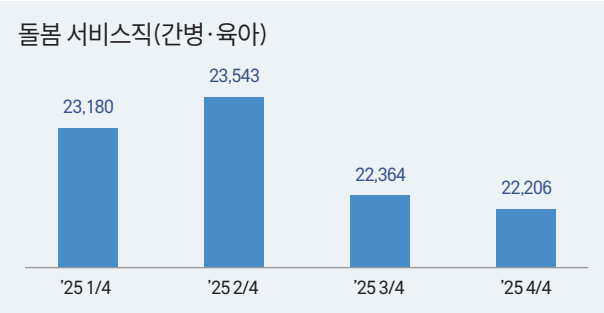
직종별 국민내일배움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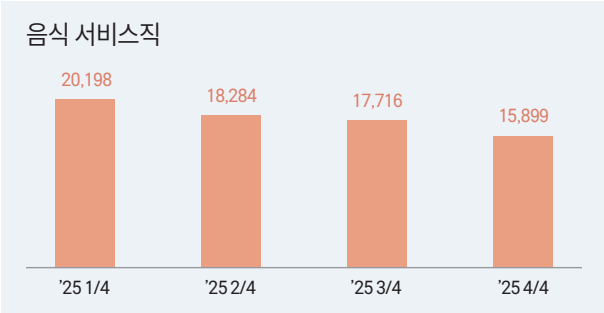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에는 경영·행정·사무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돌봄 서비스직, 음식서비스직 순으로 많다.

주요 직종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인원









구 분	분기합계	'25.1/4		'25.2/4		'25.3/4		'25.4/4	
전 직종	755,407	196,495	(100.0)	186,179	(100.0)	189,196	(100.0)	183,537	(100.0)
관리직(임원·부서장)	2,801	750	(0.4)	633	(0.3)	722	(0.4)	696	(0.4)
경영·행정·사무직	148,379	36,016	(18.3)	38,571	(20.7)	37,975	(20.1)	35,817	(19.5)
금융·보험직	4,160	1,417	(0.7)	928	(0.5)	893	(0.5)	922	(0.5)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550	842	(0.4)	645	(0.3)	654	(0.3)	409	(0.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3,840	22,609	(11.5)	20,358	(10.9)	24,321	(12.9)	26,552	(14.5)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614	4,967	(2.5)	4,064	(2.2)	4,413	(2.3)	4,170	(2.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367	7,957	(4.0)	6,668	(3.6)	7,126	(3.8)	8,616	(4.7)
교육직	785	280	(0.1)	256	(0.1)	125	(0.1)	124	(0.1)
법률직	8,508	2,299	(1.2)	1,922	(1.0)	2,072	(1.1)	2,215	(1.2)
사회복지·종교직	8,504	1,800	(0.9)	2,399	(1.3)	2,220	(1.2)	2,085	(1.1)
경찰·소방·교도직	736	216	(0.1)	179	(0.1)	173	(0.1)	168	(0.1)
보건·의료직	23,819	7,621	(3.9)	5,415	(2.9)	5,877	(3.1)	4,906	(2.7)
예술·디자인·방송직	44,614	12,446	(6.3)	10,916	(5.9)	11,521	(6.1)	9,731	(5.3)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35	41	(0.0)	73	(0.0)	65	(0.0)	56	(0.0)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34,106	9,383	(4.8)	8,286	(4.5)	8,530	(4.5)	7,907	(4.3)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149	602	(0.3)	622	(0.3)	567	(0.3)	358	(0.2)
음식 서비스직	72,097	20,198	(10.3)	18,284	(9.8)	17,716	(9.4)	15,899	(8.7)
경호·경비직	1,081	280	(0.1)	261	(0.1)	319	(0.2)	221	(0.1)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91,293	23,180	(11.8)	23,543	(12.6)	22,364	(11.8)	22,206	(12.1)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302	1,613	(0.8)	1,604	(0.9)	1,664	(0.9)	1,421	(0.8)
영업·판매직	5,525	1,379	(0.7)	1,455	(0.8)	1,448	(0.8)	1,243	(0.7)
운전·운송직	27,983	6,880	(3.5)	6,934	(3.7)	7,051	(3.7)	7,118	(3.9)
건설·채굴직	28,287	7,379	(3.8)	7,198	(3.9)	6,822	(3.6)	6,888	(3.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3,184	3,717	(1.9)	3,141	(1.7)	3,199	(1.7)	3,127	(1.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6,809	1,646	(0.8)	1,655	(0.9)	1,755	(0.9)	1,753	(1.0)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7,238	6,956	(3.5)	6,495	(3.5)	6,436	(3.4)	7,351	(4.0)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44	30	(0.0)	33	(0.0)	40	(0.0)	41	(0.0)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13	47	(0.0)	32	(0.0)	22	(0.0)	112	(0.1)
섬유·의복 생산직	4,872	1,196	(0.6)	1,268	(0.7)	1,256	(0.7)	1,152	(0.6)
식품 가공·생산직	29,683	8,299	(4.2)	7,620	(4.1)	7,272	(3.8)	6,492	(3.5)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4,340	3,627	(1.8)	3,981	(2.1)	3,705	(2.0)	3,027	(1.6)
농림어업직	3,112	807	(0.4)	730	(0.4)	839	(0.4)	736	(0.4)
분류불능	76	15	(0.0)	10	(0.0)	34	(0.0)	17	(0.0)
제조 단순직	1	0	(0.0)	0	(0.0)	0	(0.0)	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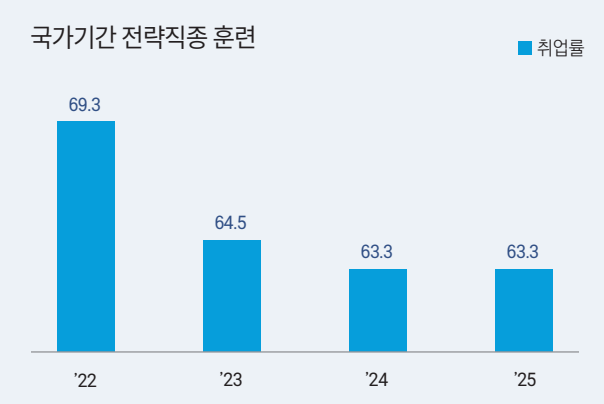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주: 분기합계는 4개 분기를 단순 합산한 값, 여러 분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중복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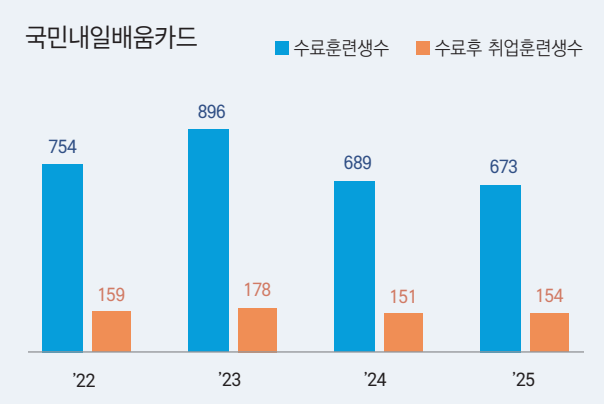
(단위: 명, %)

수료자 취업현황

훈련별 수료자 취업

2025년 훈련 수료 후 취업률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63.3%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훈련생수는 673천명, 수료후 취업훈련생수는 154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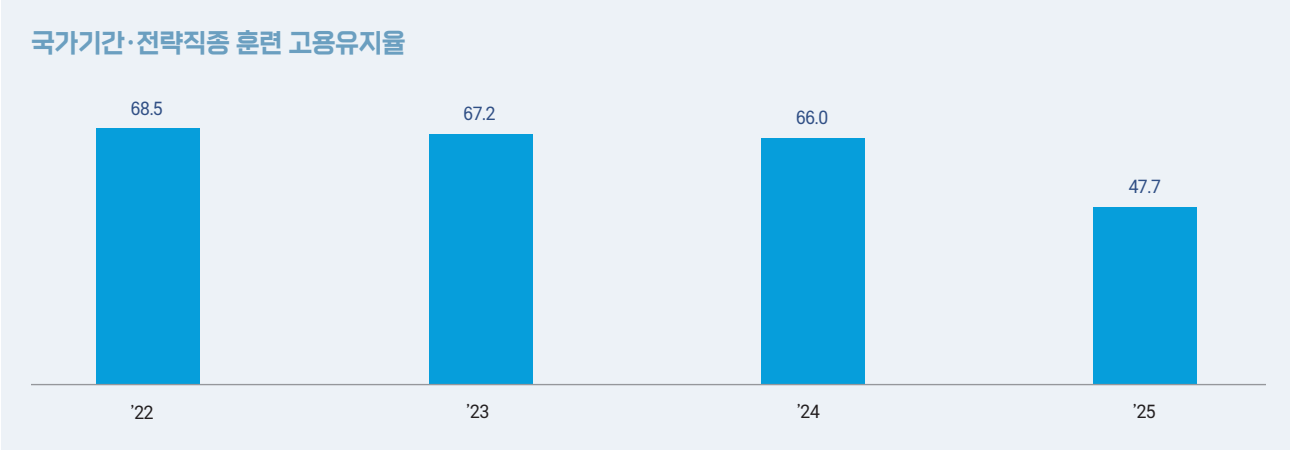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천명)

훈련별 취업자 고용유지율

2025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종료 및 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들의 고용유지율은 4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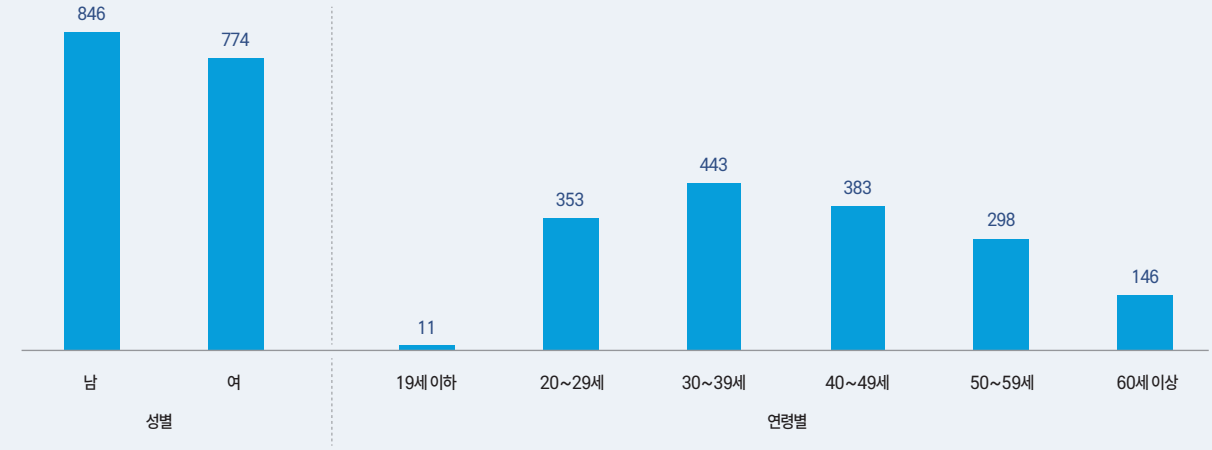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IS
주) 고용유지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 비율

(단위: %)

재직자 훈련

2025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은 20~40대, 경영·행정·사무직 중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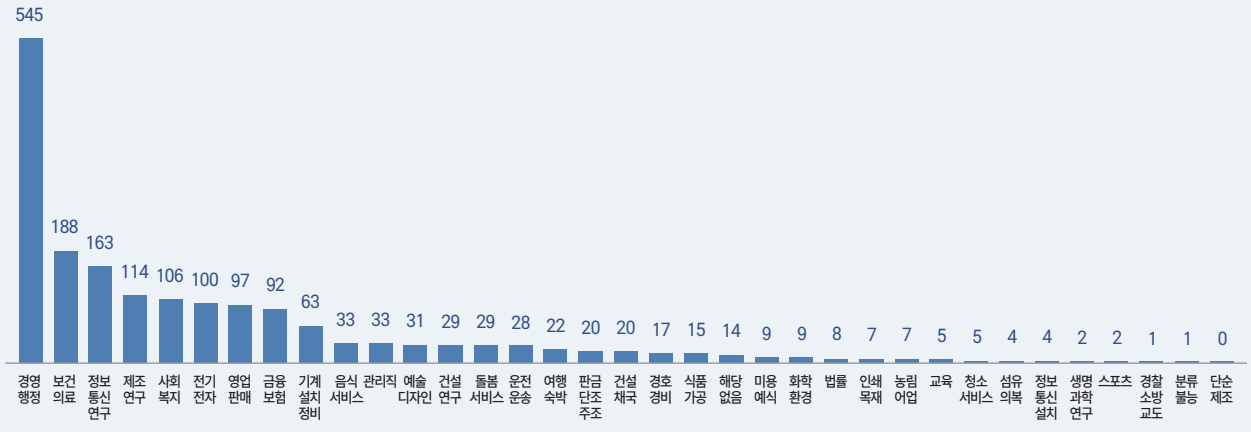
성·연령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



(단위: 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EIS
주) 대상훈련은 사업주지원금훈련, 통합심사과정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IPP(4년제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유니테크

직종별 재직자 훈련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EIS

(단위: 천명)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6. 근로조건

①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②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③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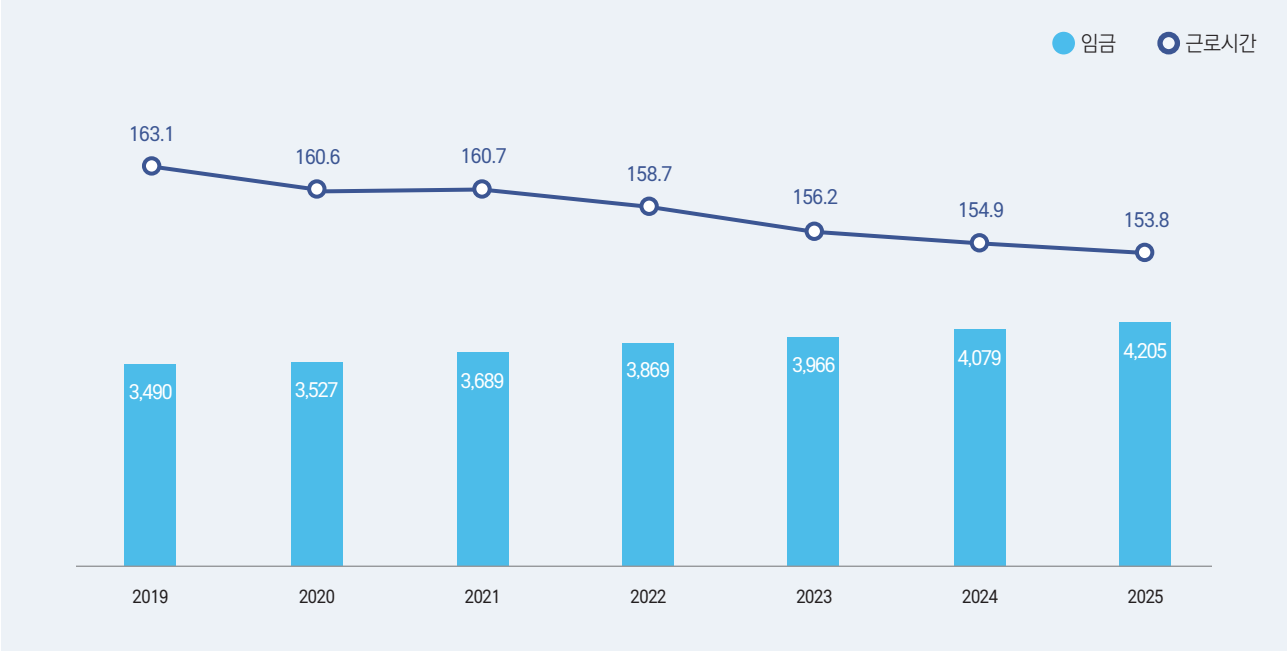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명목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5년 상용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420.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만원 증가하였고, 월 평균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대비 1.1시간 감소하였다.

- 연도별로 보면, 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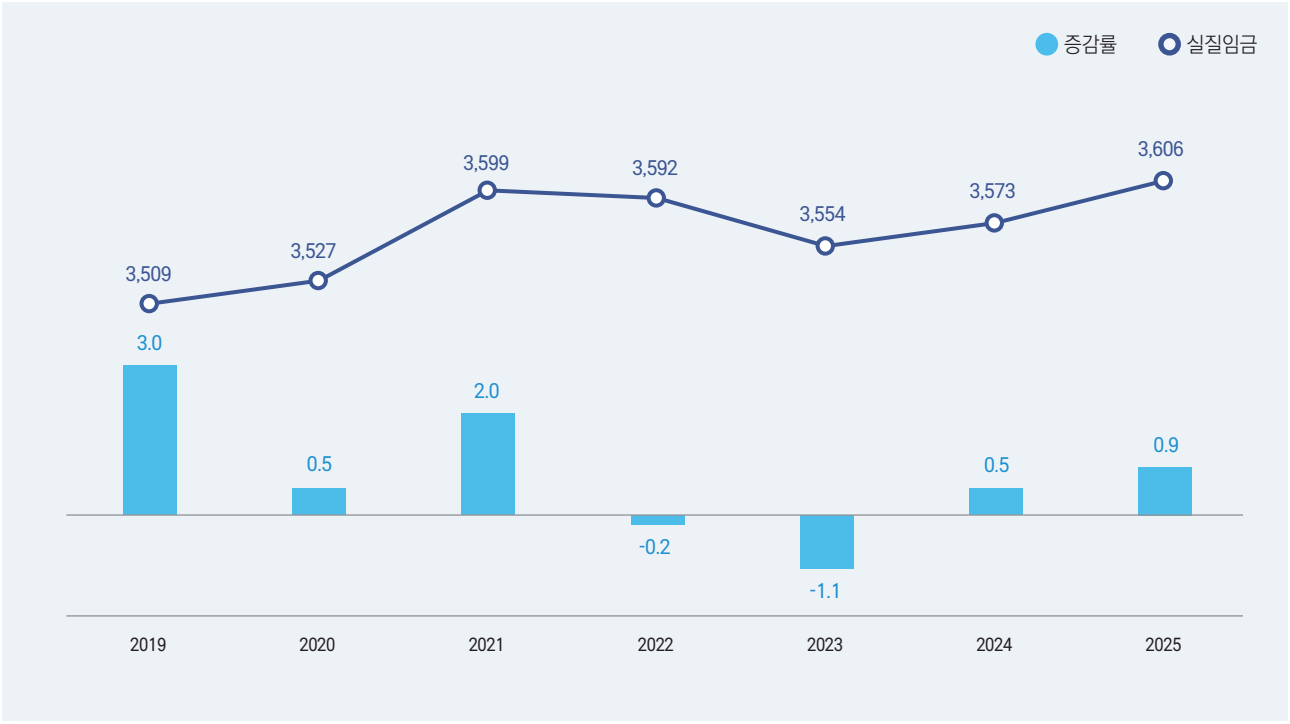


구 분		'19		'20		'21		'22		'23		'24		'25	
임금	전체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4,205	(3.1)
	상용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338	(3.0)	4,472	(3.1)
	정액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555	(3.2)	3,653	(2.7)
	초과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40	(5.8)	254	(5.6)
	특별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542	(0.4)	566	(4.3)
	임시 · 일용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809	(1.4)	1,745	(−3.5)
근로시간	전체	163.1	(−0.5)	160.6	(−1.5)	160.7	(0.1)	158.7	(−1.2)	156.2	(−1.6)	154.9	(−0.8)	153.8	(−0.7)
	상용	170.3	(−0.5)	166.9	(−2.0)	167.0	(0.1)	165.1	(−1.1)	163.6	(−0.9)	162.7	(−0.6)	161.3	(−0.9)
	소정	161.3	(−0.2)	158.6	(−1.7)	158.7	(0.1)	156.8	(−1.2)	155.6	(−0.8)	154.6	(−0.6)	153.3	(−0.8)
	초과	9.1	(−4.2)	8.3	(−8.8)	8.3	(0.0)	8.3	(0.0)	8.0	(−3.6)	8.1	(1.3)	8.1	(0.0)
	임시 · 일용	96.0	(−2.6)	97.6	(1.7)	99.0	(1.4)	98.1	(−0.9)	90.0	(−8.3)	86.0	(−4.4)	84.1	(−2.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상(임시일용 포함) (단위: 천원, 시간, %)
주)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한 분석(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총량을 조사하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가능)

실질임금

2025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60.6만원으로 전년보다 0.9% 상승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주 1) 명목임금: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평균 임금
2) 실질임금: 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반영하여 실질화한 임금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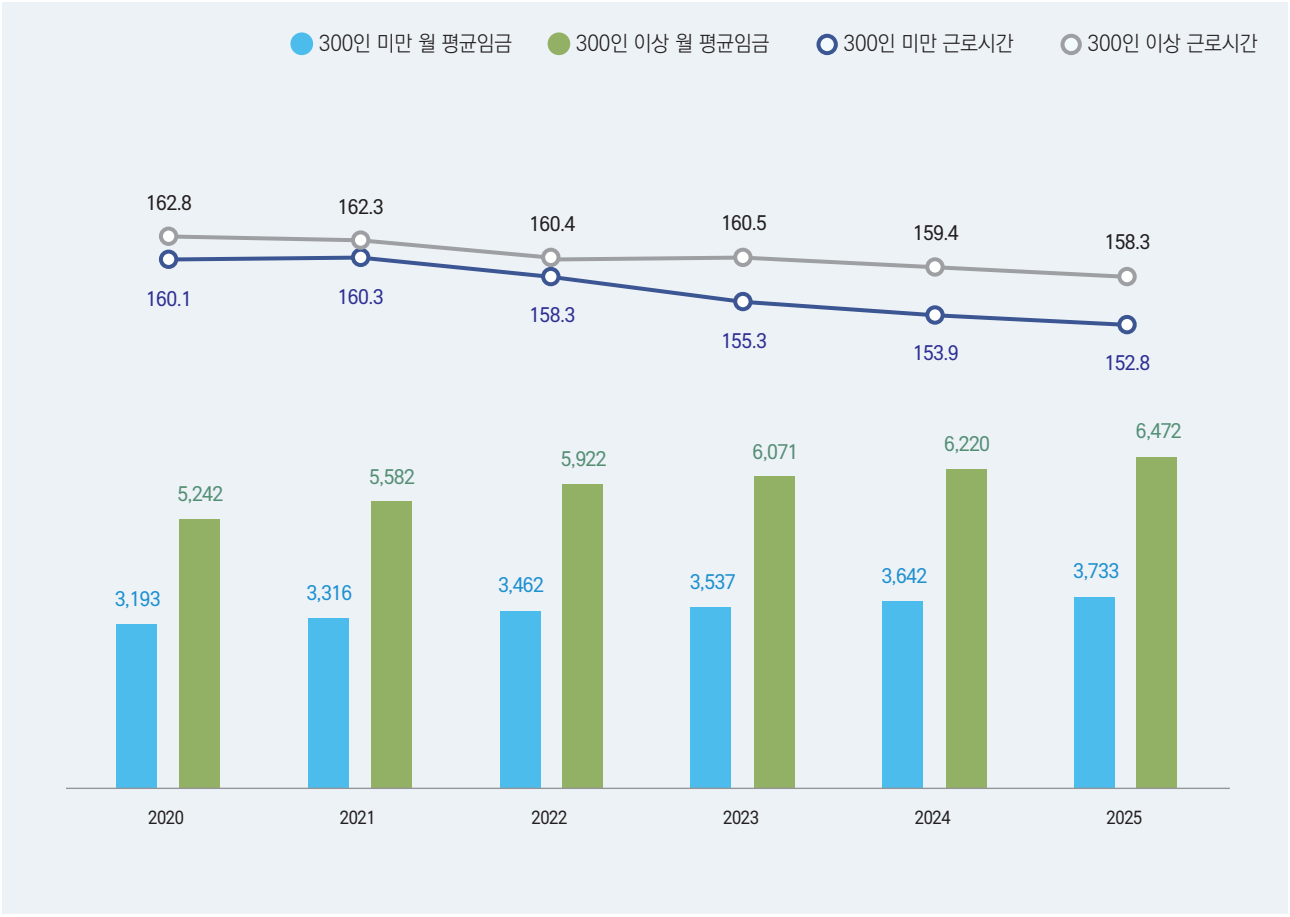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수준은 57.7%로 규모별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 '25년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은 373.3만원이고, 300인 이상은 647.2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 수준은 57.7%
- 1~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52.8시간이고, 300인 이상은 158.3시간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시간이 5.5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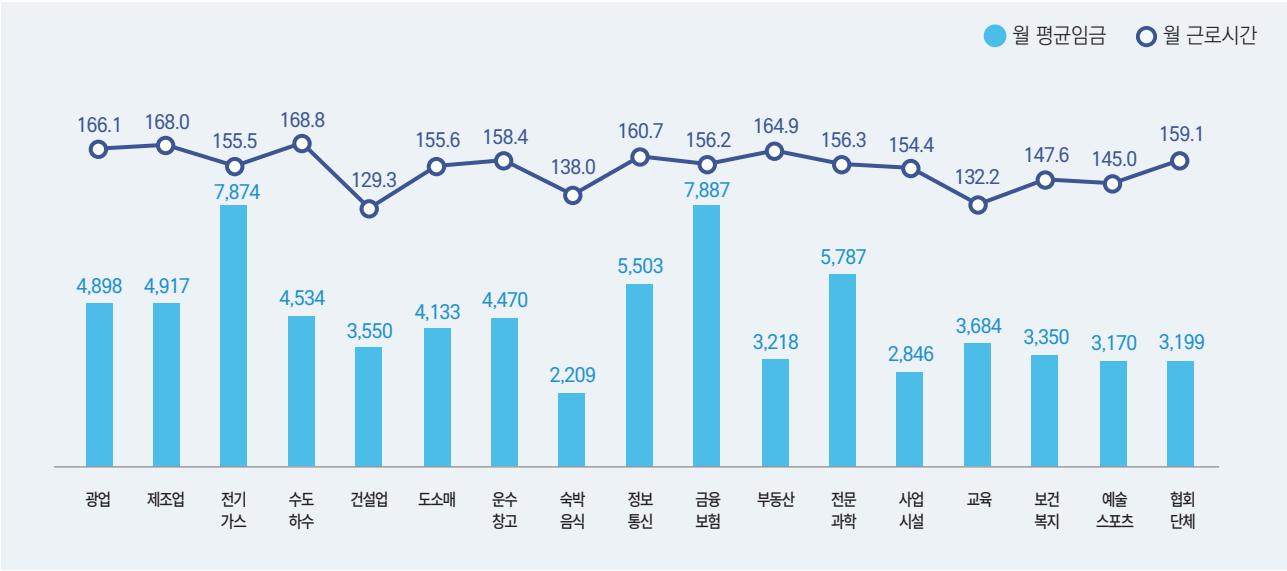
구 분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20	'21	'22	'23	'24	'25	'20	'21	'22	'23	'24	'25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비율	60.9	59.4	58.5	58.3	58.5	57.7	98.3	98.8	98.7	96.8	96.5	96.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단위: %)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다. 근로시간은 수도·하수업(168.8시간), 제조업(168.0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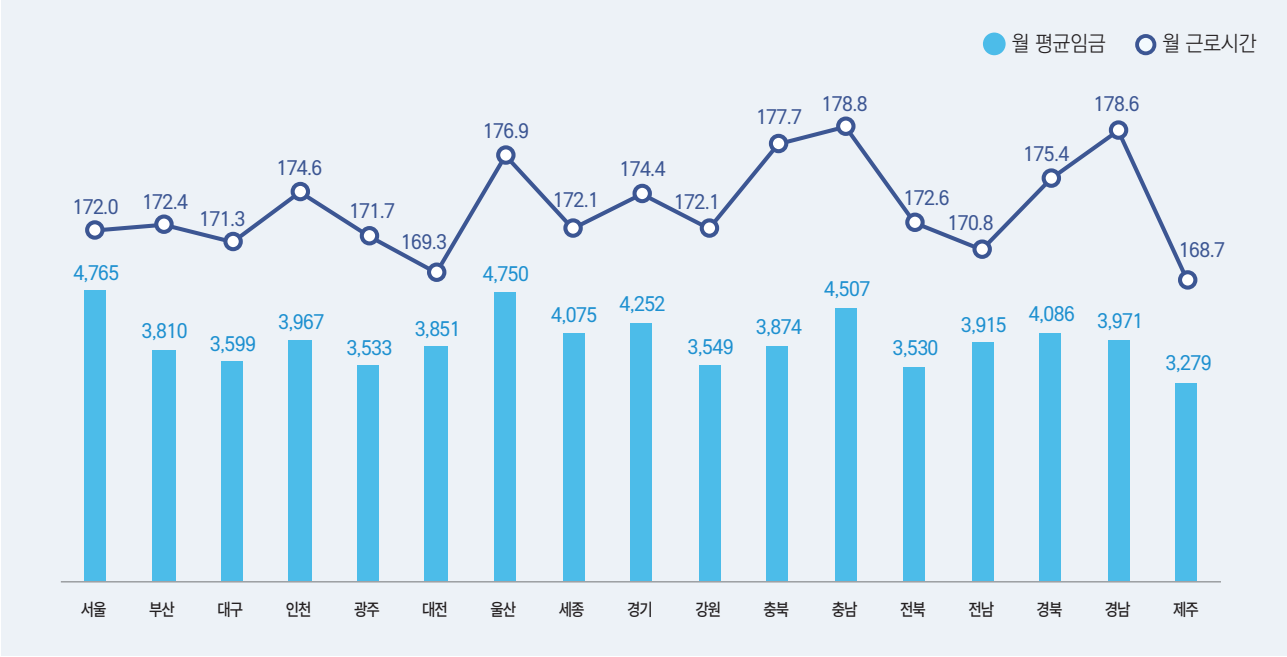
구 분	전체임금총액				전체근로시간			
	'24		'25		'24		'25	
전 산업	4,079	(2.9)	4,205	(3.1)	154.9	(-0.8)	153.8	(-0.7)
광업	4,900	(5.7)	4,898	(0.0)	169.9	(0.8)	166.1	(-2.2)
제조업	4,755	(2.6)	4,917	(3.4)	169.7	(-0.5)	168.0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687	(6.9)	7,874	(2.4)	156.6	(-2.1)	155.5	(-0.7)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4,431	(3.1)	4,534	(2.3)	169.2	(-0.5)	168.8	(-0.2)
건설업	3,455	(2.9)	3,550	(2.7)	127.7	(-0.8)	129.3	(1.3)
도매 및 소매업	4,031	(2.8)	4,133	(2.5)	157.8	(-0.9)	155.6	(-1.4)
운수 및 창고업	4,326	(3.4)	4,470	(3.3)	159.5	(-0.7)	158.4	(-0.7)
숙박 및 음식점업	2,134	(1.8)	2,209	(3.5)	136.6	(-1.6)	138.0	(1.0)
정보통신업	5,338	(4.2)	5,503	(3.1)	161.8	(-0.2)	160.7	(-0.7)
금융 및 보험업	7,443	(1.4)	7,887	(6.0)	157.7	(-1.0)	156.2	(-1.0)
부동산업	3,165	(1.5)	3,218	(1.7)	166.3	(-0.7)	164.9	(-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646	(3.3)	5,787	(2.5)	157.5	(-0.8)	156.3	(-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87	(3.7)	2,846	(2.1)	157.5	(-0.4)	154.4	(-2.0)
교육서비스업	3,602	(2.7)	3,684	(2.3)	134.1	(-1.3)	132.2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18	(2.7)	3,350	(4.1)	148.3	(-1.6)	147.6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11	(1.7)	3,170	(1.9)	145.7	(-1.7)	145.0	(-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26	(3.9)	3,199	(2.3)	159.5	(-0.5)	159.1	(-0.3)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단위: 천원, 시간, %)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서울(477만원), 울산(475만원) 순으로 높고, 근로시간은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시도	임금총액				근로시간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전국(1인이상)	4,100	(4.4)	4,215	(2.8)	167.7	(3.6)	174.2	(3.9)
서울	4,599	(3.6)	4,765	(3.6)	165.5	(3.6)	172.0	(3.9)
부산	3,681	(4.0)	3,810	(3.5)	165.6	(4.2)	172.4	(4.1)
대구	3,462	(5.4)	3,599	(4.0)	167.0	(4.4)	171.3	(2.6)
인천	3,751	(5.1)	3,967	(5.8)	168.5	(2.8)	174.6	(3.6)
광주	3,481	(1.4)	3,533	(1.5)	165.3	(4.0)	171.7	(3.9)
대전	3,721	(3.0)	3,851	(3.5)	164.1	(4.7)	169.3	(3.2)
울산	4,548	(2.9)	4,750	(4.5)	171.8	(3.9)	176.9	(3.0)
세종	3,979	(5.9)	4,075	(2.4)	168.2	(4.0)	172.1	(2.3)
경기	4,099	(5.6)	4,252	(3.7)	167.6	(3.3)	174.4	(4.1)
강원	3,406	(3.7)	3,549	(4.2)	163.8	(2.9)	172.1	(5.1)
충북	3,754	(3.0)	3,874	(3.2)	170.6	(3.6)	177.7	(4.2)
충남	4,385	(14.8)	4,507	(2.8)	171.7	(3.5)	178.8	(4.1)
전북	3,457	(3.4)	3,530	(2.1)	165.8	(3.2)	172.6	(4.1)
전남	3,704	(1.9)	3,915	(5.7)	164.8	(2.2)	170.8	(3.6)
경북	3,904	(5.7)	4,086	(4.7)	168.8	(3.1)	175.4	(3.9)
경남	3,820	(4.5)	3,971	(4.0)	172.0	(3.9)	178.6	(3.8)
제주	3,228	(3.9)	3,279	(1.6)	165.2	(4.0)	168.7	(2.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천원, 시간,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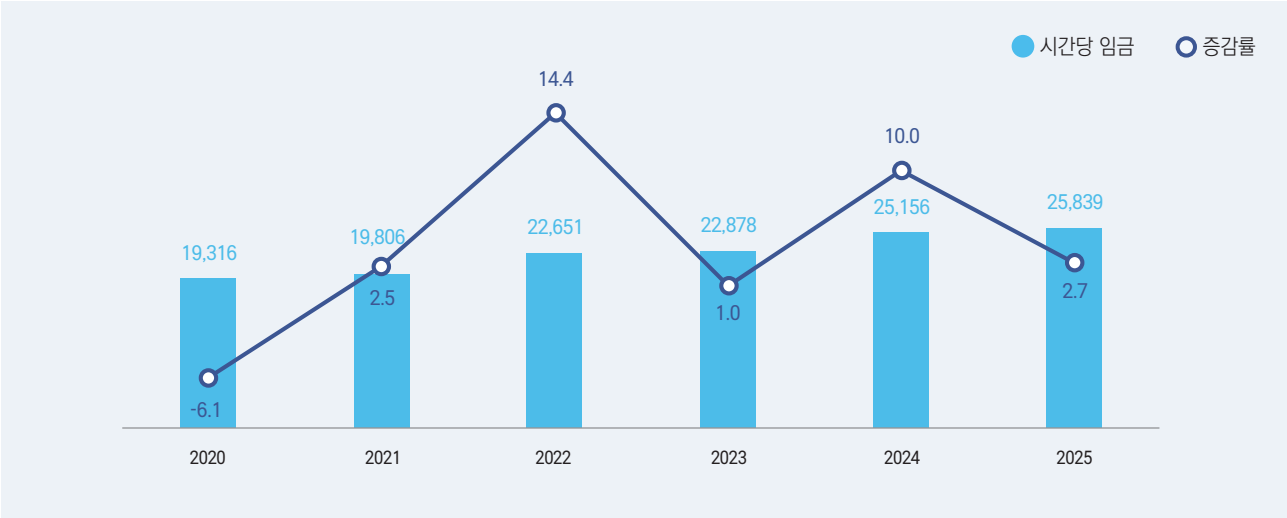
-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4월 기준으로 연 1회 시도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통계는 202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2023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으로 한 것임.
  또한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급여는 연초,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월 단위로는 변동성이 큼.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4월의 임금(정액, 초과, 특별급여)을 조사한 것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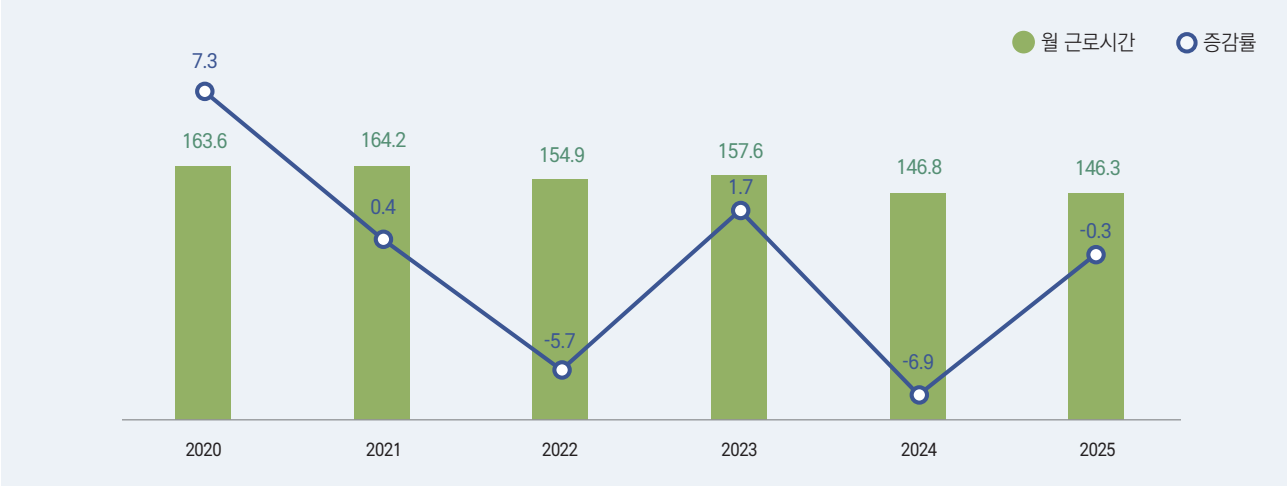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5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5,839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46.3시간이다.



(단위: 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시간,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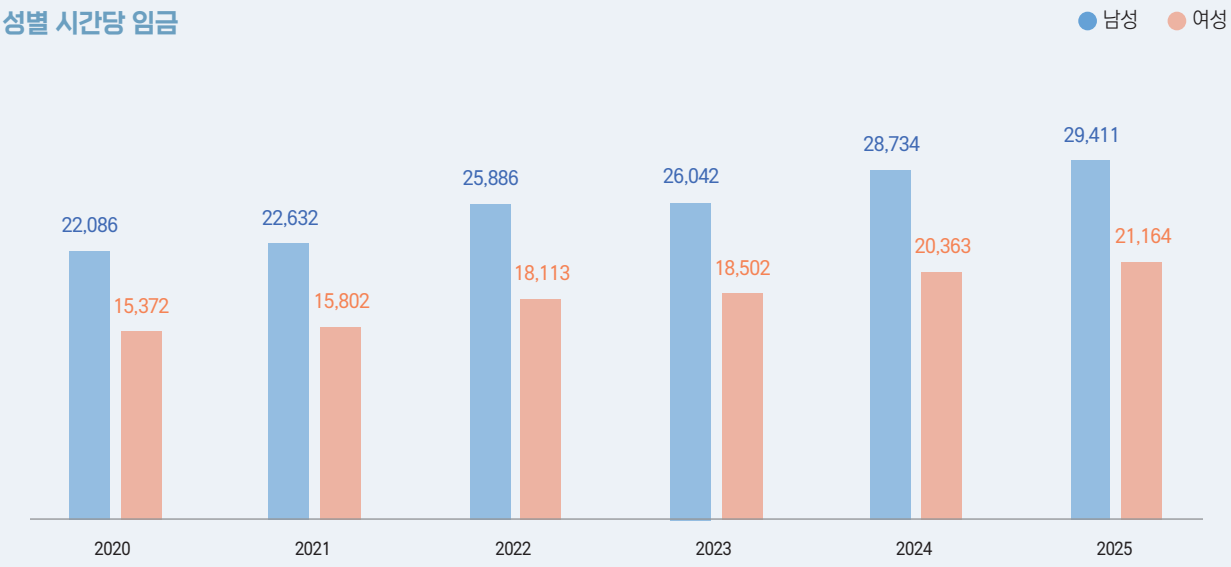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

-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연 1회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직종·고용형태·연령 등 개인 특성별 분석 가능
  - ☞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 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1,164원으로 남성(29,411원)의 72.0%, 여성의 근로시간은 136.7시간으로 남성(153.6시간)의 89.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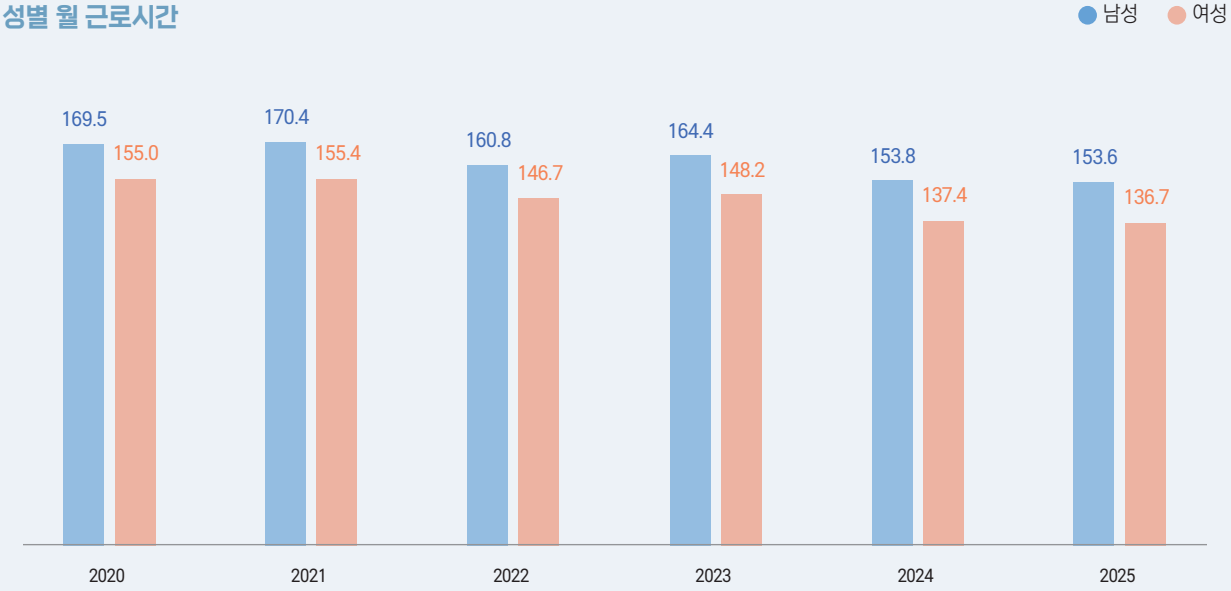
성별 시간당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원)

성별 월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시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낮아지며, 근로시간은 30대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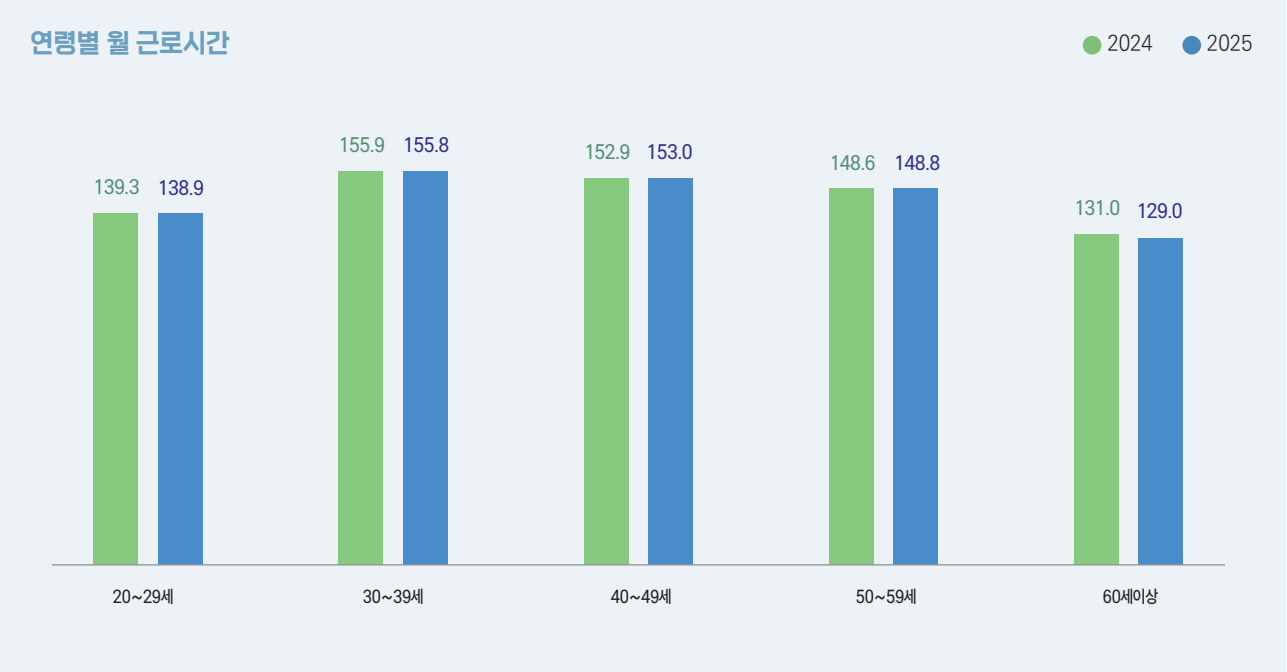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체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29세 이하	13,899	(-6.8)	14,230	(2.4)	16,248	(14.2)	16,625	(2.3)	17,997	(8.3)	18,637	(3.6)
30~39세	19,708	(-8.1)	20,185	(2.4)	22,986	(13.9)	23,580	(2.6)	25,928	(10.0)	26,548	(2.4)
40~49세	22,278	(-6.2)	22,699	(1.9)	26,272	(15.7)	26,818	(2.1)	29,664	(10.6)	30,682	(3.4)
50~59세	21,312	(-4.9)	21,952	(3.0)	25,135	(14.5)	25,374	(1.0)	27,947	(10.1)	28,808	(3.1)
60세이상	16,419	(-2.0)	17,073	(4.0)	18,901	(10.7)	18,876	(-0.1)	20,661	(9.5)	20,871	(1.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단위: 시간)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체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29세 이하	155.7	(7.2)	155.0	(-0.4)	147.8	(-4.6)	150.3	(1.7)	139.3	(-7.3)	138.9	(-0.3)
30~39세	173.4	(9.1)	174.3	(0.5)	163.2	(-6.4)	168.2	(3.1)	155.9	(-7.3)	155.8	(-0.1)
40~49세	168.8	(8.1)	169.9	(0.7)	160.0	(-5.8)	164.3	(2.7)	152.9	(-6.9)	153.0	(0.1)
50~59세	162.0	(6.0)	163.7	(1.0)	155.1	(-5.3)	158.7	(2.3)	148.6	(-6.4)	148.8	(0.1)
60세이상	148.4	(5.3)	149.1	(0.5)	141.6	(-5.0)	139.0	(-1.8)	131.0	(-5.8)	129.0	(-1.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학력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진다.

- 고졸의 시간당 임금은 20,056원으로 대졸(30,631원)의 65.5% 수준
- 근로시간은 전문대졸이 155.0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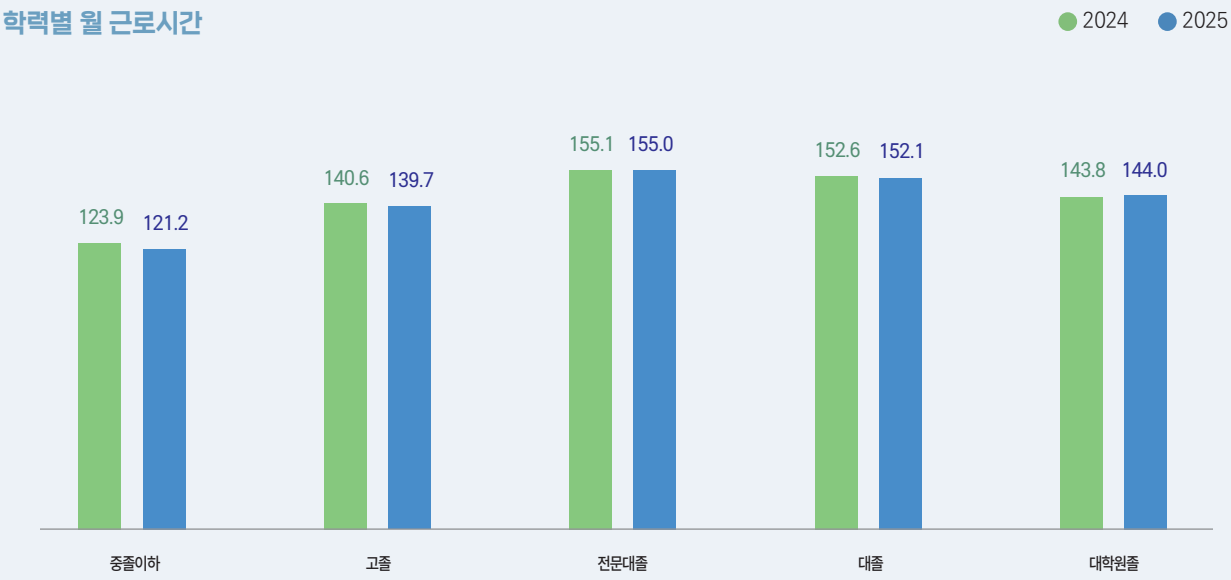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학력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중졸이하	13,443	(-1.7)	13,637	(1.4)	15,473	(13.5)	15,379	(-0.6)	16,299	(6.0)	16,081	(-1.3)
고졸	15,720	(-4.0)	16,010	(1.8)	17,870	(11.6)	18,142	(1.5)	19,559	(7.8)	20,056	(2.5)
전문대졸	17,511	(-7.8)	18,009	(2.8)	20,417	(13.4)	21,100	(3.3)	23,460	(11.2)	24,268	(3.4)
대졸	22,900	(-8.3)	23,293	(1.7)	26,816	(15.1)	26,980	(0.6)	30,054	(11.4)	30,631	(1.9)
대학원졸	36,268	(-5.3)	37,240	(2.7)	41,993	(12.8)	42,609	(1.5)	45,780	(7.4)	46,779	(2.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학력별 월 근로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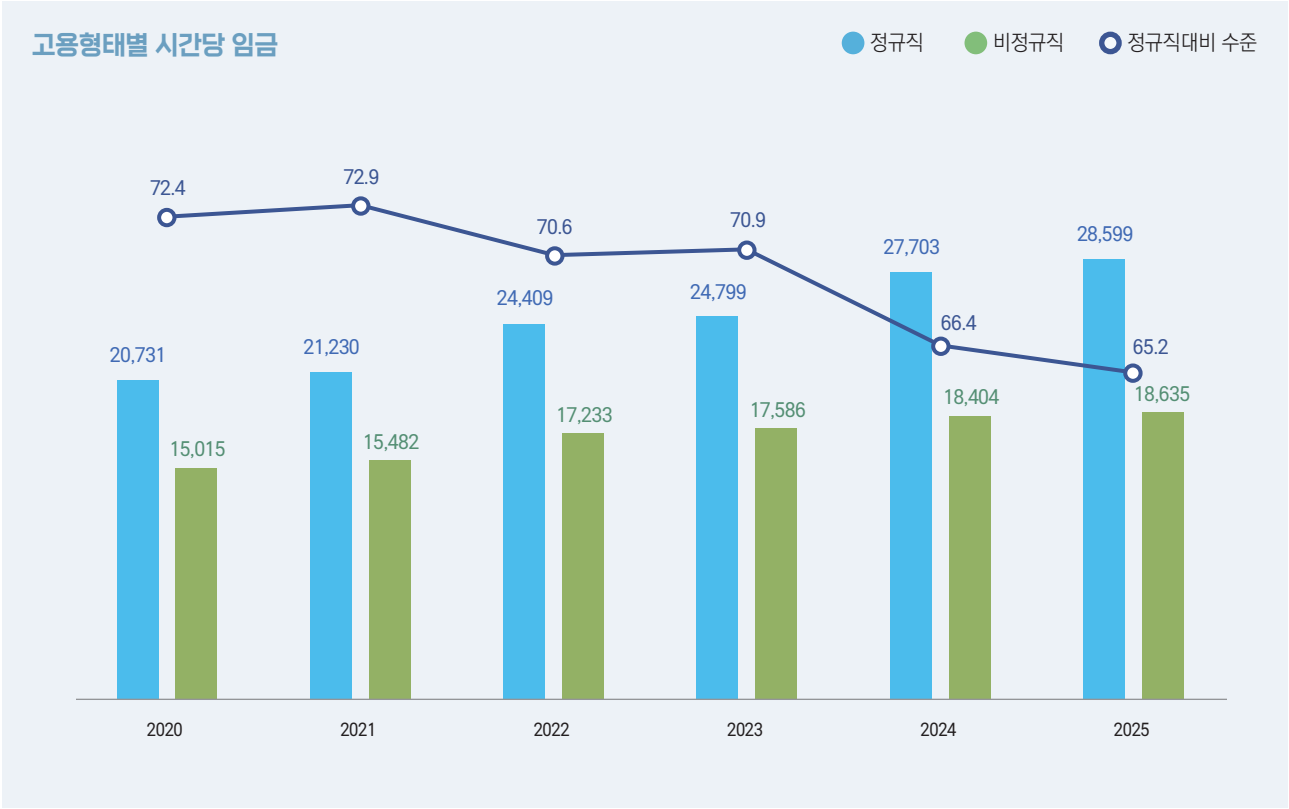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학력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중졸이하	139.7	(−0.9)	142.4	(1.9)	134.0	(−5.9)	131.1	(−2.2)	123.9	(−5.5)	121.2	(−2.2)
고졸	155.6	(4.0)	156.4	(0.5)	149.7	(−4.3)	149.9	(0.1)	140.6	(−6.2)	139.7	(−0.6)
전문대졸	171.8	(8.4)	171.3	(−0.3)	161.4	(−5.8)	165.7	(2.7)	155.1	(−6.4)	155.0	(−0.1)
대졸	172.1	(10.8)	172.6	(0.3)	160.7	(−6.9)	165.5	(3.0)	152.6	(−7.8)	152.1	(−0.3)
대학원졸	165.3	(12.0)	163.1	(−1.3)	150.2	(−7.9)	155.5	(3.5)	143.8	(−7.5)	144.0	(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8,635원으로 정규직(28,599원)의 65.2%,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04.8시간으로 정규직(162.1시간)의 64.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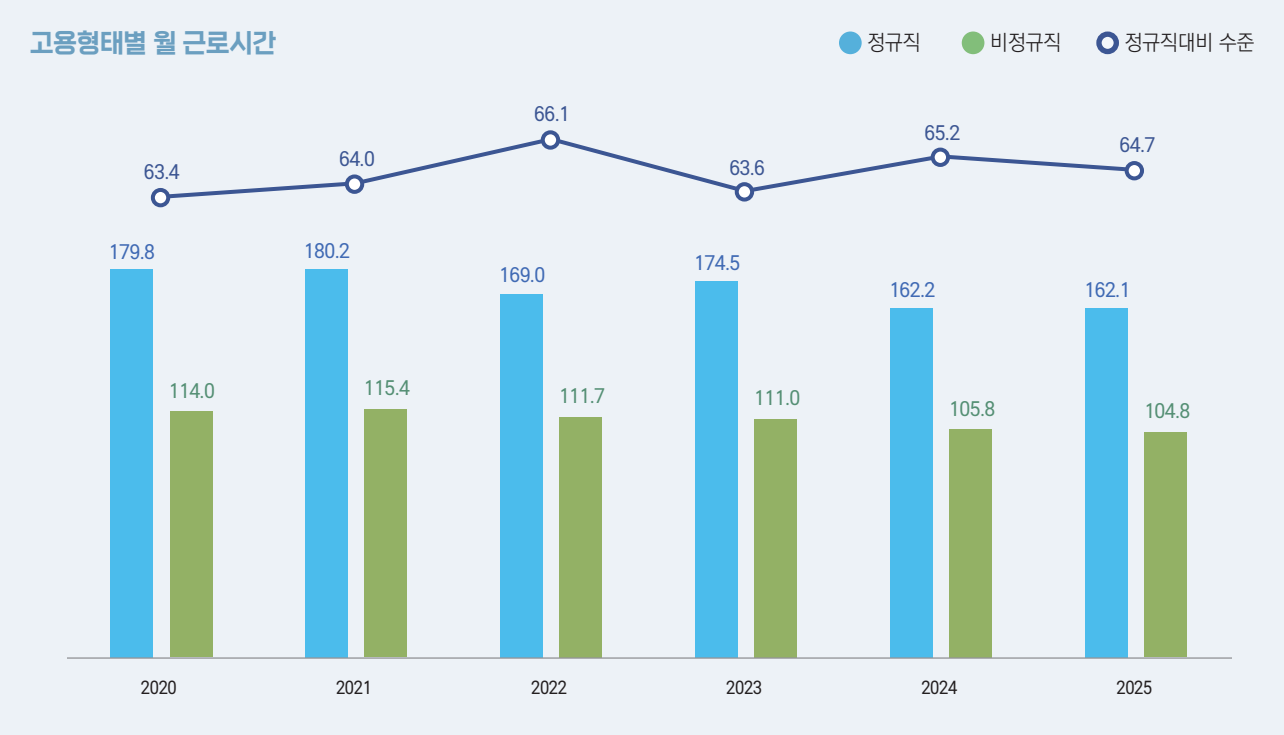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체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정 규 직	20,731	(-6.6)	21,230	(2.4)	24,409	(15.0)	24,799	(1.6)	27,703	(11.7)	28,599	(3.2)
비 정 규 직	15,015	(-3.0)	15,482	(3.1)	17,233	(11.3)	17,586	(2.0)	18,404	(4.7)	18,635	(1.3)
재택/가내 근로자	13,744	(-3.8)	12,945	(-5.8)	13,762	(6.3)	14,523	(5.5)	14,917	(2.7)	14,913	(0.0)
파견/용역 근로자	12,338	(-3.7)	12,421	(0.7)	13,558	(9.2)	13,952	(2.9)	15,414	(10.5)	15,701	(1.9)
일일 근로자	18,499	(1.1)	19,283	(4.2)	21,416	(11.1)	21,907	(2.3)	23,292	(6.3)	23,490	(0.9)
단시간 근로자	13,594	(-5.7)	14,220	(4.6)	15,515	(9.1)	15,741	(1.5)	15,883	(0.9)	16,256	(2.3)
기간제 근로자	14,719	(-5.0)	15,069	(2.4)	17,517	(16.2)	17,972	(2.6)	19,588	(9.0)	20,097	(2.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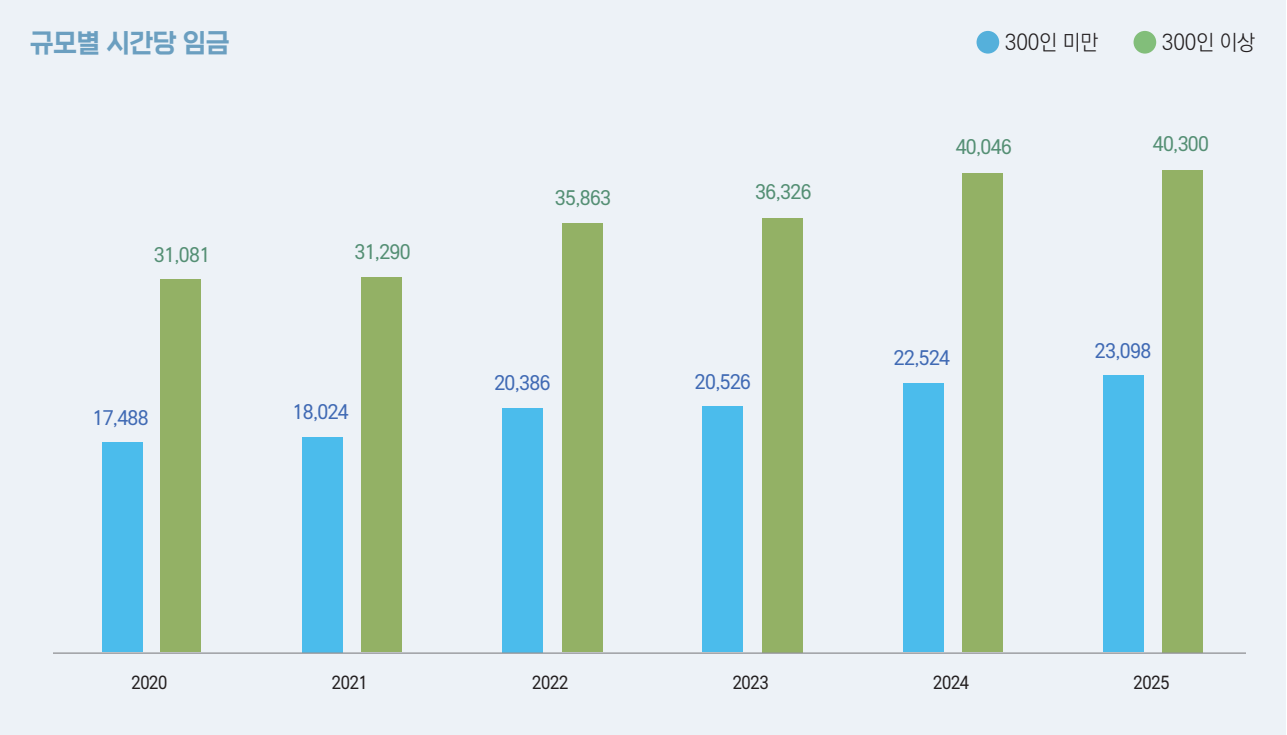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체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정 규 직	179.8	(8.8)	180.2	(0.2)	169.0	(-6.2)	174.5	(3.3)	162.2	(-7.0)	162.1	(-0.1)
비 정 규 직	114.0	(1.7)	115.4	(1.2)	111.7	(-3.2)	111.0	(-0.6)	105.8	(-4.7)	104.8	(-0.9)
재택/가내 근로자	116.7	(3.7)	117.2	(0.4)	113.0	(-3.6)	114.7	(1.5)	112.1	(-2.3)	110.6	(-1.3)
파견/용역 근로자	173.5	(6.0)	173.3	(-0.1)	167.1	(-3.6)	170.9	(2.3)	164.4	(-3.8)	162.9	(-0.9)
일일 근로자	79.6	(-6.4)	80.2	(0.8)	79.9	(-0.4)	80.0	(0.1)	79.0	(-1.3)	81.0	(2.5)
단시간 근로자	79.4	(4.5)	78.6	(-1.0)	76.1	(-3.2)	74.0	(-2.8)	71.9	(-2.8)	71.3	(-0.8)
기간제 근로자	172.7	(7.5)	175.7	(1.7)	167.1	(-4.9)	169.7	(1.6)	159.4	(-6.1)	159.0	(-0.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40,30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23,098원)의 1.7배, 월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이 160.9시간으로 300인 미만(143.5시간)의 1.1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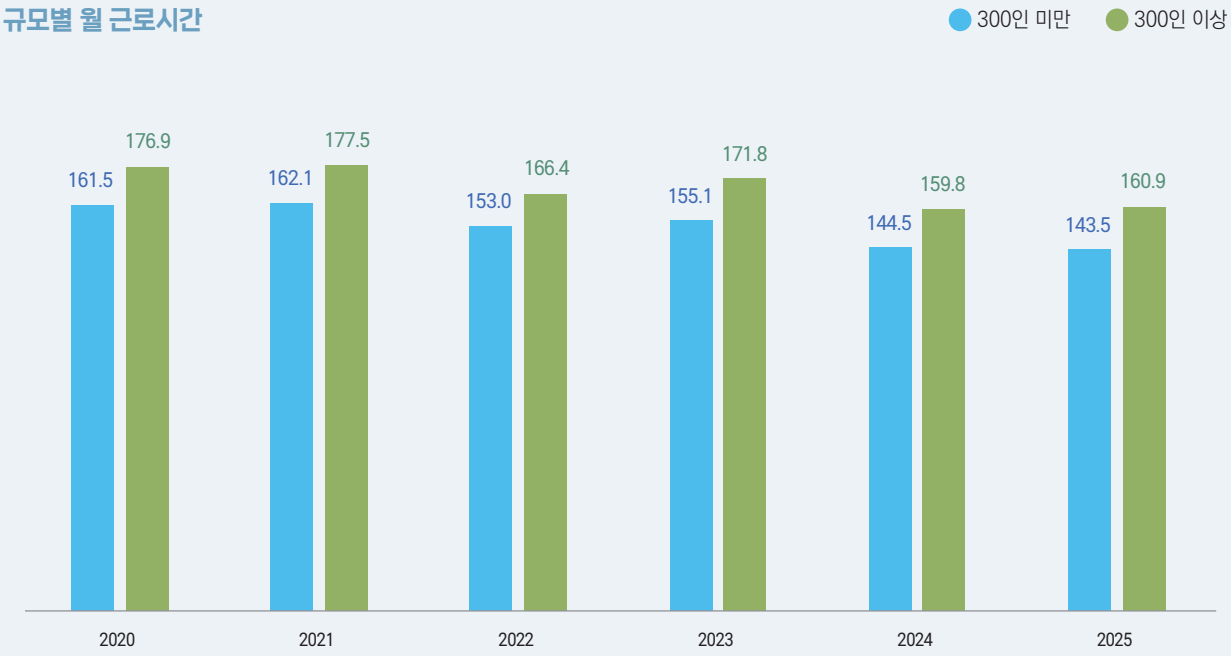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규모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300인 미만	17,488	(-5.7)	18,024	(3.1)	20,386	(13.1)	20,526	(0.7)	22,524	(9.7)	23,098	(2.5)
5인 미만	13,851	(-3.3)	14,331	(3.5)	15,908	(11.0)	16,406	(3.1)	17,798	(8.5)	18,511	(4.0)
5-29인	18,282	(-5.2)	18,776	(2.7)	21,049	(12.1)	20,884	(-0.8)	23,102	(10.6)	23,478	(1.6)
30-299인	19,951	(-7.8)	20,626	(3.4)	22,999	(11.5)	23,463	(2.0)	25,561	(8.9)	26,032	(1.8)
300인 이상	31,081	(-5.9)	31,290	(0.7)	35,863	(14.6)	36,326	(1.3)	40,046	(10.2)	40,300	(0.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규모별 월 근로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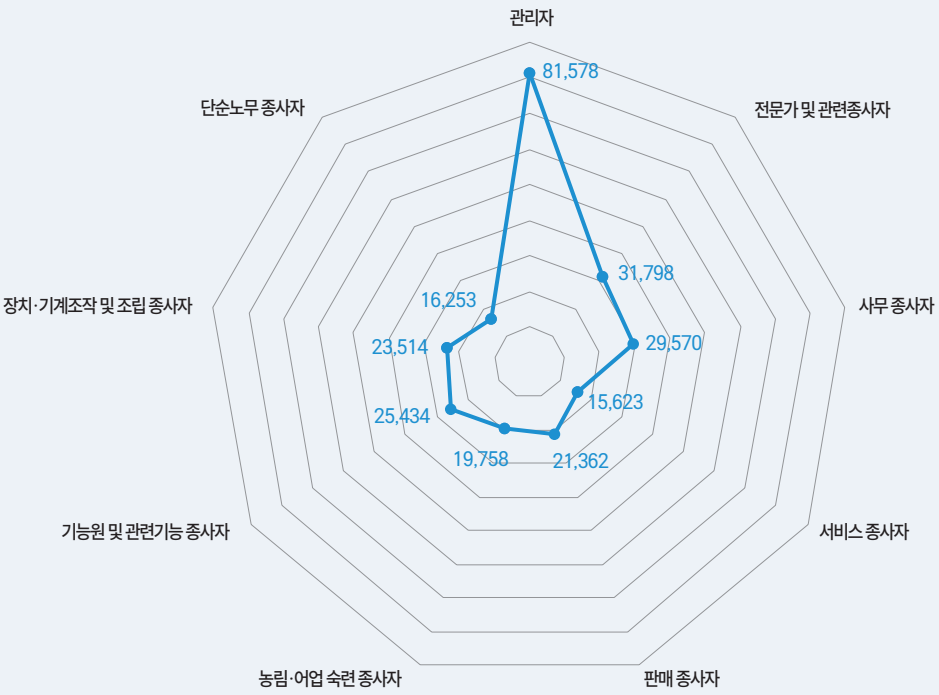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규모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300인 미만	161.5	(7.1)	162.1	(0.4)	153.0	(-5.6)	155.1	(1.4)	144.5	(-6.8)	143.5	(-0.7)
5인 미만	143.2	(5.2)	143.6	(0.3)	136.2	(-5.2)	135.4	(-0.6)	126.7	(-6.4)	126.9	(0.2)
5-29인	165.1	(8.6)	165.0	(-0.1)	153.6	(-6.9)	157.2	(2.3)	146.2	(-7.0)	144.3	(-1.3)
30-299인	174.2	(6.9)	176.1	(1.1)	164.9	(-6.4)	168.7	(2.3)	156.3	(-7.4)	154.7	(-1.0)
300인 이상	176.9	(8.9)	177.5	(0.3)	166.4	(-6.3)	171.8	(3.2)	159.8	(-7.0)	160.9	(0.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직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직종별 시간당 임금은 관리자가 81,578원으로 가장 높고, 월 근로시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71.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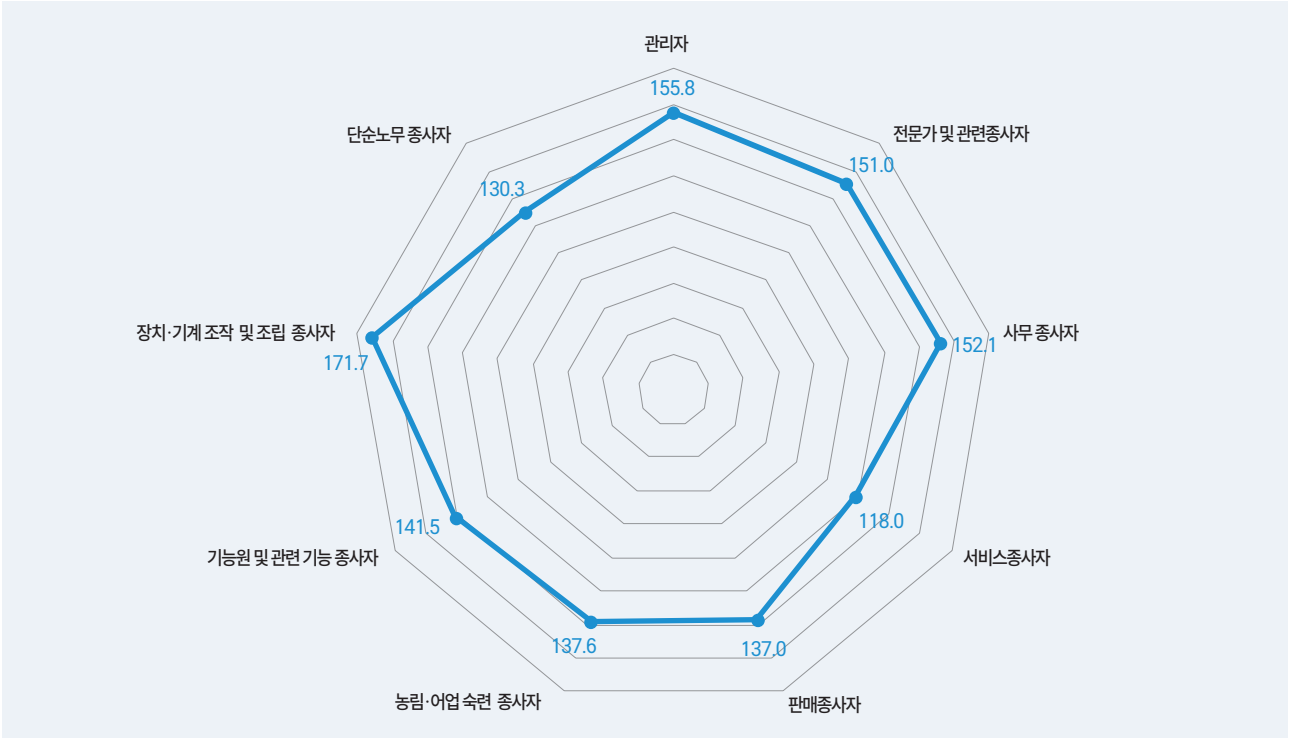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직종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관리자	59,024	…	62,043	(5.1)	73,158	(17.9)	71,349	(-2.5)	79,155	(10.9)	81,578	(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446	…	23,898	(1.9)	27,328	(14.4)	28,006	(2.5)	30,843	(10.1)	31,798	(3.1)
사무종사자	21,777	…	22,441	(3.0)	25,786	(14.9)	25,677	(-0.4)	28,776	(12.1)	29,570	(2.8)
서비스종사자	11,837	…	12,295	(3.9)	13,378	(8.8)	13,929	(4.1)	15,117	(8.5)	15,623	(3.3)
판매종사자	16,131	…	16,398	(1.7)	18,625	(13.6)	18,512	(-0.6)	20,426	(10.3)	21,362	(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447	…	15,962	(3.3)	16,875	(5.7)	16,816	(-0.3)	19,185	(14.1)	19,758	(3.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495	…	20,226	(3.7)	22,345	(10.5)	22,634	(1.3)	24,920	(10.1)	25,434	(2.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904	…	18,074	(0.9)	20,322	(12.4)	20,937	(3.0)	22,848	(9.1)	23,514	(2.9)
단순노무 종사자	13,131	…	13,074	(-0.4)	14,530	(11.1)	15,433	(6.2)	16,011	(3.7)	16,253	(1.5)

(단위: 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대비 증감률은 미제공

직종별 월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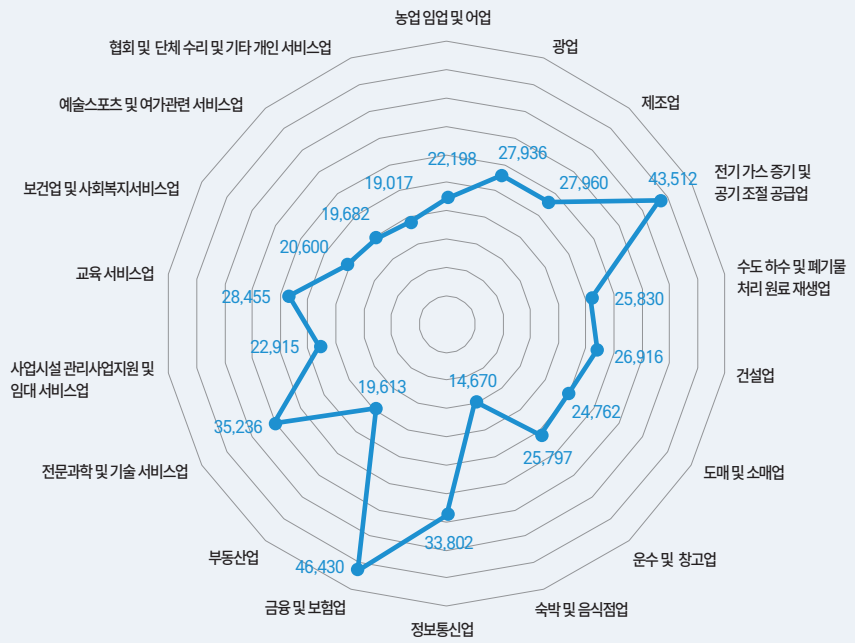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직종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관리자	176.9	…	178.1	(0.7)	164.2	(−7.8)	170.3	(3.7)	156.5	(−8.1)	155.8	(−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0.3	…	169.4	(−0.5)	158.0	(−6.7)	163.7	(3.6)	150.9	(−7.8)	151.0	(0.1)
사무종사자	173.4	…	173.5	(0.1)	161.0	(−7.2)	166.2	(3.2)	152.7	(−8.1)	152.1	(−0.4)
서비스종사자	132.6	…	133.1	(0.4)	127.3	(−4.4)	124.8	(−2.0)	118.5	(−5.0)	118.0	(−0.4)
판매종사자	154.8	…	152.5	(−1.5)	145.9	(−4.3)	147.8	(1.3)	136.5	(−7.6)	137.0	(0.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8	…	145.5	(−5.4)	151.8	(4.3)	154.2	(1.6)	143.3	(−7.1)	137.6	(−4.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51.3	…	151.1	(−0.1)	141.7	(−6.2)	149.2	(5.3)	139.8	(−6.3)	141.5	(1.2)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3.5	…	187.5	(2.2)	178.6	(−4.7)	182.1	(2.0)	171.7	(−5.7)	171.7	(0.0)
단순노무종사자	144.6	…	147.6	(2.1)	143.4	(−2.8)	139.5	(−2.7)	134.3	(−3.7)	130.3	(−3.0)

(단위: 시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대비 증감률은 미제공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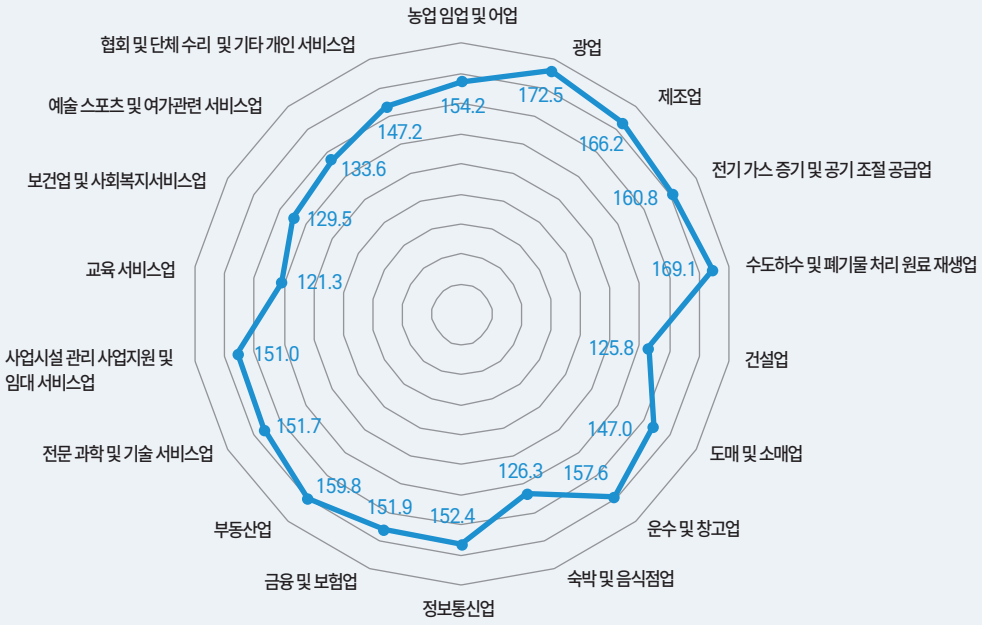
2025년 6월 산업별 시간당 임금은 금융보험업이 46,430원으로 가장 많고, 월 근로시간은 광업이 172.5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산업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2,878 (1.0)	25,156 (10.0)	25,839 (2.7)
농림어업	18,321 …	19,128 (4.4)	20,469 (7.0)	19,711 (-3.7)	21,758 (10.4)	22,198 (2.0)
광업	21,561 …	22,027 (2.2)	24,662 (12.0)	24,751 (0.4)	26,975 (9.0)	27,936 (3.6)
제조업	20,358 …	20,796 (2.2)	23,929 (15.1)	24,645 (3.0)	27,372 (11.1)	27,960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4,879 …	35,421 (1.6)	37,468 (5.8)	37,577 (0.3)	40,744 (8.4)	43,512 (6.8)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9,800 …	20,643 (4.3)	22,568 (9.3)	22,643 (0.3)	25,209 (11.3)	25,830 (2.5)
건설업	20,944 …	21,773 (4.0)	24,261 (11.4)	24,674 (1.7)	26,378 (6.9)	26,916 (2.0)
도매 및 소매업	17,903 …	18,322 (2.3)	21,563 (17.7)	21,232 (-1.5)	23,800 (12.1)	24,762 (4.0)
운수 및 창고업	18,908 …	20,019 (5.9)	21,911 (9.5)	22,347 (2.0)	25,229 (12.9)	25,797 (2.3)
숙박 및 음식점업	11,435 …	11,746 (2.7)	12,811 (9.1)	13,119 (2.4)	14,227 (8.4)	14,670 (3.1)
정보통신업	24,735 …	24,681 (-0.2)	28,557 (15.7)	28,830 (1.0)	32,179 (11.6)	33,802 (5.0)
금융 및 보험업	33,370 …	34,395 (3.1)	39,968 (16.2)	40,593 (1.6)	45,987 (13.3)	46,430 (1.0)
부동산업	15,199 …	15,265 (0.4)	16,844 (10.3)	17,420 (3.4)	18,971 (8.9)	19,613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078 …	25,981 (-0.4)	30,091 (15.8)	30,013 (-0.3)	34,027 (13.4)	35,236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7,164 …	17,575 (2.4)	19,366 (10.2)	19,636 (1.4)	22,010 (12.1)	22,915 (4.1)
교육서비스업	23,505 …	24,335 (3.5)	26,502 (8.9)	26,271 (-0.9)	28,039 (6.7)	28,455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36 …	16,211 (1.1)	18,254 (12.6)	18,792 (2.9)	20,046 (6.7)	20,600 (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872 …	15,189 (2.1)	17,069 (12.4)	17,608 (3.2)	19,415 (10.3)	19,682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062 …	15,472 (2.7)	17,315 (11.9)	17,168 (-0.8)	18,443 (7.4)	19,017 (3.1)

(단위: 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대비 증감률은 미제공



(단위: 시간)

참고

우리나라 통계조사별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 우리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대표 통계는 총 3종

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총임금 및 총근로시간을 매월 조사하며, 산업별 규모별 분석 가능(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에 대한 분석 결과)

②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의 근로자별 월임금 및 월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며(성, 연령 근속년수 등),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능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근로자별 3개월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

구 분	사업체노동력조사 ('25년)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25.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임금	월평균 4,205천원	월 3,834천원 (시간당 25,839원)	월 3,205천원
근로시간	월평균 153.8시간	월 146.3시간	주당 평균 33.4시간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경활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월 근로시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산업	163.6	(7.3)	164.2	(0.4)	154.9	(-5.7)	157.6	(1.7)	146.8	(-6.9)	146.3	(-0.3)
농업 임업 및 어업	164.0	…	164.3	(0.2)	153.7	(-6.5)	160.5	(4.4)	152.2	(-5.2)	154.2	(1.3)
광업	194.4	…	191.7	(-1.4)	180.0	(-6.1)	184.4	(2.4)	172.6	(-6.4)	172.5	(-0.1)
제조업	182.0	…	185.3	(1.8)	174.1	(-6.0)	177.5	(2.0)	165.5	(-6.8)	166.2	(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8.7	…	177.8	(-0.5)	168.8	(-5.1)	173.7	(2.9)	163.3	(-6.0)	160.8	(-1.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85.7	…	185.3	(-0.2)	177.0	(-4.5)	179.3	(1.3)	168.9	(-5.8)	169.1	(0.1)
건설업	134.1	…	135.2	(0.8)	128.8	(-4.7)	130.5	(1.3)	125.2	(-4.1)	125.8	(0.5)
도매 및 소매업	164.2	…	163.4	(-0.5)	155.9	(-4.6)	157.7	(1.2)	146.9	(-6.8)	147.0	(0.1)
운수 및 창고업	170.0	…	169.1	(-0.5)	164.4	(-2.8)	169.8	(3.3)	159.5	(-6.1)	157.6	(-1.2)
숙박 및 음식점업	135.2	…	133.0	(-1.6)	130.1	(-2.2)	131.1	(0.8)	126.9	(-3.2)	126.3	(-0.5)
정보통신업	175.8	…	175.0	(-0.5)	160.7	(-8.2)	165.5	(3.0)	151.7	(-8.3)	152.4	(0.5)
금융 및 보험업	176.3	…	176.2	(-0.1)	161.1	(-8.6)	168.2	(4.4)	152.7	(-9.2)	151.9	(-0.5)
부동산업	174.6	…	173.2	(-0.8)	166.9	(-3.6)	169.9	(1.8)	160.8	(-5.4)	159.8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3.9	…	173.8	(-0.1)	159.6	(-8.2)	166.0	(4.0)	152.4	(-8.2)	151.7	(-0.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6.6	…	168.4	(1.1)	157.6	(-6.4)	164.6	(4.4)	153.0	(-7.0)	151.0	(-1.3)
교육서비스업	139.9	…	138.7	(-0.9)	128.5	(-7.4)	132.4	(3.0)	122.4	(-7.6)	121.3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7.7	…	157.1	(-0.4)	145.9	(-7.1)	143.9	(-1.4)	132.0	(-8.3)	129.5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8.3	…	149.3	(0.7)	144.5	(-3.2)	144.6	(0.1)	136.9	(-5.3)	133.6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1.6	…	162.8	(0.7)	155.2	(-4.7)	156.5	(0.8)	147.0	(-6.1)	147.2	(0.1)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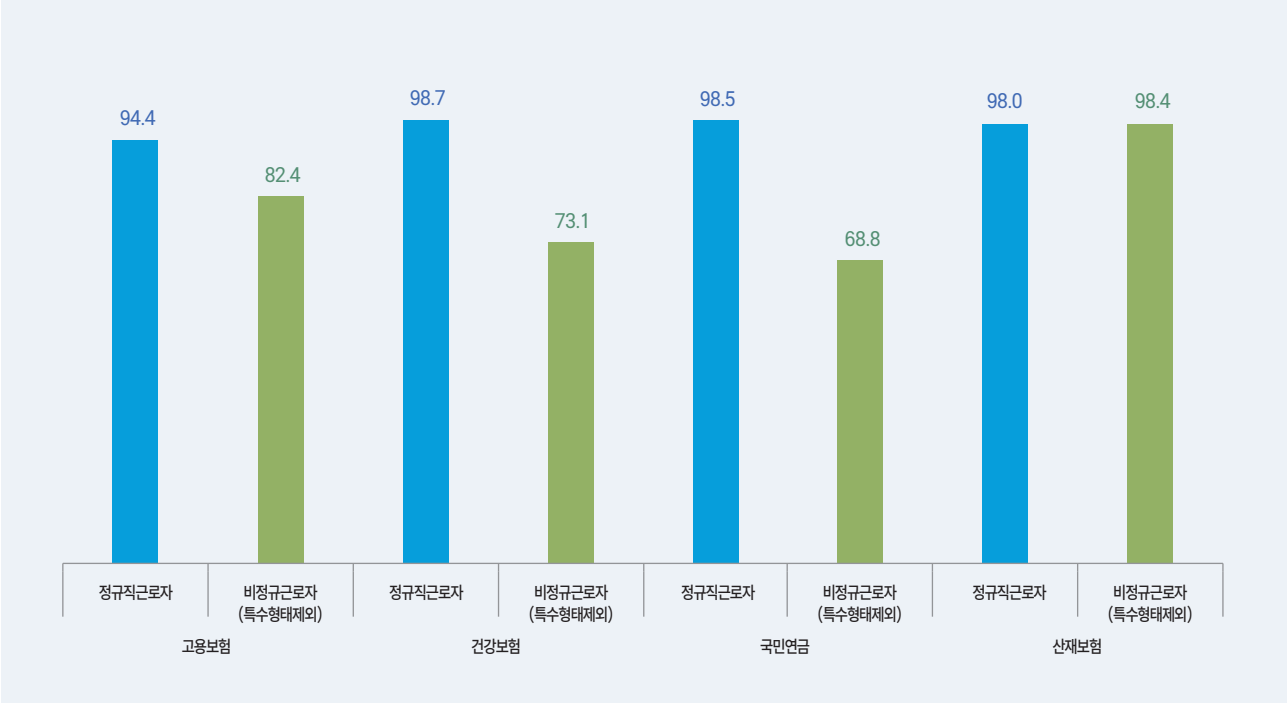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대비 증감률은 미제공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2025년 6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4.4%를 상회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82.4%, 건강보험 73.1%, 국민연금 68.8% 등 정규직보다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보험	전체	90.3	(0.0)	90.5	(0.2)	91.8	(1.4)	91.7	(−0.1)	91.8	(0.1)	91.9	(0.1)
	정규직	94.4	(0.0)	94.2	(−0.2)	94.6	(0.4)	94.5	(−0.1)	94.5	(0.0)	94.4	(−0.1)
	비정규직	74.4	(0.5)	76.1	(2.3)	80.7	(6.0)	81.4	(0.9)	81.7	(0.4)	82.4	(0.9)
건강보험	전체	91.1	(0.2)	91.5	(0.4)	92.5	(1.1)	92.5	(0.0)	92.4	(−0.1)	92.7	(0.3)
	정규직	98.5	(0.3)	98.5	(0.0)	98.6	(0.1)	98.8	(0.2)	98.8	(0.0)	98.7	(−0.1)
	비정규직	64.9	(1.1)	66.4	(2.3)	70.3	(5.9)	71.7	(2.0)	71.5	(−0.3)	73.1	(2.2)
국민연금	전체	91.3	(0.2)	91.7	(0.4)	93.0	(1.4)	92.9	(−0.1)	92.6	(−0.3)	92.9	(0.3)
	정규직	98.3	(0.3)	98.3	(0.0)	98.5	(0.2)	98.6	(0.1)	98.6	(0.0)	98.5	(−0.1)
	비정규직	61.7	(1.1)	63.0	(2.1)	67.5	(7.1)	68.5	(1.5)	67.6	(−1.3)	68.8	(1.8)
산재보험	전체	97.8	(0.1)	97.8	(0.0)	98.2	(0.4)	98.1	(−0.1)	98.1	(0.0)	98.1	(0.0)
	정규직	97.9	(0.1)	97.8	(−0.1)	98.1	(0.3)	98.1	(0.0)	98.1	(0.0)	98.0	(−0.1)
	비정규직	97.5	(0.2)	97.6	(0.1)	98.4	(0.8)	98.2	(−0.2)	98.1	(−0.1)	98.4	(0.3)

(단위: %, %p)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
주: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가입대상 근로자수 × 100

참고

우리나라 통계조사별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①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가입률을 산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용제외자를 분모에서 제하므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1)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2)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3)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②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가구 내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이다. 고용보험에서는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가입으로 집계하므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1)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하였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

3)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91.9%	92.7%	92.9%	98.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76.2%	79.0%	68.5%	—

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7. 노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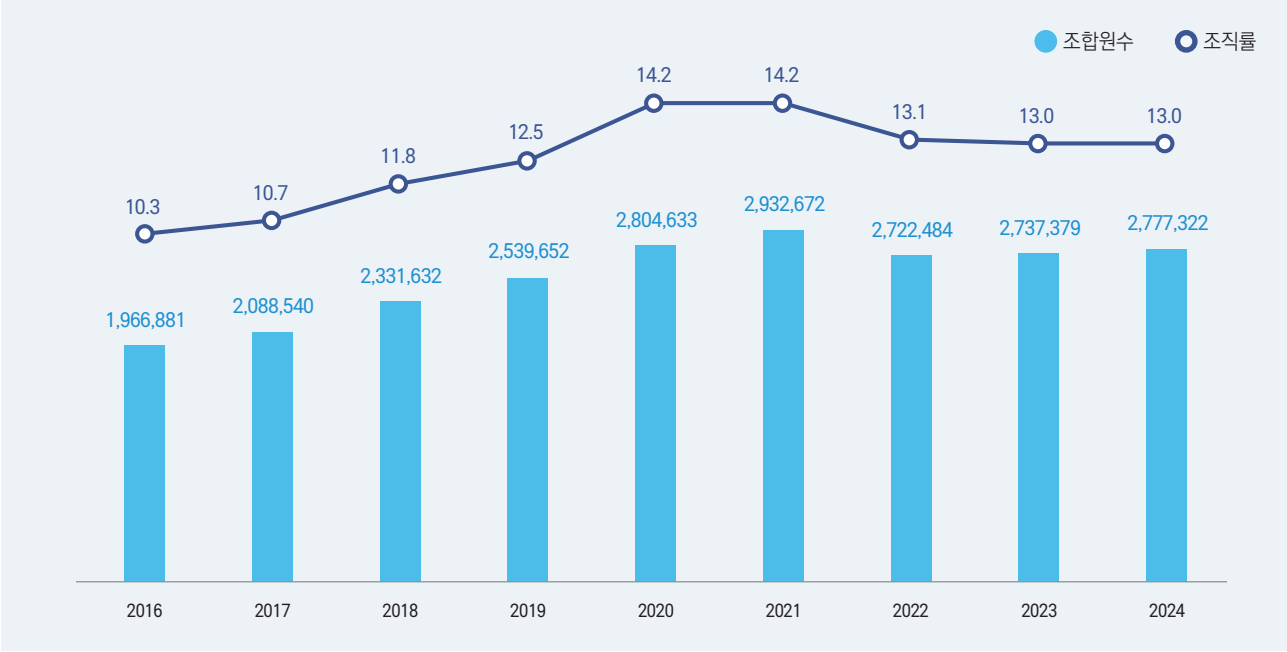
① 노동조합
② 노사분규
③ 노사분쟁 사건
④ 근로개선 지도 현황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

2024년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27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0만명 증가하였고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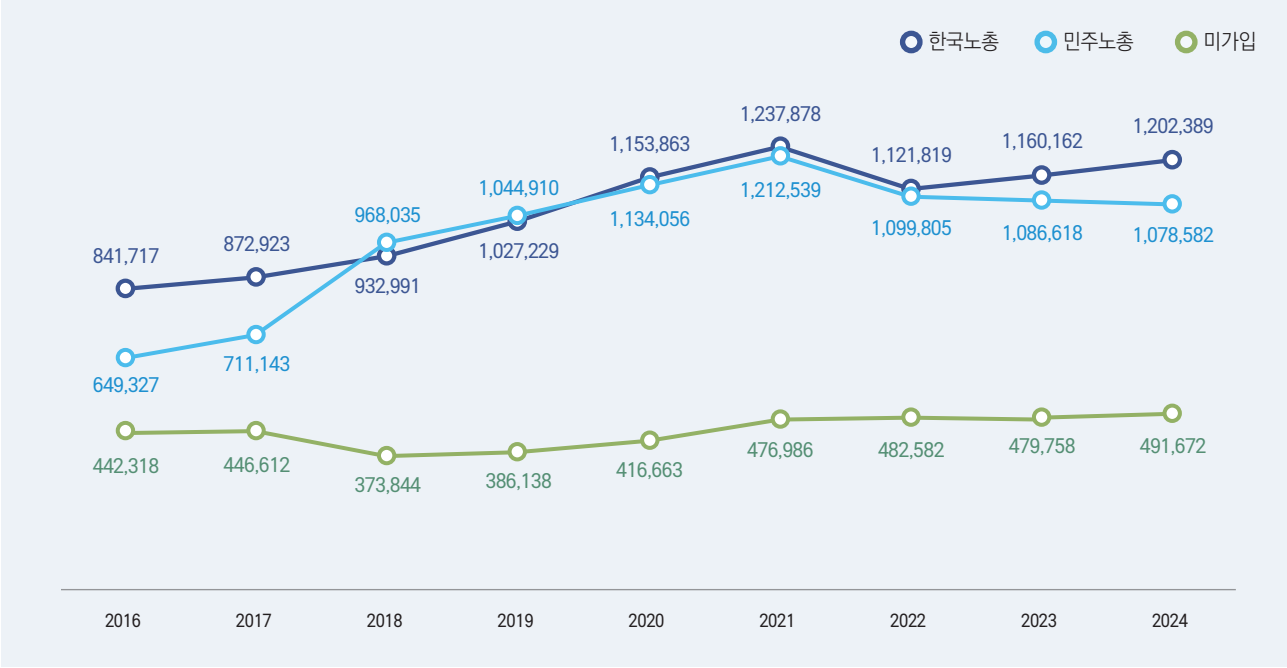


연도	노동조합수		연합단체		단위노조		조합원수		남성		여성		조직률	
'16	6,164	(6.4)	61	(5.2)	6,103	(6.4)	1,966,881	(1.5)	1,525,322	(4.7)	441,559	(-8.5)	10.3	[0.1]
'17	6,239	(1.2)	62	(1.6)	6,177	(1.2)	2,088,540	(6.2)	1,600,226	(4.9)	488,314	(10.6)	10.7	[0.4]
'18	5,868	(-5.9)	66	(6.5)	5,802	(-6.1)	2,331,632	(11.6)	1,806,706	(12.9)	524,926	(7.5)	11.8	[1.1]
'19	6,156	(4.9)	66	(0.0)	6,090	(5.0)	2,539,652	(8.9)	1,948,237	(7.8)	591,415	(12.7)	12.5	[0.7]
'20	6,564	(6.6)	67	(1.5)	6,497	(6.7)	2,804,633	(10.4)	2,128,425	(9.2)	676,208	(14.3)	14.2	[1.7]
'21	7,105	(8.2)	71	(6.0)	7,034	(8.3)	2,932,672	(4.6)	2,173,783	(2.1)	758,889	(12.2)	14.2	[0.0]
'22	6,005	(-15.5)	74	(4.2)	5,931	(-15.7)	2,722,484	(-7.2)	1,969,566	(-9.4)	752,918	(-0.8)	13.1	[-1.1]
'23	6,169	(2.7)	74	(0.0)	6,095	(2.8)	2,737,379	(0.5)	1,786,416	(-9.3)	950,963	(26.3)	13	[-0.1]
'24	6,125	(-0.7)	68	(-8.1)	6,057	(-0.6)	2,777,322	(1.5)	1,872,239	(4.8)	905,083	(-4.8)	13	[0.0]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 전년대비 증감률, [ ] 전년대비 증감 (단위: 개소, 명, %, %p)
주 1) 노조조직률(%) = (전체 조합원수 ÷ 조직대상 근로자수) × 100
2) '22년부터 노동조합 실체 여부 확인 및 휴면노조 해산 등 통계정비가 엄격해지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노조나 허위 신고된 조합원은 통계 집계 제외되었음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현황

2024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인원의 상급단체별 비중은 한국노총 43.3%, 민주노총 38.8%, 미가입 17.7% 순이다.



연도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공공노총		그 외	
'16	1,966,881	(100.0)	841,717	(42.8)	649,327	(33.0)	442,318	(22.5)	20,068	(1.0)	13,451	(0.7)
'17	2,088,540	(100.0)	872,923	(41.8)	711,143	(34.0)	446,612	(21.4)	25,091	(1.2)	32,771	(1.6)
'18	2,331,632	(100.0)	932,991	(40.0)	968,035	(41.5)	373,844	(16.0)	35,202	(1.5)	21,560	(0.9)
'19	2,539,652	(100.0)	1,027,229	(40.4)	1,044,910	(41.1)	386,138	(15.2)	47,516	(1.9)	33,859	(1.3)
'20	2,804,633	(100.0)	1,153,863	(41.1)	1,134,056	(40.4)	416,663	(14.9)	77,422	(2.8)	22,629	(0.8)
'21	2,932,672	(100.0)	1,237,878	(42.2)	1,212,539	(41.3)	476,986	(16.3)	0	(0.0)	5,269	(0.2)
'22	2,722,484	(100.0)	1,121,819	(41.2)	1,099,805	(40.4)	482,582	(17.7)	0	(0.0)	18,278	(0.7)
'23	2,737,379	(100.0)	1,160,162	(42.4)	1,086,618	(39.7)	479,758	(17.5)	0	(0.0)	10,841	(0.4)
'24	2,777,322	(100.0)	1,202,389	(43.3)	1,078,582	(38.8)	491,672	(17.7)	0	(0.0)	4,67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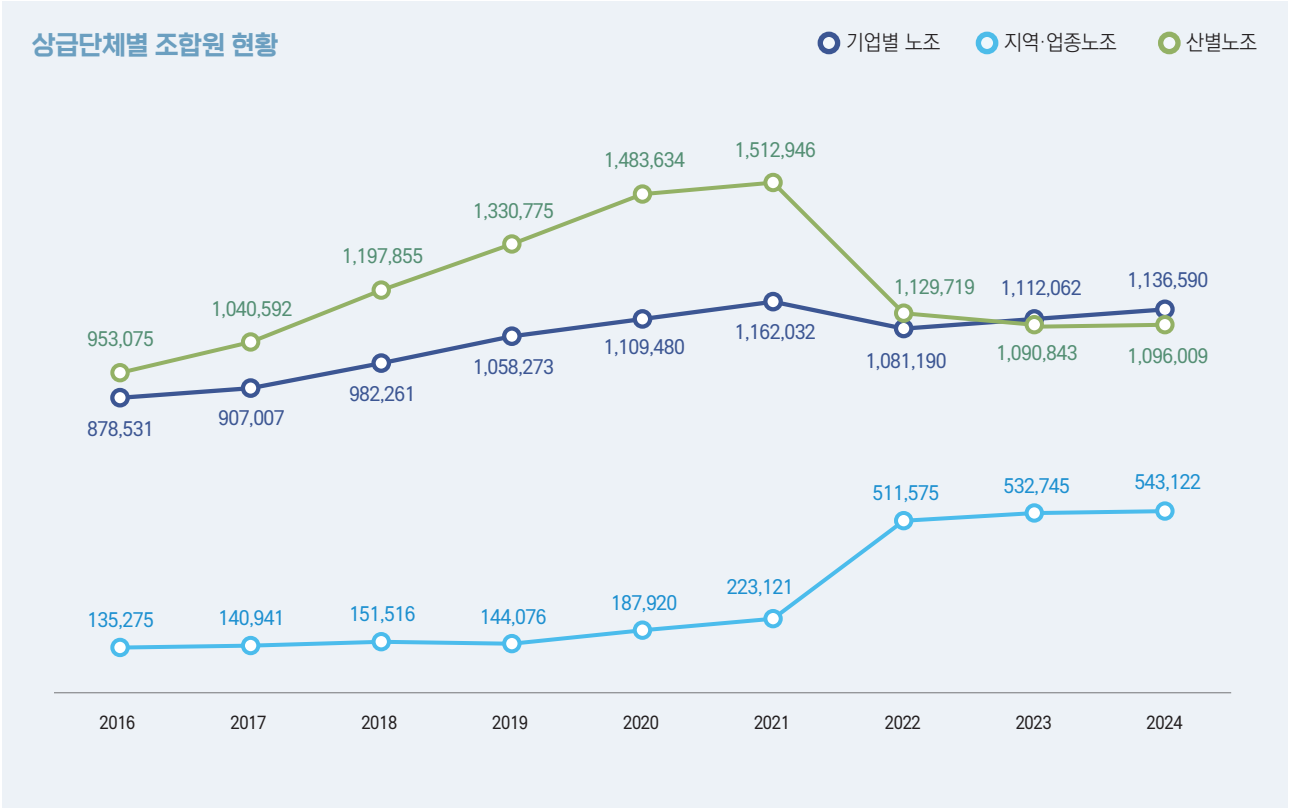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주 1) 그 외의 자료는 '11년~'13년은 국민노총('11.11.1. 출범~'14.12.3. 한국노총과 통합), '15년~'16년은 전국노총('15.9.25. 출범), 공공노총('21.4.28. 한국노총과 통합)

조직형태별 노동조합 현황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수의 40.9%를 차지하며, '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도	조합원수		기업별 노조		초기업 노조			
					지역 · 업종노조		산별노조	
'16	1,966,881	(100.0)	878,531	(44.7)	135,275	(6.9)	953,075	(48.5)
'17	2,088,540	(100.0)	907,007	(43.4)	140,941	(6.7)	1,040,592	(49.8)
'18	2,331,632	(100.0)	982,261	(42.1)	151,516	(6.5)	1,197,855	(51.4)
'19	2,539,652	(100.0)	1,058,273	(41.7)	144,076	(5.7)	1,330,775	(52.4)
'20	2,804,633	(100.0)	1,109,480	(39.6)	187,920	(6.7)	1,483,634	(52.9)
'21	2,932,672	(100.0)	1,162,032	(39.6)	223,121	(7.6)	1,512,946	(51.6)
'22	2,722,484	(100.0)	1,081,190	(39.7)	511,575	(18.8)	1,129,719	(41.5)
'23	2,737,379	(100.0)	1,112,062	(40.6)	532,745	(19.5)	1,090,843	(39.8)
'24	2,777,322	(100.0)	1,136,590	(40.9)	543,122	(19.6)	1,096,009	(39.5)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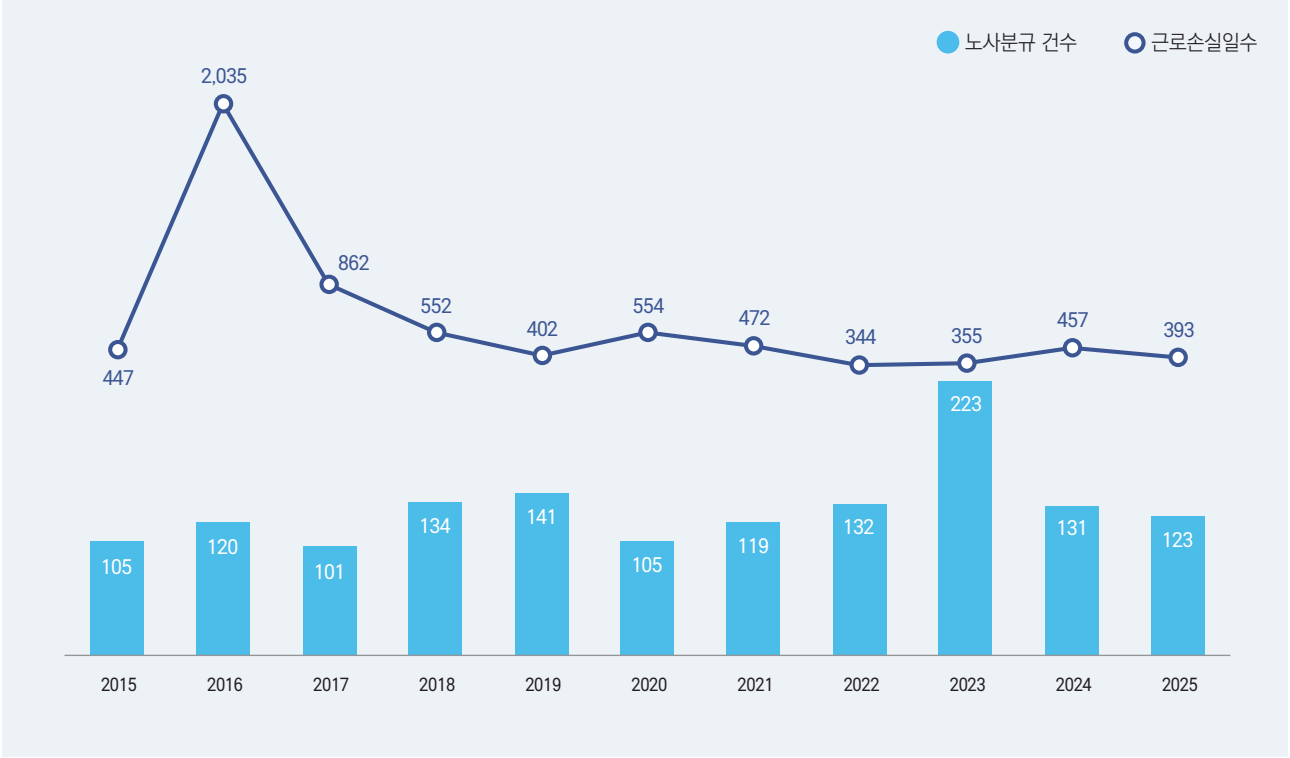
(단위: 명, %)

2

노사분규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25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23건으로 전년대비 6.1%(-8건) 감소,
근로손실일수는 393천일로 전년대비 14.0%(-64천일) 감소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단위: 건, 천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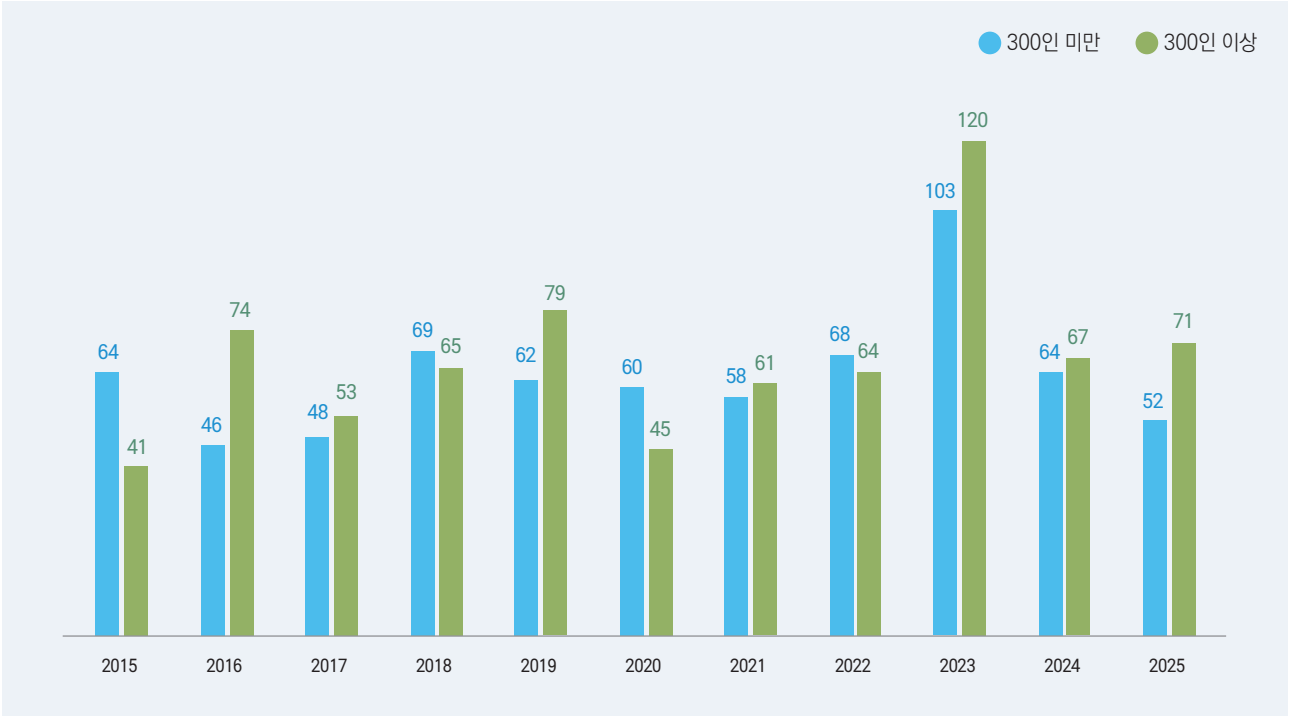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만,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연도별 비교를 통해 노사관계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2025년 노사분규 중 57.7%가 300인이상 사업장(71건)이며,
300인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6.0%(4건) 증가했고,
1,000인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8.5%(4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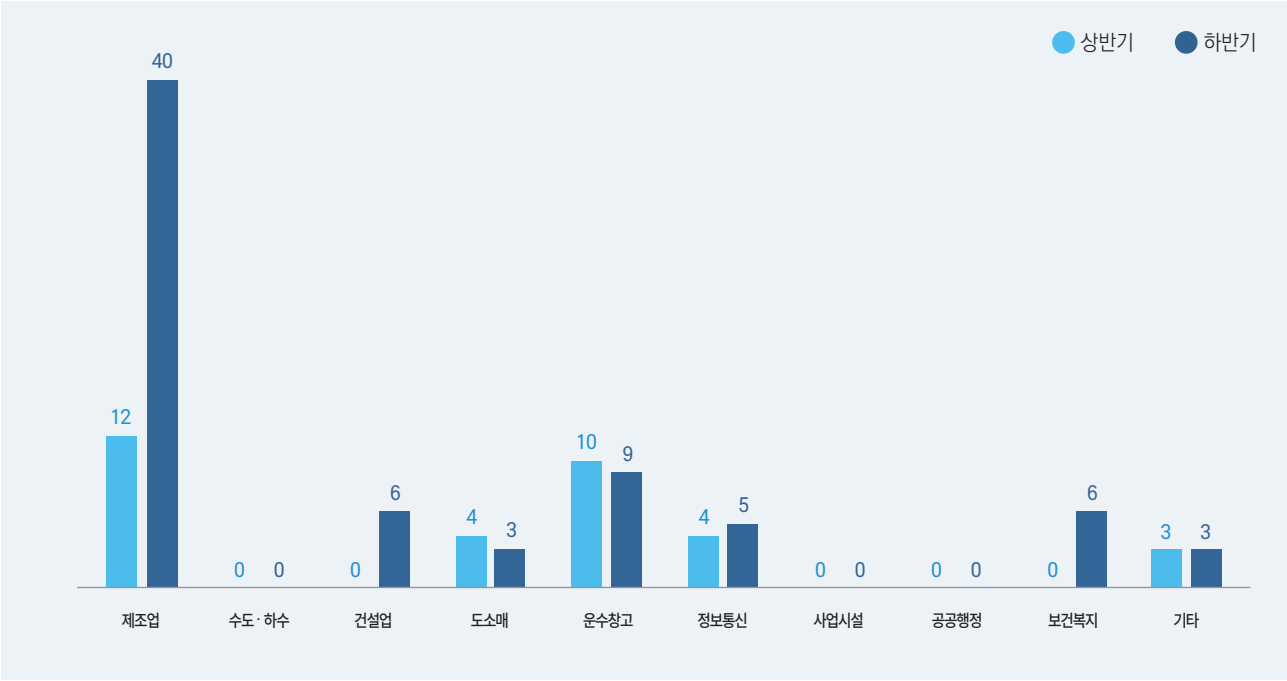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223	131	123
300인 미만	64	46	48	69	62	60	58	68	103	64	52
50인 미만	16	16	18	15	18	20	21	25	29	31	14
50~99인	14	11	8	23	17	16	6	14	19	12	16
100~299인	34	19	22	31	27	24	31	29	55	21	22
300인 이상	41	74	53	65	79	45	61	64	120	67	71
300~499인	5	14	14	18	13	13	12	16	33	10	7
500~999인	10	13	10	21	20	5	13	19	21	10	13
1000인 이상	26	47	29	26	46	27	36	29	66	47	51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단위: 건)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2025년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제조업(52건)과 운수창고업(19건), 정보통신업(9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구 분		2025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계	123	38	85
제조업	C. 제조업(10~34)	52	12	40
수도.하수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0	0	0
건설업	F. 건설업(41~42)	6	0	6
도소매	G. 도매 및 소매업(45~47)	7	4	3
운수창고	H. 운수 및 창고업(49~52)	19	10	9
정보통신	J. 정보통신업(58~63)	9	4	5
사업시설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4~76)	0	0	0
공공행정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	0	0
보건복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87)	6	0	6
기타	기타	6	3	3

1)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2)I.숙박 및 음식점업(55~56), 3)K.금융 및 보험업(64~66), 4)L.부동산업(68), 5)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6)P.교육서비스업(85), 7)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8)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등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대분류 업종

(단위: 건)

노사분쟁 사건

조정사건

2025년 조정사건 접수는 1,024건으로 전년대비 1.2%(-12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은 50.0%로 전년대비 2.0%p 하락하였다.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5	877	858	382	148	234	328	51	277	42	106	0	19	53.8
'16	822	796	410	161	249	293	32	261	14	79	0	26	58.3
'17	863	839	443	188	255	313	47	266	16	67	0	24	58.6
'18	1,160	1,130	503	209	294	524	37	487	17	86	0	30	49.0
'19	1,291	1,244	527	198	329	581	39	542	27	109	0	42	47.6
'20	983	957	454	170	284	397	19	378	14	92	0	26	53.3
'21	1,205	1,169	482	198	284	559	33	526	18	110	0	33	46.3
'22	1,183	1,150	506	217	289	485	29	456	18	141	0	30	51.1
'23	1,114	1,056	403	185	218	527	42	485	18	108	0	29	43.0
'24	1,036	996	449	240	209	412	37	375	26	109	0	32	52.0
'25	1,024	978	418	218	200	413	31	382	10	137	0	27	50.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의 합계 (단위: 건,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불성립건수) ×100, 성립건수 = 조정안수락건수 + 지도합의건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5	119	116	41	14	27	53	10	43	5	17	0	3	43.6
’16	110	110	35	17	18	67	10	57	3	5	0	0	34.3
’17	98	97	40	18	22	47	8	39	3	7	0	1	46.0
’18	134	131	44	16	28	75	6	69	2	10	0	3	37.0
’19	165	162	49	24	25	95	4	91	7	11	0	3	34.0
’20	109	103	34	15	19	52	2	50	4	13	0	6	39.5
’21	168	161	34	21	13	103	8	95	4	20	0	7	24.8
’22	177	171	42	15	27	104	15	89	3	22	0	6	28.8
’23	175	160	38	20	18	100	16	84	6	16	0	8	28.0
’24	166	156	62	31	31	78	14	64	4	12	0	8	44.0
’25	164	153	60	25	35	74	13	61	2	17	0	6	44.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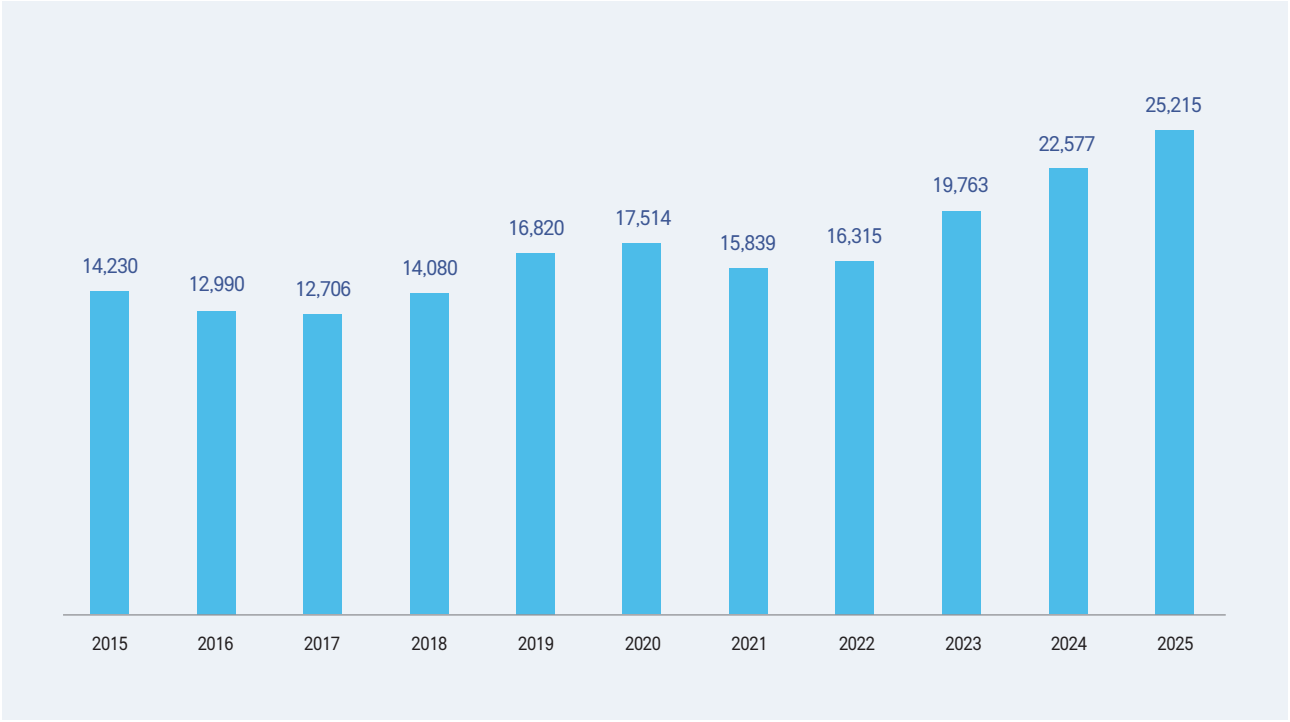
연도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5	758	742	341	134	207	275	41	234	37	89	0	16	55.4
’16	712	686	375	144	231	226	22	204	11	74	0	26	62.4
’17	765	742	403	170	233	266	39	227	13	60	0	23	60.2
’18	1,026	999	459	193	266	449	31	418	15	76	0	27	50.6
’19	1,126	1,082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0	39	49.6
’20	874	854	420	155	265	345	17	328	10	79	0	20	54.9
’21	1,037	1,008	448	177	271	456	25	431	14	90	0	26	49.6
’22	1,006	979	464	202	262	381	14	367	15	119	0	24	54.9
’23	939	896	365	165	200	427	26	401	12	92	0	21	46.1
’24	870	840	387	209	178	334	23	311	22	97	0	24	53.7
’25	860	825	358	193	165	339	18	321	8	120	0	21	51.4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심판사건

2025년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5,215건으로 전년대비 11.7%(2,638건) 증가하였다.



(단위: 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5	14,230	12,489	1,347	233	2,005	844	4,923	3,137	1,741
'16	12,990	11,381	1,453	232	1,984	792	4,229	2,691	1,609
'17	12,706	11,104	1,248	193	1,919	760	3,916	3,068	1,602
'18	14,080	12,205	1,388	214	2,098	823	4,075	3,607	1,874
'19	16,820	14,816	1,783	175	2,770	920	5,197	3,971	2,041
'20	17,514	15,243	1,678	215	3,113	855	5,348	4,034	2,246
'21	15,839	13,960	1,723	239	3,087	746	4,509	3,656	1,885
'22	16,315	14,343	1,592	237	3,416	326	4,628	4,144	1,974
'23	19,763	17,161	1,847	259	3,936	407	5,475	5,237	2,581
'24	22,577	19,799	1,690	234	4,732	434	6,841	5,868	2,780
'25	25,215	21,231	1,657	234	4,675	513	7,502	6,650	4,00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합계

(단위: 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5	2,089	1,636	371	100	533	182	358	92	453
’16	2,167	1,748	421	86	513	178	410	140	419
’17	1,967	1,636	358	81	591	193	277	136	331
’18	2,039	1,575	317	71	583	189	257	158	464
’19	2,497	2,034	449	58	801	188	324	214	464
’20	2,731	2,165	435	75	960	167	334	194	561
’21	2,583	2,184	521	94	967	144	274	184	399
’22	2,427	1,990	473	85	1,026	62	187	157	435
’23	2,673	2,117	485	90	1,054	71	209	208	558
’24	3,026	2,314	459	90	1,264	52	264	185	710
’25	3,306	2,143	394	78	1,112	62	302	195	1,16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5	12,141	10,853	976	133	1,472	662	4,565	3,045	1,288
’16	10,823	9,633	1,032	146	1,471	614	3,819	2,551	1,190
’17	10,739	9,468	890	112	1,328	567	3,639	2,932	1,271
’18	12,041	10,630	1,071	143	1,515	634	3,818	3,449	1,410
’19	14,323	12,782	1,334	117	1,969	732	4,873	3,757	1,577
’20	14,783	13,078	1,243	140	2,153	688	5,014	3,840	1,685
’21	13,256	11,776	1,202	145	2,120	602	4,235	3,472	1,486
’22	13,888	12,353	1,119	152	2,390	264	4,441	3,987	1,539
’23	17,090	15,044	1,362	169	2,882	336	5,266	5,029	2,023
’24	19,551	17,485	1,231	144	3,468	382	6,577	5,683	2,070
’25	21,909	19,088	1,263	156	3,563	451	7,200	6,455	2,83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차별시정사건

2025년 차별시정 접수건수는 261건으로 전년대비 8.8%(21건) 증가하였다.



(단위: 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5	175	138	19	18	26	3	18	0	54	37
'16	137	115	8	27	17	10	12	0	41	22
'17	182	155	12	53	13	13	18	0	46	27
'18	361	321	12	22	46	12	133	0	96	39
'19	204	170	10	30	30	20	32	0	49	33
'20	220	162	8	19	29	11	60	0	35	33
'21	165	122	9	26	20	7	13	0	47	42
'22	193	156	13	19	64	4	12	0	44	37
'23	223	178	10	48	39	3	27	0	51	46
'24	240	208	17	18	53	6	29	0	85	33
'25	261	213	12	12	70	6	32	0	81	4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의 합계

(단위: 건)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5	49	33	12	3	3	0	8	0	7	16
’16	39	32	3	15	6	3	1	0	4	7
’17	48	37	5	22	5	2	2	0	1	11
’18	64	46	7	6	16	5	0	0	12	17
’19	47	41	4	17	11	3	0	0	6	6
’20	41	23	2	8	6	4	0	0	3	15
’21	28	22	6	6	7	2	0	0	1	5
’22	42	31	4	9	14	2	0	0	2	11
’23	44	34	4	13	10	1	0	0	6	10
’24	51	39	7	6	20	2	1	0	3	12
’25	59	40	3	7	19	2	2	0	7	1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지방노동위원회 제외)

(단위: 건)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5	126	105	7	15	23	3	10	0	47	21
’16	98	83	5	12	11	7	11	0	37	15
’17	134	118	7	31	8	11	16	0	45	16
’18	297	275	5	16	30	7	133	0	84	22
’19	157	129	6	13	19	17	32	0	43	27
’20	179	139	6	11	23	7	60	0	32	18
’21	137	100	3	20	13	5	13	0	46	37
’22	151	125	9	10	50	2	12	0	42	26
’23	179	144	6	35	29	2	27	0	45	36
’24	189	169	10	12	33	4	28	0	82	21
’25	202	173	9	5	51	4	30	0	7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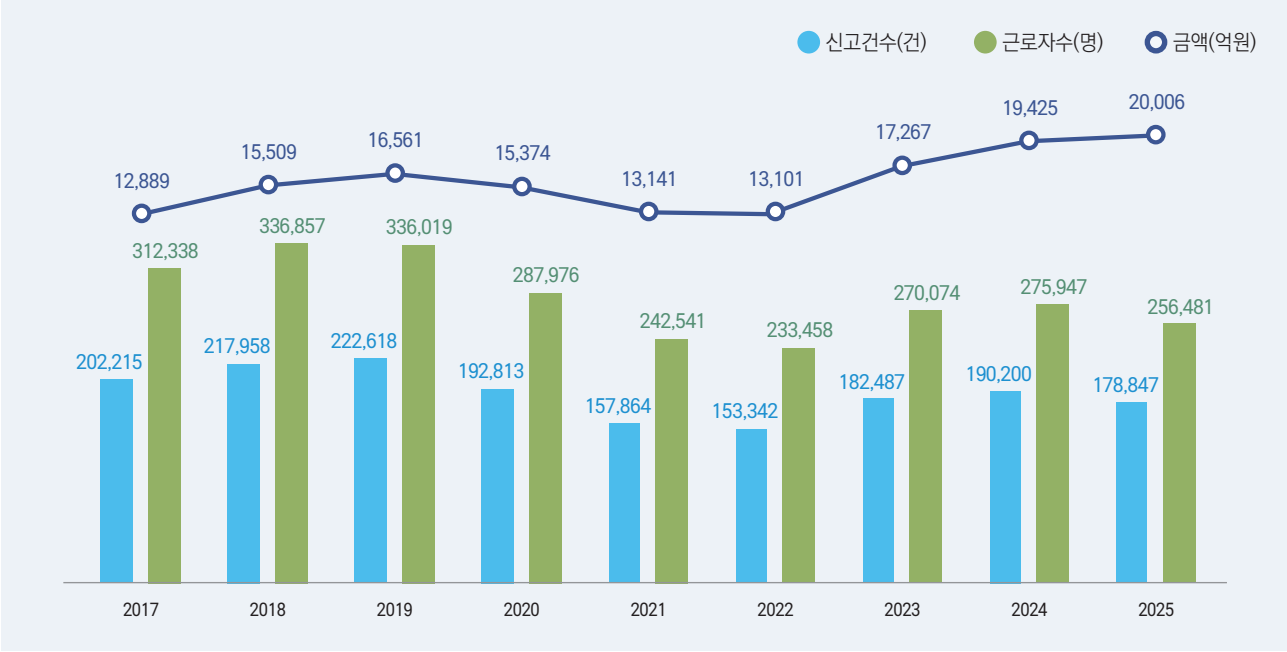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근로개선 지도 현황

체불임금 현황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2025년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체불금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5년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17.9만건, 근로자수는 25.6만명, 체불금액은 2조원 수준이다.



체불임금 신고건수	처리					
	합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7	202,215	(100.0)	149,464	(73.9)	52,751	(26.1)
'18	217,958	(100.0)	151,504	(69.5)	66,454	(30.5)
'19	222,618	(100.0)	150,798	(67.7)	71,820	(32.3)
'20	192,813	(100.0)	134,170	(69.6)	58,643	(30.4)
'21	157,864	(100.0)	111,001	(70.3)	46,863	(29.7)
'22	153,342	(100.0)	114,318	(74.6)	39,024	(25.4)
'23	182,487	(100.0)	141,275	(77.4)	41,212	(22.6)
'24	190,200	(100.0)	150,687	(79.2)	39,513	(20.8)
'25	178,847	(100.0)	137,644	(77.0)	41,203	(23.0)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건,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체불임금 근로자수	처 리					
	합 계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17	312,338	(100.0)	203,902	(65.3)	108,436	(34.7)
’18	336,857	(100.0)	203,243	(60.3)	133,614	(39.7)
’19	336,019	(100.0)	203,374	(60.5)	132,645	(39.5)
’20	287,976	(100.0)	181,113	(62.9)	106,863	(37.1)
’21	242,541	(100.0)	157,782	(65.1)	84,759	(34.9)
’22	233,458	(100.0)	161,193	(69.0)	72,265	(31.0)
’23	270,074	(100.0)	196,866	(72.9)	73,208	(27.1)
’24	275,947	(100.0)	206,959	(75.0)	68,988	(25.0)
’25	256,481	(100.0)	189,954	(74.1)	66,527	(25.9)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명,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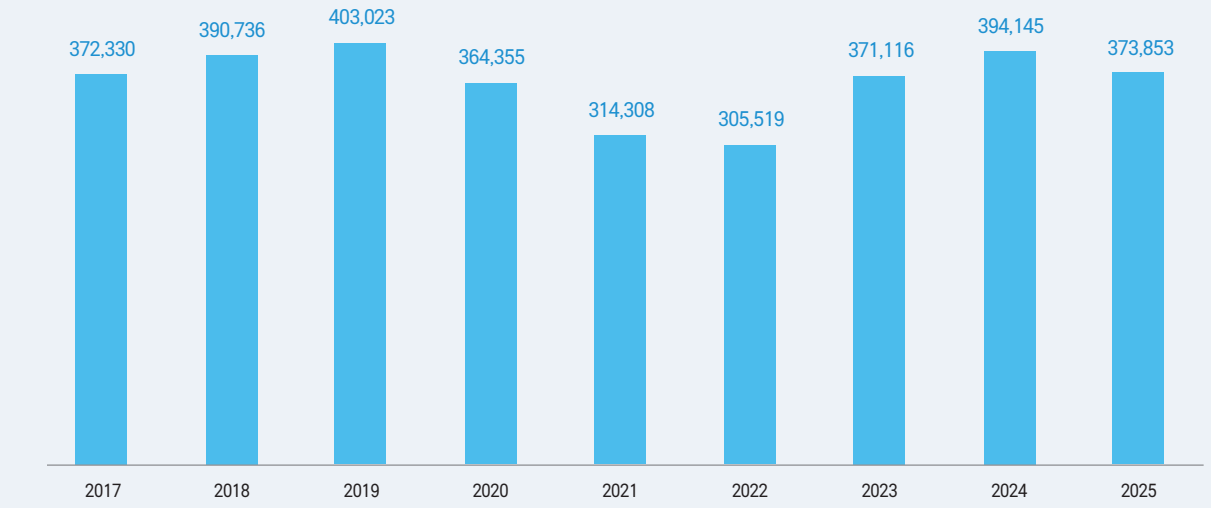
체불임금 금액	처 리					
	합 계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17	12,889	(100.0)	6,751	(52.4)	6,139	(47.6)
’18	15,509	(100.0)	7,292	(47.0)	8,217	(53.0)
’19	16,561	(100.0)	8,260	(49.9)	8,301	(50.1)
’20	15,374	(100.0)	8,307	(54.0)	7,067	(46.0)
’21	13,141	(100.0)	7,403	(56.3)	5,738	(43.7)
’22	13,101	(100.0)	8,060	(61.5)	5,041	(38.5)
’23	17,267	(100.0)	11,385	(65.9)	5,882	(34.1)
’24	19,425	(100.0)	13,300	(68.5)	6,125	(31.5)
’25	20,006	(100.0)	13,474	(67.3)	6,532	(32.7)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단위: 억원, %)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신고사건 현황

노동법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였다가 2025년 감소로 전환하였다. 2025년 신고사건 건수는 37.4만건으로 전년대비 5.1%(2.0만건) 감소하였다.

신고사건 접수건수



연 도	접 수	처 리	행 정 종 결		사 법 처 리	
’17	372,330	374,006	294,525	(78.7)	79,481	(21.3)
’18	390,736	399,207	318,153	(79.7)	81,054	(20.3)
’19	403,023	417,708	335,764	(80.4)	81,944	(19.6)
’20	364,355	380,138	313,462	(82.5)	66,676	(17.5)
’21	314,308	322,994	271,119	(83.9)	51,875	(16.1)
’22	305,519	310,805	267,987	(86.2)	42,818	(13.8)
’23	371,116	370,653	326,805	(88.2)	43,848	(11.8)
’24	394,145	398,041	341,907	(85.9)	56,134	(14.1)
’25	373,853	377,942	319,233	(84.5)	58,709	(15.5)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 )는 처리 대비 비중

(단위: 건)

대지급금

2025년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는 11.5만명이고, 대지급금 금액은 6천8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도	사업체	근로자	금 액
'17	18,068	92,929	3,724
'18	19,441	92,631	3,740
'19	21,894	100,409	4,599
'20	24,975	110,610	5,797
'21	24,071	107,431	5,466
'22	22,271	108,284	5,369
'23	24,183	132,079	6,869
'24	24,327	128,638	7,242
'25	23,706	115,374	6,845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단위: 개소, 명, 억원)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 산업안전

① 산업재해
② 경제적 손실
③ 산재보험



1 산업재해

산업재해 추이

2024년 재해자수는 14만3천명, 재해율은 0.67%이고 사망자는 2,098명이다.
전년에 비해 사망만인율은 동일하였으나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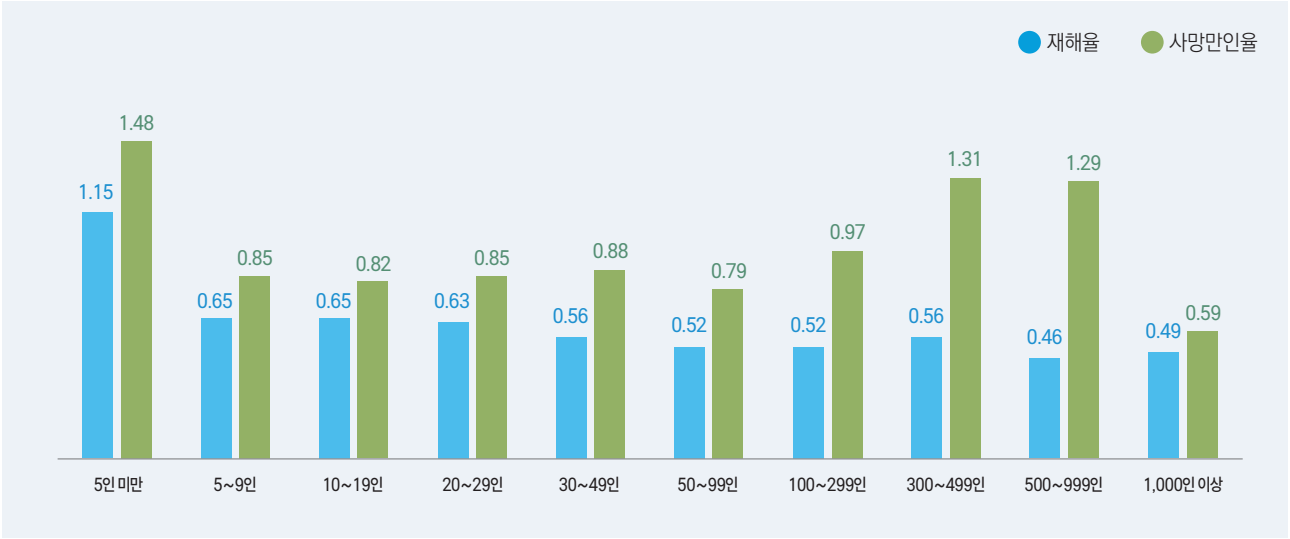


연도	대상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 만인율	강도율	도수율
’13	15,449,228	(−0.6)	91,824	(−0.5)	0.59	1,929	(3.5)	1.25	1.65	2.85
’14	17,062,308	(10.4)	90,909	(−1.0)	0.53	1,850	(−4.1)	1.08	1.38	2.57
’15	17,968,931	(5.3)	90,129	(−0.9)	0.50	1,810	(−2.2)	1.01	1.28	2.40
’16	18,431,716	(2.6)	90,656	(0.6)	0.49	1,777	(−1.8)	0.96	1.24	2.38
’17	18,560,142	(0.7)	89,848	(−0.9)	0.48	1,957	(10.1)	1.05	1.27	2.38
’18	19,073,438	(2.8)	102,305	(13.9)	0.54	2,142	(9.5)	1.12	1.33	2.56
’19	18,725,160	(−1.8)	109,242	(6.8)	0.58	2,020	(−5.7)	1.08	1.49	2.96
’20	18,974,513	(1.3)	108,379	(−0.8)	0.57	2,062	(2.1)	1.09	1.51	2.94
’21	19,378,565	(2.1)	122,713	(13.2)	0.63	2,080	(0.9)	1.07	1.62	3.26
’22	20,173,615	(4.1)	130,348	(6.2)	0.65	2,223	(6.9)	1.10	1.58	3.36
’23	20,637,107	(2.3)	136,796	(4.9)	0.66	2,016	(−9.3)	0.98	1.65	3.52
’24	21,420,560	(3.8)	142,771	(4.4)	0.67	2,098	(4.1)	0.98	1.69	3.5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단위: 명, %, ‰)
주) 재해율(%):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도수율: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강도율: 재해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규모별 산업재해

2024년 사업장의 재해율은 5인미만 규모에서 1.15%로 가장 높고,
사망만인율 역시 5인미만 규모에서 1.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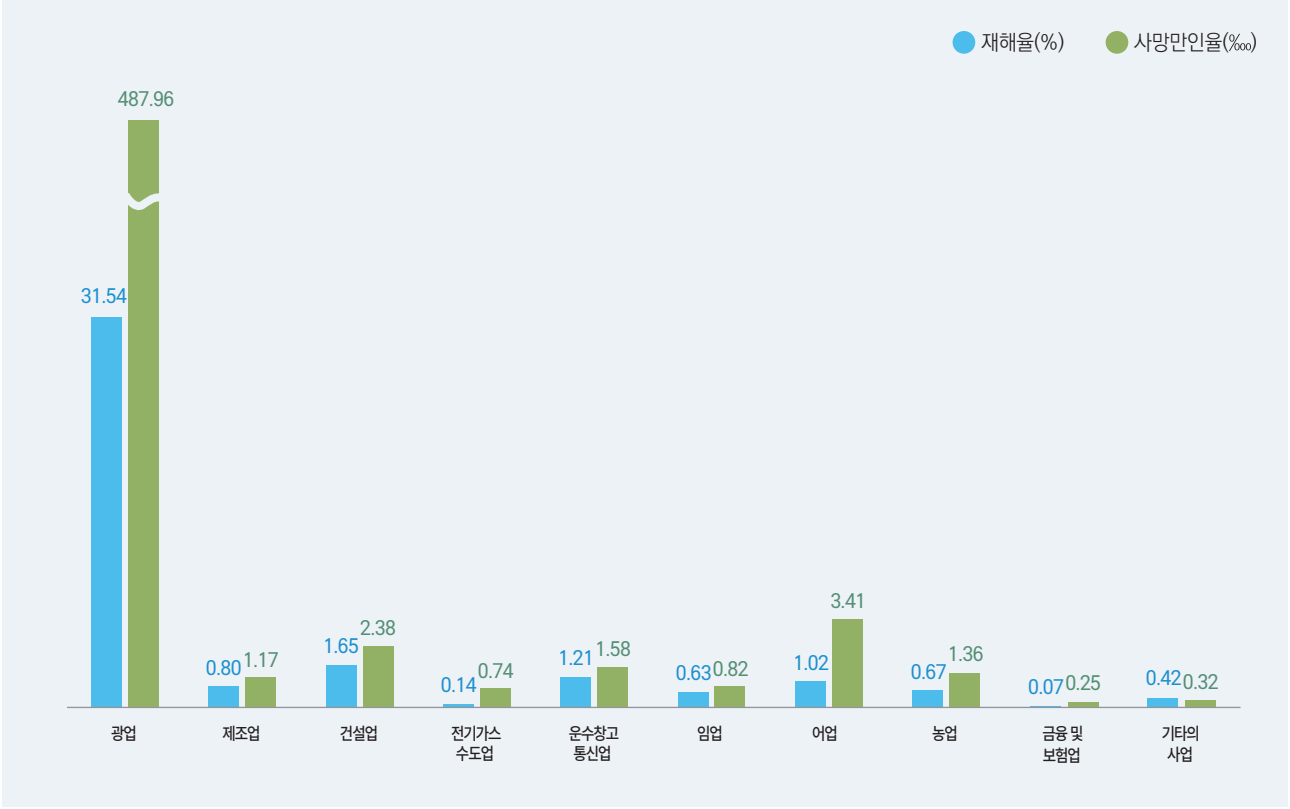
구 분	대상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전 규 모	3,000,421	21,420,560	142,771	(100.0)	0.67	2,098	(100.0)	0.98
300인 미만	2,995,784	17,588,746	123,654	(86.6)	0.70	1,736	(82.7)	0.99
5인미만	2,211,824	3,553,998	40,927	(28.7)	1.15	526	(25.1)	1.48
5~9인	393,104	2,555,747	16,730	(11.7)	0.65	217	(10.3)	0.85
10~19인	216,636	2,878,169	18,695	(13.1)	0.65	237	(11.3)	0.82
20~29인	72,005	1,707,605	10,720	(7.5)	0.63	145	(6.9)	0.85
30~49인	52,940	1,981,477	11,108	(7.8)	0.56	174	(8.3)	0.88
50~99인	32,390	2,199,992	11,358	(8.0)	0.52	174	(8.3)	0.79
100~299인	16,885	2,711,758	14,116	(9.9)	0.52	263	(12.5)	0.97
300인 이상	4,637	3,831,814	19,117	(13.4)	0.50	362	(17.3)	0.94
300~499인	2,559	966,845	5,376	(3.8)	0.56	127	(6.1)	1.31
500~999인	1,386	935,647	4,259	(3.0)	0.46	121	(5.8)	1.29
1,000인 이상	692	1,929,322	9,482	(6.6)	0.49	114	(5.4)	0.59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4년), ( ) 비중

(단위: 개소, 명, %, ‰)

산업별 산업재해

2024년 광업과 건설업의 재해율이 각각 31.54%, 1.65%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사망만인율은 광업(487.96‰), 어업(3.41‰), 건설업(2.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전 산 업	3,000,421	21,420,560	142,771	(100.0)	0.67	2,098	(100.0)	0.98
광업	994	9,222	2,909	(2.0)	31.54	450	(21.4)	487.96
제조업	412,938	4,081,069	32,767	(23.0)	0.80	476	(22.7)	1.17
건설업	318,304	2,084,092	34,370	(24.1)	1.65	496	(23.6)	2.38
전기 · 가스 · 증기및수도사업	3,750	80,811	117	(0.1)	0.14	6	(0.3)	0.7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2,680	1,400,399	16,961	(11.9)	1.21	221	(10.5)	1.58
임업	19,691	146,942	928	(0.6)	0.63	12	(0.6)	0.82
어업	2,144	5,872	60	(0.0)	1.02	2	(0.1)	3.41
농업	30,721	110,024	741	(0.5)	0.67	15	(0.7)	1.36
금융및보험업	44,482	836,884	590	(0.4)	0.07	21	(1.0)	0.25
기타사업	2,054,717	12,665,245	53,328	(37.4)	0.42	399	(19.0)	0.3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4년), (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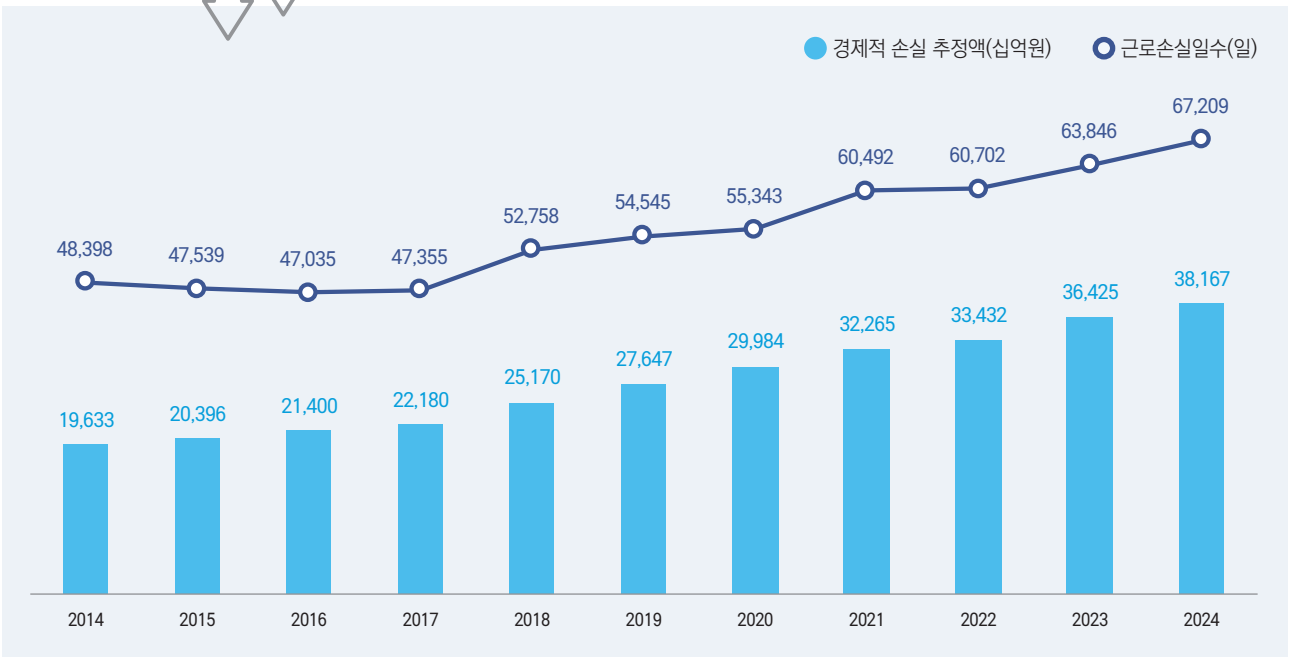
(단위: 명, %, ‰)

2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액 및 손실일수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8조원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부터 증가 추세이다.



연도	경제적 손실액			근로 손실일수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14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15	20,395,540	4,079,108	16,316,432	47,538,877
'16	21,400,275	4,280,055	17,120,220	47,035,222
'17	22,180,190	4,436,038	17,744,152	47,355,044
'18	25,169,507	5,033,901	20,135,606	52,757,858
'19	27,646,799	5,529,360	22,117,440	54,544,623
'20	29,984,095	5,996,819	23,987,276	55,343,490
'21	32,264,700	6,452,940	25,811,760	60,492,479
'22	33,432,430	6,686,486	26,745,944	60,701,773
'23	36,424,705	7,284,941	29,139,764	63,845,877
'24	38,166,595	7,633,319	30,533,276	67,208,79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4년), ( ) 비중 (단위: 백만원, 일)

주)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간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이외에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 재해로 인해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 총액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못한 일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장수	2,876,635	2,976,026	2,945,136	3,000,421
(전년대비, %)	(5.8)	(3.5)	(-1.0)	(1.9)
근로자수	19,378,565	20,173,615	20,637,107	21,420,560
(전년대비, %)	(2.1)	(4.1)	(2.3)	(3.8)
재해자수	122,713	130,348	136,796	142,771
(전년대비, %)	(13.2)	(6.2)	(4.9)	(4.4)
사망자수	2,080	2,223	2,016	2,098
(전년대비, %)	(0.9)	(6.9)	(-9.3)	(4.1)
부상자수	101,182	106,038	112,373	114,663
(전년대비, %)	(10.9)	(4.8)	(6.0)	(2.0)
업무상질병요양자수	19,183	21,785	22,127	25,727
(전년대비, %)	(29.5)	(13.6)	(1.6)	(16.3)
재해율(%)	0.63	0.65	0.66	0.67
(전년대비, %p)	(0.06)	(0.02)	(0.01)	(0.01)
사망만인율(‰)	1.07	1.1	0.98	0.98
(전년대비, ‰p)	(-0.02)	(0.03)	(-0.12)	(0.00)
경제적 손실액	32조 2,647억원	33조 4,324억원	36조 4,247억원	38조 1,666억원
(전년대비, %)	(7.6)	(3.6)	(9.0)	(4.8)
근로손실 일수(천일)	60,492	60,702	63,846	67,209
(전년대비, %)	(9.3)	(0.3)	(5.2)	(5.3)
도수율	3.26	3.36	3.52	3.57
(전년대비, p)	(0.32)	(0.10)	(0.16)	(0.05)
강도율	1.62	1.58	1.65	1.69
(전년대비, p)	(0.11)	(-0.04)	(0.07)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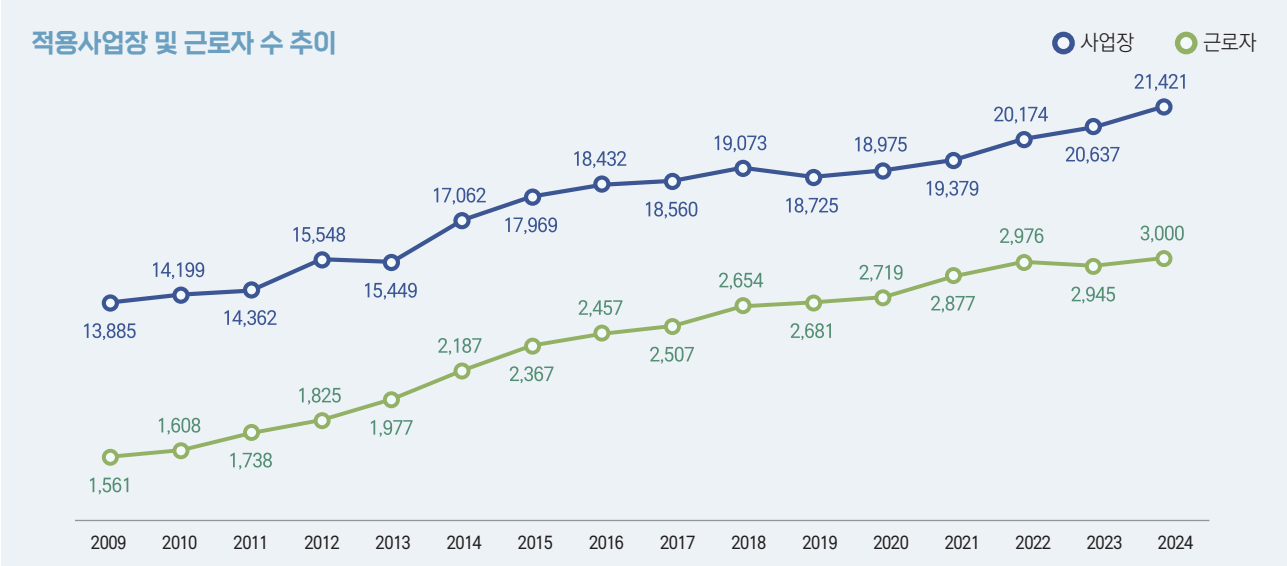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 증감 및 증감율 (단위: 명, %, ‰)
주) 사망자수는 사고사망자수와 재해사망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3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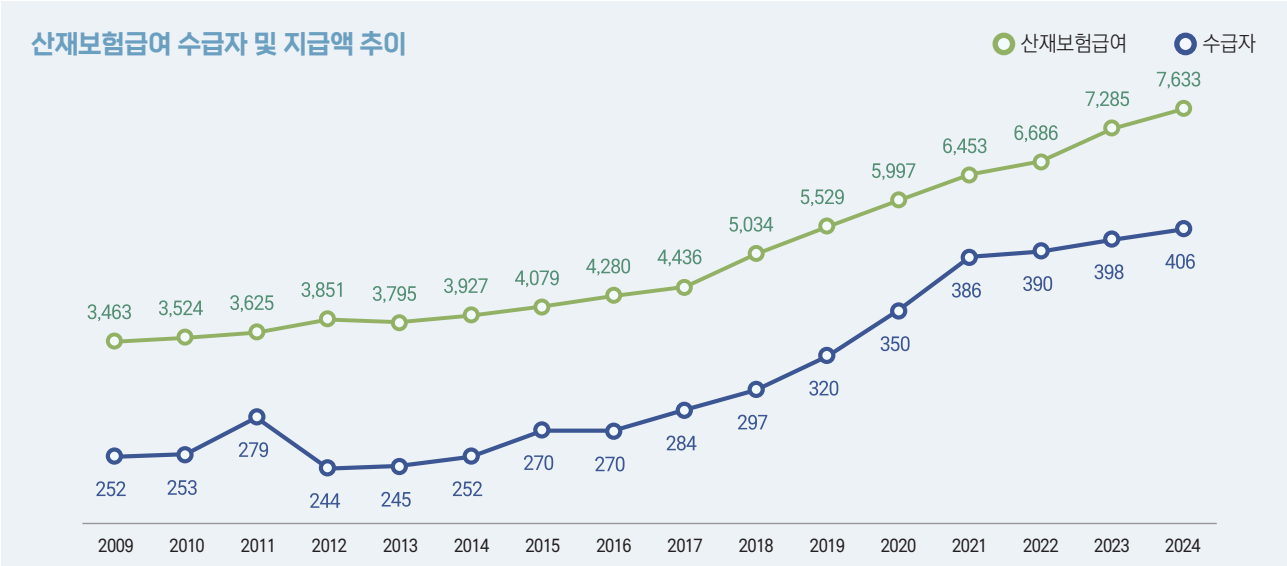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등 추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천개소,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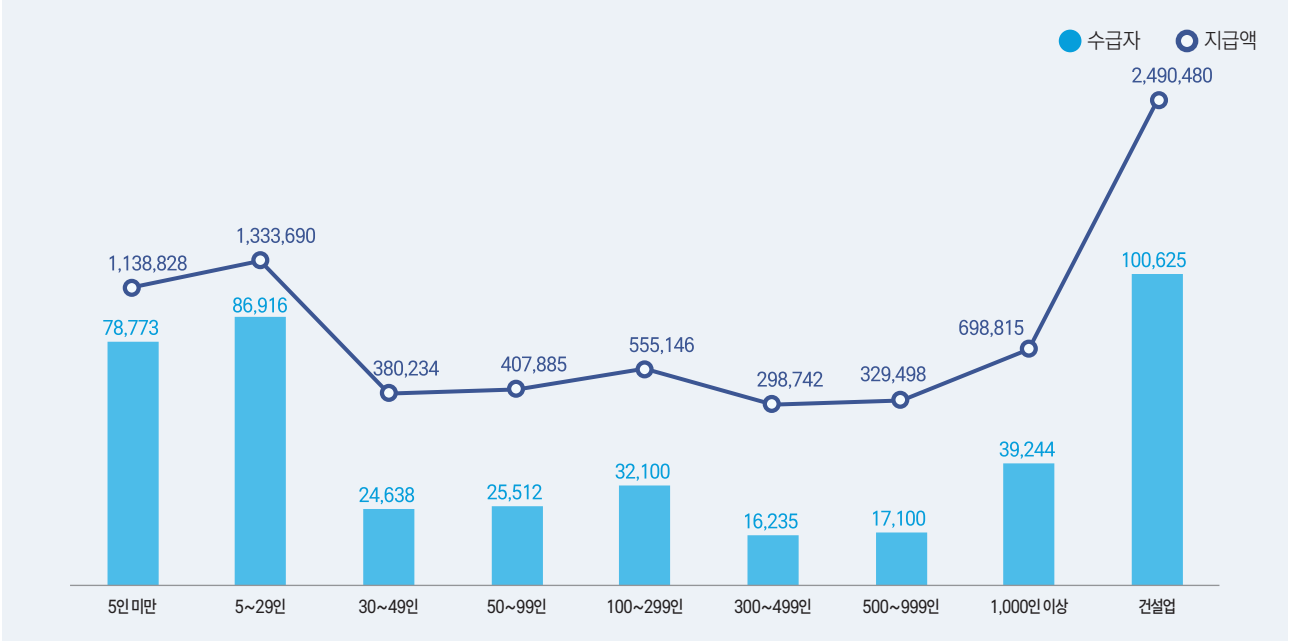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십억원, 천명)

규모별 보험급여 지급

5~29인 규모 사업체의 산재보험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3,000,421	(1.9)	21,420,560	(3.8)	405,539	(1.8)	4,952,475	(-1.6)	7,633,319	(4.8)
5인 미만	1,950,234	(1.5)	3,223,680	(3.4)	78,773	(3.4)	809,213	(3.4)	1,138,828	(7.2)
5~29인	634,427	(4.2)	6,622,661	(4.6)	86,916	(-1.9)	1,021,964	(-4.8)	1,333,690	(0.7)
30~49인	49,404	(4.0)	1,848,718	(3.9)	24,638	(1.9)	271,705	(-2.2)	380,234	(4.6)
50~99인	29,762	(4.9)	2,017,518	(4.9)	25,512	(2.3)	290,794	(-1.6)	407,885	(2.4)
100~299인	14,534	(3.0)	2,304,426	(2.7)	32,100	(0.2)	376,998	(-5.4)	555,146	(-1.4)
300~499인	1,994	(4.2)	755,234	(4.1)	16,235	(4.0)	166,351	(7.8)	298,742	(11.2)
500~999인	1,139	(3.9)	774,629	(3.3)	17,100	(-2.5)	185,660	(3.9)	329,498	(11.9)
1,000인 이상	623	(6.9)	1,789,602	(16.7)	39,244	(-0.5)	517,787	(-6.7)	698,815	(-0.3)
건설업	318,304	(-1.1)	2,084,092	(-6.7)	100,625	(4.3)	1,312,003	(-1.1)	2,490,480	(7.8)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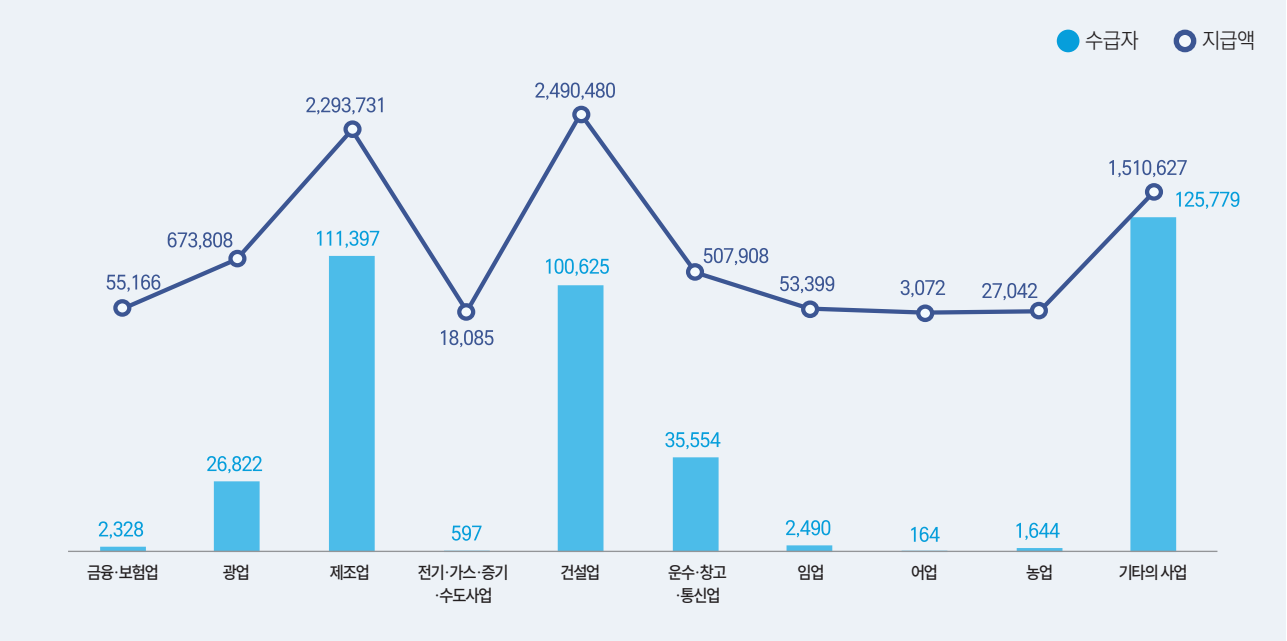
'24년 기준 산재보험 건설업 적용 사업장은 전체의 10.6%, 지급액은 32.6% 차지

- **건설업**은 개별 현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져 각 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며, 각 현장에서 고용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

  ☞ 즉, 건설업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현장으로 나누어져 각각 보험 적용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고 근로자 수도 집계 대상에 포함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

2024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수, 수급자수, 지급건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지급액은 건설업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3,000,421	(1.9)	21,420,560	(3.8)	405,539	(1.8)	4,871,566	(-1.6)	7,633,319	(4.8)
금융·보험업	44,482	(0.8)	836,884	(-2.0)	2,328	(1.9)	27,474	(2.7)	55,166	(8.2)
광업	994	(-3.1)	9,222	(-5.1)	26,822	(-3.9)	319,164	(2.4)	673,808	(3.7)
제조업	412,938	(0.1)	4,081,069	(1.9)	111,397	(-1.2)	1,399,872	(-5.2)	2,293,731	(1.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750	(2.7)	80,811	(1.1)	597	(-4.8)	6,661	(-12.6)	18,085	(2.1)
건설업	318,304	(-1.1)	2,084,092	(-6.7)	100,625	(4.3)	1,297,533	(-1.1)	2,490,480	(7.8)
운수·창고·통신업	112,680	(10.3)	1,400,399	(25.0)	35,554	(9.5)	411,527	(8.1)	507,908	(12.6)
임업	19,691	(9.7)	146,942	(6.6)	2,490	(-6.3)	32,582	(-7.3)	53,399	(1.2)
어업	2,144	(0.7)	5,872	(1.7)	164	(-3.5)	1,957	(-3.5)	3,072	(-26.0)
농업	30,721	(19.6)	110,024	(17.7)	1,644	(-2.3)	18,293	(-6.7)	27,042	(1.0)
기타의 사업	2,054,717	(2.0)	12,665,245	(4.7)	125,779	(2.7)	1,356,503	(-1.7)	1,510,627	(3.4)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4년),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① 지역별 인구 현황
② 인구 이동 현황
③ 지역내총생산(GRDP)
④ 산업단지 분포 현황
⑤ 고용률
⑥ 취업자 수
⑦ 실업률
⑧ 비경제활동인구
⑨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⑩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지역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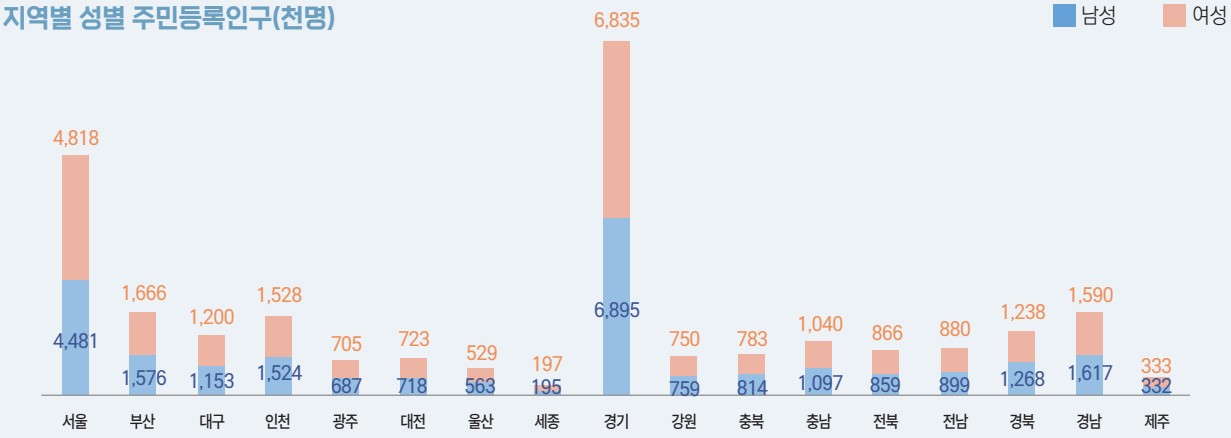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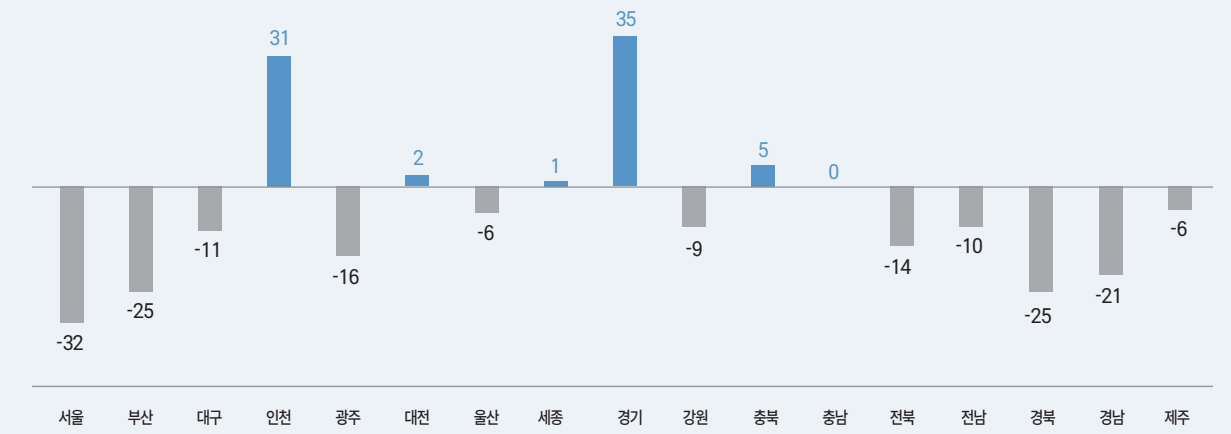
'25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12만명으로 최초 통계 작성연도인 1992년 이후 증가하다가 '20년을 인구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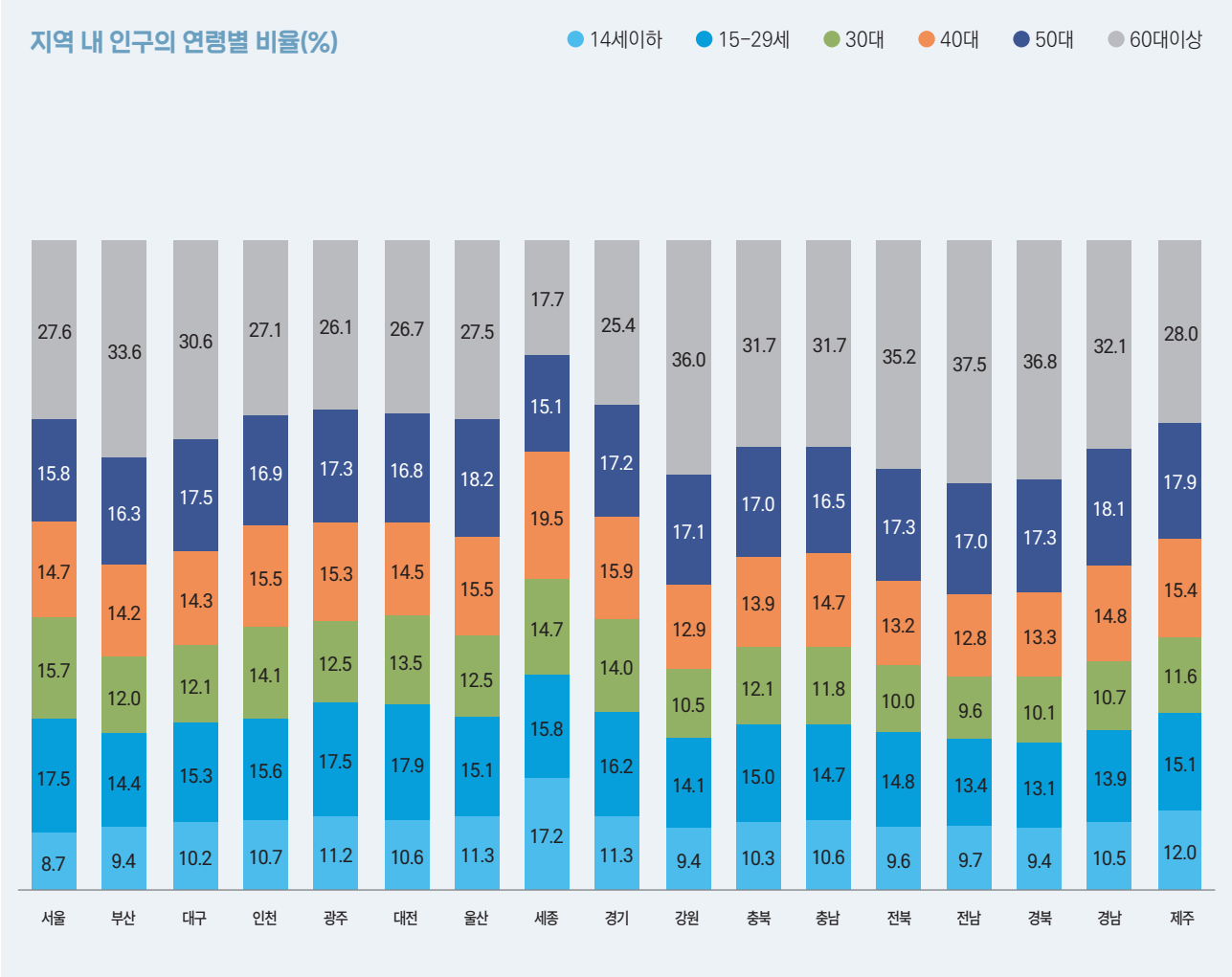
-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 인구가 전년대비 감소
- 여성인구 비율은 서울(51.8%), 부산(51.4%), 대구(51.0%), 광주(50.7%), 세종(50.2%) 순으로 높음, 울산은 여성인구 비율(48.5%)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청년인구 비율은 대전(17.9%), 광주(17.5%) 순으로 높고, 60대이상 인구 비율은 전남(37.5%), 경북(3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별 주민등록인구(천명)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증감(천명, 전년대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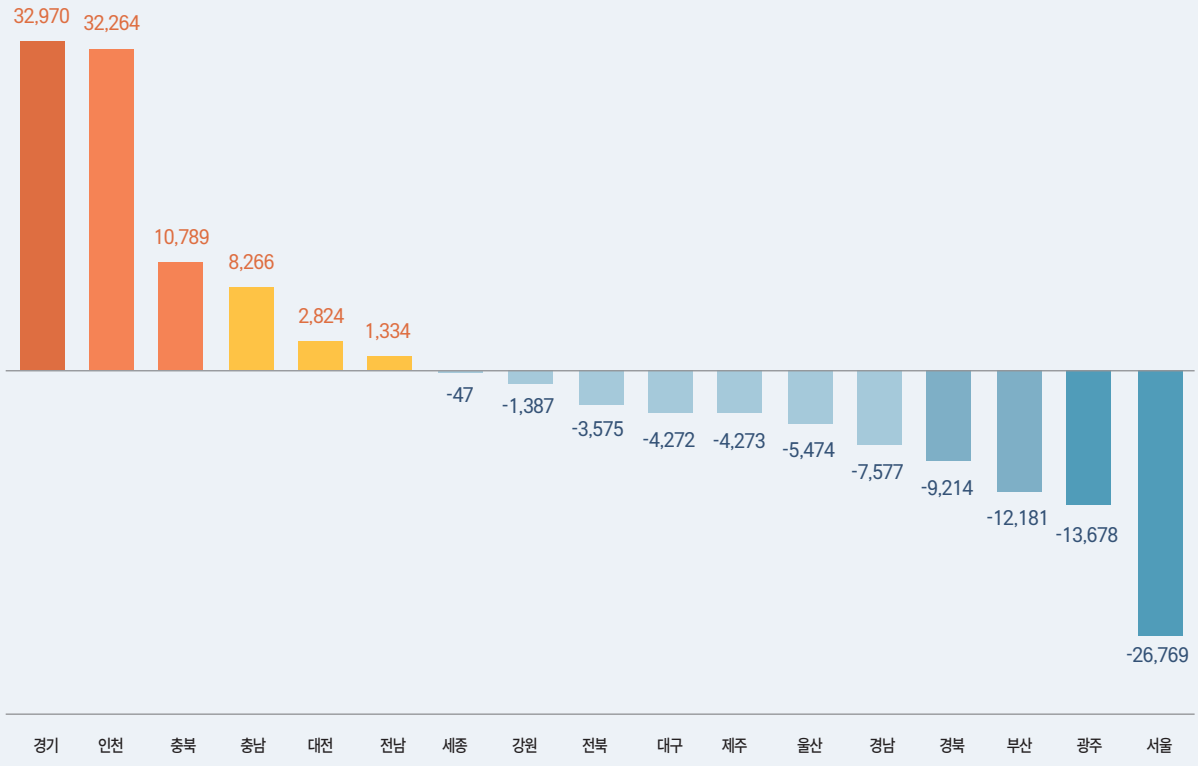
인구 이동 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25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남은 순유입 (전입 >전출)이 발생했고, 서울, 광주, 부산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 순유출이 가장 많은 서울(-2.7만명)은 주거, 직장 등을 이유로 인천, 경기, 충남 순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
- 순이동률은 인천이 +1.1%로 가장 높고, 세종은 '15년 +29.0%를 정점으로 하락해 '25년에는 순유출(-0.01%)로 전환

지역별 순이동자수(전입-전출)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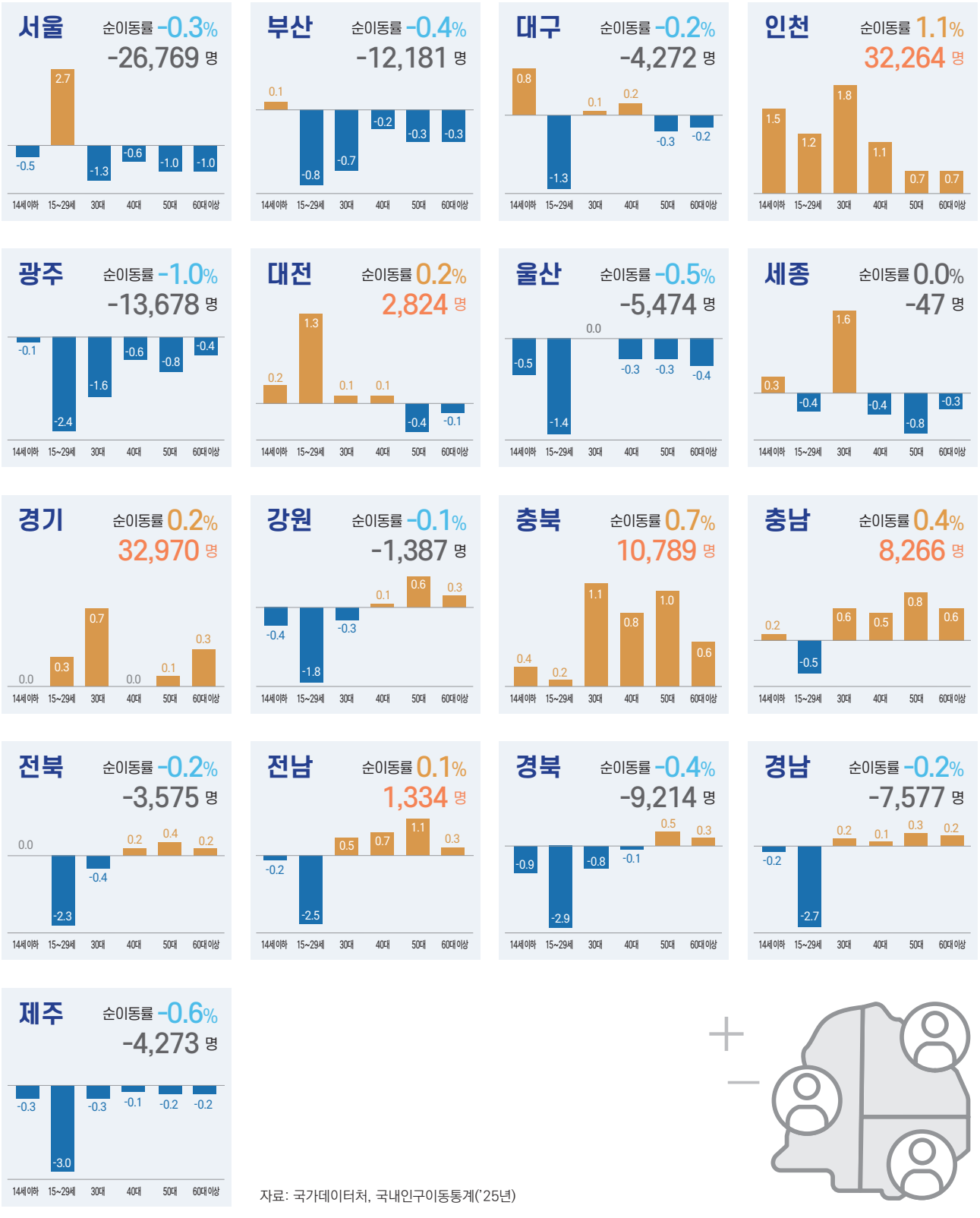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25년)

시도별 인구 이동 현황

경기·인천과 충북·충남·대전·전남 6개 시도는 순이동률이 (+)로 나타나 순유입, 나머지 11개 시도는 순유출

지역별 순이동률 (%, 순이동률=순이동인구÷연앙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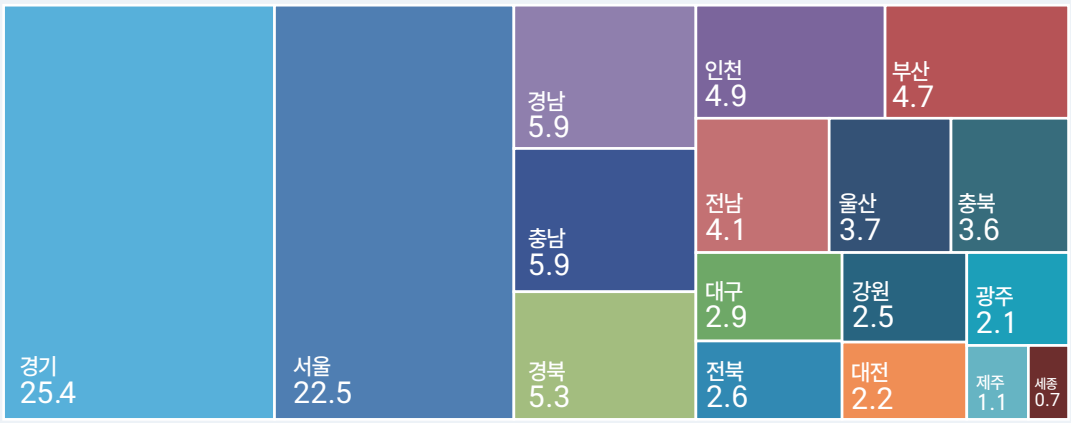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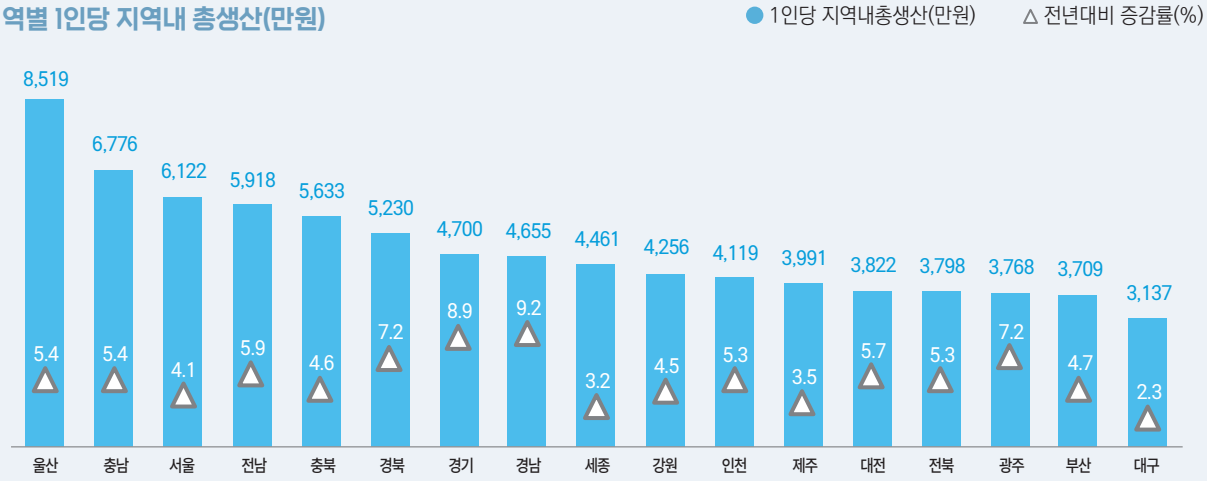
'24년 전국 총생산은 2,561조원으로 경기(651조)와 서울(575조)이 전체 총생산의 47.9%를 차지한다.

- 전년대비 총생산 성장률은 6.2%로 2년 연속 둔화에서 반등 ('21년 7.8% > '22년 4.6% > '23년 3.6% > '24년 6.2%)
- 울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8,51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5.4% 증가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평균 4,948만원보다 많은 지역은 울산(8,519만원), 충남(6,776만원), 서울(6,122만원), 전남(5,918만원), 충북(5,633만원), 경북(5,230만원) 6개 지역임

지역별 총생산액 비율(%, 명목, 시장가격)



지역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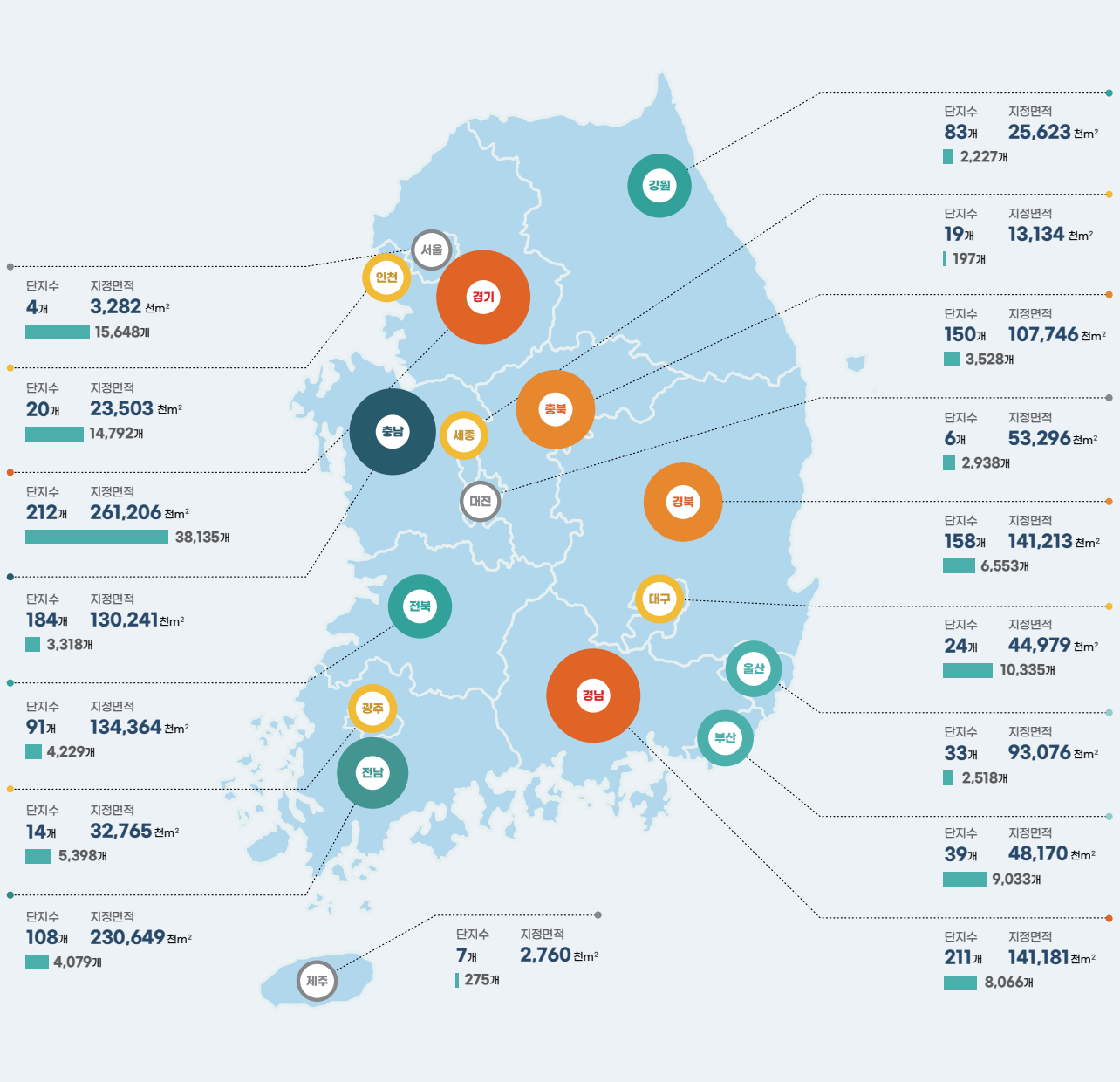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24년^{p})

4

산업단지 분포 현황

산업단지 현황

'25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363개로 13만1천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고용 규모는 237만 9천명이다.



출처: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5.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알아두기

● 주요 용어 해설

- 산업단지 유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
- 지정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임
- 입주업체: 산업집적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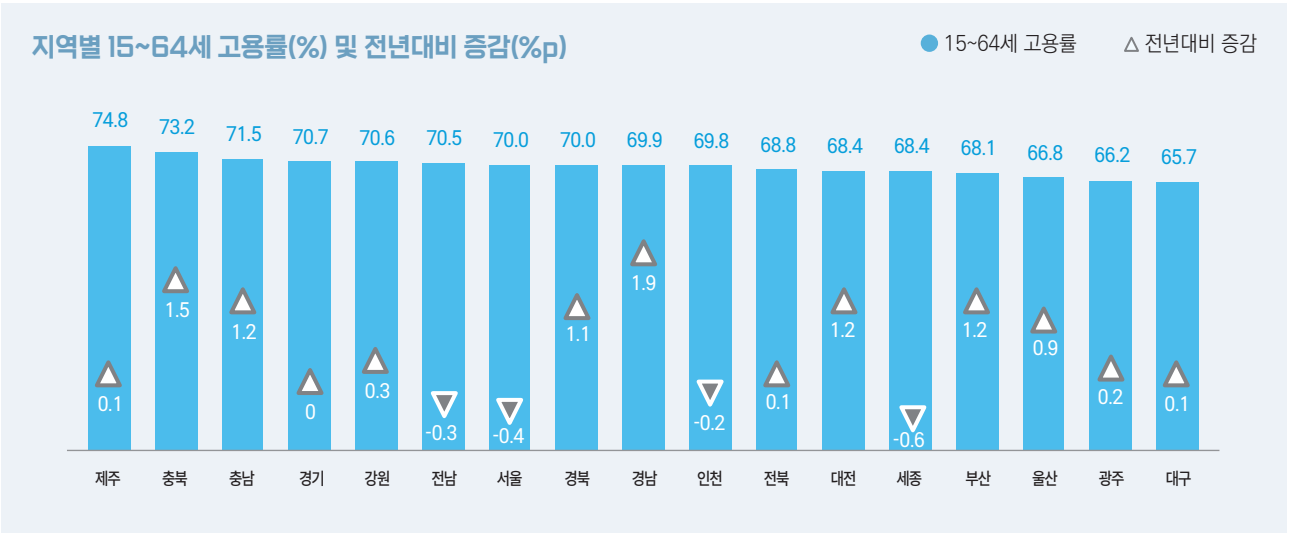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25년 전국의 평균 고용률(15~64세)은 69.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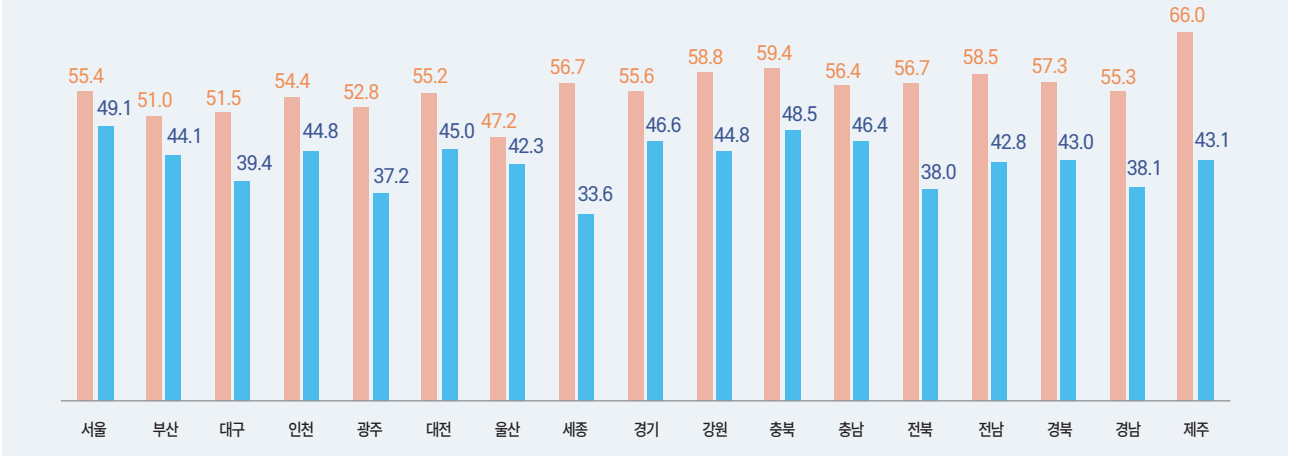
- 제주의 고용률이 74.8%로 가장 높고, 충청권(충북, 충남)과 경기, 강원, 전남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년대비 서울, 인천, 세종, 전남 4개 지역은 하락, 경기는 보합, 나머지 12개 지역의 고용률 상승
- 여성고용률은 제주, 충북, 강원, 전남 등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도지역에서 높은 반면, 청년고용률은 서울(49.1%), 충북(48.5%), 경기(46.6%)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15~64세 고용률(%) 및 전년대비 증감(%p)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지역별 여성 및 청년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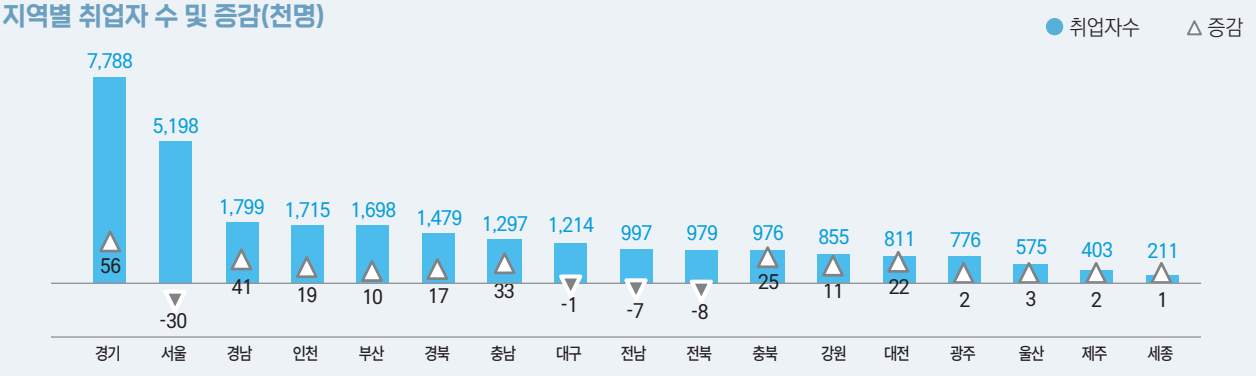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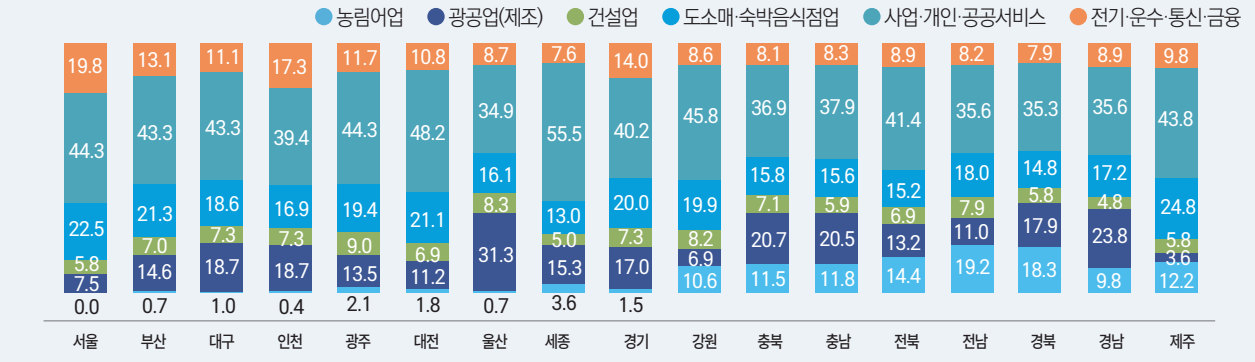
'25년 취업자 수는 2,877만명으로 전년보다 19.3만명 증가하였다.

- 경기(+5.6만명), 경남(+4.1만명), 충남(+3.3만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서울(-3.0만명), 전북(-0.8만명) 등 4개 지역에서 취업자가 감소
- 광공업(제조) 취업자 비율은 울산(31.3%), 경남(23.8%), 충북(20.7%), 충남(2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용직은 세종(72.3%), 서울(63.3%), 울산(63.1%), 임시·일용직은 전남(22.4%), 강원(22.4%), 부산(22.4%)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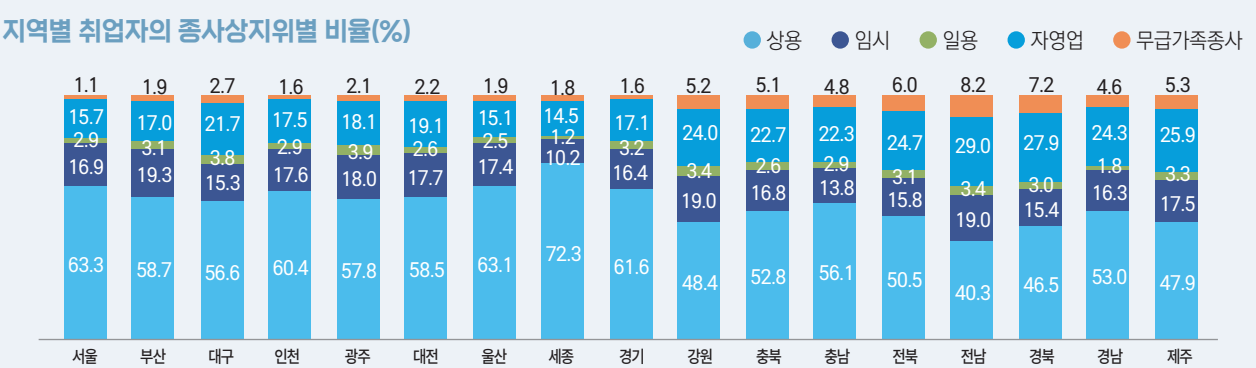
지역별 취업자 수 및 증감(천명)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율(%)



지역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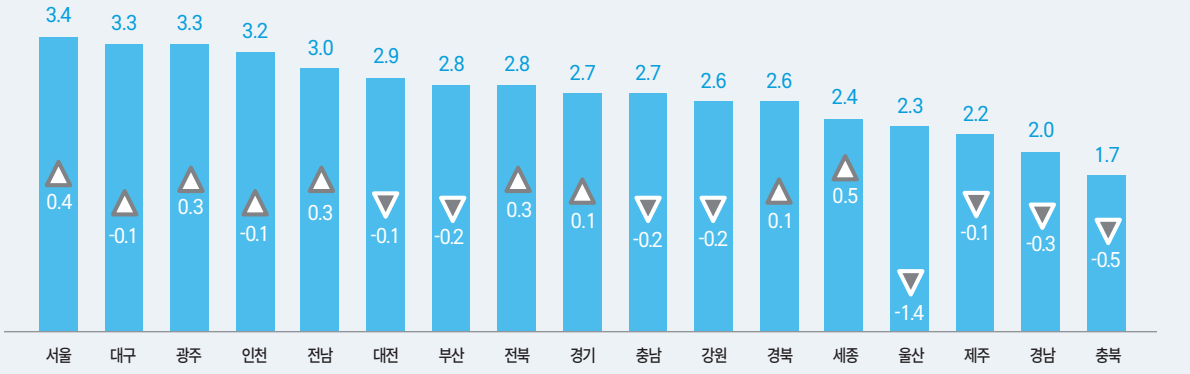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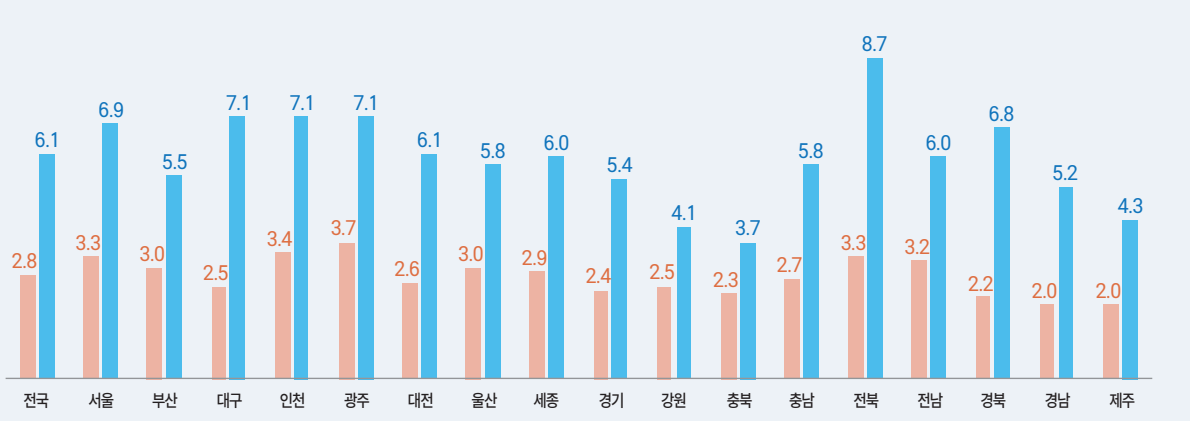
'25년 전국평균 실업률은 2.8%로 '24년(2.8%)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실업률은 도지역보다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울산(-1.4%p), 충북(-0.5%p), 경남(-0.3%p) 등 10개 지역은 실업률 하락
- 여성실업률은 광주(3.7%), 청년실업률은 전북(8.7%)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별 실업률(%) 및 전년대비 증감(%p)



지역별 여성 및 청년실업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참고

-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식 실업률이 실업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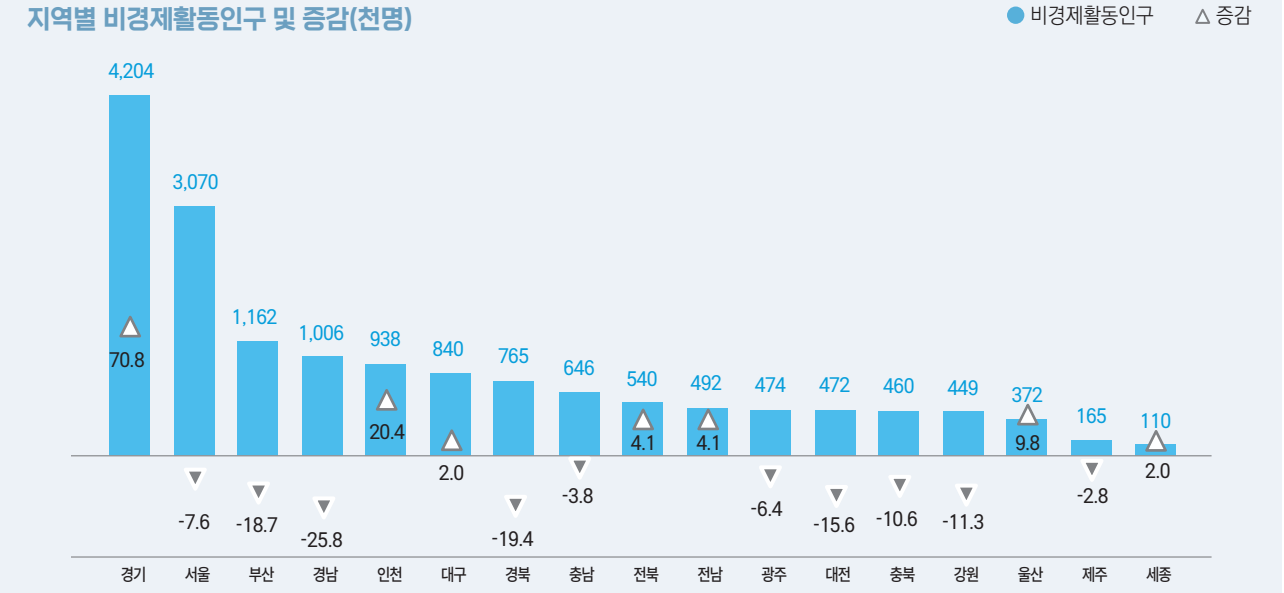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25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8천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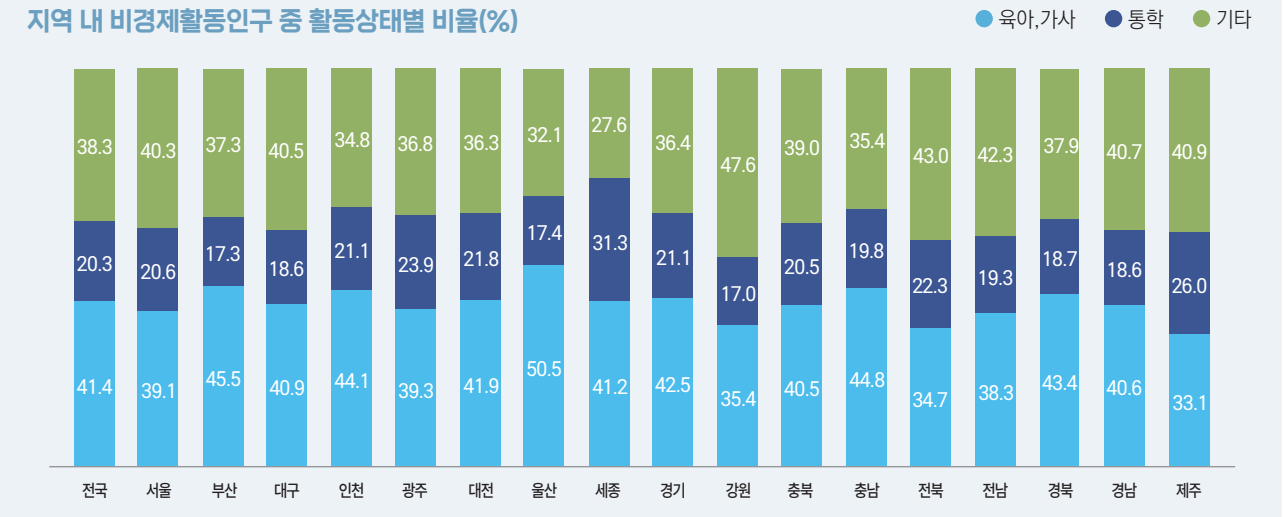
- 경남(-2.6만명), 경북(-1.9만명), 부산(-1.9만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경기(+7.1만명), 인천(+2.0만명) 등 7개 지역에서 증가
- 대부분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비율은 40%를 상회하나, 제주(33.1%), 전북(34.7%), 강원(35.4%), 전남(38.4%)의 육아·가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및 증감(천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지역 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별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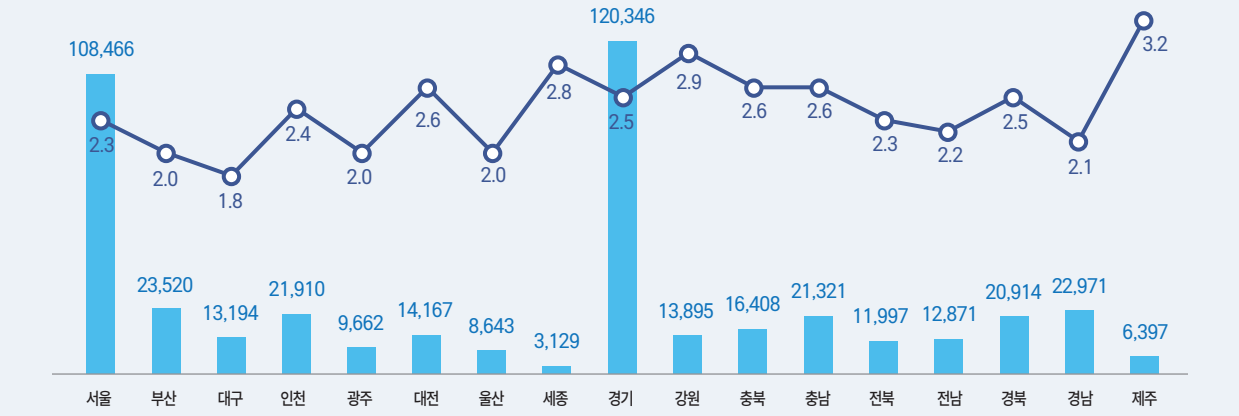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25.하반기)

'25년 하반기(10.1.기준) 부족인원은 45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만6천명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4%로 0.3%p 하락했다. 한편, 채용계획인원은 46만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3천명 감소했다.

-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은 경기(12.0만)와 서울(11.7만)가 전국의 50.6%를 차지, 이어 충남·부산·경남(각 2.3만) 순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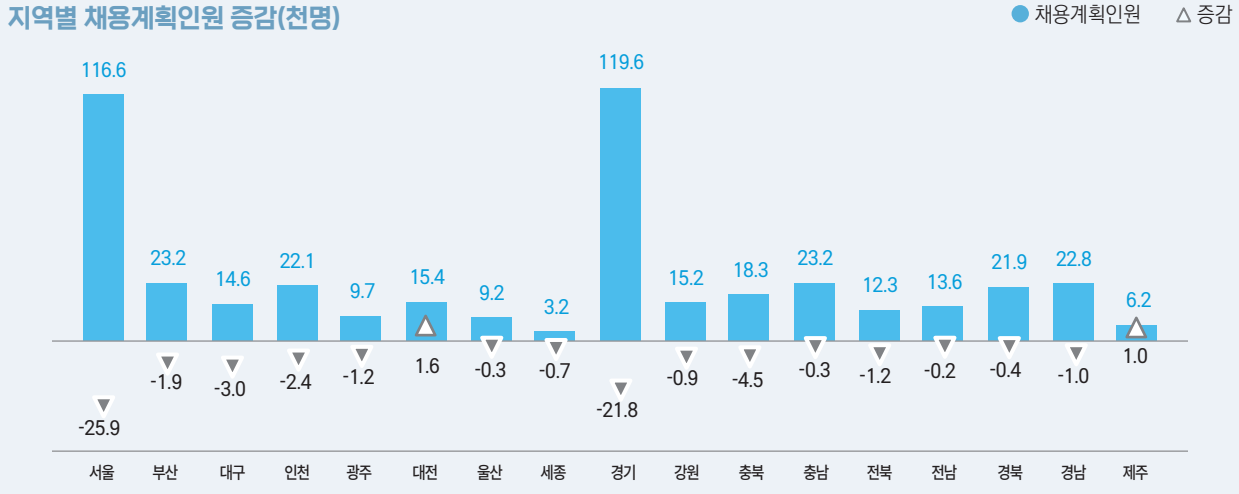
지역별 인력부족률(%)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부족인원 + 현원)] × 100

(단위: 명, %)

지역별 채용계획인원 증감(천명)



* 채용계획인원: '25.10.1.~'26.3.31.(6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5.하반기)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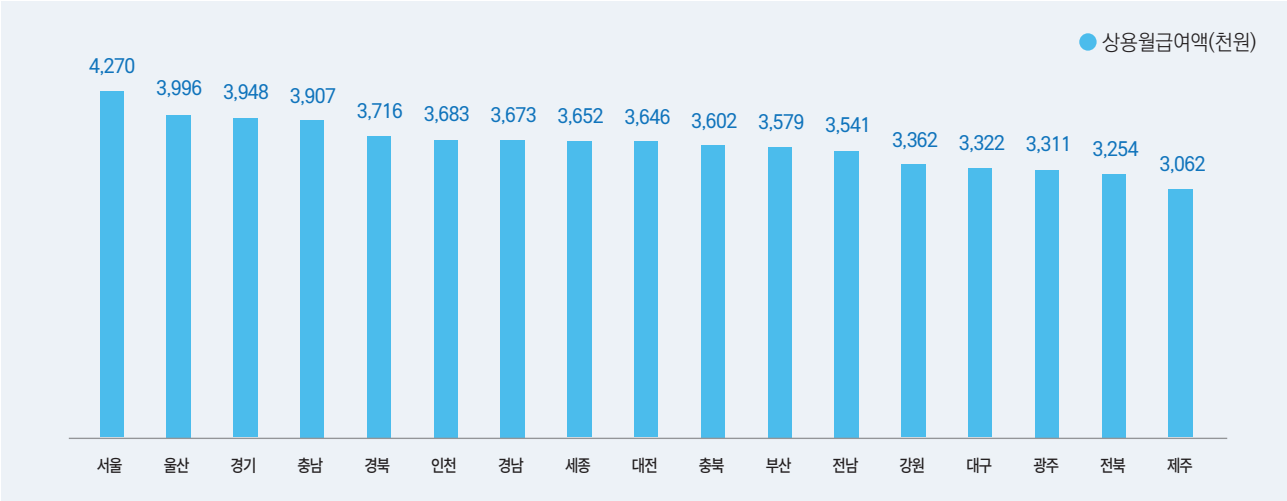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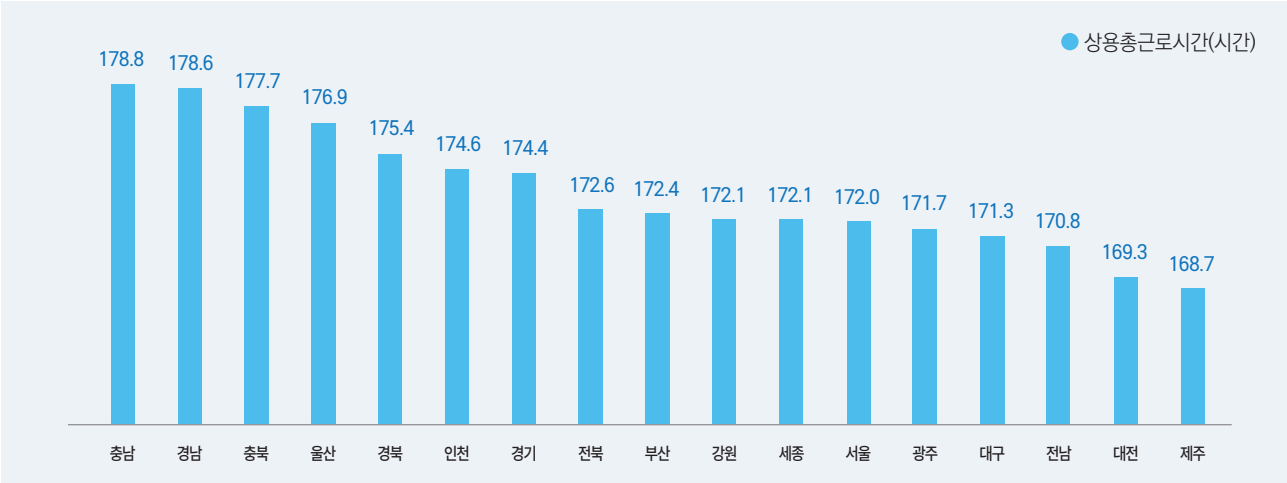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사업체노동력조사

'25년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386만원이며, 근로시간은 174.2시간이다.

- 고임금 업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서울과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의 임금이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임금이 낮게 나타남
- 경남과 울산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 반면, 강원, 대전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시간이 짧음





자료: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25.4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Part 2
대상별 현황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청년

2. 여성

3. 장년(50세 이상)

4. 비정규직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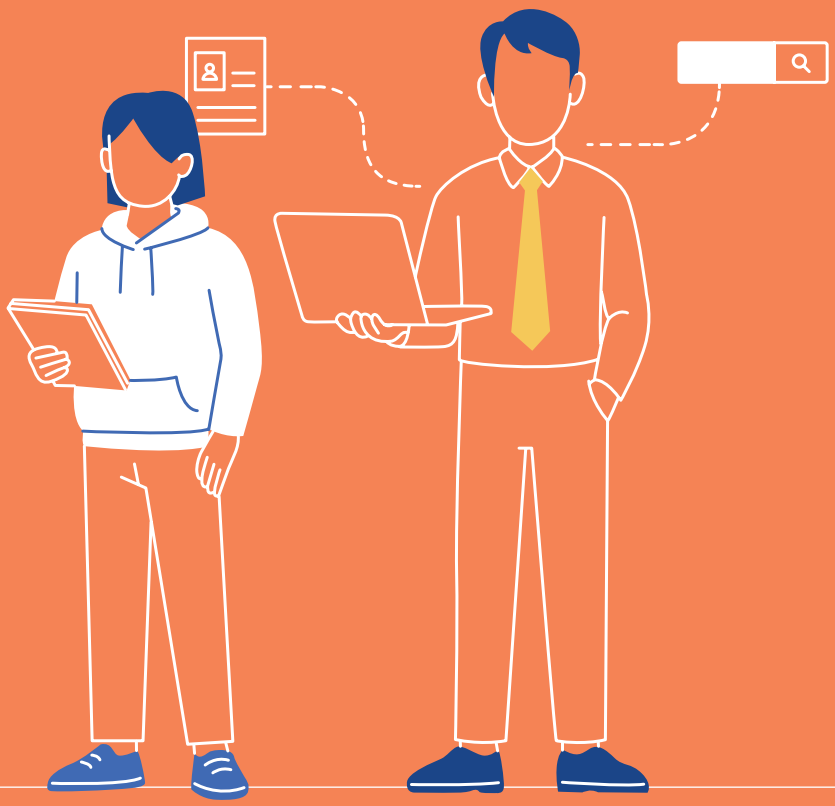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청년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②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③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④ 청년 근로조건
⑤ 취업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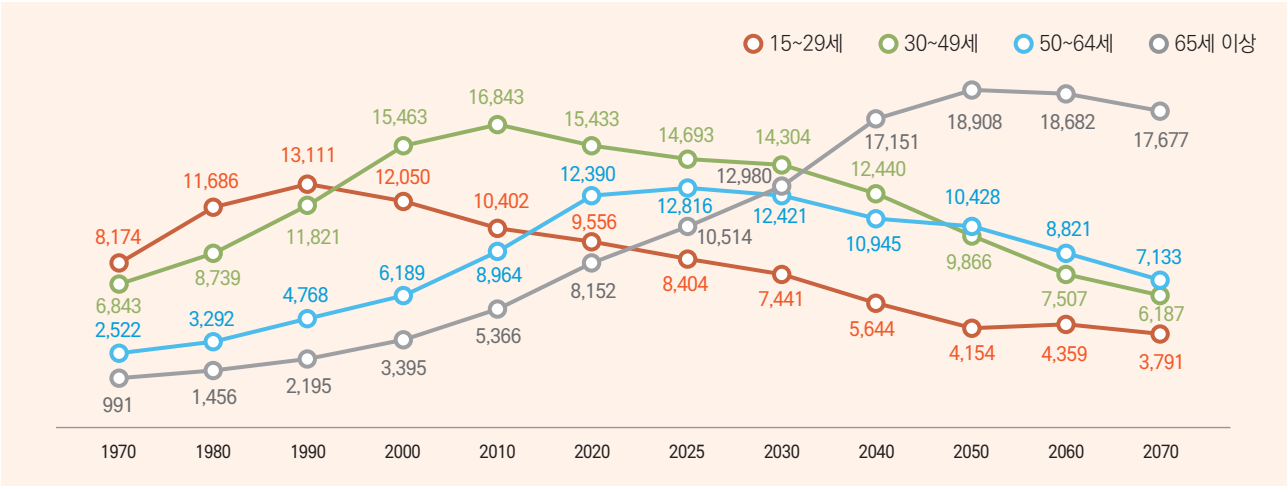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청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15~29세)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0년 청년인구(1,311만명)를 기준으로 2025년(840만명)은 64.1% 수준이고, 2070년(379만명)에는 28.9%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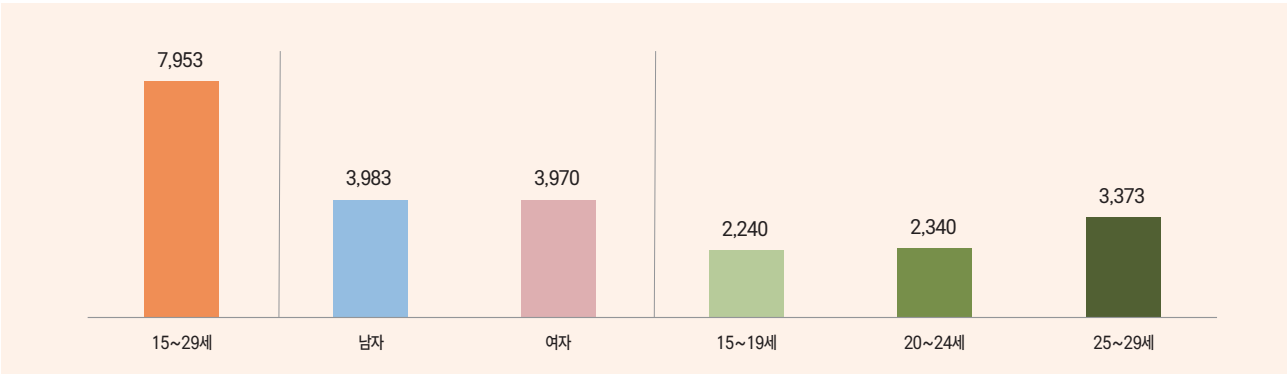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청년 노동력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795만명이고, 남녀 비율은 유사, 연령별로 15~19세가 가장 적고, 20~24세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합 계	남성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15~29세	7,953	3,983	3,970	2,240	2,340	3,373
	[-198]	[-96]	[-102]	[8]	[-141]	[-65]
	(100.0)	(50.1)	(49.9)	(28.2)	(29.4)	(42.4)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 ] 전년대비 증감, ( ) 비중

(단위: 천명,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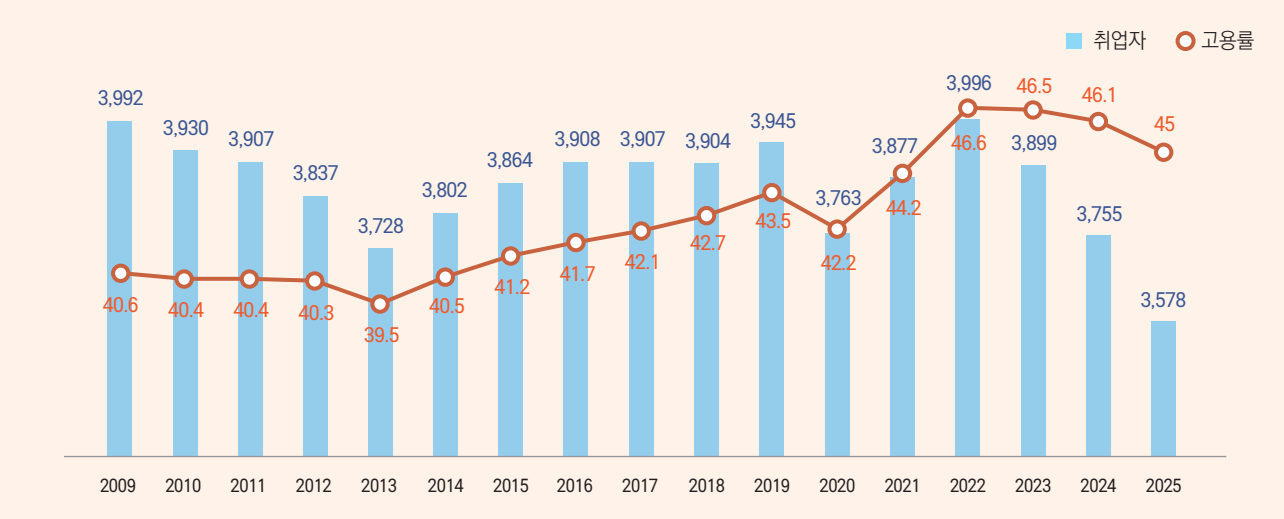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청년인구 중 취업자는 358만명이고 고용률은 45.0%이다.

- 연도별로 청년고용률은 2013년 저점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2년부터 하락세

  *'20년에는 코로나19영향으로 일시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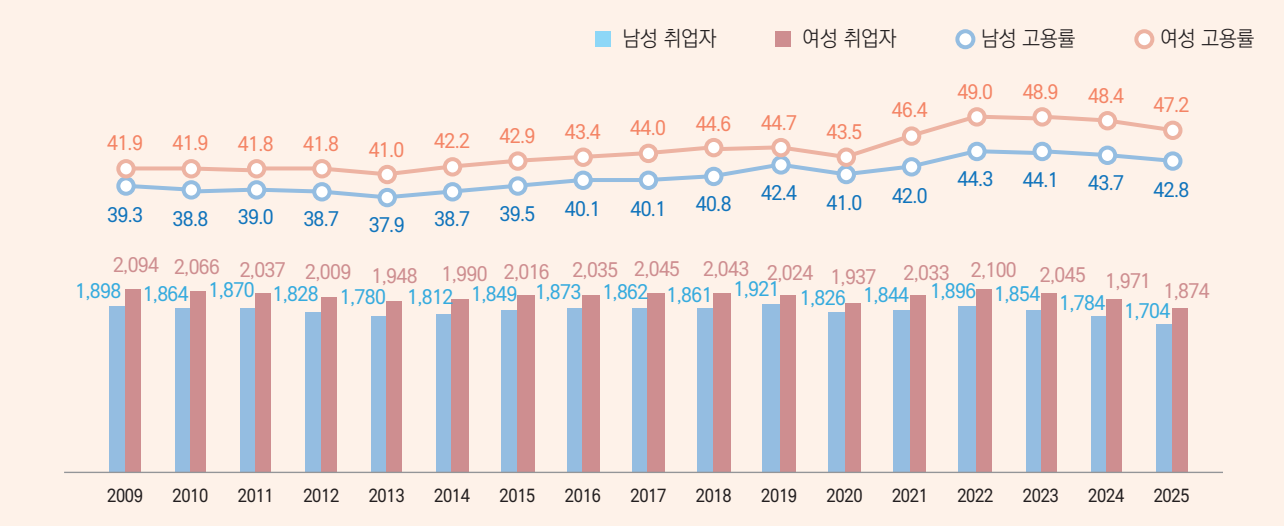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청년층 남성 취업자는 170만명, 고용률은 42.8%이고,
청년층 여성 취업자는 187만명, 고용률은 47.2%이다.

- 청년층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보다 많고, 여성고용률이 남성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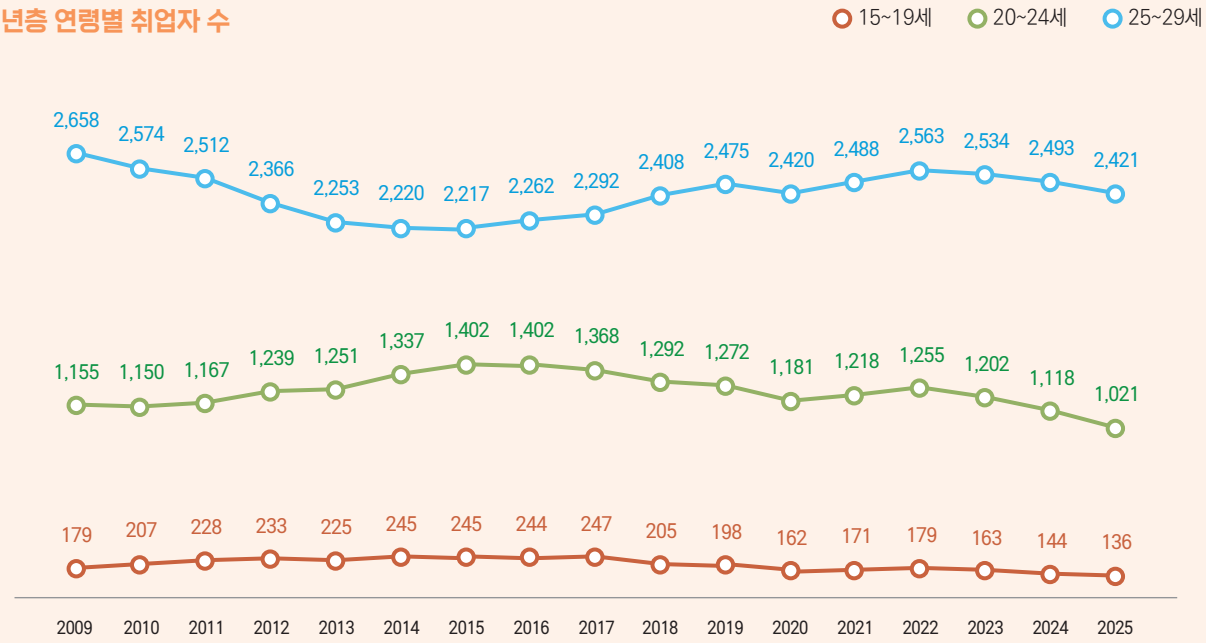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부터 세부 연령대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20년부터 상승하여 '24년 정점 후 '25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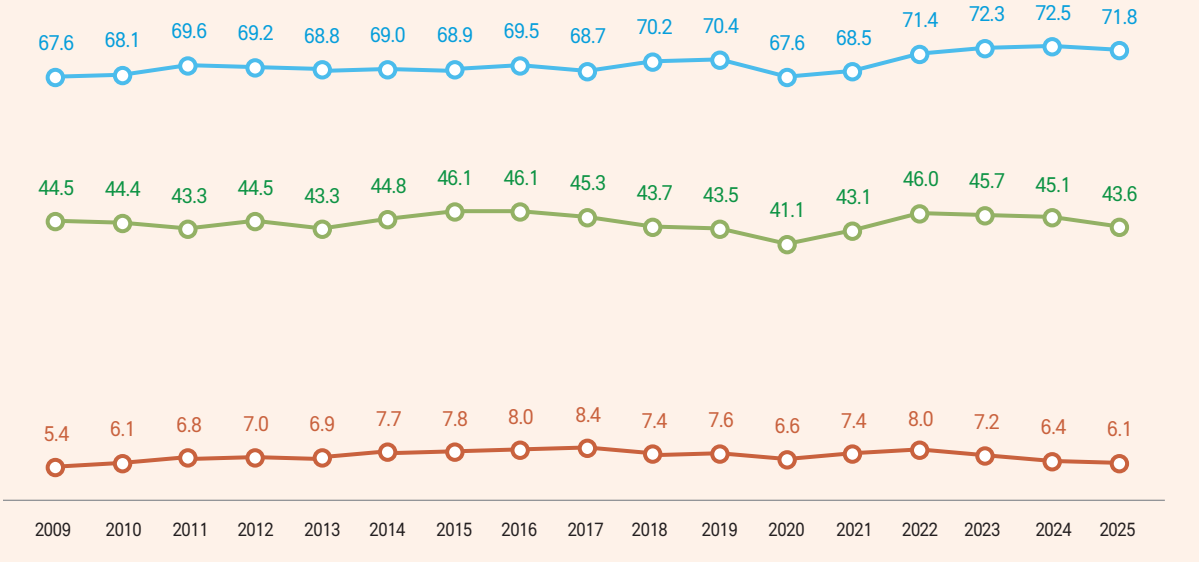
청년층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청년층 연령별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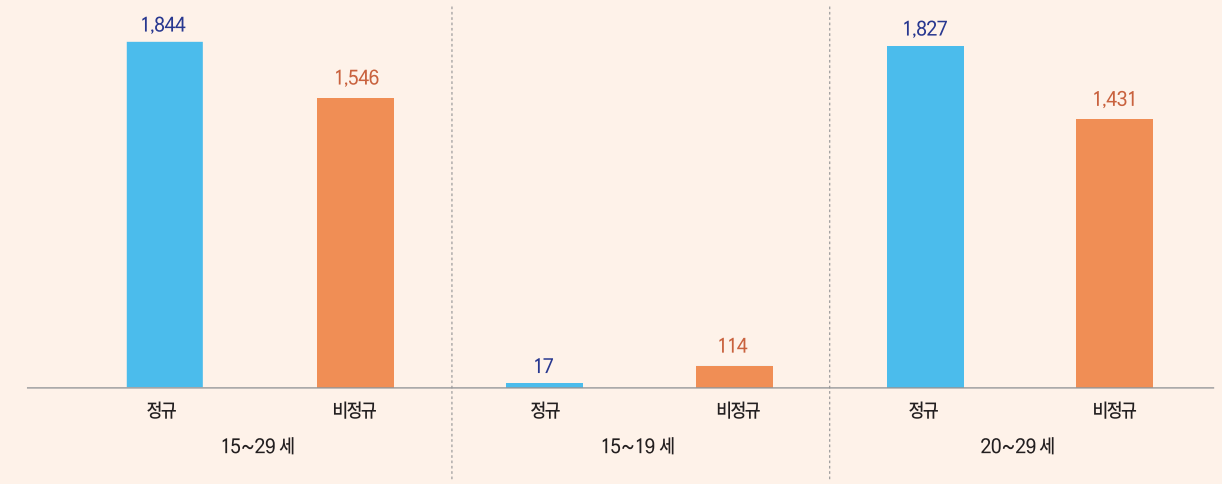
(단위: %)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5년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54.4%, 비정규직은 45.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10대 후반의 비정규직 비율은 87.2%로 20대 비정규직 비율 43.9%보다 현저히 높은데 그 이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
-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1년이후 상승세를 보임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수 및 비중

구 분		'19.8	'20.8	'21.8	'22.8	'23.8	'24.8	'25.8
15~29세	임금근로자	3,749	3,562	3,711	3,796	3,701	3,549	3,389
	정규	2,236	2,142	2,149	2,224	2,124	1,945	1,844
	비정규	1,513	1,421	1,561	1,573	1,577	1,604	1,546
		(40.4)	(39.9)	(42.1)	(41.4)	(42.6)	(45.2)	(45.6)
15~19세	임금근로자	194	164	174	184	173	159	131
	정규	42	25	26	25	19	16	17
	비정규	151	138	148	159	154	143	114
		(78.0)	(84.5)	(85.1)	(86.4)	(88.9)	(90.0)	(87.2)
20~29세	임금근로자	3,555	3,399	3,537	3,613	3,528	3,389	3,258
	정규	2,194	2,116	2,124	2,199	2,105	1,929	1,827
	비정규	1,362	1,283	1,414	1,414	1,423	1,461	1,431
		(38.3)	(37.7)	(40.0)	(39.1)	(40.3)	(43.1)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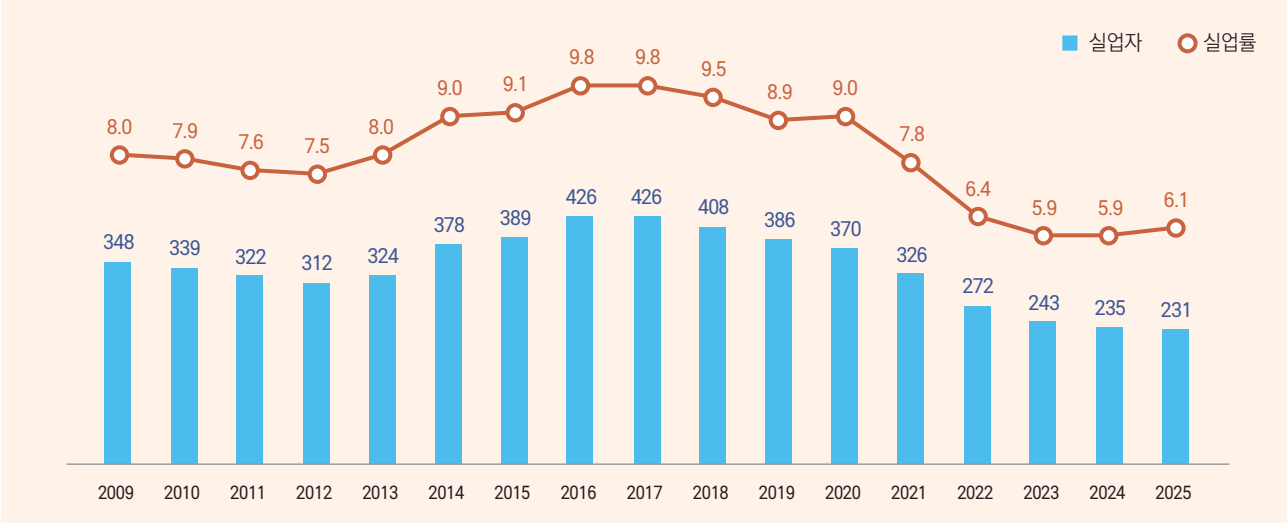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5년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17년 9.8%를 고점으로 하락해 왔으나 전년보다 0.2%p 상승하였다.

- 청년층 실업자는 23만 1천명으로 청년인구 감소 등에 따른 추세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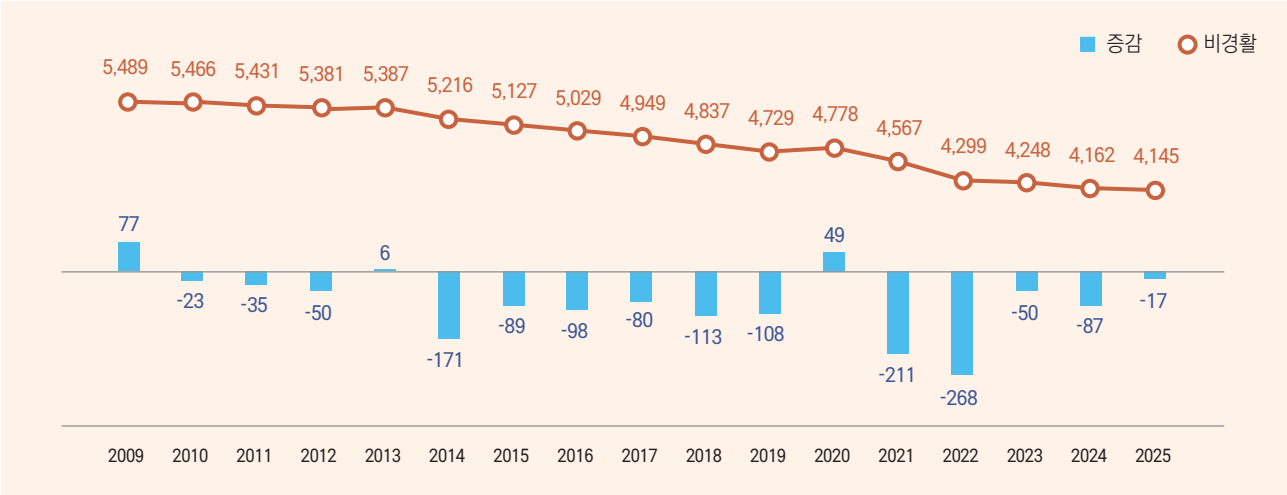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 증가)하고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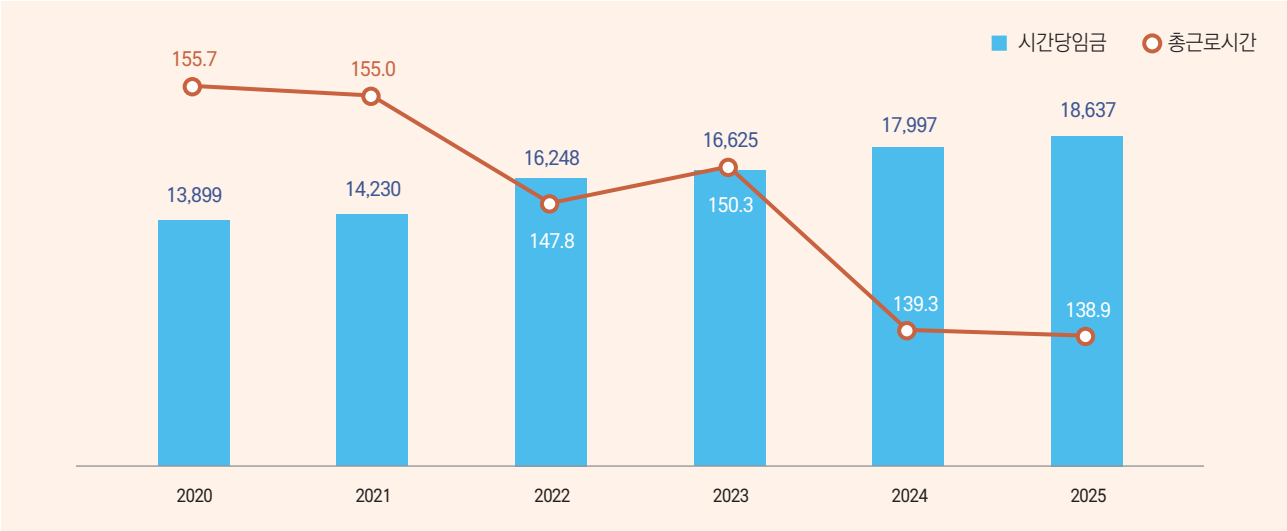
4

청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청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637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38.9시간이다.

- 청년층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25,839원의 72.1% 수준이며, 월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46.3시간보다 7.4시간 짧음



구 분		'20	'21	'22	'23	'24	'25
전 연령	시간당 임금	19,316	19,806	22,651	22,878	25,156	25,839
	월 근로시간	163.6	164.2	154.9	157.6	146.8	146.3
15~29세	시간당 임금	13,899	14,230	16,248	16,625	17,997	18,637
	월 근로시간	155.7	155.0	147.8	150.3	139.3	138.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원, 시간)

참고

- 청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 '25년(19)

취업 활동 과정

첫 취업 소요기간

2025년 청년들의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3개월이다.

	'17.5	'18.5	'19.5	'20.5	'21.5	'22.5	'23.5	'24.5	'25.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6	10.7	10.8	10	10.1	10.8	10.4	11.5	11.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개월)

취업 경험 및 취업 소요기간 분포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구 분		'17.5	'18.5	'19.5	'20.5	'21.5	'22.5	'23.5	'24.5	'25.5
취업 유경험자		4,101	4,140	4,168	4,070	4,056	4,117	3,947	3,765	3,607
임금 근로자		4,012	4,054	4,070	3,963	3,953	4,018	3,865	3,671	3,508
첫 취업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2,006	2,011	2,015	1,950	1,874	1,967	1,890	1,750	1,608
	3~6개월 미만	542	487	522	532	556	482	457	412	400
	6개월~1년 미만	352	438	405	449	470	409	420	406	401
	1~2년 미만	465	468	476	471	464	528	507	491	496
	2~3년 미만	258	282	266	251	267	275	267	255	257
	3년 이상	389	368	387	309	323	358	324	357	346
비임금 근로자		89	86	98	107	103	99	82	94	9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천명)



직업선택 기준

직업선택 기준으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	성취	심신의 안녕	인정	자율	지적추구
4.2	4.1	4.0	4.0	3.9	3.8	3.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5점척도 (단위: 점)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희망기업

청년들의 취업희망기업은 공공기관, 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순이다.

구 분	공공기관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전문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창업
전체	35.5	25.6	21.0	8.6	5.7	3.6
남성	34.7	25.1	22.1	8.9	5.6	3.6
여성	36.6	26.2	19.6	8.4	5.7	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단위: %)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애로사항

취업준비에서의 애로사항은 경력부족, 취업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경력 부족	취업정보 부족	적성파악 미흡	요구자격 부적합	서류·면접 탈락 부담	근무환경 부적합	수입·보수 부적합	자격증 부족	성차별	외모, 신체적 결함	창업자금 부족	기타
전체	22.8	20.4	11.3	9.3	8.0	8.0	7.8	6.2	3.9	1.3	0.6	0.3
남성	23.2	20.0	12.2	9.4	8.2	8.4	7.8	5.6	4.0	0.9	0.2	0.1
여성	22.4	20.8	10.3	9.2	7.8	7.5	7.9	7.0	3.9	1.7	1.1	0.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3년) (단위: %)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여성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②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③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④ 여성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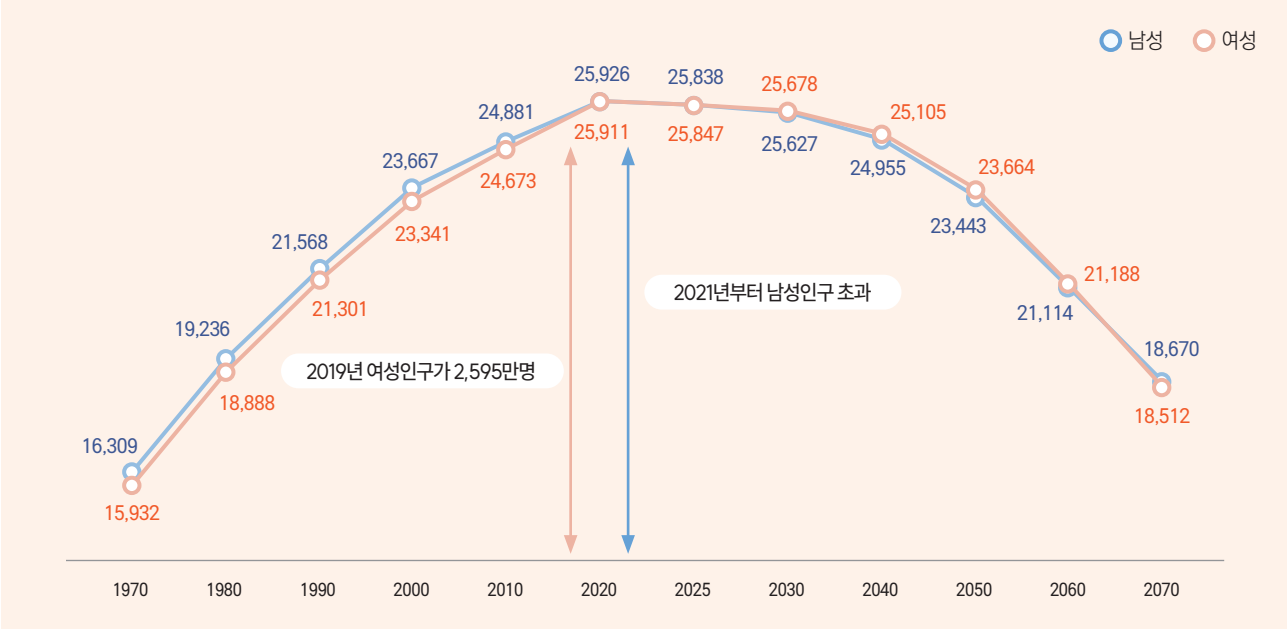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여성 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부터는 남성인구를 초과하였다.

- 2019년 여성인구가 2,59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흐름을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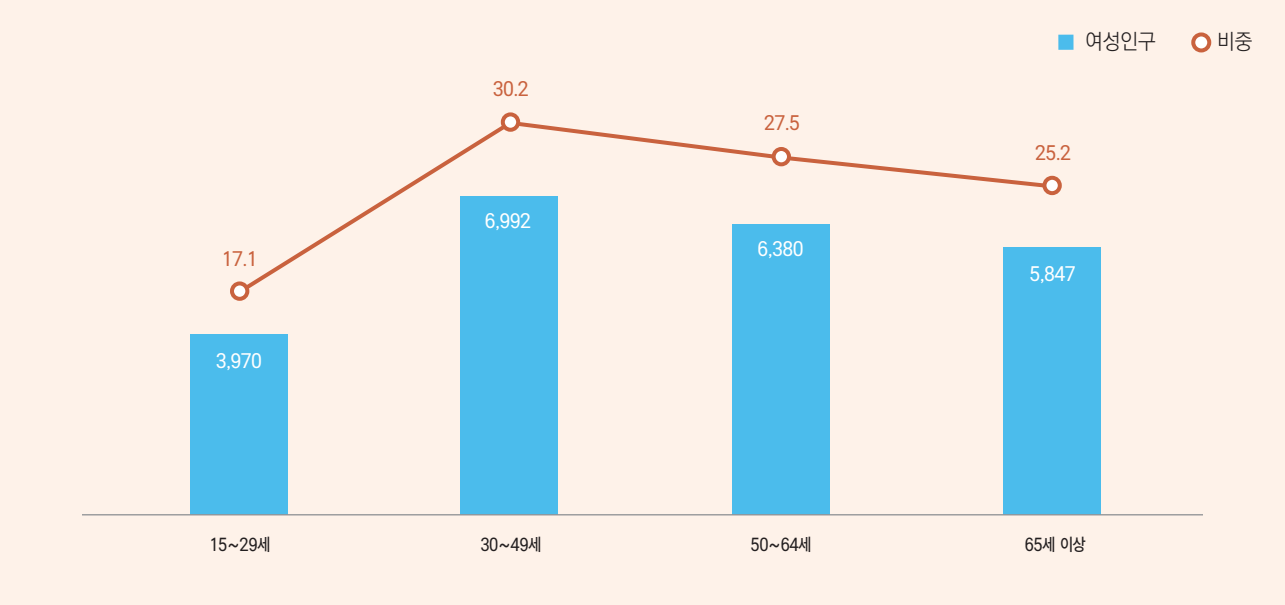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전연령	남성	16,309	19,236	21,568	23,667	24,881	25,926	25,838	25,627	24,955	23,443	21,114	18,670
	여성	15,932	18,888	21,301	23,341	24,673	25,911	25,847	25,678	25,105	23,664	21,188	18,512
14세 이하	남성	7,113	6,708	5,708	5,245	4,156	3,241	2,695	2,129	1,982	1,917	1,498	1,222
	여성	6,596	6,243	5,266	4,667	3,823	3,065	2,564	2,031	1,897	1,834	1,435	1,171
15~64세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482	17,636	15,099	12,789	10,782	8,898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7,430	16,529	13,930	11,659	9,905	8,213
65세 이상	남성	408	545	822	1,300	2,194	3,521	4,661	5,862	7,874	8,738	8,834	8,550
	여성	583	911	1,373	2,095	3,172	4,631	5,853	7,118	9,277	10,170	9,848	9,12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여성 노동력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5년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50.7%이다.

- 여성인구 중 15~29세는 17.1%, 30~49세는 30.2%, 50~64세는 27.5%, 65세 이상은 25.2%를 차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2025년	합 계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15세이상 인구	45,762	22,575	23,188	3,970	6,992	6,380	5,847
	(100.0)	(49.3)	(50.7)	[17.1]	[30.2]	[27.5]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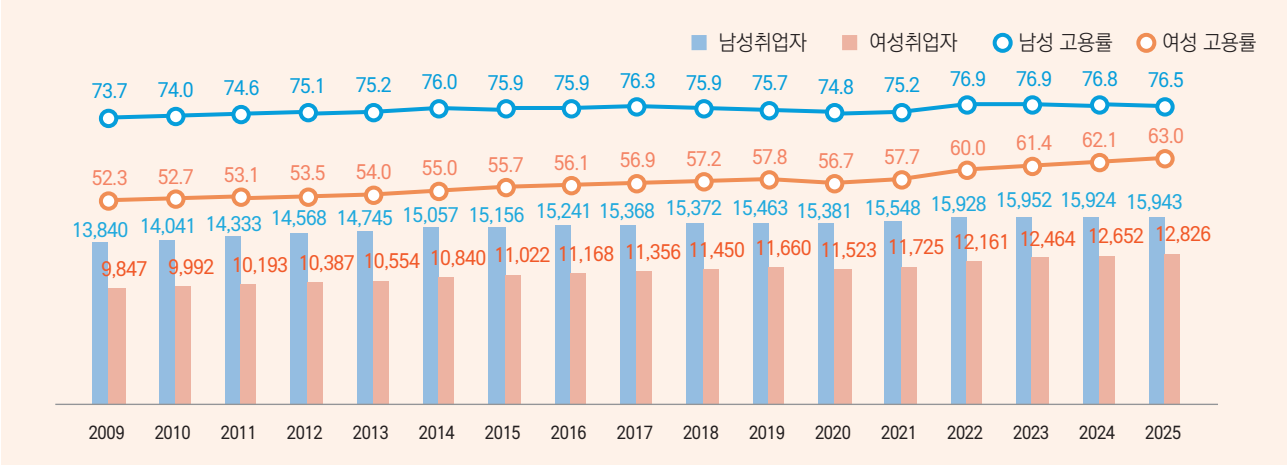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 ) 전체인구 대비 비중, [ ] 여성인구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15세이상의 여성 취업자는 1,283만명이며, 15~64세 여성고용률은 63.0%이다.

- 여성 취업자와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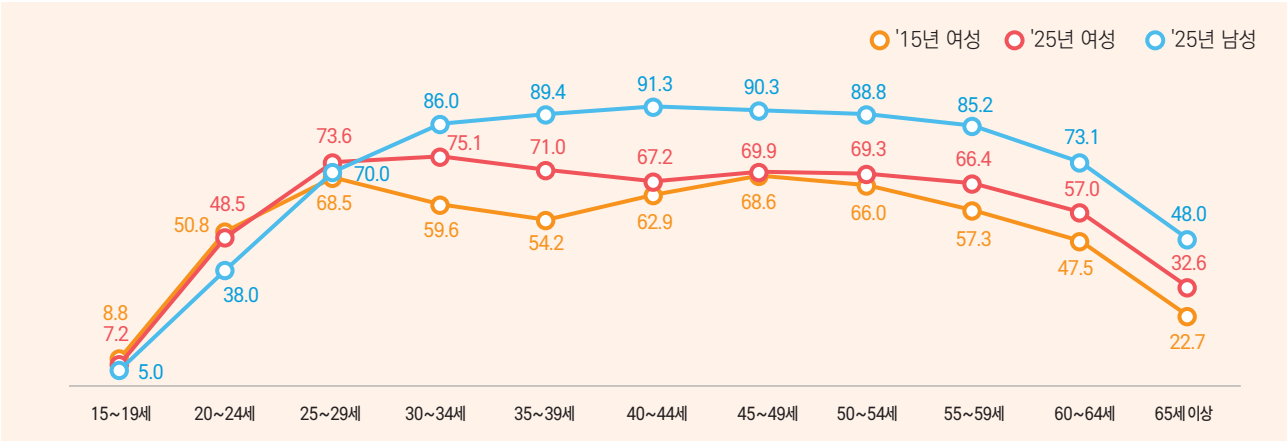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5세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단위: 천명, %)

연령별 여성 고용률(M-커브)

성별로 5세 단위의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여성은 M-커브형, 남성은 Arch형으로 나타난다.

-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2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이 높음
- 30대에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고용률이 하락하며 40대 초반에 저점을 찍어 M-커브 모양을 보임
- 여성의 '15년 M-커브와 '25년 M-커브를 비교해 보면, 만혼, 저출산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M-커브의 저점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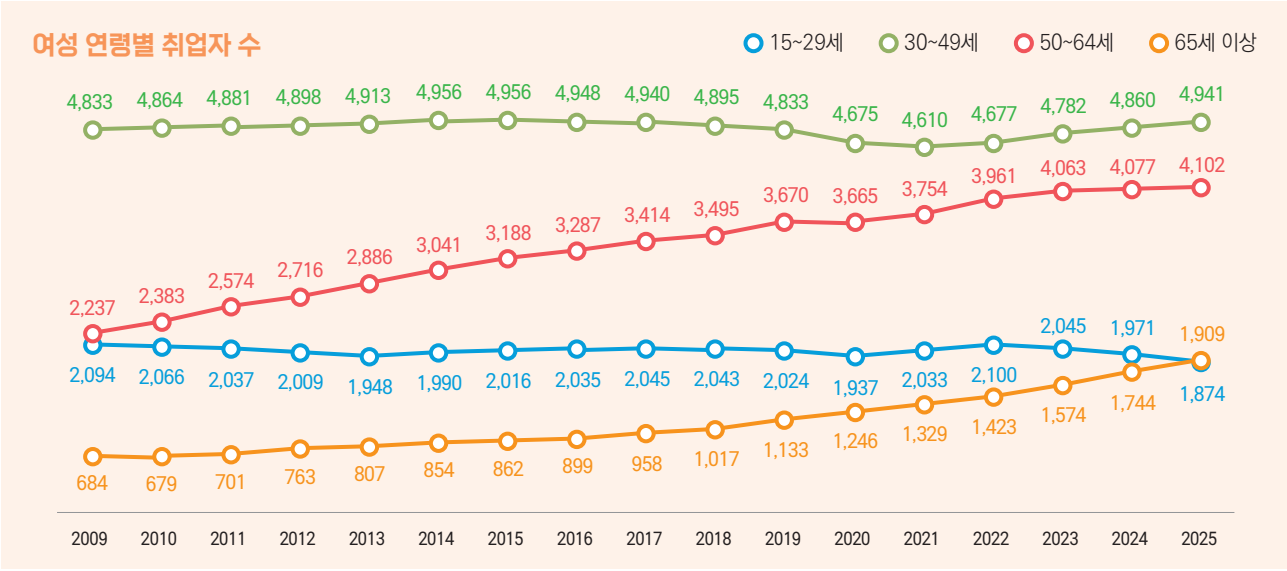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5년, '2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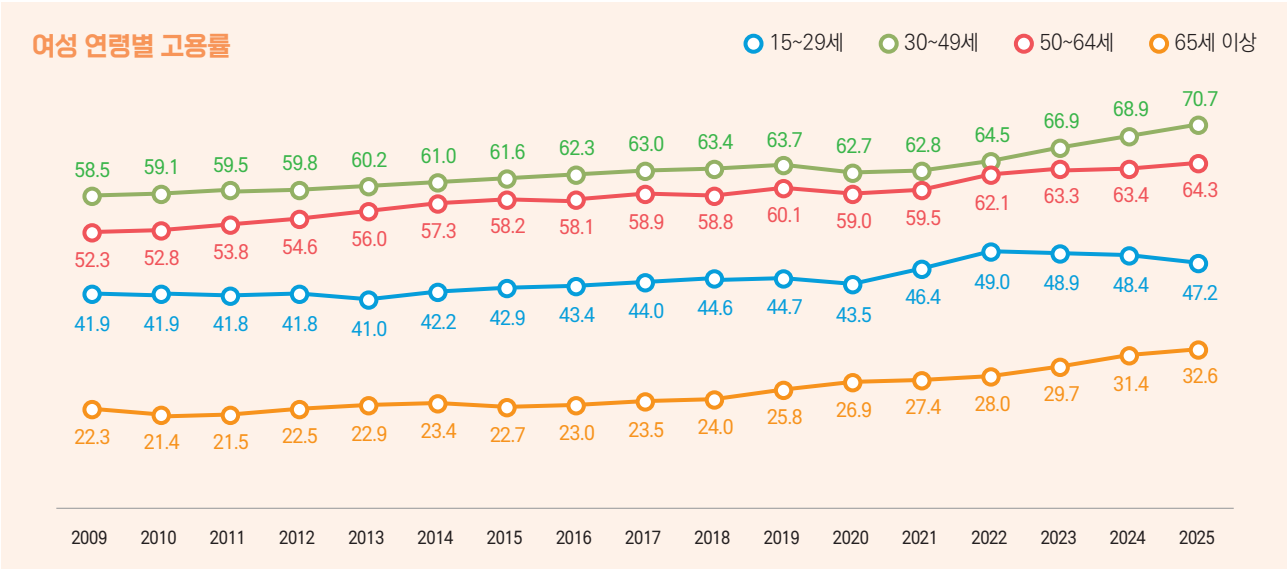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여성 취업자 중 30~49세 연령의 취업자는 494만명이고 고용률은 70.7%로 가장 높다.

- 인구고령화로 65세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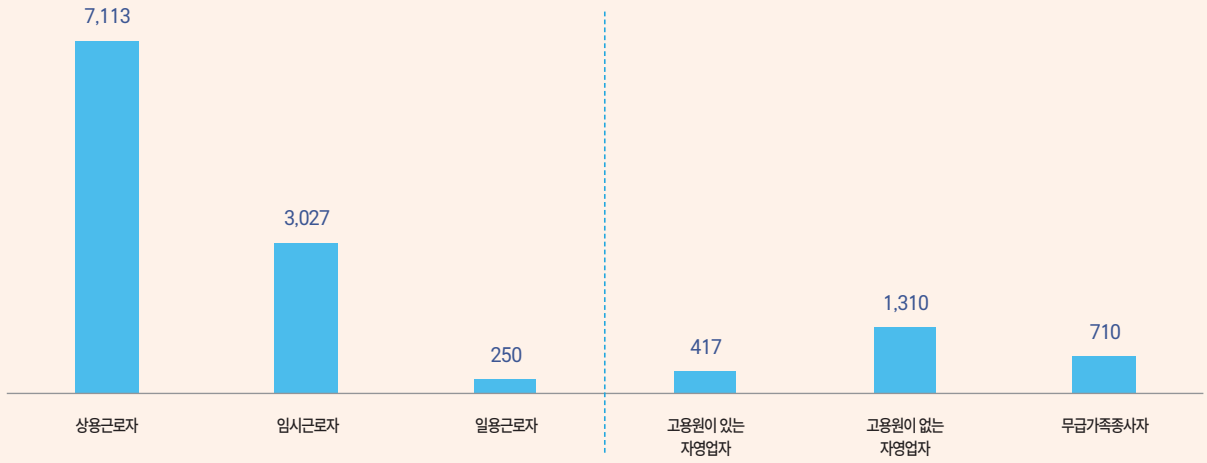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25년 여성 취업자 중 상용직은 55.5%, 임시·일용은 25.6%,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는 19.0%를 차지한다.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여성 종사상지위별 근로자수



구 분	'20	'21	'22	'23	'24	'25
전 체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12,826 (100.0)
임금근로자	9,028 (78.3)	9,312 (79.4)	9,694 (79.7)	9,976 (80.0)	10,172 (80.4)	10,390 (81.0)
상용근로자	5,855 (50.8)	6,092 (52.0)	6,523 (53.6)	6,853 (55.0)	6,969 (55.1)	7,113 (55.5)
임시근로자	2,730 (23.7)	2,856 (24.4)	2,848 (23.4)	2,803 (22.5)	2,925 (23.1)	3,027 (23.6)
일용근로자	443 (3.8)	363 (3.1)	323 (2.7)	320 (2.6)	278 (2.2)	250 (1.9)
비임금근로자	2,495 (21.7)	2,413 (20.6)	2,467 (20.3)	2,488 (20.0)	2,480 (19.6)	2,436 (19.0)
자영업자	1,611 (14.0)	1,564 (13.3)	1,659 (13.6)	1,711 (13.7)	1,733 (13.7)	1,726 (1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4 (3.2)	342 (2.9)	387 (3.2)	394 (3.2)	399 (3.2)	417 (3.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47 (10.8)	1,222 (10.4)	1,272 (10.5)	1,317 (10.6)	1,334 (10.5)	1,310 (10.2)
무급가족종사자	884 (7.7)	850 (7.2)	807 (6.6)	777 (6.2)	748 (5.9)	710 (5.5)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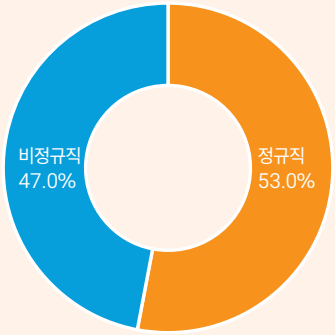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5년 8월 기준 여성 정규직 비율이 53.0%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47.0%로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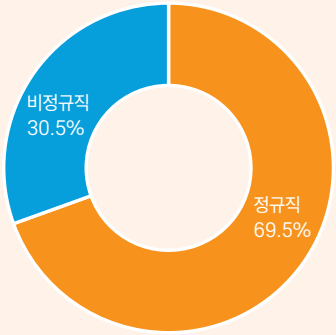
- 남성과 비교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여성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VS

남성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여성	'20.8	'21.8	'22.8	'23.8	'24.8	'25.8
임금근로자	9,085	9,476	9,788	10,027	10,235	10,4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	4,994	4,985	5,285	5,462	5,392	5,543
	(55.0)	(52.6)	(54.0)	(54.5)	(52.7)	(53.0)
비정규	4,091	4,491	4,503	4,565	4,844	4,918
	(45.0)	(47.4)	(46.0)	(45.5)	(47.3)	(47.0)
한시적	2,529	2,938	2,980	2,910	3,158	3,278
기간제	2,133	2,573	2,585	2,649	2,786	3,018
시간제	2,337	2,502	2,562	2,731	3,016	3,042
비전형	861	936	922	866	838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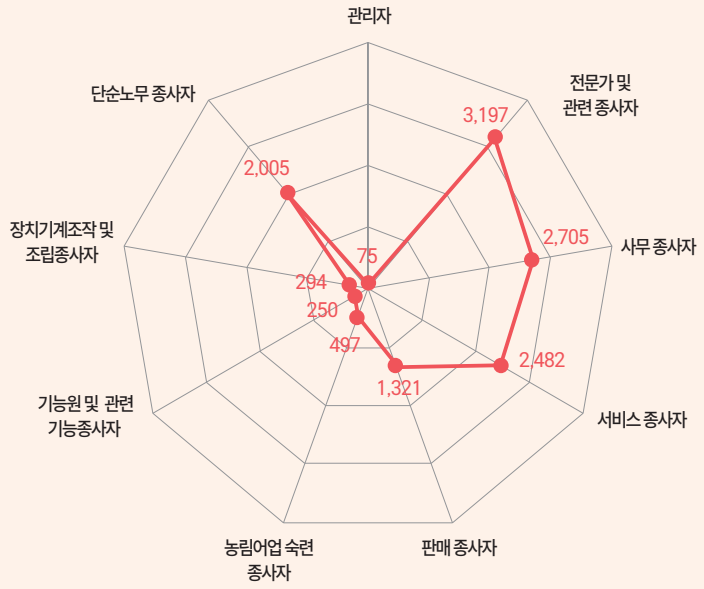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직종별 취업자

2025년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 여성관리자는 0.6% 수준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



구 분	'21		'22		'23		'24		'25	
전체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12,826	(100.0)
관리자	64	(0.5)	64	(0.5)	78	(0.6)	77	(0.6)	75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36	(23.3)	2,899	(23.8)	3,009	(24.1)	3,069	(24.3)	3,197	(24.9)
사무 종사자	2,428	(20.7)	2,513	(20.7)	2,575	(20.7)	2,649	(20.9)	2,705	(21.1)
서비스 종사자	2,020	(17.2)	2,121	(17.4)	2,278	(18.3)	2,373	(18.8)	2,482	(19.4)
판매 종사자	1,416	(12.1)	1,407	(11.6)	1,415	(11.4)	1,343	(10.6)	1,321	(10.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17	(4.4)	550	(4.5)	557	(4.5)	557	(4.4)	497	(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91	(2.5)	300	(2.5)	273	(2.2)	250	(2.0)	250	(1.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32	(2.8)	351	(2.9)	356	(2.9)	318	(2.5)	294	(2.3)
단순노무 종사자	1,923	(16.4)	1,957	(16.1)	1,923	(15.4)	2,017	(15.9)	2,005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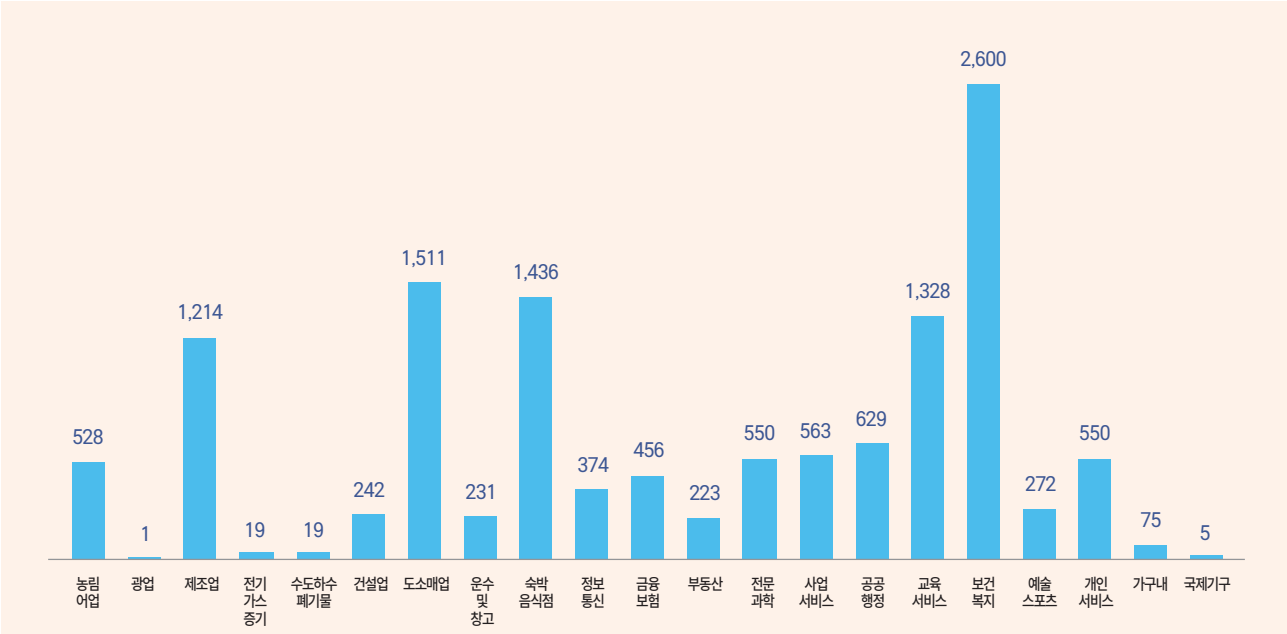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주)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개정(2024년) 기준

(단위: 천명, %)

산업별 취업자

2025년 여성 취업자는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순으로 많다.

- 보건복지업은 여성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크고, 여성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1		'22		'23		'24		'25	
전 산업	11,725	(100.0)	12,161	(100.0)	12,464	(100.0)	12,652	(100.0)	12,826	(100.0)
농림어업	562	(4.8)	594	(4.9)	592	(4.7)	595	(4.7)	528	(4.1)
광업	2	(0.0)	1	(0.0)	1	(0.0)	2	(0.0)	1	(0.0)
제조업	1,257	(10.7)	1,290	(10.6)	1,291	(10.4)	1,247	(9.9)	1,214	(9.5)
전기가스증기	15	(0.1)	16	(0.1)	17	(0.1)	14	(0.1)	19	(0.1)
수도하수폐기물	30	(0.3)	27	(0.2)	23	(0.2)	24	(0.2)	19	(0.1)
건설업	215	(1.8)	236	(1.9)	257	(2.1)	259	(2.0)	242	(1.9)
도소매업	1,540	(13.1)	1,545	(12.7)	1,584	(12.7)	1,548	(12.2)	1,511	(11.8)
운수 및 창고	198	(1.7)	202	(1.7)	187	(1.5)	208	(1.6)	231	(1.8)
숙박음식점	1,284	(11.0)	1,333	(11.0)	1,384	(11.1)	1,422	(11.2)	1,436	(11.2)
정보통신	283	(2.4)	325	(2.7)	349	(2.8)	389	(3.1)	374	(2.9)
금융보험	424	(3.6)	407	(3.3)	414	(3.3)	429	(3.4)	456	(3.6)
부동산	203	(1.7)	213	(1.8)	216	(1.7)	213	(1.7)	223	(1.7)
전문과학	440	(3.8)	482	(4.0)	504	(4.0)	534	(4.2)	550	(4.3)
사업서비스	593	(5.1)	606	(5.0)	595	(4.8)	576	(4.6)	563	(4.4)
공공행정	500	(4.3)	539	(4.4)	563	(4.5)	620	(4.9)	629	(4.9)
교육서비스	1,231	(10.5)	1,276	(10.5)	1,266	(10.2)	1,278	(10.1)	1,328	(10.4)
보건복지	2,079	(17.7)	2,229	(18.3)	2,348	(18.8)	2,405	(19.0)	2,600	(20.3)
예술스포츠	227	(1.9)	233	(1.9)	255	(2.0)	259	(2.0)	272	(2.1)
개인서비스	554	(4.7)	528	(4.3)	539	(4.3)	548	(4.3)	550	(4.3)
가구내	84	(0.7)	78	(0.6)	76	(0.6)	78	(0.6)	75	(0.6)
국제기구	4	(0.0)	2	(0.0)	4	(0.0)	3	(0.0)	5	(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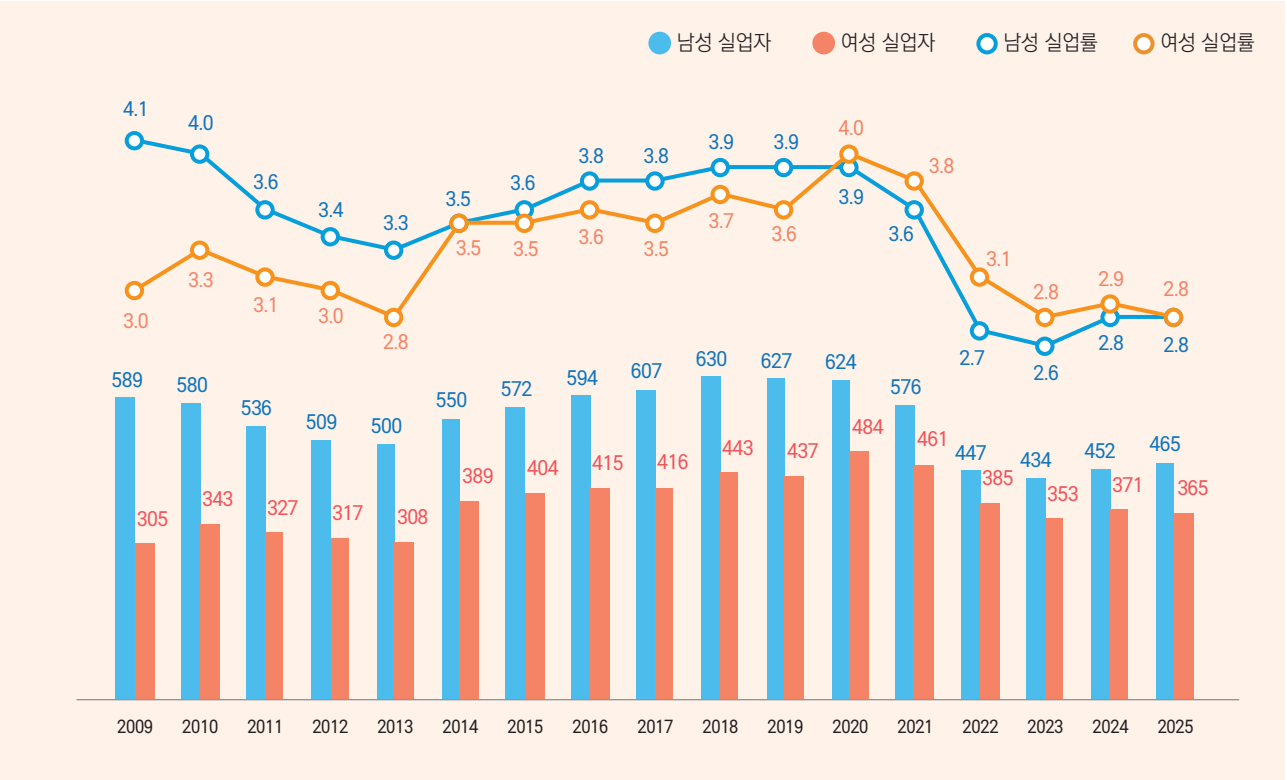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5년 여성 실업자는 37만명, 실업률은 2.8%다.

- '20년부터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을 소폭 상회해 왔으나 '25년에는 남녀 모두 2.8%로 같아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업자 여자	403.9	414.8	416.0	443.1	436.8	483.9	460.9	385.1	352.9	371.2	365.2
실업률 여자	3.5	3.6	3.5	3.7	3.6	4.0	3.8	3.1	2.8	2.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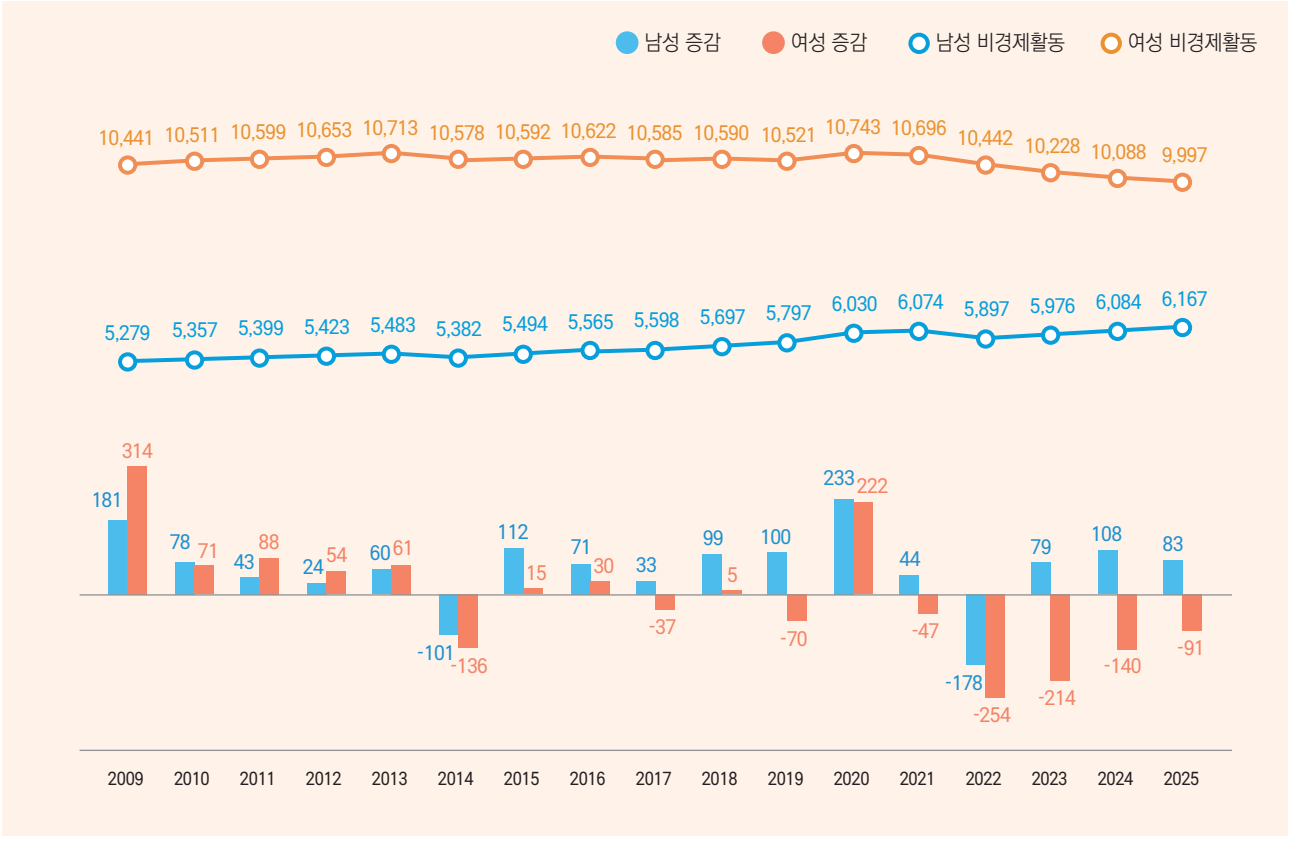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가 남성보다 크고, '20년 이후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20년 대비 '25년 여성 취업자 증감률 +11.3%)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여성) '21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 vs (남성) '23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 여성의 비경활인구는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대란, '09년 금융위기 시 남성보다 크게 증가 >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큰 영향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592	10,622	10,585	10,590	10,521	10,743	10,696	10,442	10,228	10,088	9,997
(증감)	(15)	(30)	(-37)	(5)	(-70)	(222)	(-47)	(-254)	(-214)	(-14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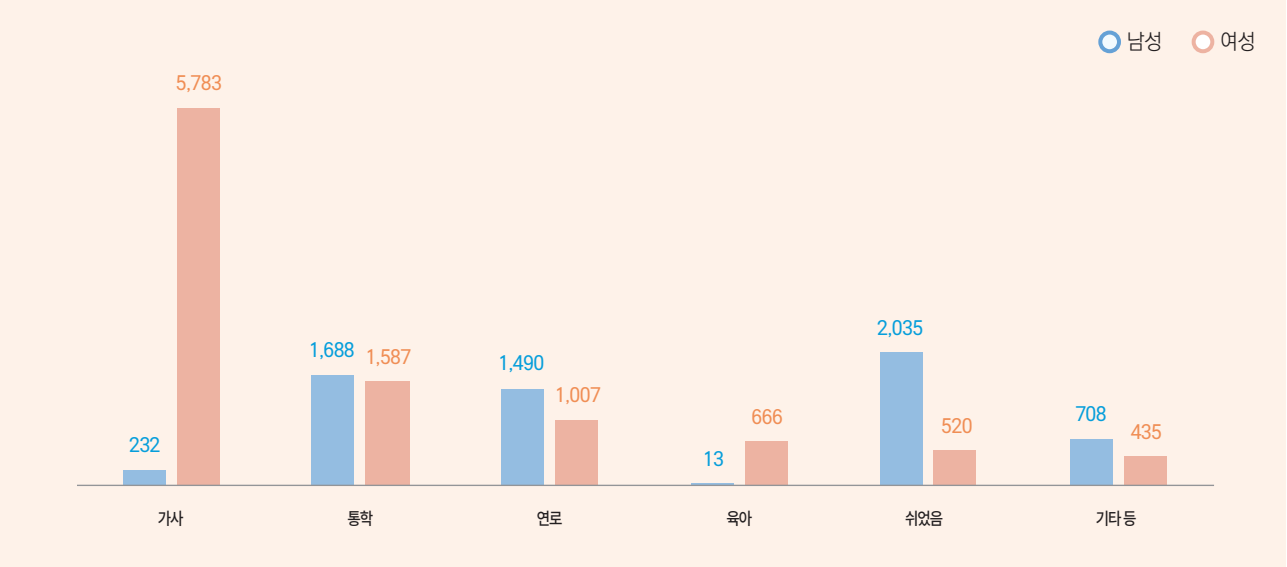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 사유

2025년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가사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통학, 연로 순이다.

- 성별 비교 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구 분	비경제 활동인구 비경제	육아	가사	쉬었음	연로	통학	기타	
							취업준비	
전체	16,164	679	6,015	2,555	2,497	3,275	632	1,143
	(100.0)	(4.2)	(37.2)	(15.8)	(15.4)	(20.3)	(3.9)	(7.1)
남성	6,167	13	232	2,035	1,490	1,688	350	708
	(100.0)	(0.2)	(3.8)	(33.0)	(24.2)	(27.4)	(5.7)	(11.5)
여성	9,997	666	5,783	520	1,007	1,587	282	435
	(100.0)	(6.7)	(57.9)	(5.2)	(10.1)	(15.9)	(2.8)	(4.4)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 ) 연령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주)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 등을 포함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타 기관 수강(재학,수강)과 학원, 기관 외 취업준비의 합계(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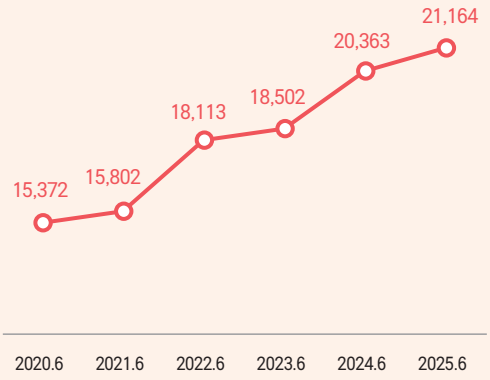
4

여성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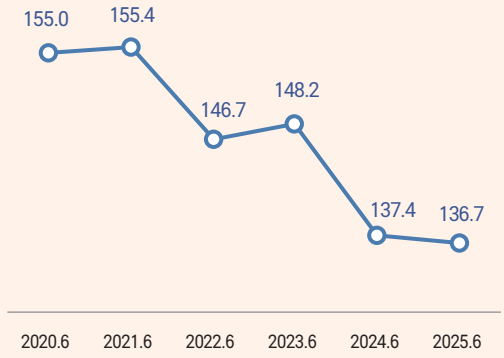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1,164원으로 남성(29,411원) 의 72.0% 수준이고, 월 근로시간은 136.7시간으로 남성(153.6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여성 시간당 임금



여성 월 근로시간



구 분		'20.6	'21.6	'22.6	'23.6	'24.6	'25.6
시간당 임금	전체	19,316	19,806	22,651	22,878	25,156	25,839
	남성	22,086	22,632	25,886	26,042	28,734	29,411
	여성	15,372	15,802	18,113	18,502	20,363	21,164
	남성대비 비중	69.6	69.8	70.0	71.0	70.9	72.0
월 근로시간	전체	163.6	164.2	154.9	157.6	146.8	146.3
	남성	169.5	170.4	160.8	164.4	153.8	153.6
	여성	155.0	155.4	146.7	148.2	137.4	136.7
	남성대비 비중	91.4	91.2	91.2	90.1	89.3	89.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원, 시간)

참고

- 여성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 '25년(19)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장년(50세 이상)

① 인구 및 노동력 현황
②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③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④ 장년 근로조건
⑤ 정년 현황
⑥ 장년층 동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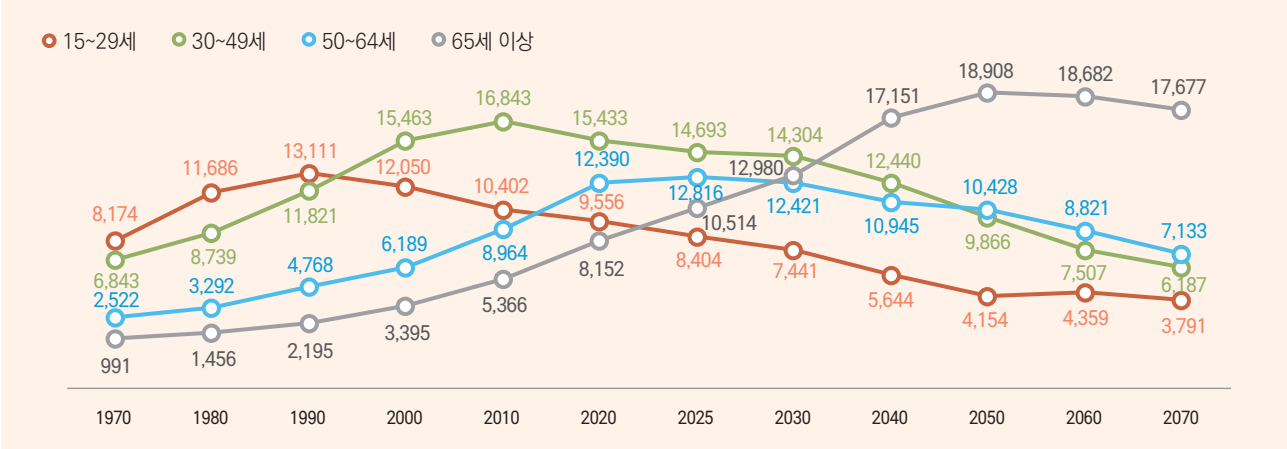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장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장년(50세이상)인구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고령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 > 고령사회) 18년 소요, (고령 > 초고령사회) 7년 소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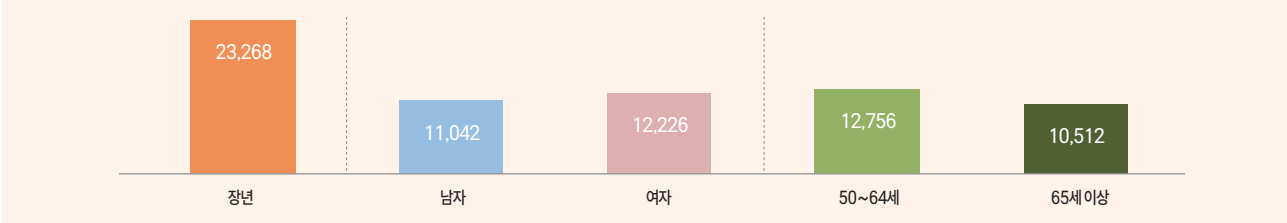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구 분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18년	2018년	7년	2025년
일본	1970년	24년	1994년	11년	2005년
영국	1929년	46년	1975년	51년	2026년
미국	1942년	71년	2013년	15년	2028년
프랑스	1864년	126년	1990년	29년	2019년

자료: OECD, UN
주)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14%를 넘으면 고령,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장년 노동력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5년 장년(50세이상) 인구는 2,327만명으로 여성 비율이 52.5%로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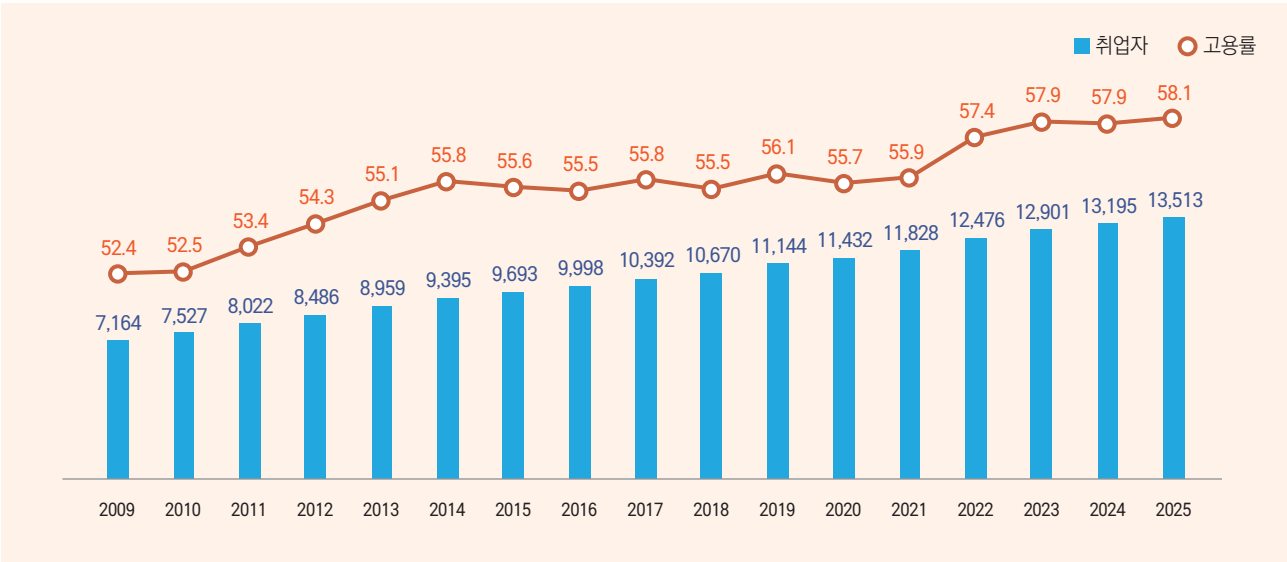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5년) (단위: 천명)

2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장년(50세이상)인구 중 취업자는 1,351만명이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8.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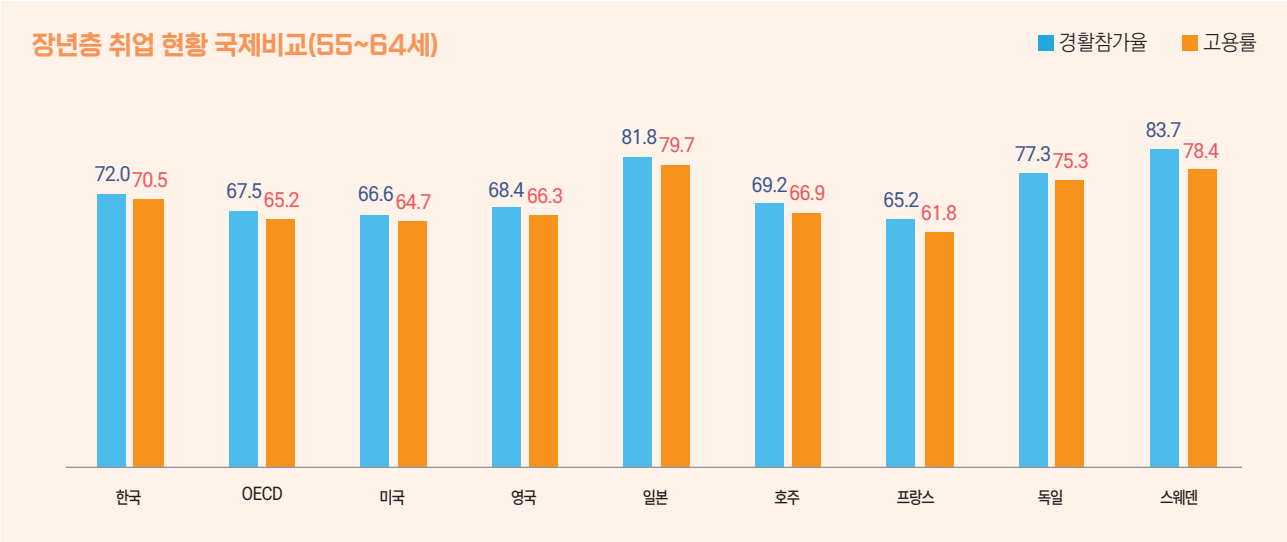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국제비교

2025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농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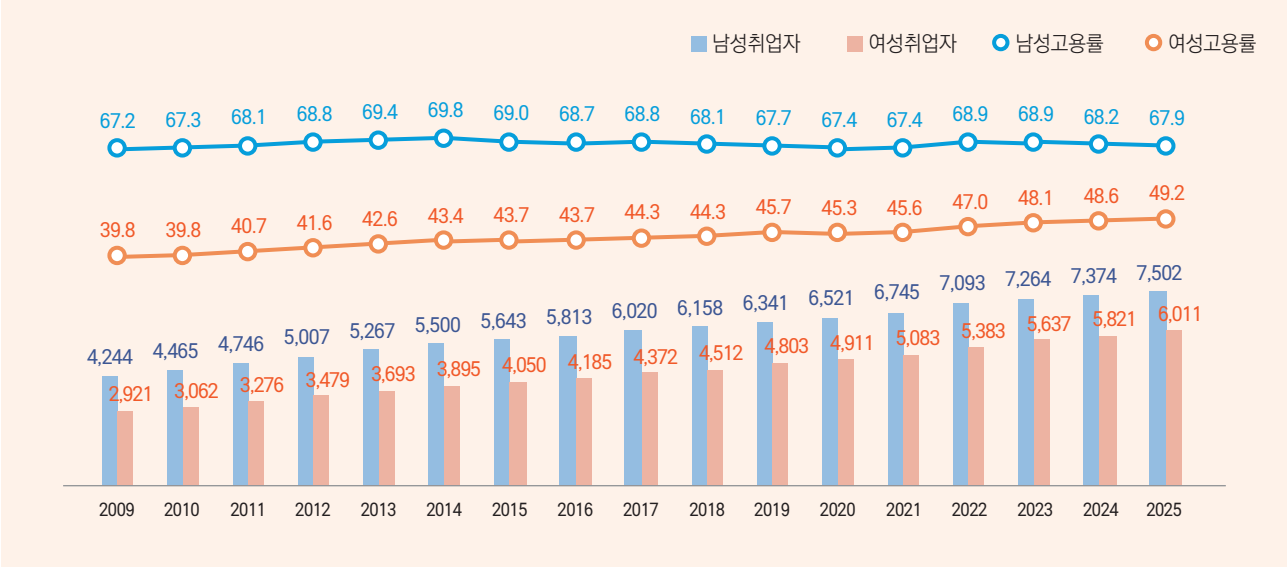
자료: OECD('25년)

(단위: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장년층 남성취업자는 750만명, 고용률은 67.9%이고 여성취업자는 601만명, 고용률은 49.2%이다.

- 장년층 여성고용률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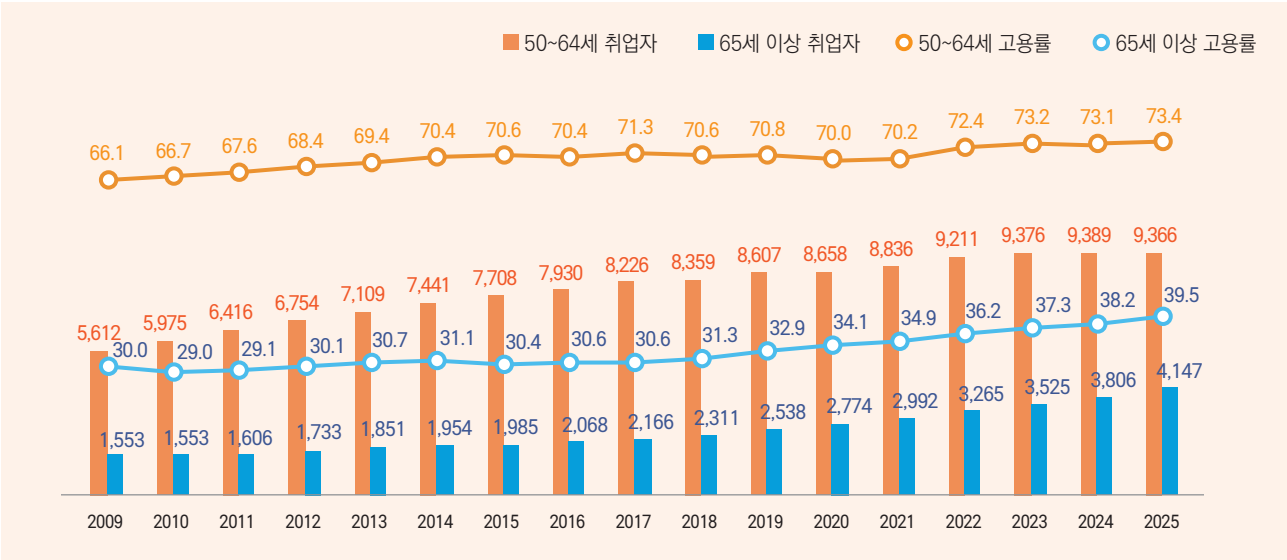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5년 50~64세 고용률은 73.4%로 전년대비 0.3%p 소폭 상승하였으며, 65세이상 고용률은 39.5%로 전년대비 1.3%p 상승하였다.

- 65세이상 고용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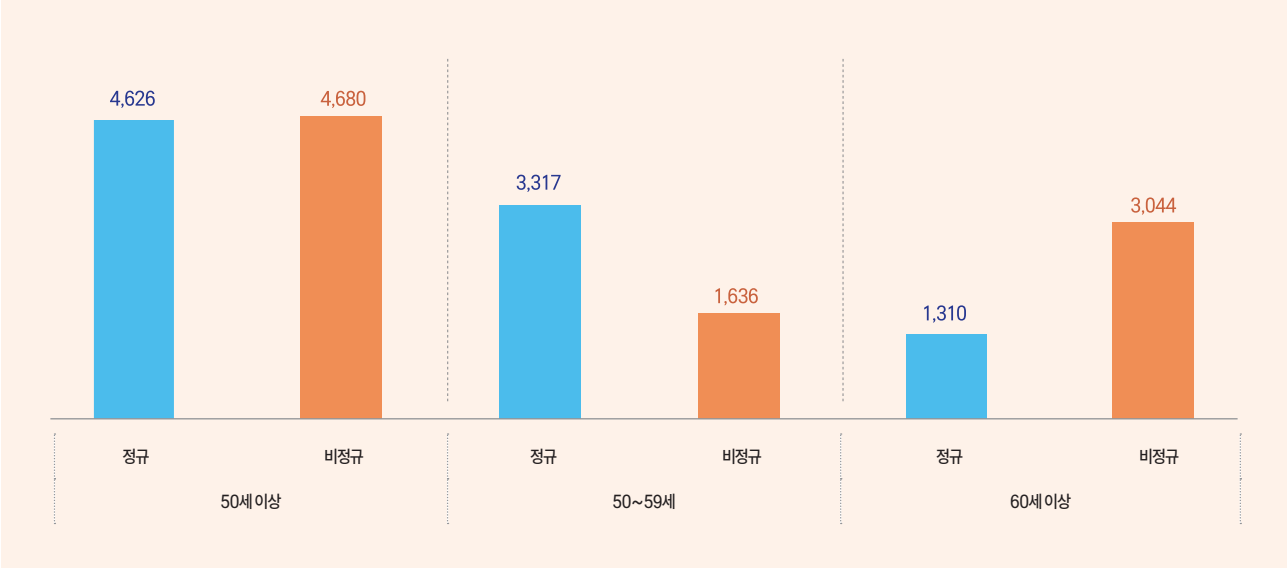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장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5년 8월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49.7%, 비정규직은 5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60세이상의 비정규직 비중(69.9%)이 50대의 비정규직 비중(33.0%)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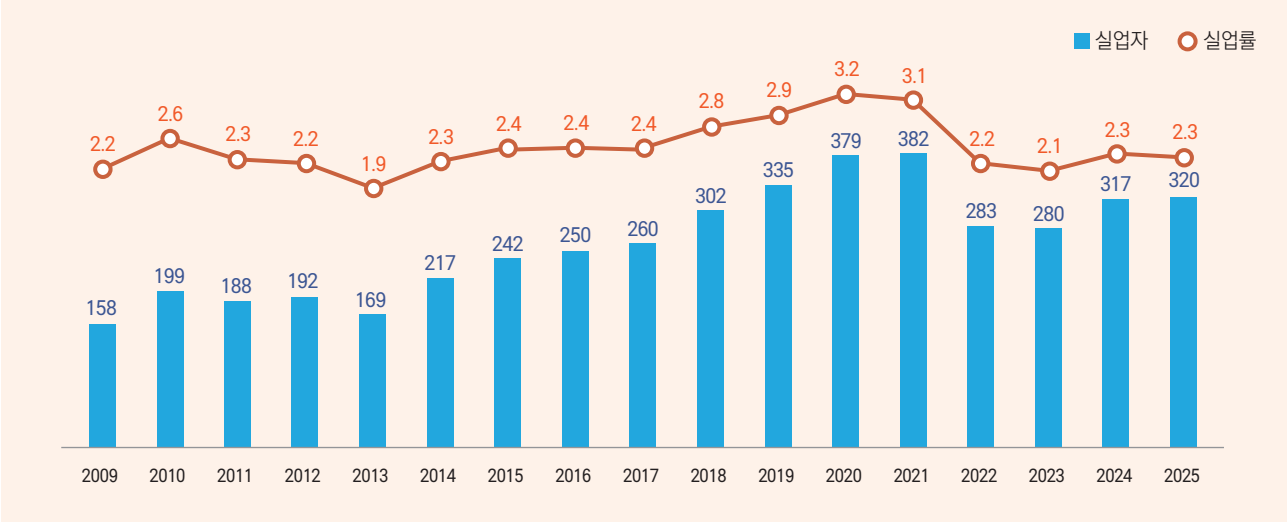
구 분		'20.8	'21.8	'22.8	'23.8	'24.8	'25.8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7,503	7,907	8,463	8,706	8,958	9,306
	정 규	3,828	3,838	4,185	4,461	4,486	4,626
	비정규	3,675	4,070	4,278	4,246	4,472	4,680
		(49.0)	(51.5)	(50.6)	(48.8)	(49.9)	(50.3)
50~59세	임금근로자	4,501	4,649	4,883	4,894	4,925	4,952
	정 규	2,958	2,982	3,158	3,267	3,264	3,317
	비정규	1,543	1,667	1,725	1,627	1,661	1,636
		(34.3)	(35.9)	(35.3)	(33.2)	(33.7)	(33.0)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2	3,259	3,580	3,812	4,033	4,354
	정 규	870	856	1,026	1,193	1,222	1,310
	비정규	2,132	2,403	2,553	2,619	2,812	3,044
		(71.0)	(73.7)	(71.3)	(68.7)	(69.7)	(69.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단위: 천명, %)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5년 장년층 실업률은 2.3%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업자는 32.0만명으로 전년대비 0.3만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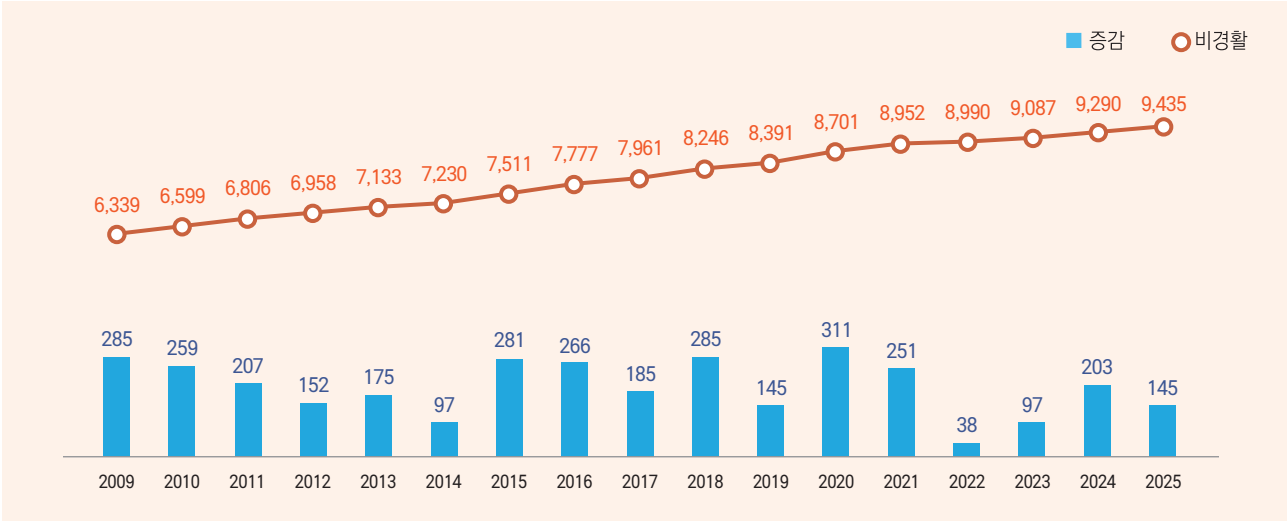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장년 노동력

2025년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943만명으로 전년대비 14.5만명(1.6%) 증가하였다.

-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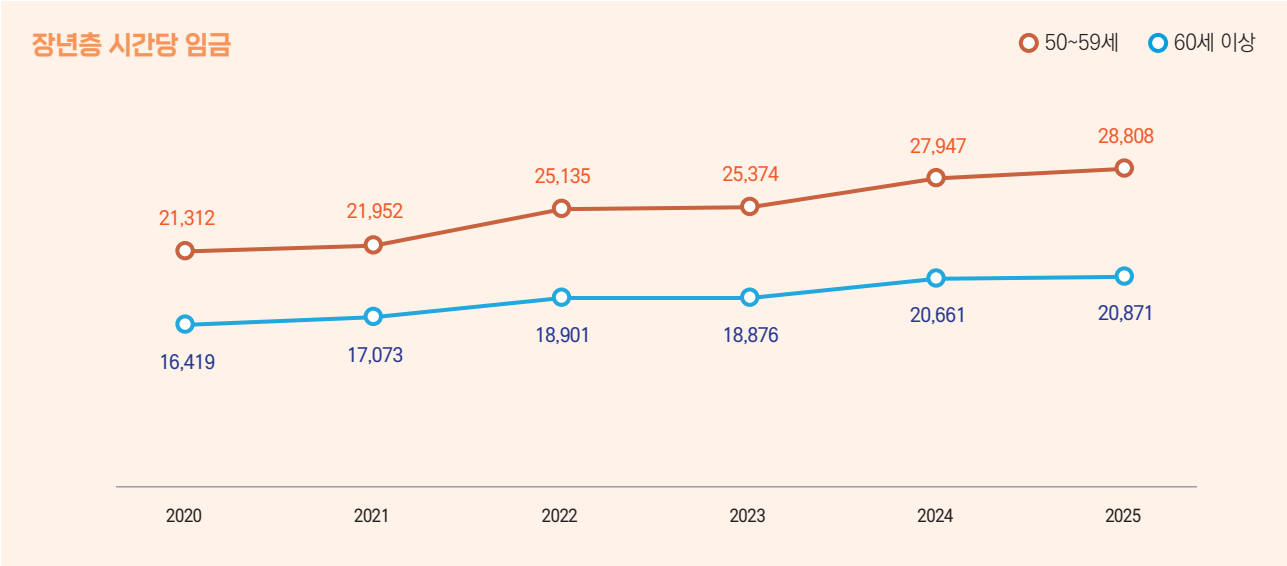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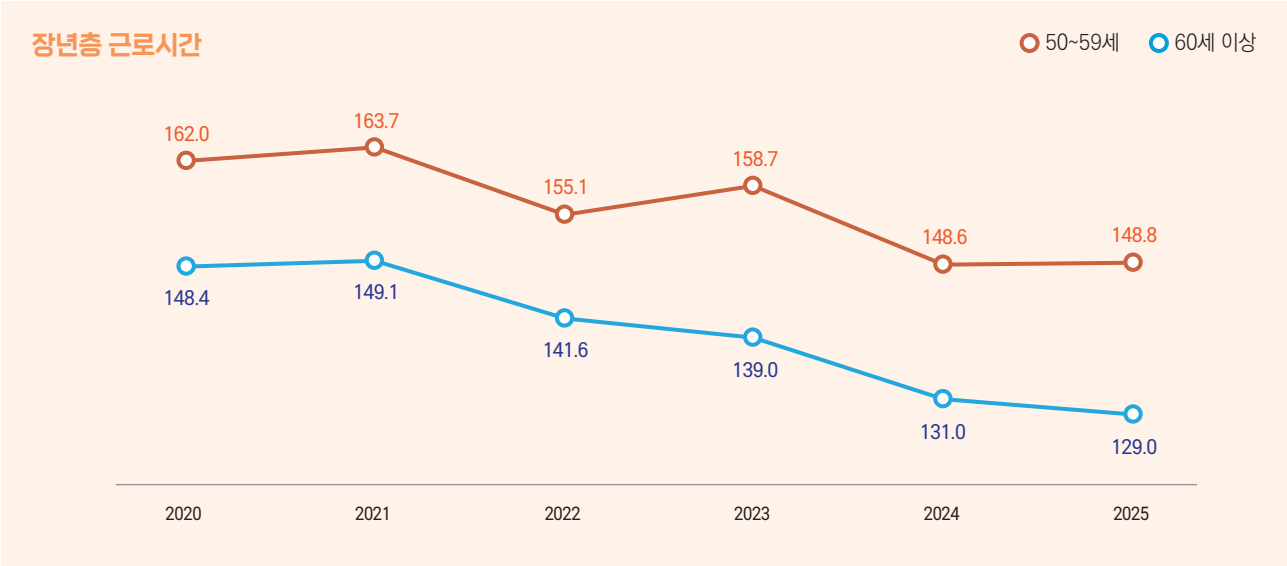
4

장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장년 근로자는 50대가 60세이상보다 시간당임금도 높고, 월 근로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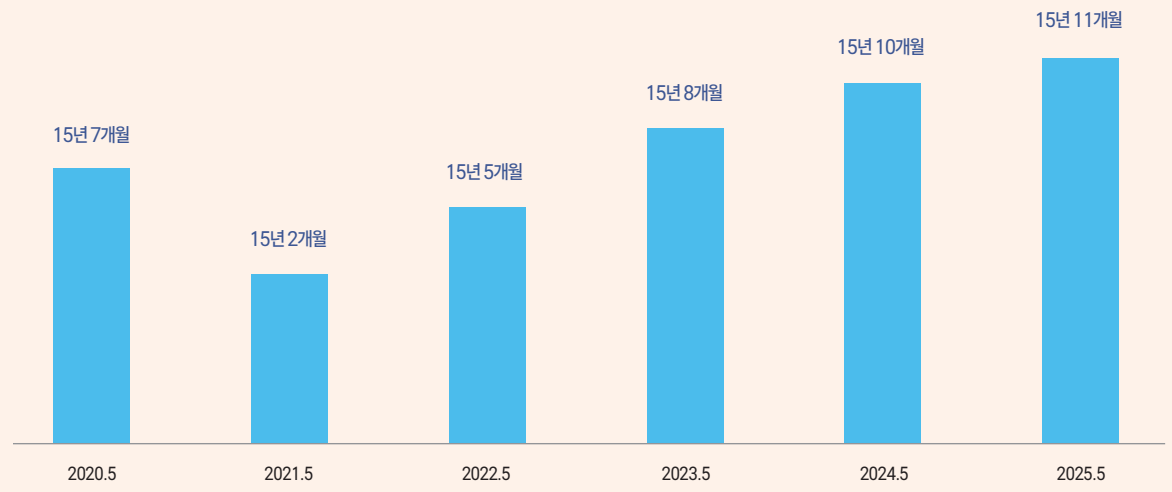
- 장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6월): '22년(20) → '23년(21) → '24년(19) → '25년(19)

정년 현황

근속기간

2025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 유경험자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15년 11개월이며, 10~20년 기간이 32.1%로 가장 많다.

장년층 평균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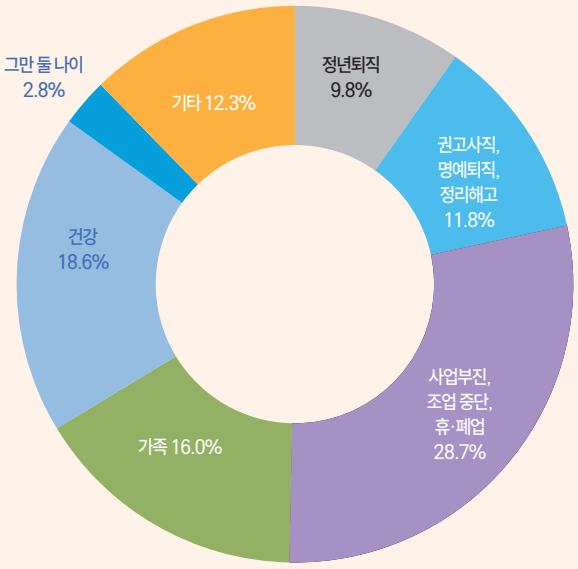
구 분	'20.5	'21.5	'22.5	'23.5	'24.5	'25.5
전 체	7,843 (100.0)	7,993 (100.0)	8,126 (100.0)	8,157 (100.0)	8,282 (100.0)	8,301 (100.0)
5년미만	1,222 (15.6)	1,287 (16.1)	1,216 (15.0)	1,137 (13.9)	1,117 (13.5)	1,097 (13.2)
5~10년미만	1,390 (17.7)	1,509 (18.9)	1,552 (19.1)	1,462 (17.9)	1,484 (17.9)	1,484 (17.9)
10~20년미만	2,353 (30.0)	2,407 (30.1)	2,465 (30.3)	2,638 (32.3)	2,667 (32.2)	2,663 (32.1)
20~30년미만	1,544 (19.7)	1,511 (18.9)	1,564 (19.3)	1,583 (19.4)	1,648 (19.9)	1,614 (19.4)
30년이상	1,335 (17.0)	1,280 (16.0)	1,329 (16.4)	1,337 (16.4)	1,368 (16.5)	1,443 (17.4)
평균 근속기간	15년 7개월	15년 2개월	15년 5개월	15년 8개월	15년 10개월	15년 11개월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 전체대비 비중 (단위: 천명, %)
주)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도 포함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2025년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 연령은 49.2세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장년층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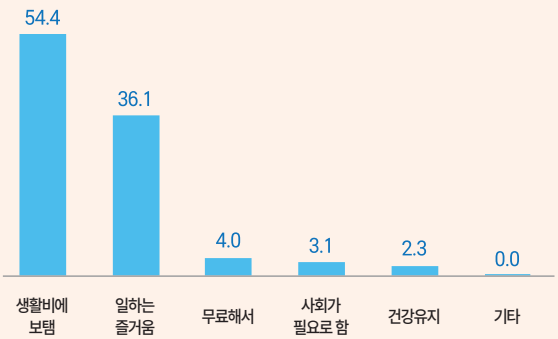
구 분	'21.5		'22.5		'23.5		'24.5		'25.5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체	5,245	(100.0)	5,212	(100.0)	5,184	(100.0)	5,183	(100.0)	5,089	(100.0)
정년퇴직	394	(7.5)	417	(8.0)	443	(8.5)	482	(9.3)	498	(9.8)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639	(12.2)	569	(10.9)	588	(11.3)	605	(11.7)	602	(11.8)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1,733	(33.0)	1,611	(30.9)	1,565	(30.2)	1,509	(29.1)	1,461	(28.7)
가족을 돌보기 위해	738	(14.1)	788	(15.1)	767	(14.8)	818	(15.8)	815	(16.0)
건강이 좋지 않아서	987	(18.8)	996	(19.1)	997	(19.2)	990	(19.1)	947	(18.6)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128	(2.4)	148	(2.8)	140	(2.7)	140	(2.7)	141	(2.8)
기타	627	(11.9)	683	(13.1)	685	(13.2)	640	(12.3)	625	(12.3)
평균 이직연령		49.3세		49.3세		49.4세		49.4세		49.2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단위: 천명, %)
주) 기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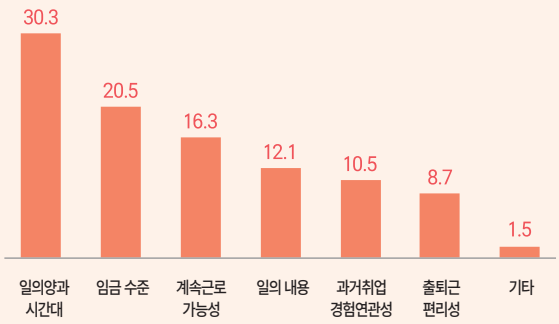
희망일자리

2025년 5월 기준 55~79세 인구 중 69.4%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컸으며,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주된 기준이었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



일자리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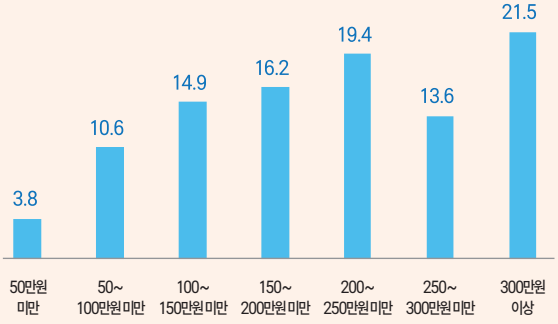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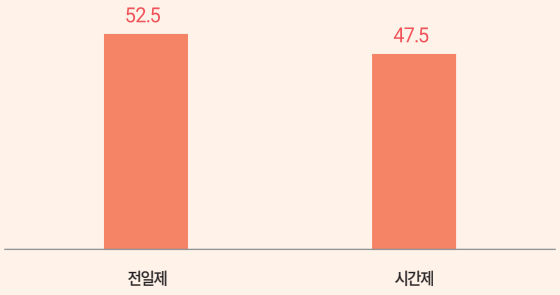
희망 임금수준

2025년 5월 기준 55~79세 인구의 희망임금은 300만원 이상을 가장 많이 원했고 희망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뿐만 아니라 시간제 역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희망임금 수준



희망일자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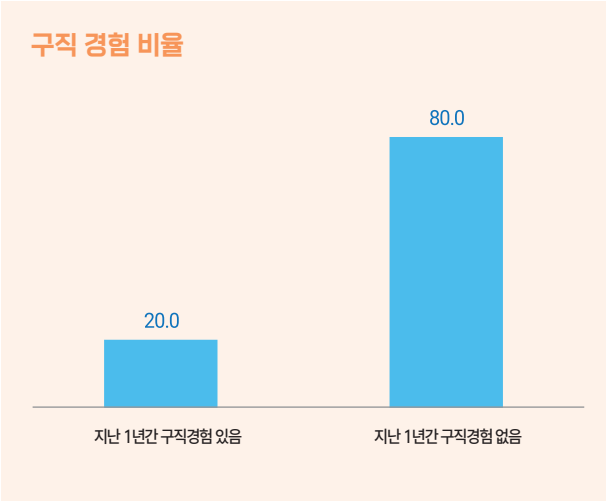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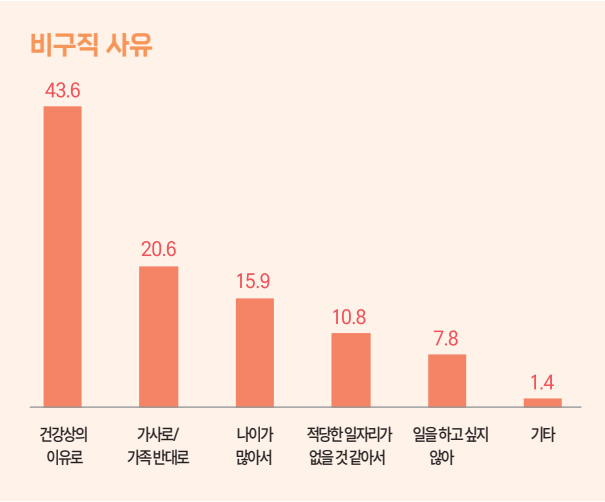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구직경험 및 비구직사유 현황

55~79세 인구의 80%는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으며, 비구직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사 또는 가족의 반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5.5월)

(단위: %)

정년

2025년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61.2세이다.

구 분	'21.6	'22.6	'23.6	'24.6	'25.6
평균 정년	61.5	61.5	61.2	61.2	61.2
300인 미만 사업장	61.5	61.5	61.2	61.3	61.3
300인 이상 사업장	60.2	60.2	60.3	60.3	60.3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단일정년이 있는 사업장 기준

(단위: 세)

노동시장 은퇴

2024년 한국의 유효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구 분		OECD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남성	2014	63.0	69.6	63.1	66.6	61.8	62.7	58.8	67.3
	2024	64.7	67.4	67.3	66.9	64.2	63.8	61.9	67.8
여성	2014	61.9	67.6	62.6	65.3	62.0	61.7	59.5	63.1
	2024	63.6	69.6	66.7	67.4	63.9	63.1	62.4	65.7

자료: OECD

(단위: 세)

주) '유효 은퇴연령'은 OECD가 40세 이상 연령 계층의 5세 단위 구간별 경활참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

장년층 동태 분석

취업활동 상태 변동

2006년 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장년층(50세이상) 중 2024년에도 취업상태인 비중은 48.7%이다.

그 중 동일직장 유지는 106만명(37.2%), 동일직장 유지 중 상용에서 임시, 일용으로 이동한 경우는 12.6%였다.

'06년 \ '24년	전 체					
	표본수 (가중치 적용)	취 업 자			실업자	비경활
			동일직장 취업상태	일자리 이동		
취업자('06년)	5,851,357[100.0]	2,846,647[48.7]	1,059,145	1,787,501	42,307[0.7]	2,962,403[50.6]
		(100.0)	(37.2)	(62.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명, %)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3,922명 중 10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592명과 10차년도 종단가중 값이 결측치인 319명을 제외한 총 2,011명을 대상으로 함

'06년 \ '24년	동일직장 취업 상태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87.4	12.6	0.0	0.0	0.0
임시	19.5	74.1	6.4	0.0	0.0
일용	3.8	21.9	74.3	0.0	0.0
자영업자	0.0	0.0	0.0	95.2	4.8
무급가족	0.0	0.0	0.0	32.2	67.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
주) 1차년도 동일직장 342명에 대해 가중치 부여, 1차년도 종사상지위 기준으로 100%

'06년 \ '24년	일자리 이동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47.4	28.5	6.7	14.3	3.2
임시	51.5	21.9	6.4	18.4	1.7
일용	32.5	29.0	12.1	23.7	2.7
자영업자	37.4	16.1	3.8	39.6	3.1
무급가족	26.3	25.4	2.2	26.6	19.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
주) 1차년도 일자리를 이동한 529명 중 응답거부 또는 무응답이라고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총 510명을 대상으로 분석, 1차년도 종사상지위 기준으로 100%

직업 변동

일자리 이동한 장년층(50세이상) 중에서 이전 직업과 현직업이 동일한 경우는 ⑨단순노무, ④서비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순으로 높은 반면, ③사무직은 일자리 유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06년 \ '24년	직업 변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17.4	4.7	9.4	3.1	17.0	8.0	6.0	20.0	14.2
②	8.8	38.5	7.7	7.3	11.8	2.5	4.1	5.8	13.6
③	5.6	5.5	9.0	16.6	6.8	3.4	13.7	7.9	31.4
④	1.1	2.4	0.0	44.5	4.3	0.0	0.0	2.2	45.4
⑤	4.0	4.6	4.0	21.7	23.6	1.7	10.4	7.8	22.2
⑥	2.3	0.0	0.0	11.2	2.0	42.8	0.0	0.0	41.7
⑦	0.0	7.3	6.9	6.0	1.3	2.0	32.6	1.9	42.1
⑧	2.7	0.0	0.0	18.1	6.1	5.7	9.1	35.4	23.0
⑨	4.3	0.0	0.0	12.7	7.1	4.9	9.7	6.5	54.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단위: %)
주)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산업 변동

일자리 이동에도 동일산업을 유지한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기타서비스업이 69.2%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5.2%로 가장 낮다. 장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다.

'24년 / '06년	산업 변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①	56.0	0.0	7.4	10.8	0.0	25.8
②	4.3	25.2	10.2	5.5	5.5	49.3
③	8.2	0.0	41.5	10.0	17.1	23.2
④	1.9	1.9	11.6	38.4	10.4	35.8
⑤	7.0	0.9	3.2	6.1	42.8	40.0
⑥	5.5	2.8	8.5	10.4	3.5	69.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단위: %)
주) ①농림어업, ②제조업(광업 포함), ③건설업, ④도소매/음식/숙박업, ⑤전기/운수/통신/금융, ⑥기타서비스업



희망직종

장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인적속성 \ 희망직종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4	0.6	3.1	21.3	10.6	5.4	7.3	3.2	43.2
성별	남	8.9	0.0	3.2	17.1	7.0	7.3	12.5	6.4	37.7
	여	1.8	1.2	3.0	25.5	14.2	3.6	2.0	0.0	48.7
연령	50~54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55~5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64세	5.5	2.2	5.7	18.5	23.9	0.0	9.3	4.0	30.9
	65~69세	9.7	0.0	4.3	28.6	4.5	4.9	6.5	1.4	40.2
	70~74세	0.7	0.0	0.0	22.5	5.5	11.3	10.7	3.5	45.8
	75~79세	0.0	0.0	0.0	6.7	9.0	9.5	2.1	6.3	66.5
	80세 이상	5.2	0.0	0.0	14.0	5.2	6.5	0.0	3.8	65.2
학력	초졸 이하	0.7	0.0	0.0	21.1	1.3	8.6	4.0	0.0	64.3
	중졸	0.9	0.0	0.0	25.1	5.8	5.1	10.3	3.3	49.4
	고졸	9.5	0.0	3.3	21.1	12.5	6.0	8.8	4.3	34.6
	초대졸 이상	3.1	3.7	8.8	17.7	19.3	1.4	2.1	2.8	41.1
수입	1,158만 원 이하	2.0	0.0	0.0	24.5	6.9	10.3	2.8	1.0	52.5
	1,185~2,400만 원 이하	2.3	0.0	1.0	25.7	7.3	5.8	9.9	2.0	46.0
	2,400~4,320만 원 이하	1.7	0.0	5.4	22.2	14.0	4.7	9.2	5.3	37.3
	4,320만 원 초과	14.2	2.2	4.7	14.3	12.6	2.1	6.6	3.8	39.5
지역	대도시	2.9	0.0	3.5	23.1	12.7	2.7	6.9	4.9	43.2
	중소도시	8.0	1.0	3.5	22.9	9.5	4.7	5.9	1.9	42.6
	읍면부	7.8	2.0	0.0	9.7	4.8	18.5	12.3	0.0	44.8
건강	보통이상	6.1	0.4	3.2	24.7	12.3	5.2	7.3	3.5	37.4
	나쁜편	0.8	1.9	2.4	0.0	0.0	7.0	7.1	1.6	79.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횡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단위: %)
주1)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2) 수입은 조사 당해의 1년 전 가구소득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4.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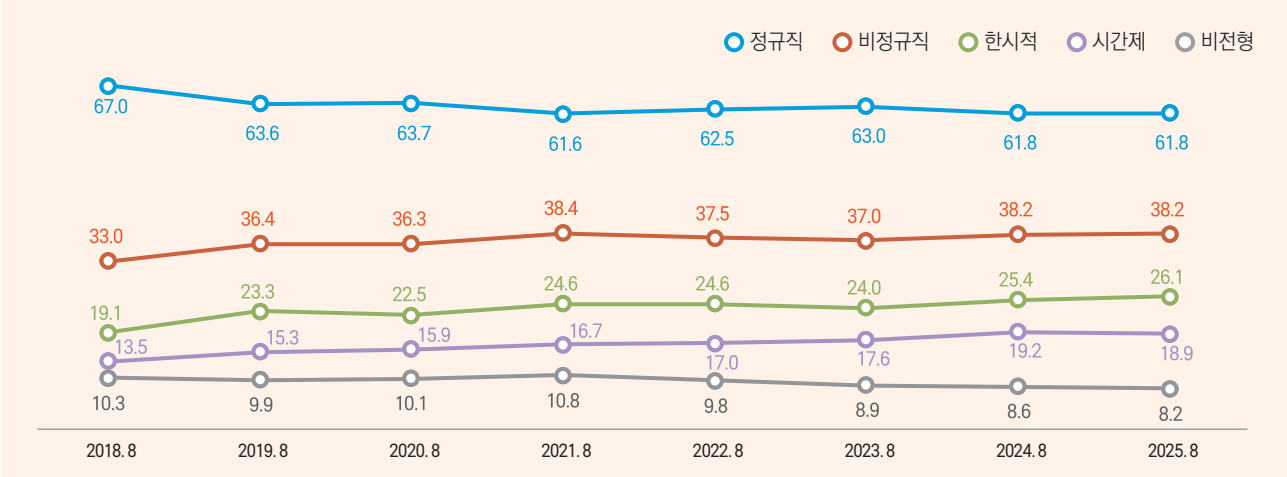
① 비정규직 취업현황
② 근로조건
③ 고용형태 변화



비정규직 취업현황

비정규직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22,413천명) 대비 38.2% 수준이다.



연도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18.8월	20,045 (100.0)	13,431 (67.0)	6,614 (33.0)	3,823 (19.1)	3,005 (15.0)	2,709 (13.5)	2,071 (10.3)	189 (0.9)	596 (3.0)	506 (2.5)	53 (0.3)	801 (4.0)
'19.8월	20,559 (100.0)	13,078 (63.6)	7,481 (36.4)	4,785 (23.3)	3,799 (18.5)	3,156 (15.3)	2,045 (9.9)	182 (0.9)	615 (3.0)	528 (2.6)	46 (0.2)	748 (3.6)
'20.8월	20,446 (100.0)	13,020 (63.7)	7,426 (36.3)	4,608 (22.5)	3,933 (19.2)	3,252 (15.9)	2,073 (10.1)	164 (0.8)	552 (2.7)	498 (2.4)	49 (0.2)	896 (4.4)
'21.8월	20,992 (100.0)	12,927 (61.6)	8,066 (38.4)	5,171 (24.6)	4,537 (21.6)	3,512 (16.7)	2,278 (10.8)	211 (1.0)	585 (2.8)	560 (2.7)	79 (0.4)	955 (4.5)
'22.8월	21,724 (100.0)	13,568 (62.5)	8,156 (37.5)	5,348 (24.6)	4,689 (21.6)	3,687 (17.0)	2,131 (9.8)	189 (0.9)	567 (2.6)	561 (2.6)	95 (0.4)	814 (3.7)
'23.8월	21,954 (100.0)	13,832 (63.0)	8,122 (37.0)	5,259 (24.0)	4,809 (21.9)	3,873 (17.6)	1,957 (8.9)	221 (1.0)	534 (2.4)	553 (2.5)	72 (0.3)	665 (3.0)
'24.8월	22,143 (100.0)	13,685 (61.8)	8,459 (38.2)	5,628 (25.4)	4,999 (22.6)	4,256 (19.2)	1,903 (8.6)	237 (1.1)	541 (2.4)	576 (2.6)	63 (0.3)	570 (2.6)
'25.8월	22,413 (100.0)	13,845 (61.8)	8,568 (38.2)	5,848 (26.1)	5,337 (23.8)	4,229 (18.9)	1,834 (8.2)	213 (0.9)	558 (2.5)	566 (2.5)	75 (0.3)	475 (2.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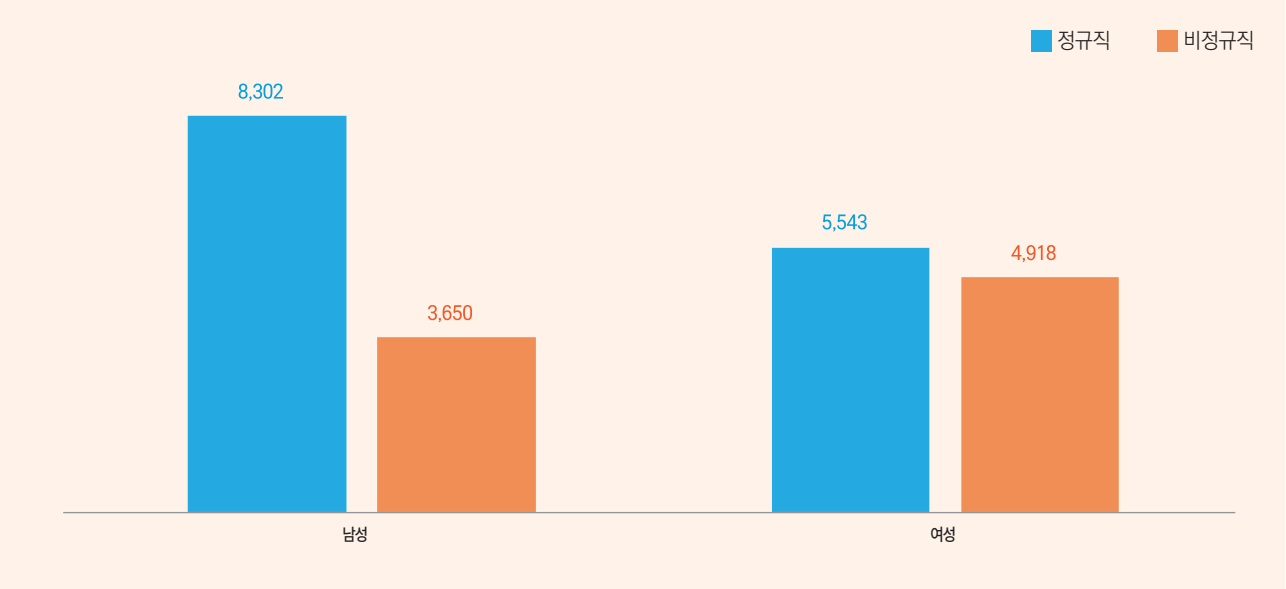
참고

- 비정규직은 근로자를 근로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근로자를 종사상지위로 분류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과는 서로 다른 개념임.
  - ☞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유형별 합계(예.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기간제와 시간제 모두 집계되어 합산)는 비정규직 전체 수(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7.4%로 남성 42.6%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정내근로,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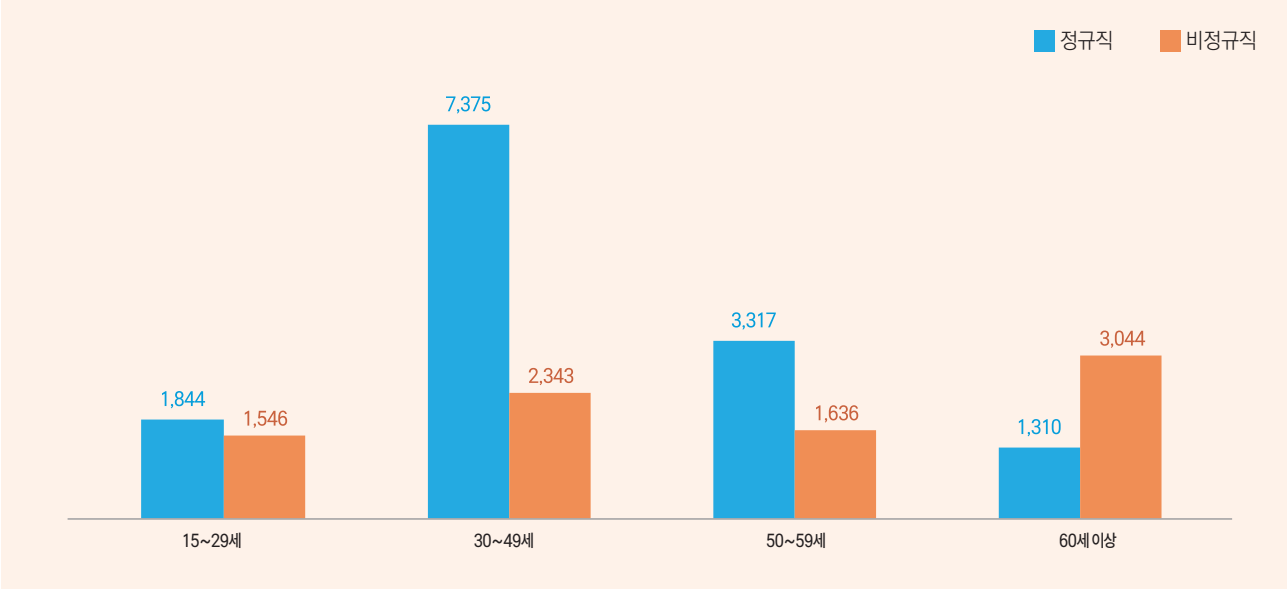
구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전체	22,413	13,845	8,568	5,848	5,337	4,229	1,834	213	558	566	75	4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1.8]	[38.2]	[26.1]	[23.8]	[18.9]	[8.2]	[0.9]	[2.5]	[2.5]	[0.3]	[2.1]
남성	11,953	8,302	3,650	2,570	2,320	1,187	1,006	107	304	247	19	368
	(53.3)	(60.0)	(42.6)	(44.0)	(43.5)	(28.1)	(54.9)	(50.5)	(54.5)	(43.7)	(24.6)	(77.3)
	[100.0]	[69.5]	[30.5]	[21.5]	[19.4]	[9.9]	[8.4]	[0.9]	[2.5]	[2.1]	[0.2]	[3.1]
여성	10,460	5,543	4,918	3,278	3,018	3,042	828	105	254	319	57	108
	(46.7)	(40.0)	(57.4)	(56.0)	(56.5)	(71.9)	(45.1)	(49.6)	(45.5)	(56.3)	(75.4)	(22.7)
	[100.0]	[53.0]	[47.0]	[31.3]	[28.9]	[29.1]	[7.9]	[1.0]	[2.4]	[3.0]	[0.5]	[1.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 ) 유형 내 성별 비중 [ ] 성별 내 유형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단위: 천명, %)

연령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연령분포를 보면 30~49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60세이상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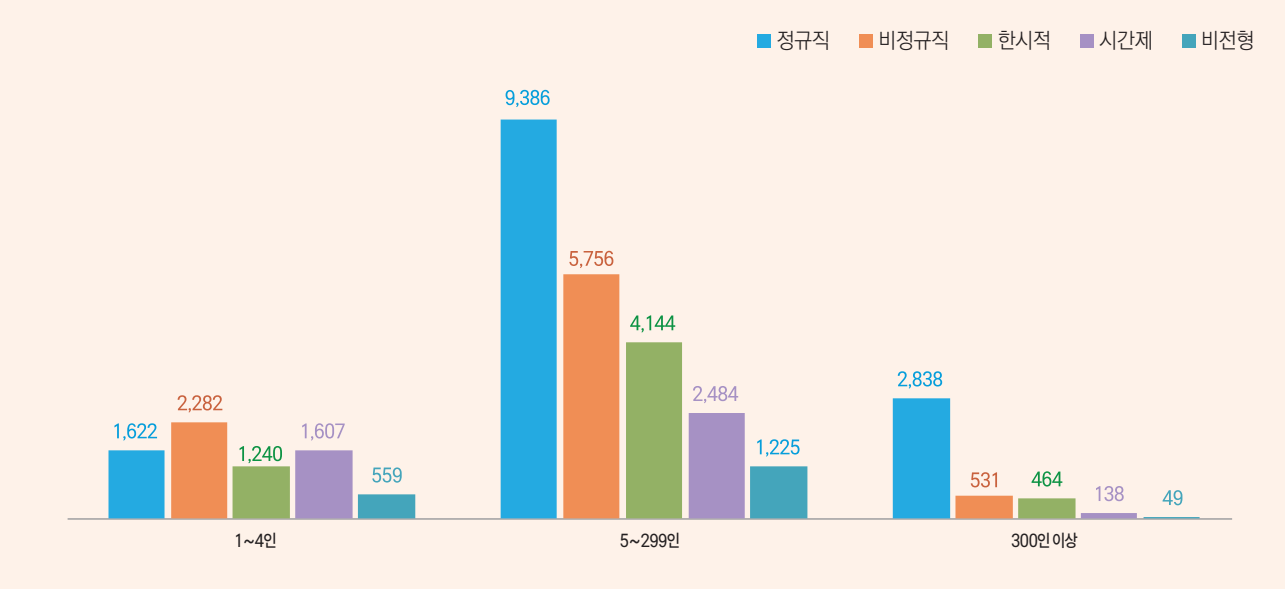


구 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22,413	13,845	8,568	5,848	5,337	4,229	1,8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1.8]	[38.2]	[26.1]	[23.8]	[18.9]	[8.2]
15~29세	3,389	1,844	1,546	991	884	858	137
	(15.1)	(13.3)	(18.0)	(16.9)	(16.6)	(20.3)	(7.5)
	[100.0]	[54.4]	[45.6]	[29.2]	[26.1]	[25.3]	[4.0]
30~49세	9,718	7,375	2,343	1,577	1,419	799	501
	(43.4)	(53.3)	(27.3)	(27.0)	(26.6)	(18.9)	(27.3)
	[100.0]	[75.9]	[24.1]	[16.2]	[14.6]	[8.2]	[5.2]
50~59세	4,952	3,317	1,636	1,005	905	656	464
	(22.1)	(24.0)	(19.1)	(17.2)	(17.0)	(15.5)	(25.3)
	[100.0]	[67.0]	[33.0]	[20.3]	[18.3]	[13.3]	[9.4]
60세 이상	4,354	1,310	3,044	2,275	2,130	1,916	732
	(19.4)	(9.5)	(35.5)	(38.9)	(39.9)	(45.3)	(39.9)
	[100.0]	[30.1]	[69.9]	[52.3]	[48.9]	[44.0]	[16.8]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단위: 천명, %)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사업체 규모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별 분포는 300인 미만에 93.8%가 집중되어 있다. 5인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58.5%로 높고, 전체 비정규직의 26.6%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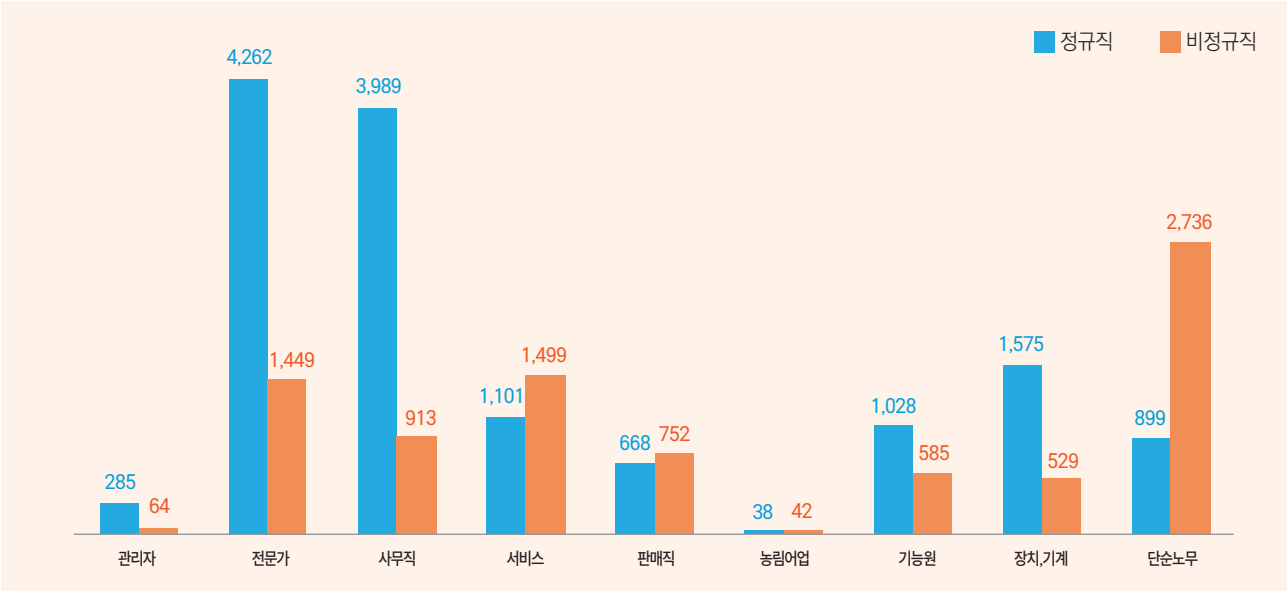
구 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22,413	13,845	8,568	5,848	5,337	4,229	1,8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1.8]	[38.2]	[26.1]	[23.8]	[18.9]	[8.2]
300인 미만	19,045	11,007	8,038	5,384	4,893	4,091	1,784
	(85.0)	(79.5)	(93.8)	(92.1)	(91.7)	(96.7)	(97.3)
	[100.0]	[57.8]	[42.2]	[28.3]	[25.7]	[21.5]	[9.4]
1~4인	3,903	1,622	2,282	1,240	1,064	1,607	559
	(17.4)	(11.7)	(26.6)	(21.2)	(19.9)	(38.0)	(30.5)
	[100.0]	[41.5]	[58.5]	[31.8]	[27.2]	[41.2]	[14.3]
5~299인	15,142	9,386	5,756	4,144	3,829	2,484	1,225
	(67.6)	(67.8)	(67.2)	(70.9)	(71.7)	(58.7)	(66.8)
	[100.0]	[62.0]	[38.0]	[27.4]	[25.3]	[16.4]	[8.1]
300인 이상	3,368	2,838	531	464	445	138	49
	(15.0)	(20.5)	(6.2)	(7.9)	(8.3)	(3.3)	(2.7)
	[100.0]	[84.2]	[15.8]	[13.8]	[13.2]	[4.1]	[1.5]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단위: 천명, %)

직업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직업별 분포는 단순노무직이 31.9%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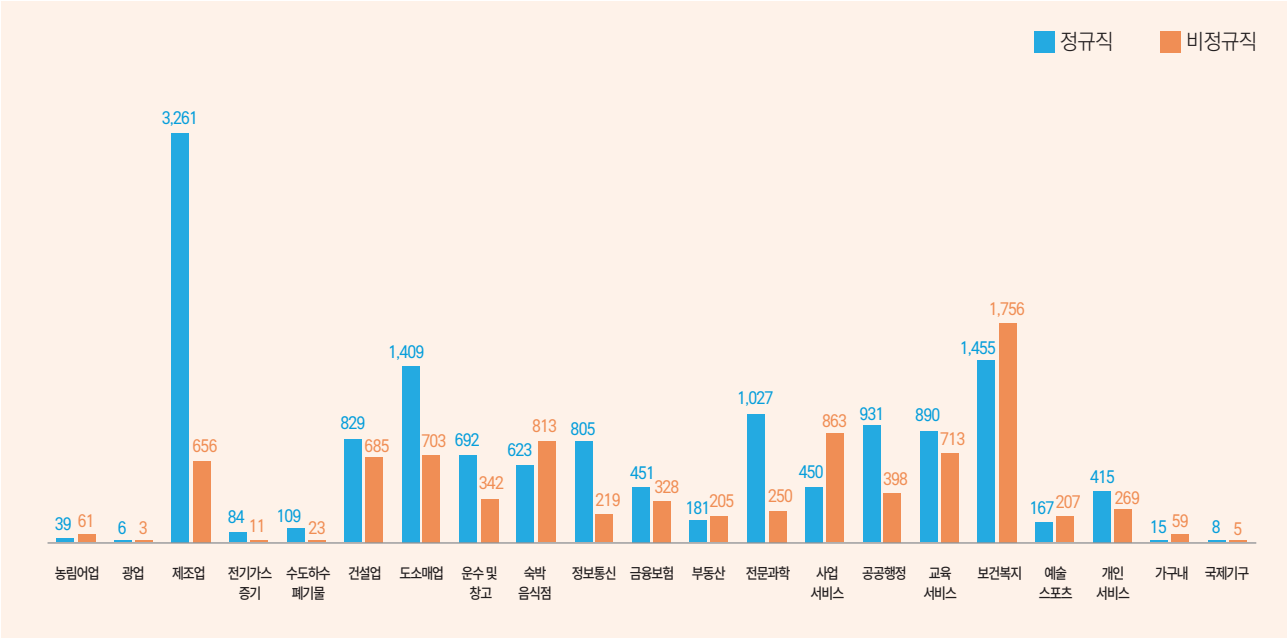


구 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전 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4,229 (100.0) [18.9]	1,834 (100.0) [8.2]
관리자	349 (1.6) [100.0]	285 (2.1) [81.7]	64 (0.7) [18.3]	54 (0.9) [15.6]	9 (0.2) [2.6]	4 (0.2) [1.1]
전문가	5,711 (25.5) [100.0]	4,262 (30.8) [74.6]	1,449 (16.9) [25.4]	1,114 (19.1) [19.5]	567 (13.4) [9.9]	132 (7.2) [2.3]
사무직	4,902 (21.9) [100.0]	3,989 (28.8) [81.4]	913 (10.7) [18.6]	695 (11.9) [14.2]	340 (8.0) [6.9]	83 (4.5) [1.7]
서비스	2,600 (11.6) [100.0]	1,101 (8.0) [42.3]	1,499 (17.5) [57.7]	931 (15.9) [35.8]	1,107 (26.2) [42.6]	111 (6.0) [4.3]
판매직	1,420 (6.3) [100.0]	668 (4.8) [47.0]	752 (8.8) [53.0]	255 (4.4) [17.9]	368 (8.7) [25.9]	337 (18.4) [23.7]
농림어업	80 (0.4) [100.0]	38 (0.3) [47.3]	42 (0.5) [52.8]	36 (0.6) [44.3]	6 (0.1) [7.1]	5 (0.3) [6.6]
기능원	1,613 (7.2) [100.0]	1,028 (7.4) [63.8]	585 (6.8) [36.2]	377 (6.4) [23.4]	99 (2.3) [6.1]	209 (11.4) [12.9]
장치,기계	2,104 (9.4) [100.0]	1,575 (11.4) [74.9]	529 (6.2) [25.1]	421 (7.2) [20.0]	72 (1.7) [3.4]	116 (6.3) [5.5]
단순노무	3,636 (16.2) [100.0]	899 (6.5) [24.7]	2,736 (31.9) [75.3]	1,965 (33.6) [54.1]	1,663 (39.3) [45.7]	837 (45.6) [23.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단위: 천명, %)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산업별 현황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복지업(20.5%), 사업지원서비스업(10.1%), 숙박음식업(9.5%) 순으로 많다.



구 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전 체	22,413 (100.0) [100.0]	13,845 (100.0) [61.8]	8,568 (100.0) [38.2]	5,848 (100.0) [26.1]	4,229 (100.0) [18.9]	1,834 (100.0) [8.2]
농림어업	100 (0.4) [100.0]	39 (0.3) [38.6]	61 (0.7) [61.4]	36 (0.6) [36.4]	17 (0.4) [16.8]	22 (1.2) [22.5]
광업	8 (0.0) [100.0]	6 (0.0) [68.7]	3 (0.0) [31.3]	3 (0.0) [31.3]	0 (0.0) [0.0]	0 (0.0) [0.0]
제조업	3,917 (17.5) [100.0]	3,261 (23.6) [83.2]	656 (7.7) [16.8]	540 (9.2) [13.8]	131 (3.1) [3.3]	44 (2.4) [1.1]
전기가스증기	94 (0.4) [100.0]	84 (0.6) [88.6]	11 (0.1) [11.4]	7 (0.1) [7.7]	4 (0.1) [4.0]	2 (0.1) [1.6]
수도하수폐기물	132 (0.6) [100.0]	109 (0.8) [82.5]	23 (0.3) [17.5]	21 (0.4) [15.7]	4 (0.1) [3.3]	2 (0.1) [1.6]
건설업	1,514 (6.8) [100.0]	829 (6.0) [54.8]	685 (8.0) [45.2]	383 (6.5) [25.3]	142 (3.3) [9.3]	298 (16.3) [19.7]

(단위: 천명, %)

구 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도소매업	2,112 (9.4) [100.0]	1,409 (10.2) [66.7]	703 (8.2) [33.3]	364 (6.2) [17.2]	415 (9.8) [19.7]	103 (5.6) [4.9]
운수 및 창고	1,034 (4.6) [100.0]	692 (5.0) [66.9]	342 (4.0) [33.1]	206 (3.5) [20.0]	114 (2.7) [11.1]	102 (5.6) [9.8]
숙박음식점	1,436 (6.4) [100.0]	623 (4.5) [43.4]	813 (9.5) [56.6]	382 (6.5) [26.6]	657 (15.5) [45.7]	43 (2.3) [3.0]
정보통신	1,024 (4.6) [100.0]	805 (5.8) [78.6]	219 (2.6) [21.4]	166 (2.8) [16.2]	53 (1.3) [5.2]	42 (2.3) [4.1]
금융보험	779 (3.5) [100.0]	451 (3.3) [57.9]	328 (3.8) [42.1]	89 (1.5) [11.4]	51 (1.2) [6.6]	243 (13.2) [31.2]
부동산	387 (1.7) [100.0]	181 (1.3) [46.9]	205 (2.4) [53.1]	153 (2.6) [39.6]	64 (1.5) [16.6]	48 (2.6) [12.4]
전문과학	1,277 (5.7) [100.0]	1,027 (7.4) [80.4]	250 (2.9) [19.6]	190 (3.2) [14.9]	81 (1.9) [6.4]	15 (0.8) [1.2]
사업서비스	1,313 (5.9) [100.0]	450 (3.3) [34.3]	863 (10.1) [65.7]	606 (10.4) [46.2]	233 (5.5) [17.7]	643 (35.1) [48.9]
공공행정	1,329 (5.9) [100.0]	931 (6.7) [70.0]	398 (4.6) [30.0]	387 (6.6) [29.1]	267 (6.3) [20.1]	4 (0.2) [0.3]
교육서비스	1,603 (7.2) [100.0]	890 (6.4) [55.5]	713 (8.3) [44.5]	535 (9.2) [33.4]	426 (10.1) [26.5]	54 (2.9) [3.4]
보건복지	3,211 (14.3) [100.0]	1,455 (10.5) [45.3]	1,756 (20.5) [54.7]	1,459 (25.0) [45.5]	1,264 (29.9) [39.4]	58 (3.1) [1.8]
예술스포츠	373 (1.7) [100.0]	167 (1.2) [44.7]	207 (2.4) [55.3]	134 (2.3) [35.8]	116 (2.7) [31.2]	26 (1.4) [6.8]
개인서비스	684 (3.1) [100.0]	415 (3.0) [60.7]	269 (3.1) [39.3]	165 (2.8) [24.1]	142 (3.3) [20.7]	71 (3.9) [10.4]
가구내	75 (0.3) [100.0]	15 (0.1) [20.3]	59 (0.7) [79.6]	18 (0.3) [24.3]	46 (1.1) [61.9]	15 (0.8) [19.9]
국제기구	12 (0.1) [100.0]	8 (0.1) [62.6]	5 (0.1) [36.6]	3 (0.1) [24.4]	2 (0.0) [12.2]	0 (0.0) [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5.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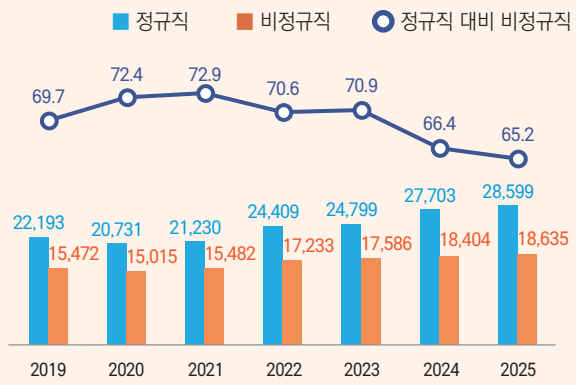
2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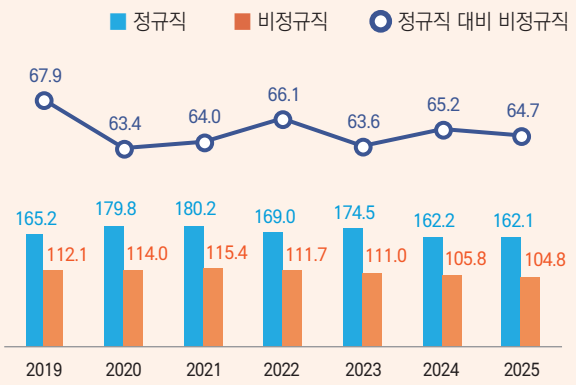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8,635원이고, 정규직 대비 65.2%이며, 월 근로시간은 104.8시간이고 정규직 대비 64.7%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2019	20,573	22,193	15,472	15,501	11,393	14,423	12,809	14,288	18,297
2020	19,316	20,731	15,015	14,719	11,566	13,594	12,338	13,744	18,499
2021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2,945	19,283
2022	22,651	24,409	17,233	17,517	12,638	15,515	13,558	13,762	21,416
2023	22,878	24,799	17,586	17,972	12,971	15,741	13,952	14,523	21,907
2024	25,156	27,703	18,404	19,588	14,066	15,883	15,414	14,917	23,292
2025	25,839	28,599	18,635	20,097	14,591	16,256	15,701	14,913	23,49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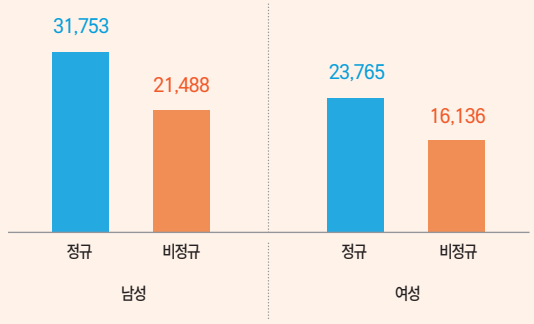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2019	152.4	165.2	112.1	160.6	112.0	76.0	163.7	112.5	85.0
2020	163.6	179.8	114.0	172.7	118.9	79.4	173.5	116.7	79.6
2021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17.2	80.2
2022	154.9	169.0	111.7	167.1	116.2	76.1	167.1	113.0	79.9
2023	157.6	174.5	111.0	169.7	118.5	74.0	170.9	114.7	80.0
2024	146.8	162.2	105.8	159.4	113.0	71.9	164.4	112.1	79.0
2025	146.3	162.1	104.8	159.0	112.8	71.3	162.9	110.6	81.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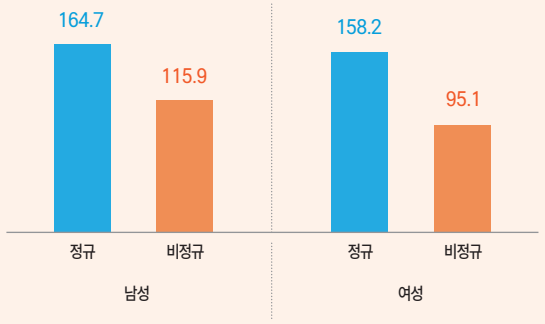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남성 21,488원, 여성 16,136원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67.7%, 67.9%이며, 비정규직의 월 근로 시간은 남성 115.9시간, 여성 95.1시간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70.4%, 60.1%이다.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구 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839	28,599	18,635	146.3	162.1	104.8
남성	29,411	31,753	21,488	153.6	164.7	115.9
여성	21,164	23,765	16,136	136.7	158.2	95.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단위: 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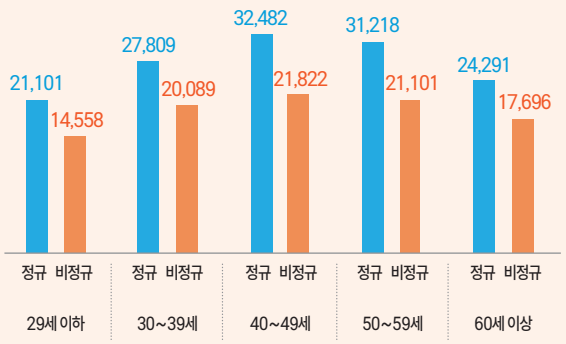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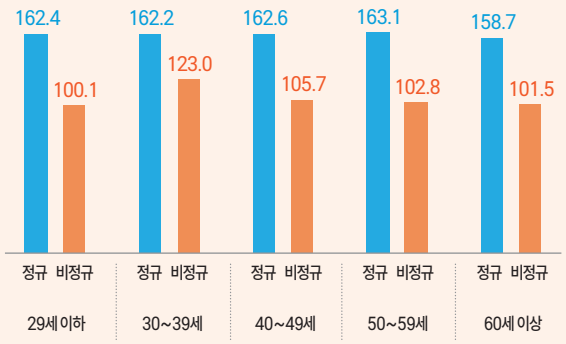
2025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40대 21,822원을 정점으로 50대부터 감소한다.

-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40대가 67.2%로 가장 낮음
-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30대에서 123.0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29세 이하에서 100.1시간으로 가장 짧음

연령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연령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구 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 체	25,839	28,599	18,635	146.3	162.1	104.8
29세이하	18,637	21,101	14,558	138.9	162.4	100.1
30~39세	26,548	27,809	20,089	155.8	162.2	123.0
40~49세	30,682	32,482	21,822	153.0	162.6	105.7
50~59세	28,808	31,218	21,101	148.8	163.1	102.8
60세이상	20,871	24,291	17,696	129.0	158.7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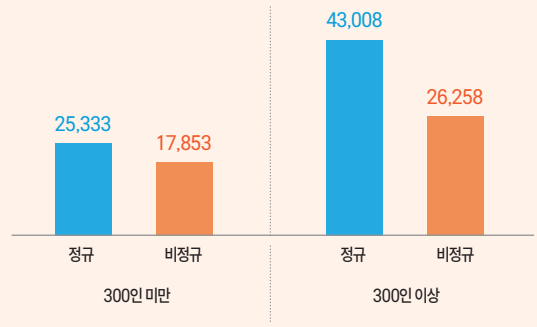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단위: 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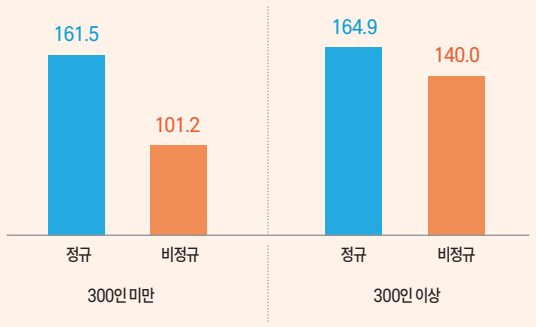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 17,853원, 300인 이상 26,258원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각각 70.5%, 61.1% 수준이며,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300인 미만 101.2시간, 300인 이상 140.0시간이다.

규모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규모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구 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5,839	28,599	18,635	146.3	162.1	104.8
300인 미만	23,098	25,333	17,853	143.5	161.5	101.2
5인미만	18,511	20,167	16,017	126.9	158.3	79.4
5-29인	23,478	25,489	18,634	144.3	160.1	106.2
30-299인	26,032	28,139	19,043	154.7	164.7	121.6
300인 이상	40,300	43,008	26,258	160.9	164.9	14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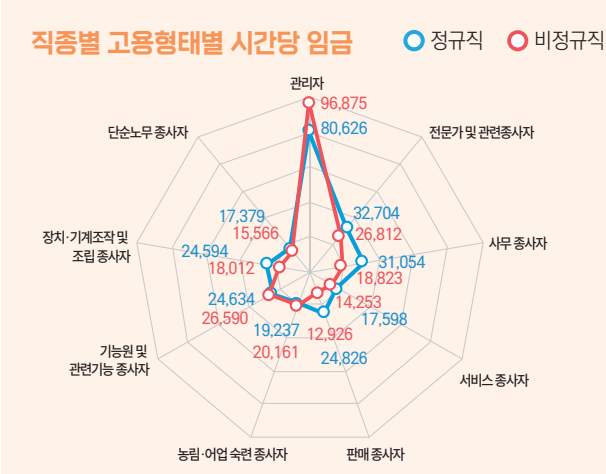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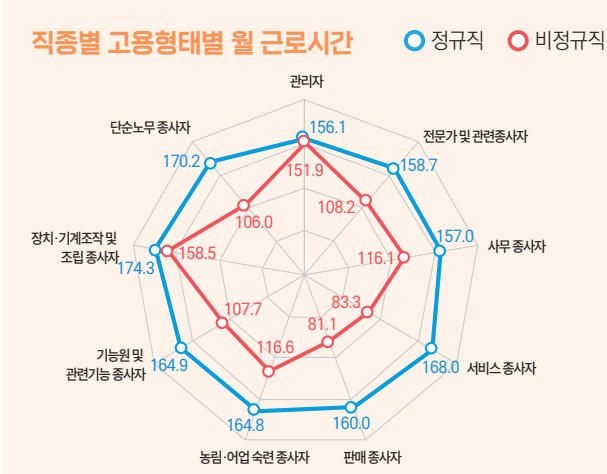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관리자, 전문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순으로 높고,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길고, 판매종사자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전체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25,839	28,599	18,635
관리자	81,578	80,626	96,8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798	32,704	26,812
사무 종사자	29,570	31,054	18,823
서비스 종사자	15,623	17,598	14,253
판매 종사자	21,362	24,826	12,92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9,758	19,237	20,1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5,434	24,634	26,59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514	24,594	18,012
단순노무 종사자	16,253	17,379	15,566

(단위: 원)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146.3	162.1	104.8
관리자	155.8	156.1	15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1.0	158.7	108.2
사무 종사자	152.1	157.0	116.1
서비스 종사자	118.0	168.0	83.3
판매 종사자	137.0	160.0	81.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37.6	164.8	11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41.5	164.9	10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1.7	174.3	158.5
단순노무 종사자	130.3	170.2	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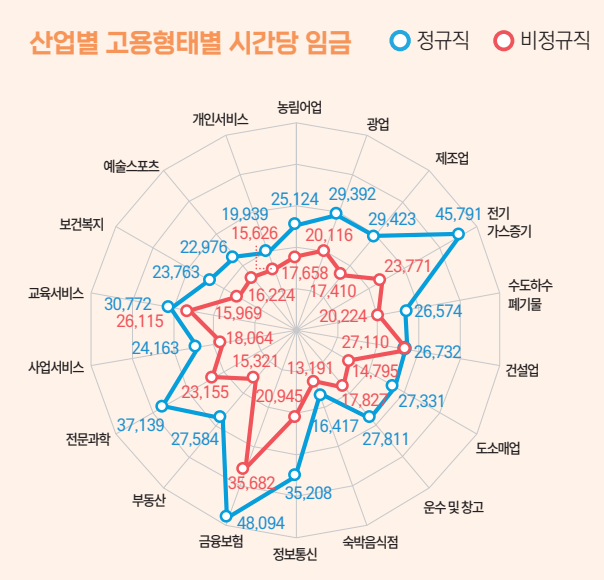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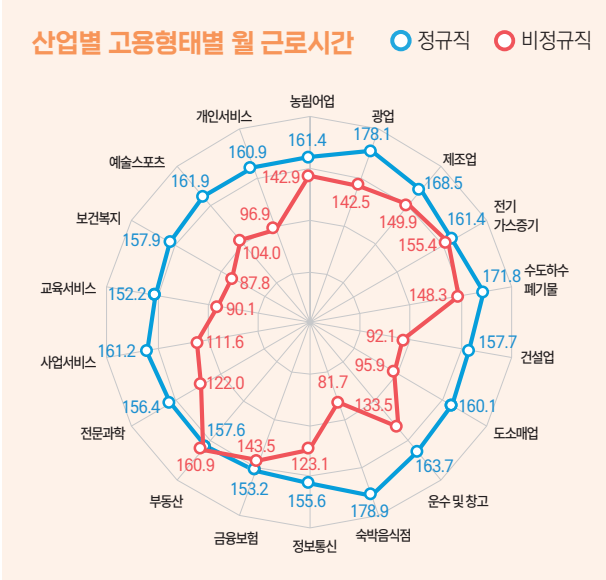
(단위: 시간)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5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금융보험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순으로 낮다.

월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순으로 길고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구 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 체	25,839	28,599	18,635	146.3	162.1	104.8
농림어업	22,198	25,124	17,658	154.2	161.4	142.9
광업	27,936	29,392	20,116	172.5	178.1	142.5
제조업	27,960	29,423	17,410	166.2	168.5	149.9
전기가스증기	43,512	45,791	23,771	160.8	161.4	155.4
수도하수폐기물	25,830	26,574	20,224	169.1	171.8	148.3
건설업	26,916	26,732	27,110	125.8	157.7	92.1
도소매업	24,762	27,331	14,795	147.0	160.1	95.9
운수 및 창고	25,797	27,811	17,827	157.6	163.7	133.5
숙박음식점	14,670	16,417	13,191	126.3	178.9	81.7
정보통신	33,802	35,208	20,945	152.4	155.6	123.1
금융보험	46,430	48,094	35,682	151.9	153.2	143.5
부동산	19,613	27,584	15,321	159.8	157.6	160.9
전문과학	35,236	37,139	23,155	151.7	156.4	122.0
사업서비스	22,915	24,163	18,064	151.0	161.2	111.6
교육서비스	28,455	30,772	26,115	121.3	152.2	90.1
보건복지	20,600	23,763	15,969	129.5	157.9	87.8
예술스포츠	19,682	22,976	16,224	133.6	161.9	104.0
개인서비스	19,017	19,939	15,626	147.2	160.9	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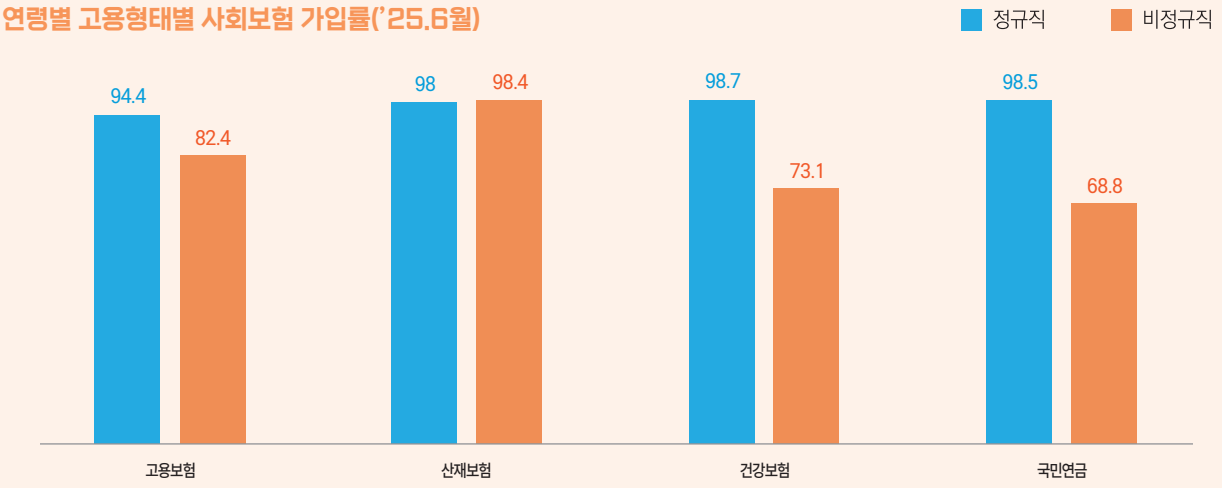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25.6월)

(단위: 원, 시간)

사회보험 적용

2025년 6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82.4%, 건강보험 73.1%, 국민연금 68.8%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10~30%p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산재보험은 98.4%로 동일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5.6월)



구 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 일 근로자
고용보험	'21	90.5	94.2	76.1	89.3	46.3	80.3	95.0	79.9	58.6
	'22	91.8	94.6	80.7	91.5	51.2	84.4	94.8	81.7	64.3
	'23	91.7	94.5	81.4	92.9	52.9	84.2	94.9	82.4	66.1
	'24	91.8	94.5	81.7	93.1	50.3	81.7	96.4	80.4	67.3
	'25	91.9	94.4	82.4	94.0	47.6	82.5	97.1	79.3	67.2
산재보험	'21	97.8	97.8	97.6	98.9	86.6	95.9	98.5	100.0	98.5
	'22	98.2	98.1	98.4	99.2	93.3	97.6	98.6	100.0	98.5
	'23	98.1	98.1	98.2	99.0	90.5	97.2	99.3	98.9	98.9
	'24	98.1	98.1	98.1	99.0	87.2	97.0	99.6	99.9	98.7
	'25	98.1	98.0	98.4	99.7	91.8	97.3	99.6	97.6	98.4
건강보험	'21	91.5	98.5	66.4	93.6	42.8	79.1	95.4	78.9	22.9
	'22	92.5	98.6	70.3	95.7	44.3	83.5	95.3	83.1	24.9
	'23	92.5	98.8	71.7	95.8	46.3	85.0	95.6	78.7	28.6
	'24	92.4	98.8	71.5	94.3	48.2	81.6	97.4	81.7	27.4
	'25	92.7	98.7	73.1	95.6	44.2	84.0	98.1	81.8	26.2
국민연금	'21	91.7	98.3	63.0	88.7	41.9	76.5	93.2	82.5	22.9
	'22	93.0	98.5	67.5	91.8	41.5	81.4	93.7	87.4	24.5
	'23	92.9	98.6	68.5	91.4	39.2	81.9	93.4	86.1	27.6
	'24	92.6	98.6	67.6	90.0	36.6	78.0	95.1	81.9	25.0
	'25	92.9	98.5	68.8	91.1	34.5	78.9	96.4	82.4	26.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단위: %)

주: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고용형태 변화

기간제근로자

2025년 12월 전체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195.6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12.1%를 차지했으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는 72.0%, 계속고용은 18.9%, 정규직 전환은 8.9%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전체 근로자 (A)	기간제 근로자 (B)	비율 (B/A)	계약기간 만료자	계약 종료 (D1)	비율 (D1/D)	정규직 전환 (D2)	비율 (D2/D)	계속 고용 (D3)	비율 (D3/D)	기타 (D4)	비율 (D4/D)
16,126,002	1,956,180	12.1	55,146	39,727	72.0	4,917	8.9	10,436	18.9	66	0.1

자료: 고용노동부 ('25.12월p)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위: 명, %)
주) '계속고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 및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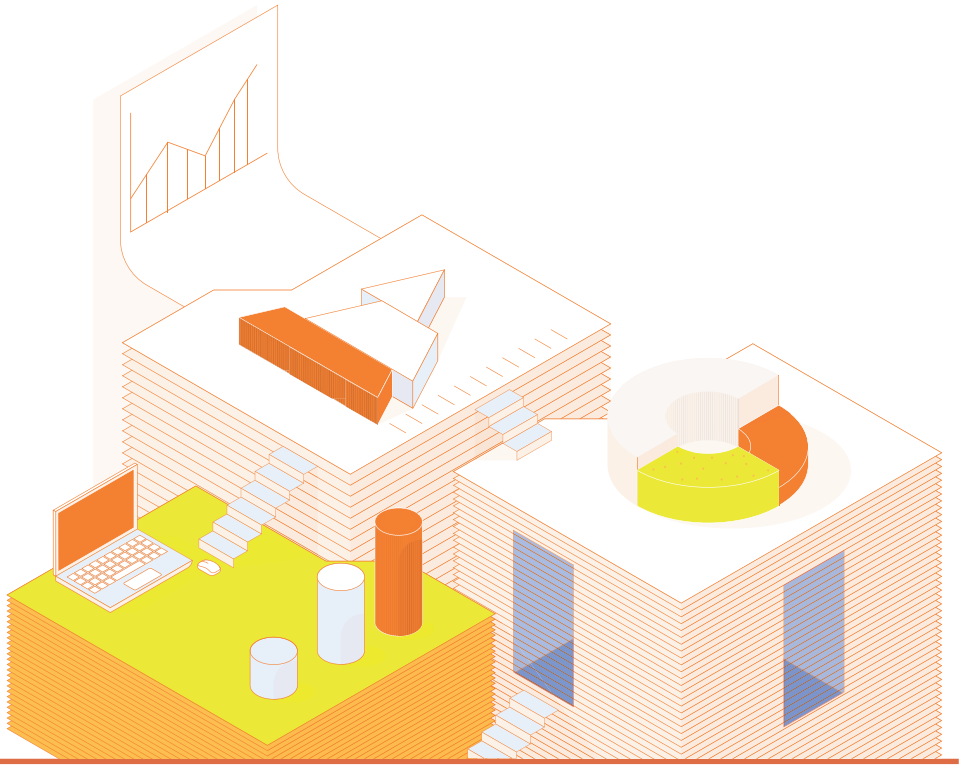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 비율을 살펴보면, 1년 6개월 초과~2년 이하 근속기간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만료자 (D)	계약 종료 (D1)	비율 (D1/D)	정규직 전환 (D2)	비율 (D2/D)	계속 고용 (D3)	비율 (D3/D)
전 체	55,146	39,727	72.0	4,917	8.9	10,436	18.9
1년6개월 이하	46,609	34,203	73.4	3,794	8.1	8,546	18.3
1년6개월 초과~2년 이하	5,562	3,837	69.0	830	14.9	895	16.1
2년 초과	2,975	1,687	56.7	293	9.8	995	33.5

자료: 고용노동부 ('25.12월p)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위: 명, %)
주1) '계속고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 및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
2) 방침미정 등의 기타 조치 사항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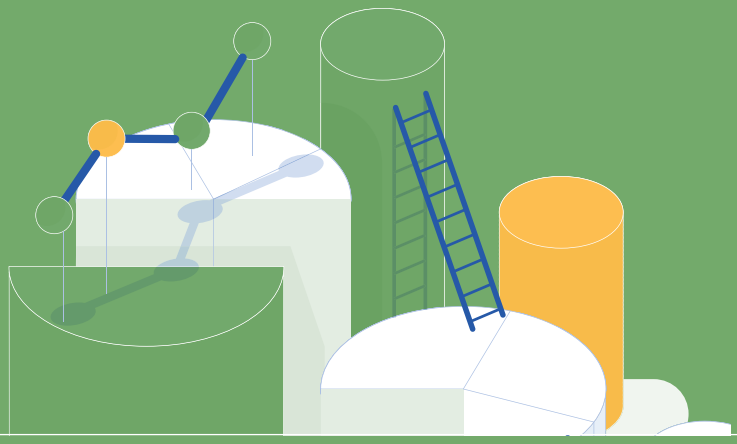


고용노동관련 OECD 국제비교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① 인구 및 고용
② 근로조건
③ 분배지표
④ 기타 고용노동지표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OECD 국제통계 수록범위

OECD 통계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 통계 중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지표 32개 항목을 수록하였음

본문 통계표에는 38개 회원국가 중
15~64세 이상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인 13개 국가의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국제비교의 필요성이 있지만
OECD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의 지표는 OECD 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2개 이상의 발표된 지표를 가공하여
생산하였음

이용 시 참고사항

모든 지표에 대하여
산정 기준과, 자료의 출처,
이용상의 한계 등을 숙지한 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별 최신 자료 수록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23개국
(회원국의 2/3) 이상의 자료가
수록된 최신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음

모든 자료는 2026.8.31.
OECD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해당 시점에 자료가 수록
발표되지 않은 국가는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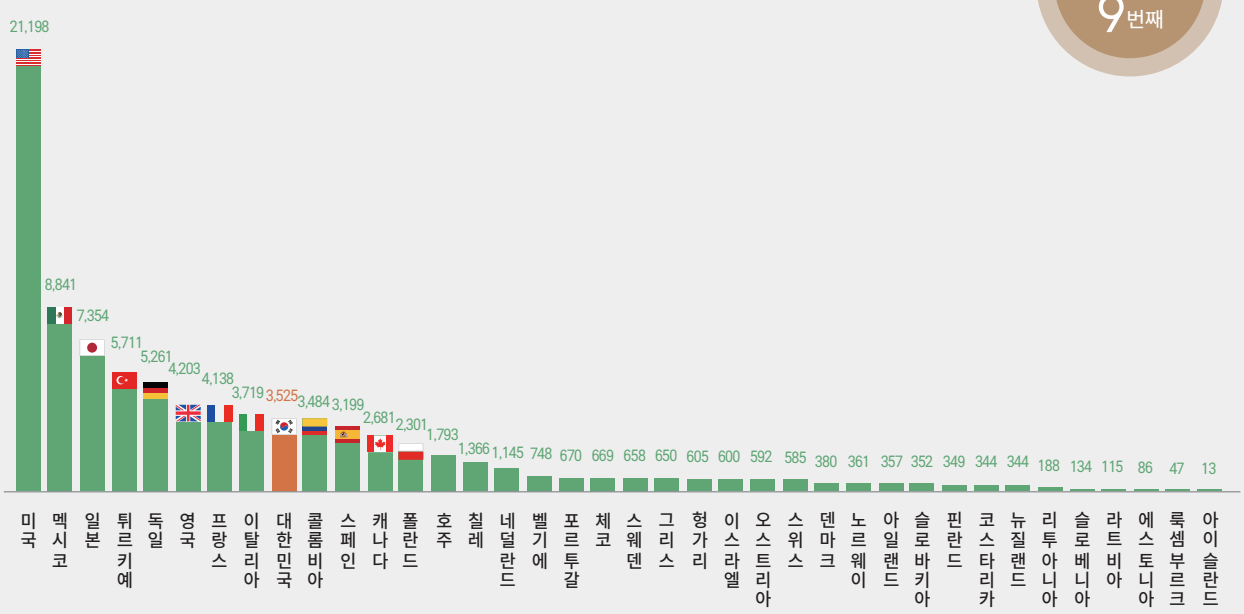
'OECD평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발표된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통계표 하단에
이를 표기하였음

인구 및 고용

인구

OECD는 15~64세 인구는 노동연령대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5년 3,525만명으로 OECD 38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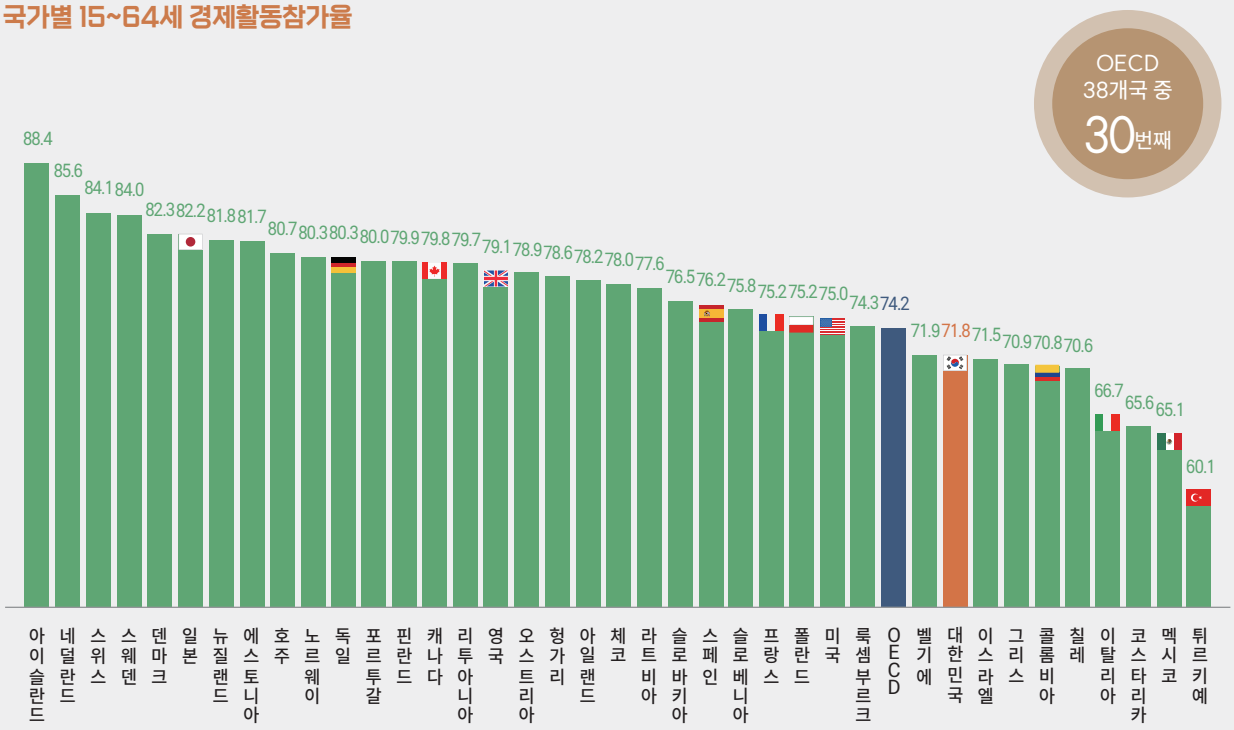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미국	20,572	20,526	20,726	20,868	20,884	21,198
멕시코	8,477	8,568	8,672	8,712	8,754	8,841
일본	7,469	7,410	7,413	7,393	7,372	7,354
튀르키예	5,483	5,557	5,632	5,685	5,705	5,711
독일	5,326	5,210	5,250	5,283	5,284	5,261
영국	4,137	4,137	4,151	4,168	4,185	4,203
프랑스	4,069	4,056	4,082	4,093	4,113	4,138
이탈리아	3,780	3,753	3,727	3,714	3,723	3,719
대한민국	3,664	3,650	3,623	3,596	3,562	3,525
콜롬비아	3,287	3,355	3,391	3,421	3,454	3,484
스페인	3,060	3,070	3,095	3,135	3,169	3,199
캐나다	2,458	2,460	2,484	2,543	2,632	2,681
폴란드	2,407	2,378	2,352	2,330	2,312	2,301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levels (단위: 만명)
주) 위에서 15세~64세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로서, 추계인구 중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에 해당함.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한국은 '25년 71.8%로 OECD 38개국 중 30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79.6	80.0	80.6	81.1	81.5	82.2
독일	78.6	78.7	79.5	79.8	80.2	80.3
캐나다	77.7	79.5	79.8	80.3	79.8	79.8
영국	78.8	78.3	78.3	78.7	78.5	79.1
스페인	73.4	74.9	75.3	75.8	75.9	76.2
프랑스	71.0	73.0	73.6	73.9	74.5	75.2
폴란드	71.1	72.9	73.6	74.5	74.7	75.2
미국	73.0	73.4	74.0	74.7	74.9	75.0
OECD	71.4	72.3	73.2	73.8	74.0	74.2
대한민국	68.6	69.0	70.5	71.1	71.5	71.8
콜롬비아	66.3	67.4	69.6	70.3	70.2	70.8
이탈리아	64.1	64.5	65.5	66.7	66.6	66.7
멕시코	62.3	63.8	64.7	65.6	65.7	65.1
튀르키예	54.9	57.2	59.2	59.5	60.6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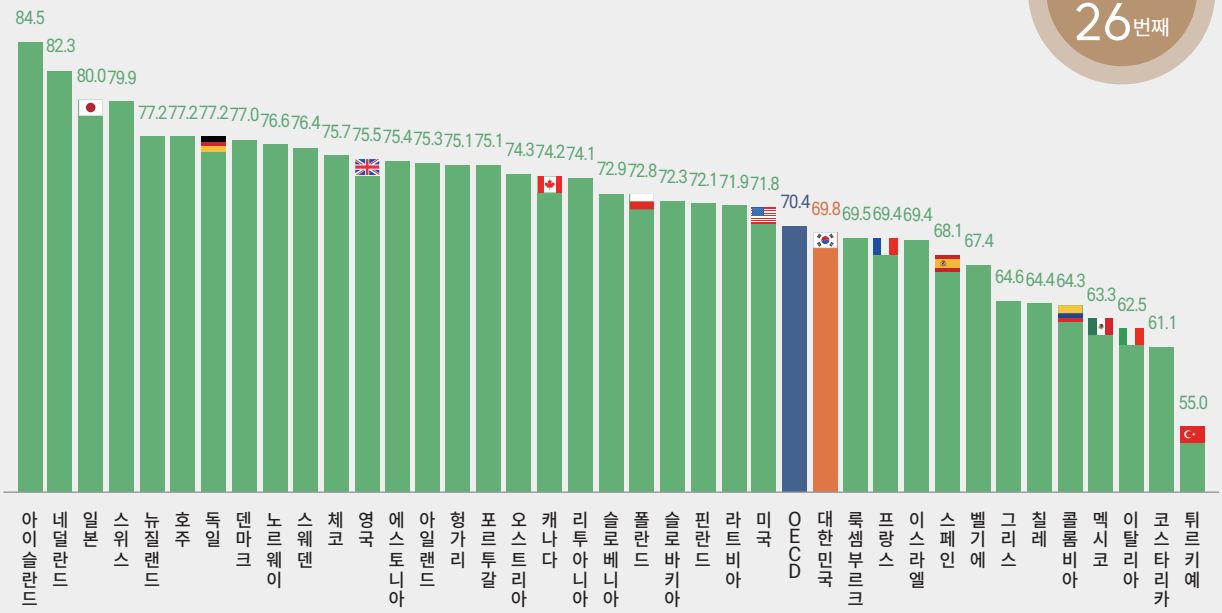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주) 위에서 15~64세 인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로서, 인구추계상의 인구에서 군인,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국가마다 산출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OECD에서는 각종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15~64세 인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고용률

'25년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9.8%로 OECD 38개국 중 26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고용률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77.3	77.7	78.4	78.9	79.4	80.0
독일	75.4	75.8	77.0	77.3	77.5	77.2
영국	75.1	74.7	75.5	75.7	75.5	75.5
캐나다	70.1	73.5	75.6	75.9	74.7	74.2
폴란드	68.8	70.4	71.5	72.4	72.5	72.8
미국	67.1	69.4	71.3	72.0	71.9	71.8
OECD	66.2	67.7	69.4	70.1	70.3	70.4
대한민국	65.9	66.5	68.5	69.2	69.5	69.8
프랑스	65.3	67.2	68.1	68.4	69.0	69.4
스페인	61.9	63.7	65.4	66.5	67.2	68.1
콜롬비아	55.0	57.9	61.6	63.0	62.9	64.3
멕시코	59.4	61.0	62.5	63.7	63.9	63.3
이탈리아	58.1	58.2	60.1	61.5	62.2	62.5
튀르키예	47.5	50.2	52.9	53.8	55.2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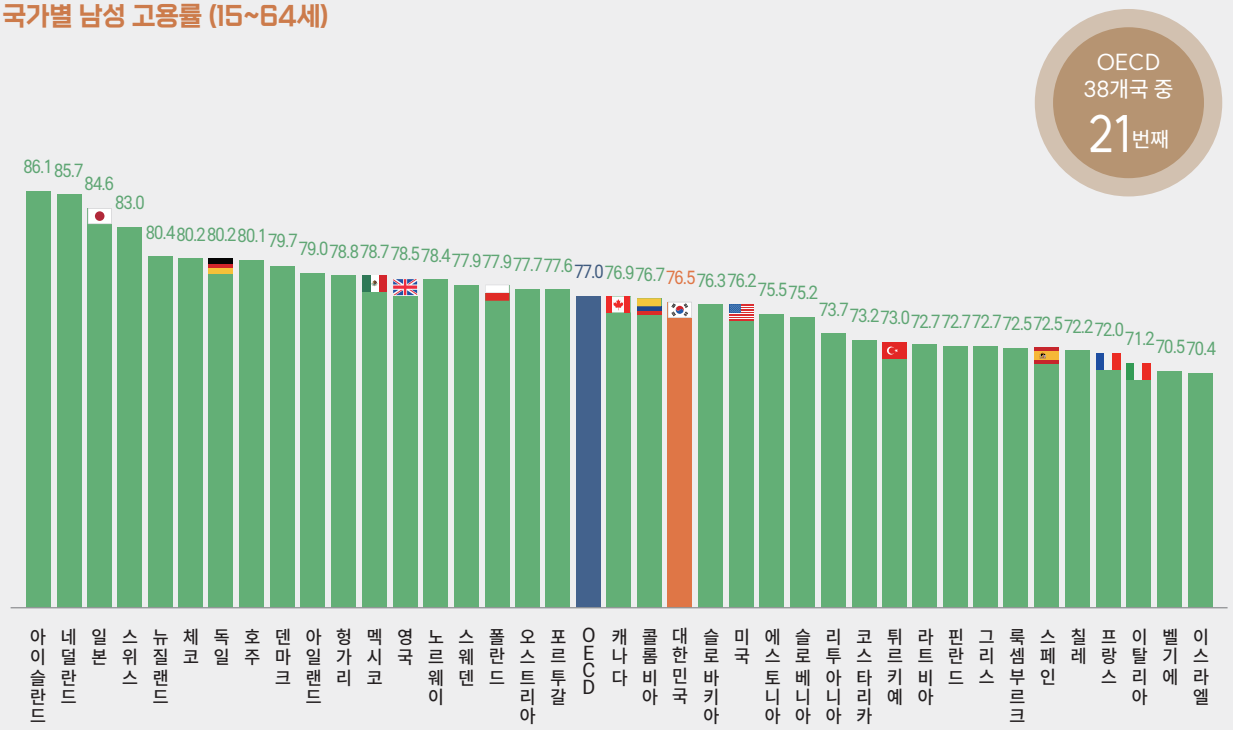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성별 고용률

'25년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6.5%, 여성은 63.0%로,
OECD 38개국 중 남성은 21, 여성은 31번째에 위치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남성고용률과 여성고용률 모두 낮은 편이다.

국가별 남성 고용률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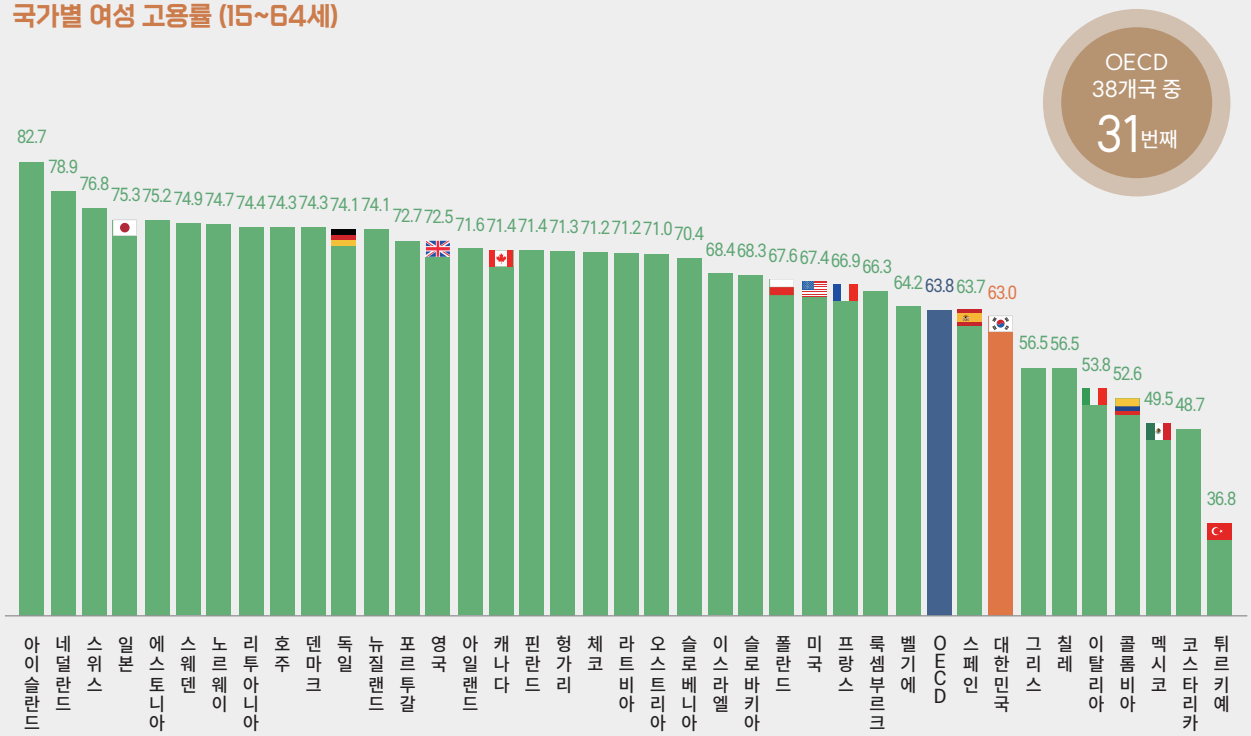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83.8	83.9	84.2	84.4	84.4	84.6
독일	78.9	79.3	80.5	80.7	80.7	80.2
멕시코	75.6	77.3	78.7	79.3	79.4	78.7
영국	78.5	78.0	78.8	79.3	78.7	78.5
폴란드	75.9	76.8	77.4	77.8	77.8	77.9
OECD	73.7	75.1	76.6	77.0	77.1	77.0
캐나다	73.3	76.5	78.4	78.7	77.4	76.9
콜롬비아	68.4	71.9	74.4	75.2	75.1	76.7
대한민국	74.8	75.2	76.9	76.9	76.8	76.5
미국	72.1	74.3	76.1	76.4	76.3	76.2
튀르키예	65.2	68.6	71.1	71.9	73.2	73.0
스페인	67.3	68.7	70.5	71.3	71.8	72.5
프랑스	68.5	70.1	70.8	71.0	71.6	72.0
이탈리아	67.2	67.1	69.2	70.4	71.1	71.2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국가별 여성 고용률 (15~64세)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70.6	71.3	72.4	73.3	74.2	75.3
독일	71.8	72.3	73.3	73.7	74.1	74.1
영국	71.7	71.5	72.2	72.2	72.2	72.5
캐나다	66.9	70.5	72.8	73.1	71.9	71.4
폴란드	61.6	64.0	65.5	66.9	67.2	67.6
미국	62.2	64.6	66.5	67.5	67.5	67.4
프랑스	62.2	64.5	65.6	66.0	66.4	66.9
OECD	58.8	60.4	62.3	63.2	63.6	63.8
스페인	56.6	58.6	60.2	61.7	62.6	63.7
대한민국	56.7	57.7	60.0	61.4	62.1	63.0
이탈리아	49.0	49.4	51.1	52.5	53.3	53.8
콜롬비아	42.4	44.6	49.5	51.4	51.3	52.6
멕시코	44.6	46.2	48.0	49.7	50.0	49.5
튀르키예	29.7	31.7	34.5	35.6	37.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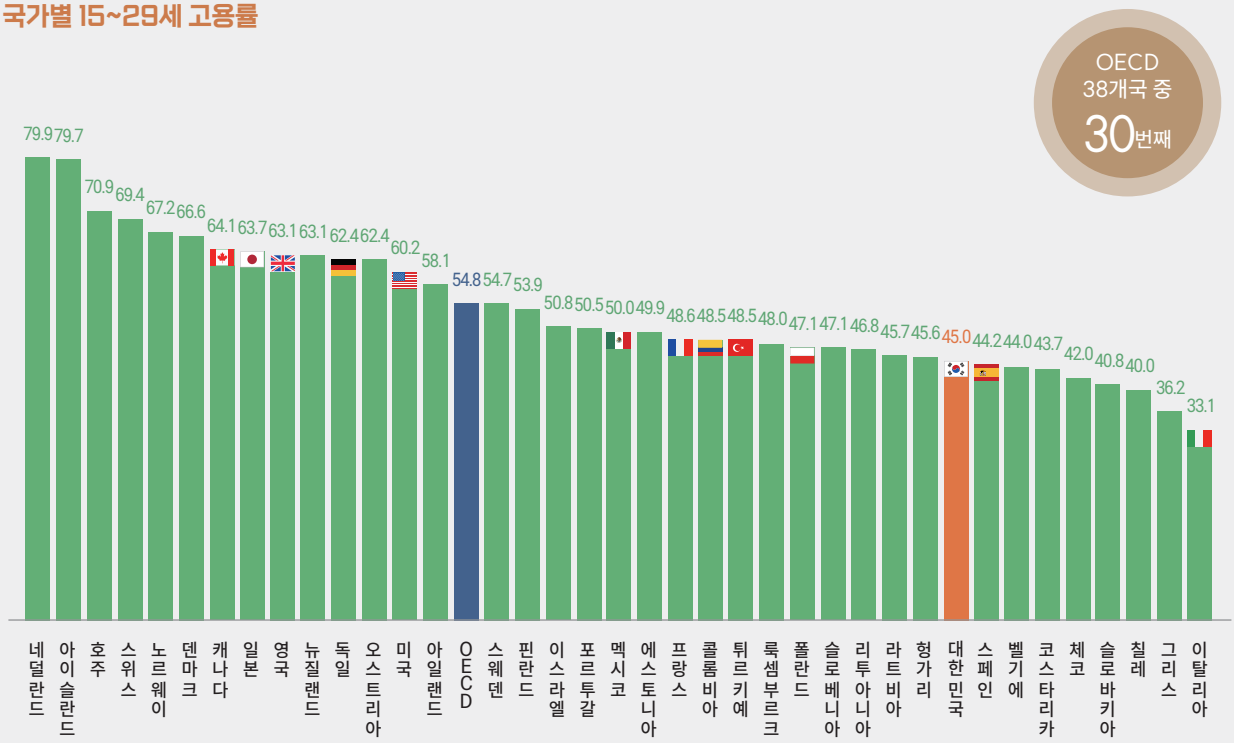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연령별 고용률

'25년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0%로 OECD 38개국 중 30번째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15~29세 고용률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캐나다	59.3	64.6	67.7	67.0	64.7	64.1
일본	60.0	60.6	61.0	61.8	62.8	63.7
영국	64.3	63.7	64.8	64.6	63.0	63.1
독일	59.5	59.9	61.7	62.4	62.9	62.4
미국	56.2	59.9	61.2	61.6	60.8	60.2
OECD	50.7	52.8	54.6	55.3	55.1	54.8
멕시코	47.8	49.3	50.4	51.2	51.3	50.0
프랑스	43.1	46.6	48.6	48.9	48.6	48.6
콜롬비아	41.0	43.6	46.7	47.8	47.2	48.5
튀르키예	37.9	41.1	44.1	46.4	47.9	48.5
폴란드	48.1	48.2	48.4	49.0	48.0	47.1
대한민국	42.2	44.2	46.6	46.5	46.1	45.0
스페인	36.4	38.8	41.7	42.7	43.2	44.2
이탈리아	29.8	31.1	33.8	34.7	34.4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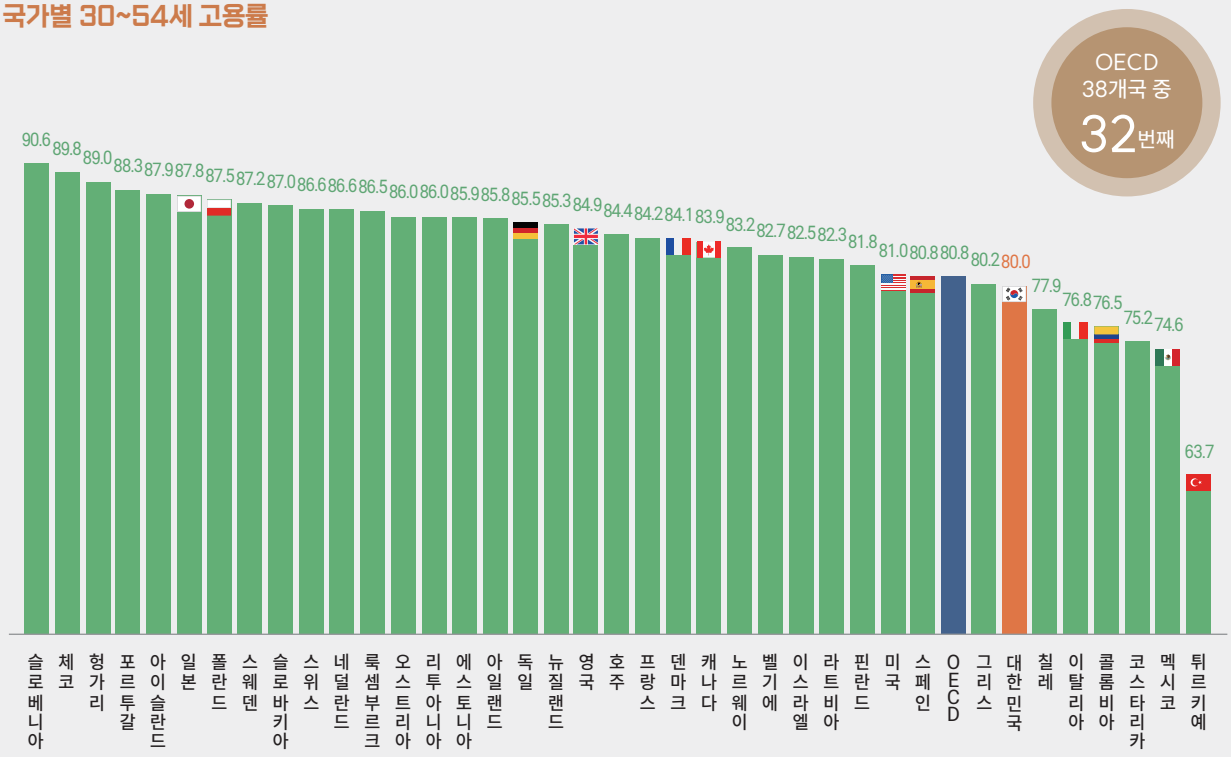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주 1) 15~29세 인구와 취업자수를 기초로 재산정

2) OECD에서는 연령별 고용률을 15~24세(청년), 25~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제시.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기준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OECD의 통계 DB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 고용률을 15~29세(청년), 30~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재산정

'25년 한국의 30~54세 중년 고용률은 80.0%로
OECD 38개국 중 32번째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30~5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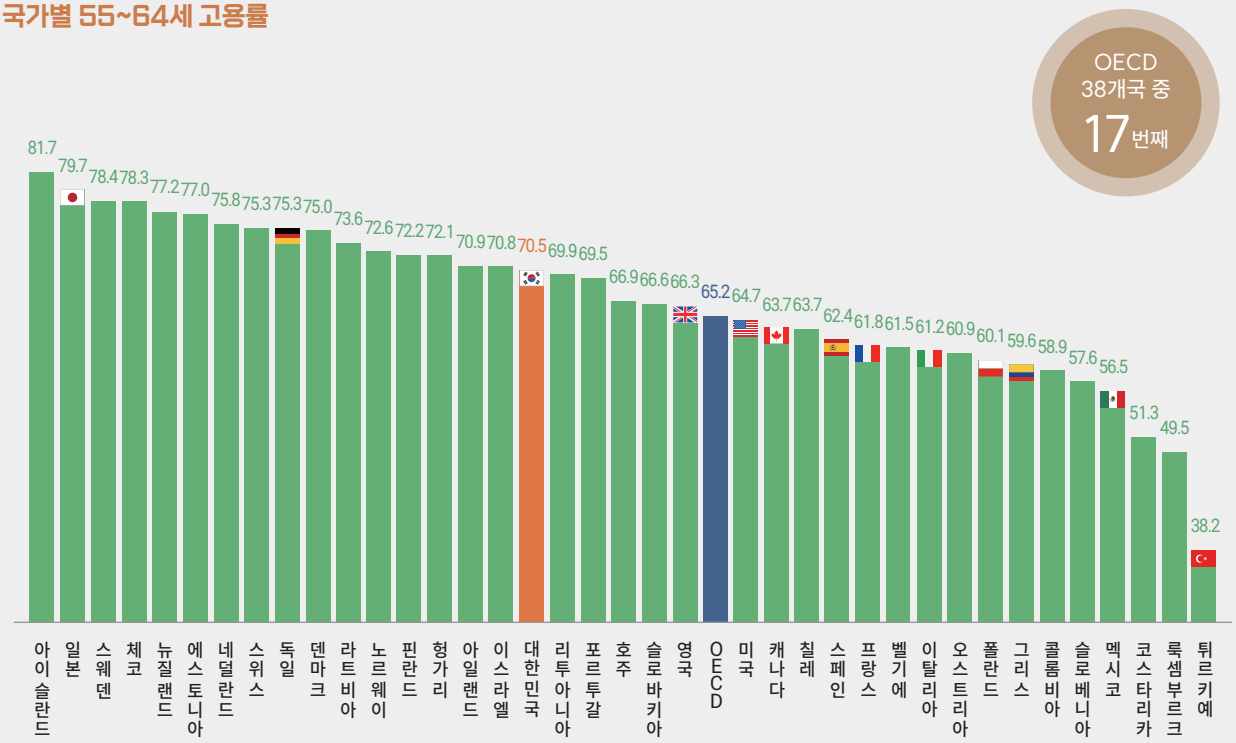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85.2	85.6	86.3	86.7	87.1	87.8
폴란드	84.3	85.6	86.4	86.9	87.1	87.5
독일	84.8	85.1	86.0	85.8	85.8	85.5
영국	84.4	84.4	85.0	85.2	85.0	84.9
프랑스	81.8	82.9	83.4	83.4	83.8	84.2
캐나다	80.4	83.0	85.1	85.4	84.4	83.9
미국	76.1	77.8	80.0	80.9	81.1	81.0
스페인	74.5	76.3	77.8	79.0	79.8	80.8
OECD	76.9	78.2	79.9	80.5	80.7	80.8
대한민국	76.3	76.6	78.0	78.9	79.4	80.0
이탈리아	71.9	72.2	74.1	75.5	76.3	76.8
콜롬비아	66.6	70.1	74.2	75.3	75.1	76.5
멕시코	70.0	71.8	73.4	74.7	74.8	74.6
튀르키예	58.0	60.6	63.3	63.3	64.3	63.7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25년 한국의 55~64세 장년 고용률은 70.5%로
OECD 38개국 중 17번째로 청년, 중년 고용률에 비해 높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55~64세 고용률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일본	76.7	76.9	78.1	78.7	79.1	79.7
독일	71.6	71.9	73.3	74.5	75.2	75.3
대한민국	66.6	66.3	68.8	69.9	69.9	70.5
영국	65.3	64.5	64.2	65.0	66.3	66.3
OECD	60.3	61.2	62.9	64.0	64.6	65.2
미국	60.3	61.9	63.5	64.2	64.1	64.7
캐나다	60.4	62.8	63.2	64.7	64.4	63.7
스페인	54.7	55.8	57.7	59.5	61.1	62.4
프랑스	53.8	55.9	56.9	58.4	60.4	61.8
이탈리아	54.0	53.4	55.0	57.3	59.0	61.2
폴란드	51.9	54.7	56.5	58.1	59.0	60.1
콜롬비아	51.1	51.7	55.2	57.5	57.5	58.9
멕시코	52.3	53.1	55.6	56.9	57.0	56.5
튀르키예	31.1	33.4	35.2	36.6	38.8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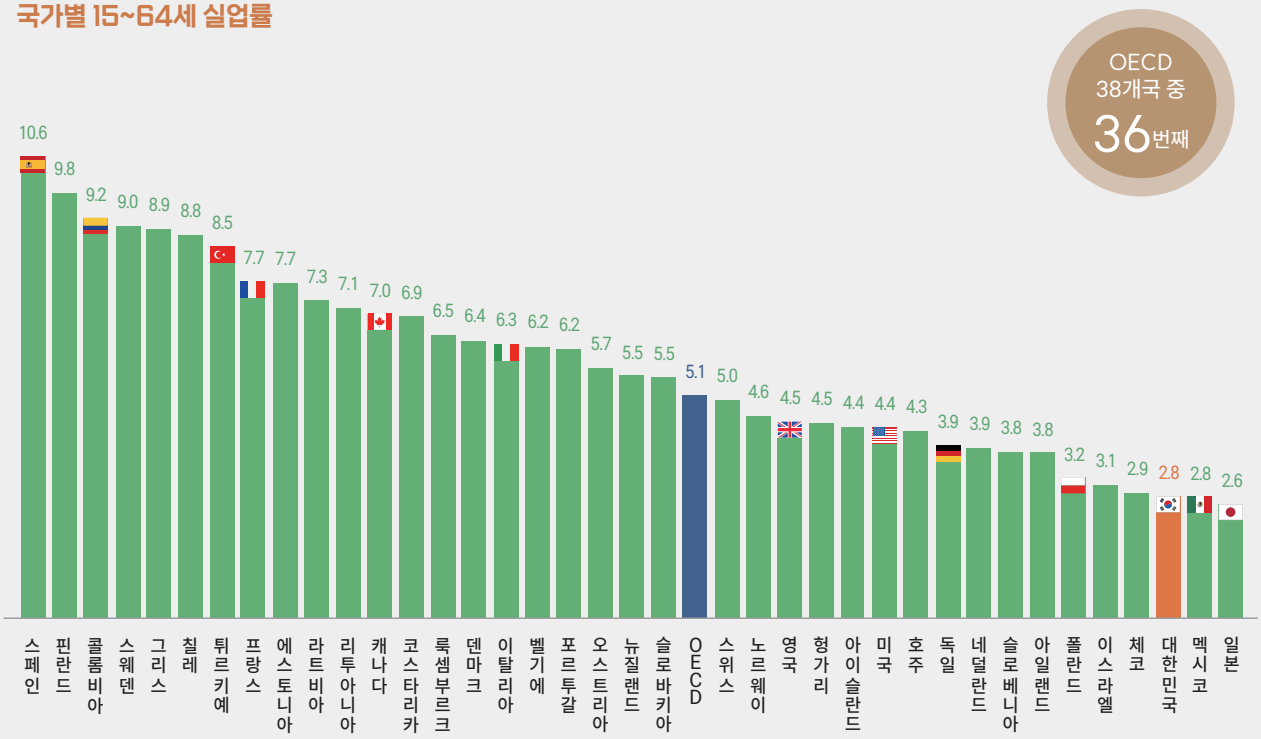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실업률

'25년 15~64세 실업률에서 한국은 2.8%로 OECD 38개국 중 36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15~64세 실업률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스페인	15.6	15.0	13.1	12.3	11.4	10.6
콜롬비아	16.9	14.1	11.5	10.4	10.5	9.2
튀르키예	13.4	12.2	10.6	9.6	8.9	8.5
프랑스	8.1	7.9	7.4	7.4	7.5	7.7
캐나다	9.7	7.5	5.3	5.5	6.5	7.0
이탈리아	9.4	9.7	8.2	7.8	6.6	6.3
OECD	7.3	6.3	5.1	5.0	5.0	5.1
영국	4.7	4.5	3.6	3.8	3.8	4.5
미국	8.1	5.4	3.7	3.7	4.1	4.4
독일	4.0	3.7	3.2	3.1	3.5	3.9
폴란드	3.2	3.4	2.9	2.9	2.9	3.2
대한민국	4.0	3.6	2.9	2.7	2.8	2.8
멕시코	4.5	4.3	3.4	2.9	2.8	2.8
일본	3.0	3.0	2.7	2.7	2.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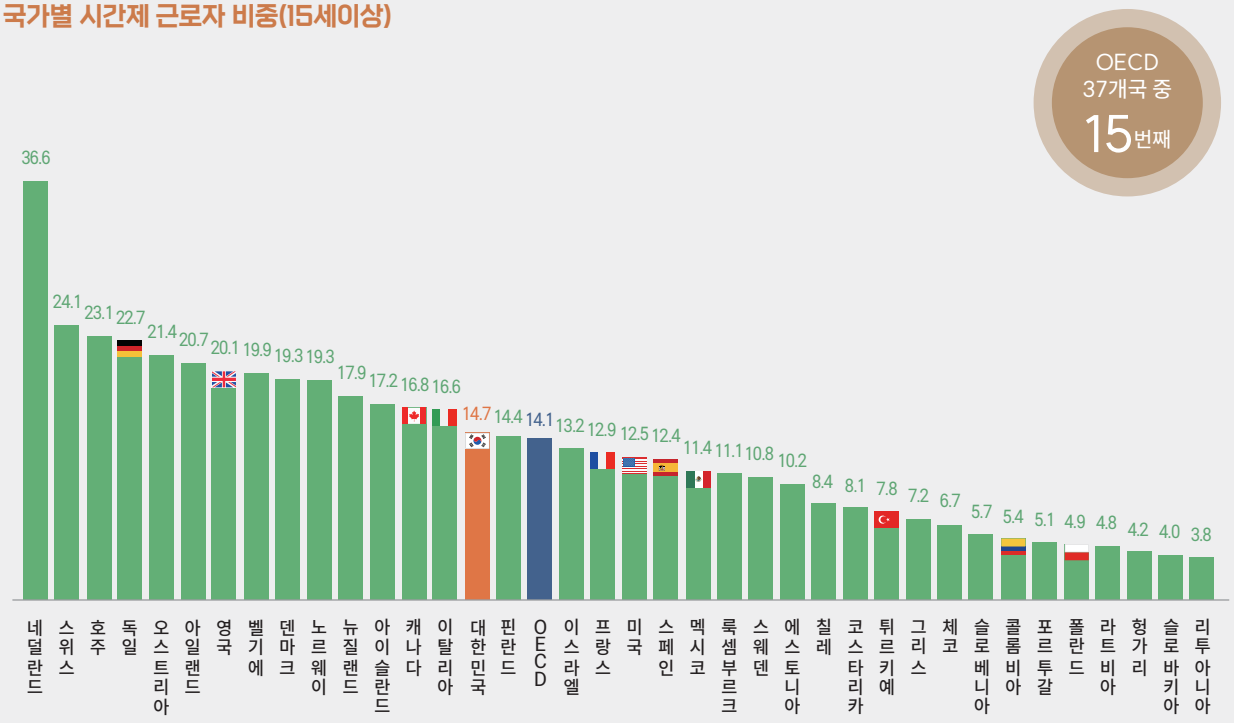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y five-year age group and sex - levels

(단위: %)

고용구조

OECD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25년 한국은 14.7%로 37개국 중 15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시간제 근로자 비중(15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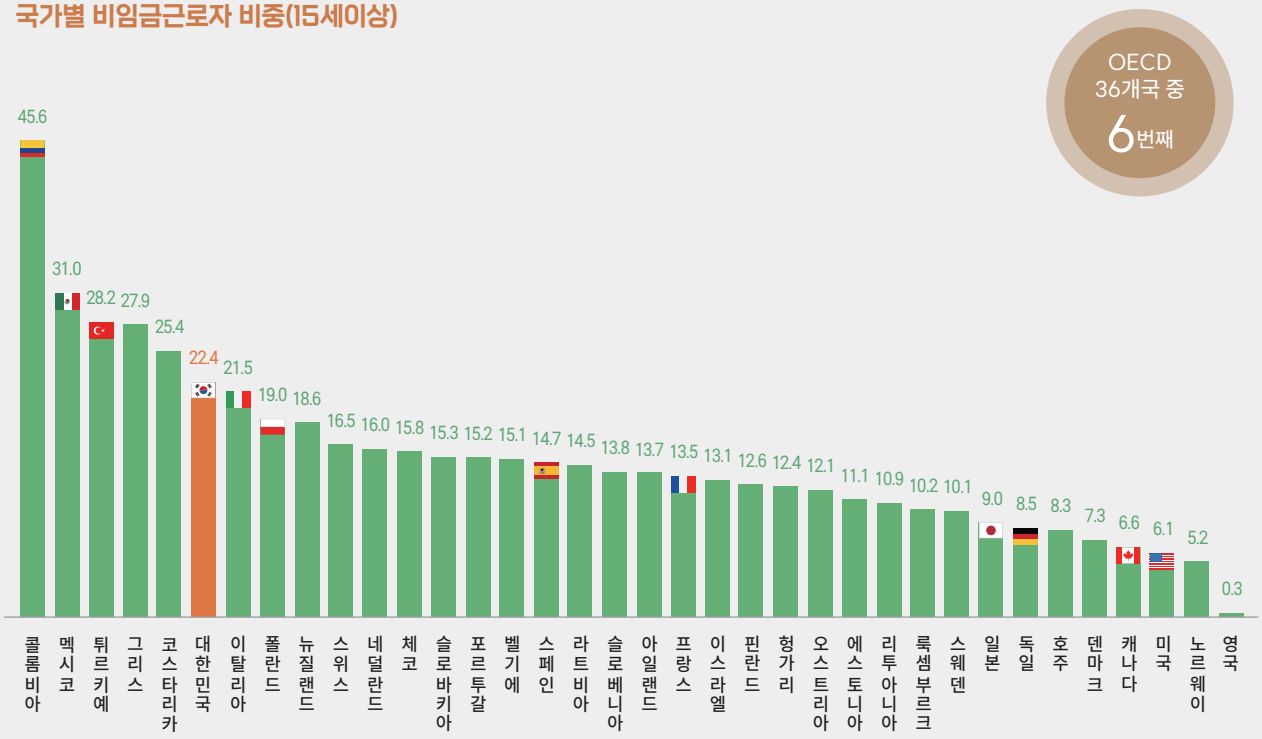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독일	22.5	22.1	22.2	22.5	22.5	22.7
영국	21.3	20.3	20.5	20.3	20.4	20.1
캐나다	16.5	17.0	16.7	16.7	16.9	16.8
이탈리아	19.2	18.2	17.7	17.5	16.8	16.6
대한민국	12.7	13.4	13.3	13.8	14.7	14.7
OECD	14.1	13.9	13.7	13.8	14.1	14.1
프랑스	12.8	13.5	12.7	12.9	12.9	12.9
미국	11.7	11.7	11.7	11.9	12.4	12.5
스페인	12.8	13.7	12.9	12.5	12.7	12.4
멕시코	11.4	11.5	10.8	11.2	11.5	11.4
튀르키예	6.1	5.0	5.0	5.5	6.5	7.8
콜롬비아	5.7	5.2	5.4	5.6	5.5	5.4
폴란드	5.1	4.6	4.4	4.7	4.7	4.9

자료: OECD, Incidence of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based on OECD-harmonized definition (단위: %)
주 1) 시간제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한국은 경활 임금근로자 자료를 통해 별도로 포함
2) 그래프 상의 OECD 평균(14.1%)은 한국을 포함한 단순평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인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다. '25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4%로 OECD 36개국 중 6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국가별 비임금근로자 비중(15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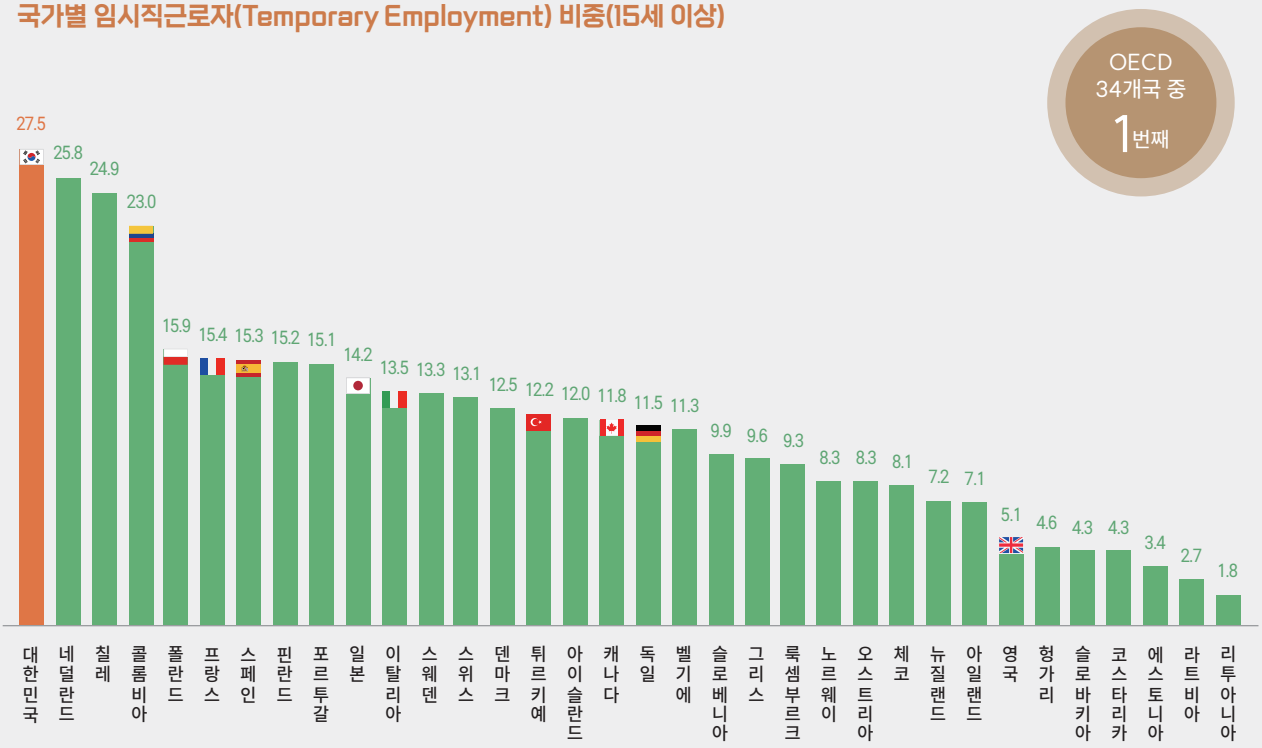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콜롬비아	51.2	48.9	47.1	46.6	45.8	45.6
멕시코	30.4	31.8	31.8	31.4	30.8	31.0
튀르키예	30.2	30.1	29.3	28.6	28.8	28.2
대한민국	24.4	23.9	23.5	23.2	22.9	22.4
이탈리아	22.5	21.8	21.5	21.4	21.2	21.5
폴란드	19.9	19.5	19.6	19.9	19.0	19.0
스페인	16.1	15.9	15.4	15.2	14.8	14.7
프랑스	12.4	12.6	13.1	12.9	13.3	13.5
일본	10.0	9.9	9.6	9.5	9.2	9.0
독일	-	9.1	8.9	8.7	8.5	8.5
캐나다	8.4	7.6	7.2	6.8	6.7	6.6
미국	6.3	6.6	6.3	6.1	6.2	6.1
영국	0.3	0.3	0.2	0.3	0.3	0.3

자료: OECD, Annual labour force survey, summary tables
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단위: %)

OECD국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임시직근로자 비중을 볼 수 있다.(국가별 임시직의 정의는 차이가 있음) '25년 한국은 27.5%로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비중(15세 이상)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한민국	26.1	28.3	27.3	26.7	26.9	27.5
콜롬비아	27.1	26.1	26.4	25.4	24.3	23.0
폴란드	18.7	15.2	15.6	15.5	15.1	15.9
프랑스	15.4	15.1	16.2	15.7	15.4	15.4
스페인	24.1	25.2	21.3	17.2	15.9	15.3
일본	15.4	15.0	15.0	14.9	14.6	14.2
이탈리아	15.0	16.4	16.8	16.0	14.7	13.5
튀르키예	10.9	11.6	10.7	11.0	11.8	12.2
캐나다	11.4	12.0	11.9	11.6	11.2	11.8
독일	10.9	11.3	12.3	11.9	11.4	11.5
영국	5.4	5.6	5.4	5.3	4.7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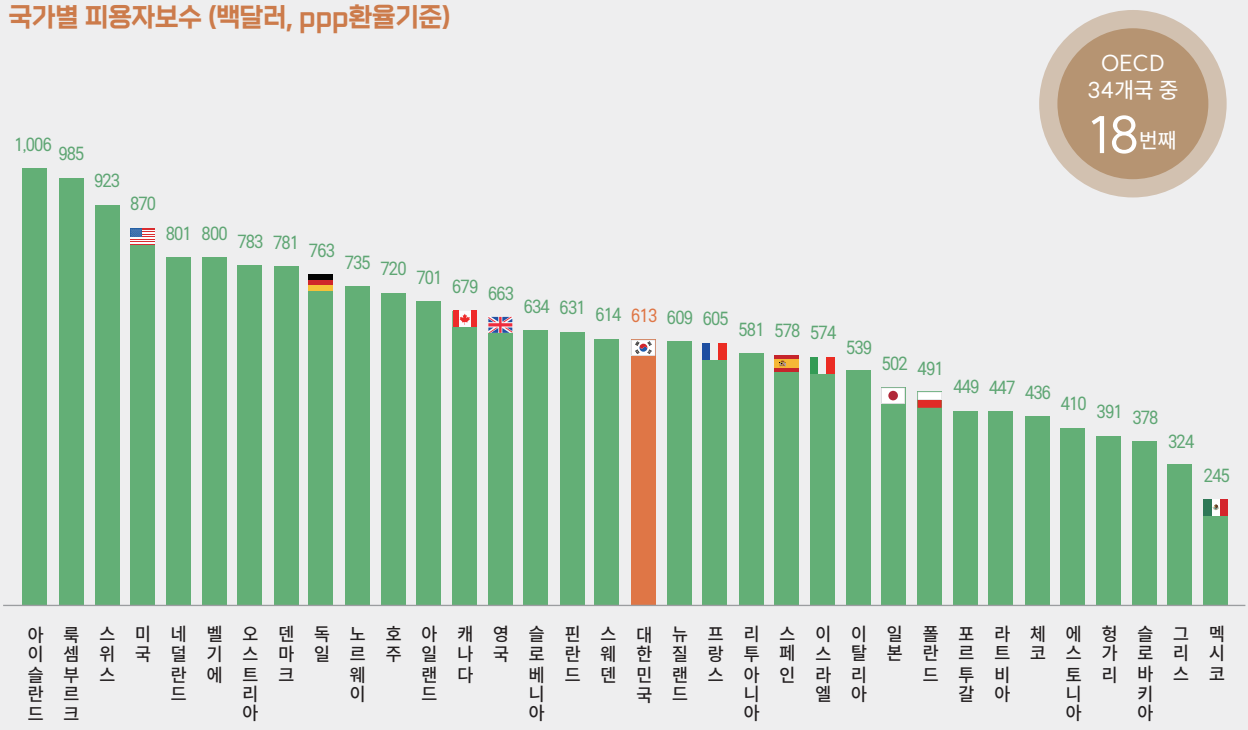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 Incidence,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자료 활용 (단위: %)
주 1) 임시직근로자의 국가별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주요국의 임시직 기준: 한국(기간제+단기기대+파견+일일근로), 캐나다(종료일이 정해진 경우), 일본(1년미만 기간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14개국(일의 종료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경우)

근로조건

피용자보수

OECD국가들의 1인당 피용자보수를 실질구매력 기준인 US$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25년 한국은 연간 61,259달러로 OECD 34개국 중 18번째이다.

국가별 피용자보수 (백달러, ppp환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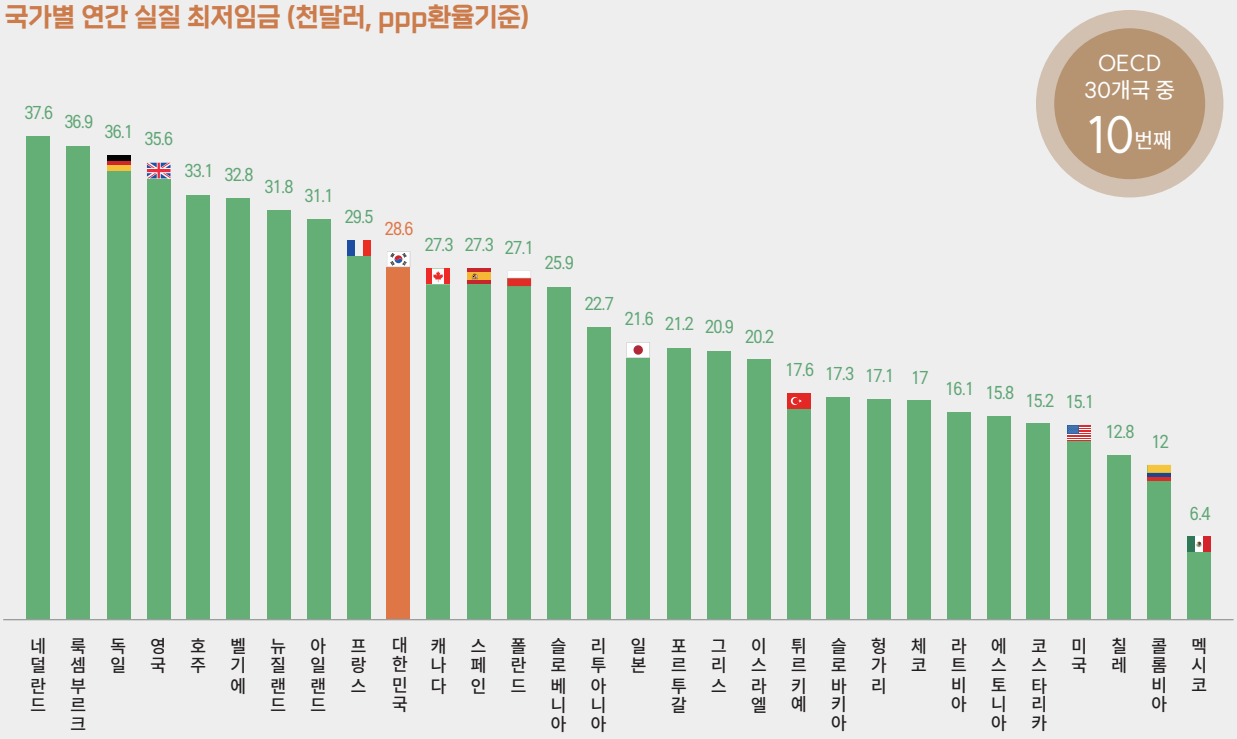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미국	85,171	86,696	84,215	83,866	85,546	86,977
독일	74,807	74,657	73,054	72,953	74,854	76,285
캐나다	68,086	68,434	67,334	67,036	67,768	67,901
영국	65,541	66,466	65,135	64,603	65,842	66,299
대한민국	59,419	59,842	58,697	59,198	60,909	61,259
프랑스	58,327	60,852	61,044	59,611	59,865	60,483
스페인	55,380	57,625	56,683	56,286	57,083	57,779
이탈리아	52,901	55,577	53,955	52,732	53,243	53,864
일본	51,294	51,823	51,129	49,970	50,421	50,183
폴란드	42,179	41,926	41,289	43,103	46,916	49,074
멕시코	22,465	22,171	21,902	23,149	24,140	24,463

자료: OECD, Average annual wages, 단위 US달러(PPP환율 기준) (단위: US$)
주)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 국가별 임금수준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실질 최저임금

'25년 OECD국가들의 연간 실질최저임금액을 보면 한국은 28,581달러로 30개국 중 10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실질 최저임금 (천달러, ppp환율기준)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독일	31,424	31,495	31,323	34,828	35,031	36,073
영국	32,283	32,493	31,757	32,421	34,436	35,631
프랑스	29,126	29,100	29,106	29,258	29,315	29,518
대한민국	28,543	28,268	28,257	28,645	28,694	28,581
캐나다	27,022	26,747	26,136	26,453	27,135	27,343
스페인	26,711	25,910	25,162	26,248	26,816	27,270
폴란드	21,846	22,395	21,039	22,217	25,791	27,139
일본	20,300	20,528	20,661	20,722	21,084	21,568
튀르키예	13,491	13,713	14,023	16,932	18,246	17,587
미국	18,769	17,930	16,603	15,945	15,488	15,080
콜롬비아	10,537	10,538	10,527	10,929	11,489	11,965
멕시코	3,706	4,033	4,560	5,185	5,941	6,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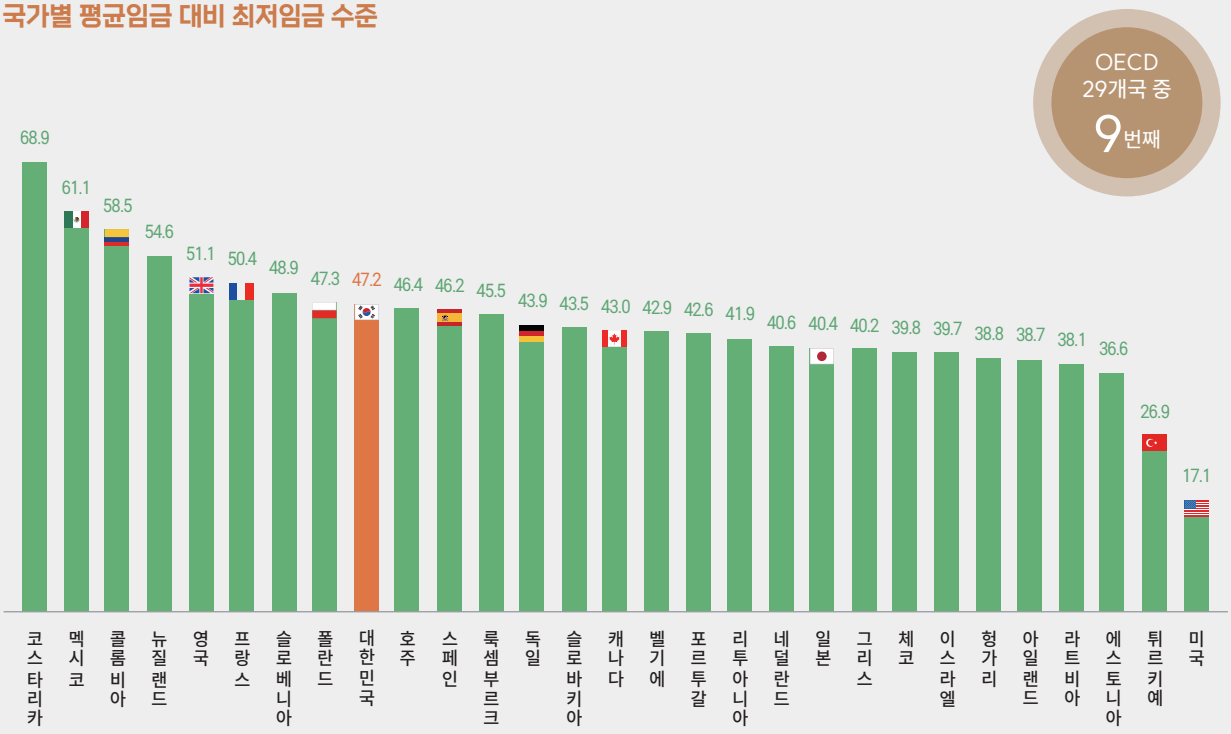
자료:OECD, Real minimum wages at constant prices, 단위 US달러(PPP환율 기준)

(단위: US$)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5년 OECD국가들의 평균임금(Me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한국은 47.2%로 29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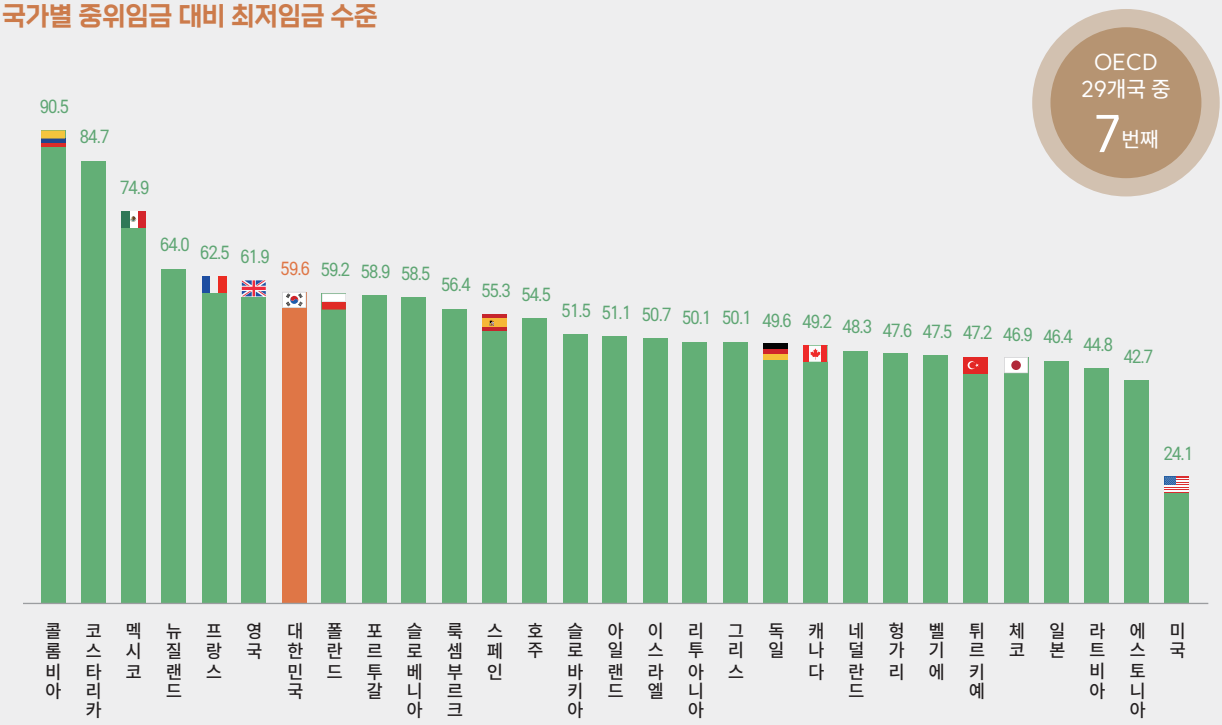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멕시코	41.3	45.0	51.1	55.2	59.2	61.1
콜롬비아	58.3	58.4	53.7	55.2	57.0	58.5
영국	47.6	47.6	48.6	49.6	51.0	51.1
프랑스	49.4	49.2	49.1	50.2	50.4	50.4
폴란드	45.2	43.9	43.0	44.0	46.6	47.3
대한민국	49.6	48.9	47.8	48.1	47.9	47.2
스페인	43.1	40.5	42.6	44.0	46.2	46.2
독일	41.2	39.9	40.8	45.2	44.5	43.9
캐나다	43.0	43.0	43.1	43.1	43.2	43.0
일본	38.8	38.9	39.8	40.5	40.7	40.4
튀르키예	39.4	40.2	37.6	32.7	29.3	26.9
미국	21.1	20.5	19.1	18.3	17.7	17.1

자료: OECD,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단위: %)
주)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5년 OECD국가들의 중위임금(Medi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한국은 59.6%로 29개국 중 7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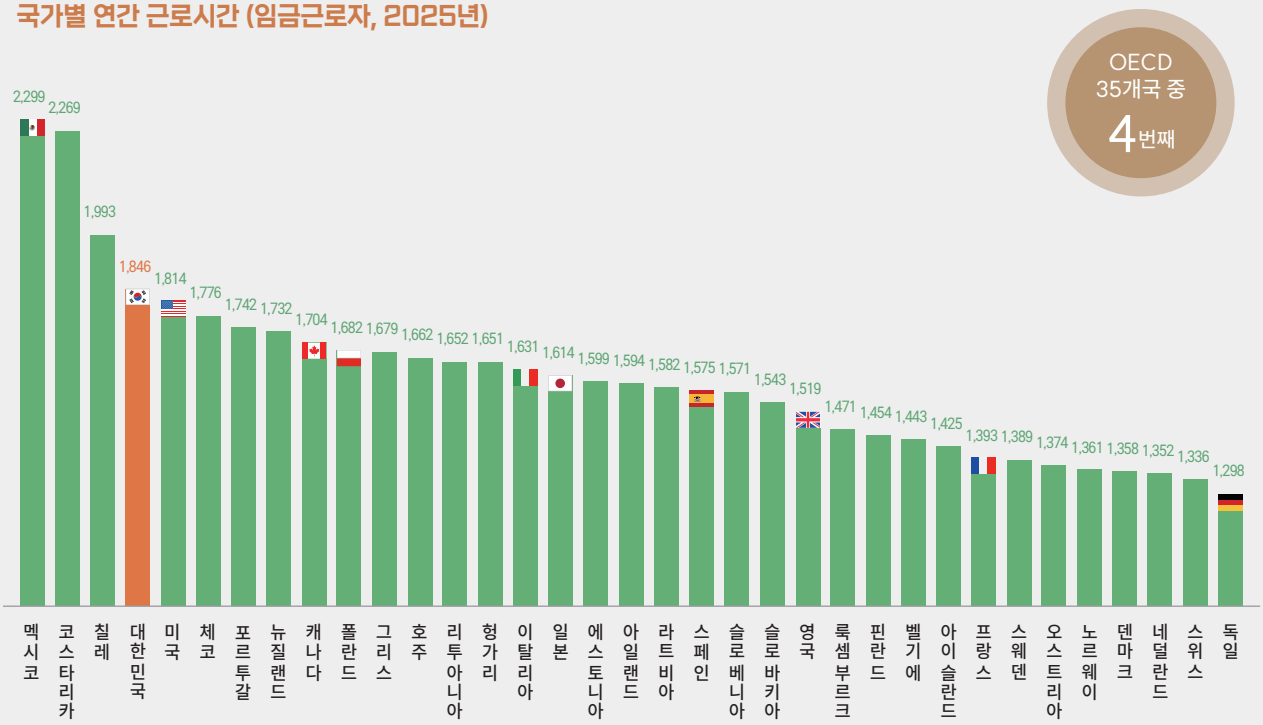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콜롬비아	90.7	90.9	89.9	91.3	92.3	90.5
멕시코	51.3	56.7	63.0	68.3	73.7	74.9
프랑스	61.2	61.0	60.9	62.2	62.5	62.5
영국	57.6	57.0	57.9	59.2	61.1	61.9
대한민국	62.5	61.4	60.9	60.9	60.5	59.6
폴란드	55.3	53.8	52.8	54.0	58.4	59.2
스페인	51.5	48.5	51.0	52.6	55.2	55.3
독일	46.2	45.3	46.4	51.0	50.1	49.6
캐나다	48.9	48.9	49.1	49.6	49.9	49.2
튀르키예	69.1	70.4	66.0	57.4	51.3	47.2
일본	44.7	44.5	45.4	46.1	46.8	46.4
미국	29.5	29.1	27.4	26.0	25.0	24.1

자료: OECD,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단위: %)
주)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 및 취업시간

'25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1,846시간으로 35개국 중 4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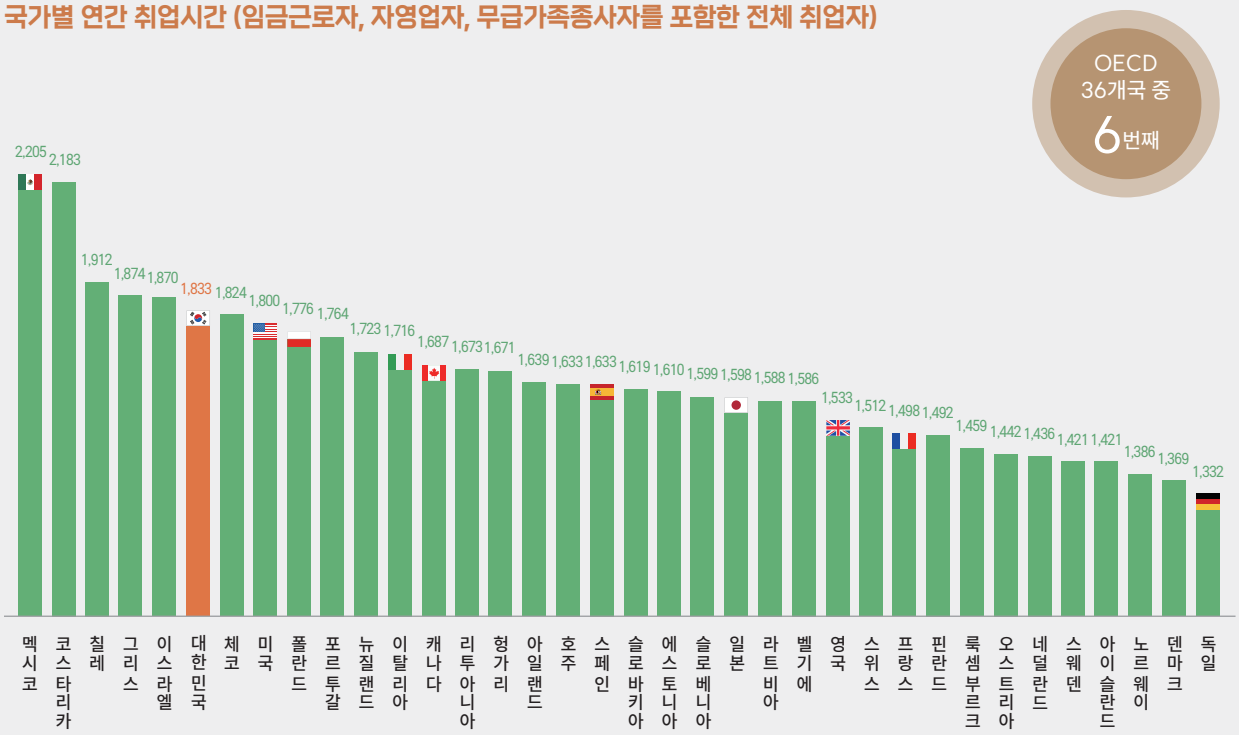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멕시코	1,745	2,328	2,335	2,323	2,308	2,299
대한민국	1,927	1,928	1,904	1,874	1,859	1,846
미국	1,819	1,833	1,821	1,817	1,810	1,814
캐나다	1,681	1,711	1,709	1,711	1,714	1,704
폴란드	1,692	1,725	1,713	1,706	1,691	1,682
이탈리아	1,444	1,559	1,596	1,620	1,628	1,631
일본	1,617	1,627	1,626	1,630	1,636	1,614
스페인	1,513	1,567	1,592	1,585	1,582	1,575
영국	1,365	1,487	1,516	1,508	1,522	1,519
프랑스	1,287	1,364	1,392	1,397	1,403	1,393
독일	1,271	1,299	1,301	1,300	1,298	1,298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단위: 시간)

'25년 OECD국가들의 전체취업자(Total Employment)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1,833시간으로 36개국 중 6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취업시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멕시코	2,231	2,235	2,246	2,228	2,215	2,205
대한민국	1,907	1,910	1,900	1,872	1,865	1,833
미국	1,800	1,819	1,810	1,805	1,796	1,800
폴란드	1,779	1,828	1,818	1,807	1,786	1,776
이탈리아	1,514	1,653	1,691	1,709	1,715	1,716
캐나다	1,658	1,691	1,693	1,694	1,697	1,687
스페인	1,563	1,634	1,654	1,645	1,644	1,633
일본	1,597	1,607	1,607	1,611	1,617	1,598
영국	1,364	1,498	1,532	1,524	1,538	1,533
프랑스	1,391	1,469	1,498	1,503	1,509	1,498
독일	1,314	1,341	1,343	1,339	1,334	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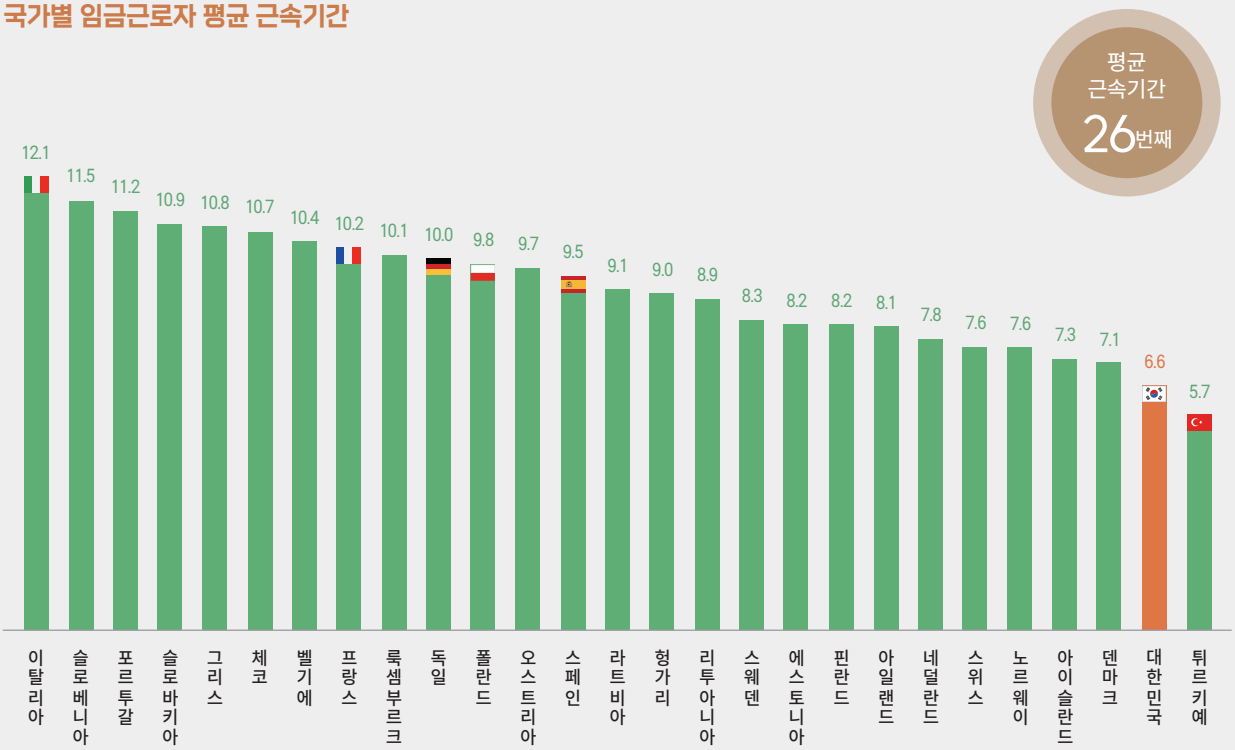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단위: 시간)

근속기간

'25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에서 한국은 6.6년으로 27개국 중 26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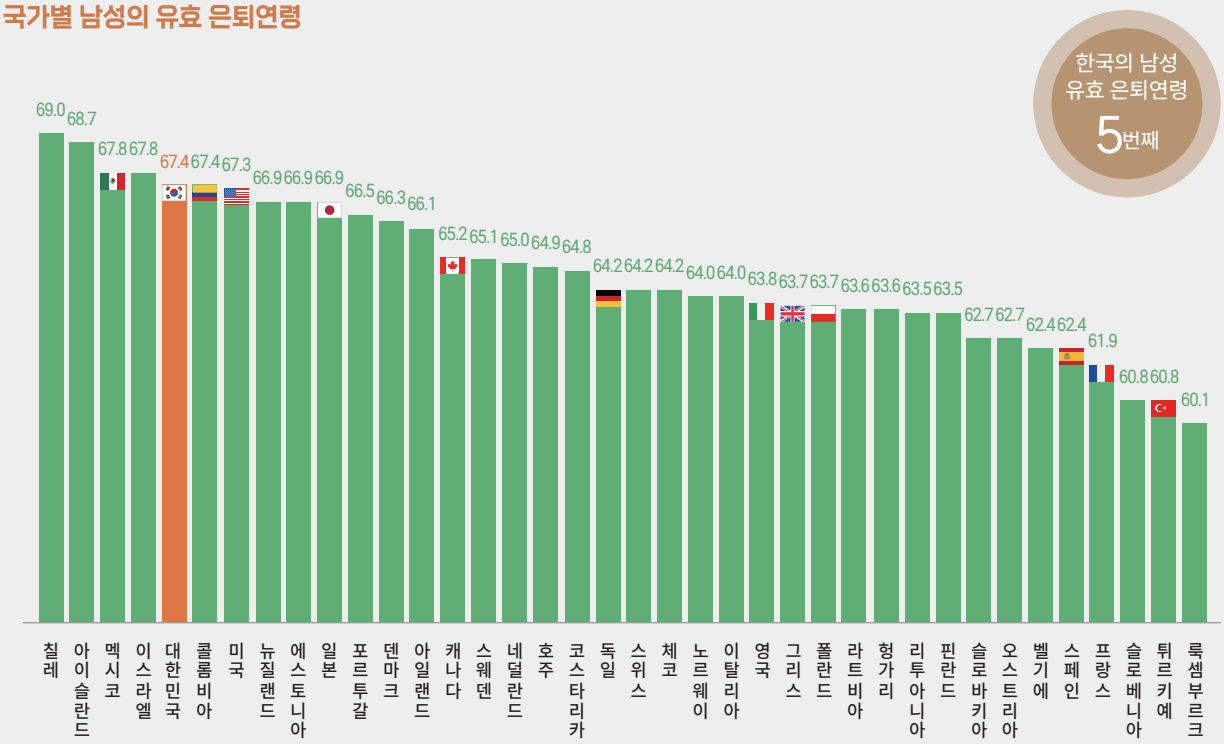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탈리아	12.4	12.0	11.7	11.7	11.8	12.1
프랑스	11.0	10.7	10.6	10.4	10.3	10.2
독일	10.8	10.5	10.3	10.1	10.1	10.0
폴란드	9.8	9.9	9.9	10.0	9.9	9.8
스페인	10.6	10.4	10.1	10.0	9.7	9.5
대한민국	6.0	5.9	6.0	6.2	6.4	6.6
튀르키예	6.0	5.8	5.7	5.7	5.6	5.7

자료: OECD, Employment by job tenure intervals – average job tenure,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단위: 연)

은퇴연령

'24년('19~'24년 5년평균) OECD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에서 38개국 중 한국 남성은 67.4세(5위), 한국 여성은 69.6세(1위)로 모두 OECD 평균 은퇴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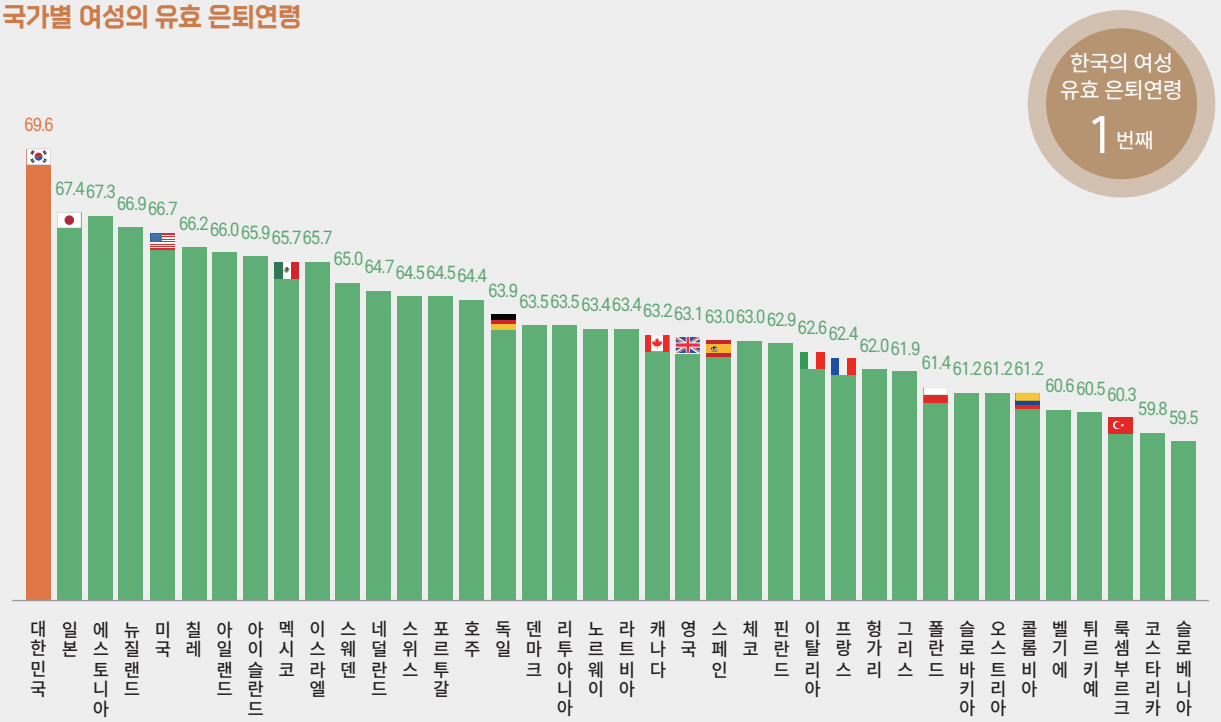
국가별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멕시코	67.6	66.2	66.8	66.9	67.8	67.8
대한민국	66.6	65.7	65.3	65.4	65.8	67.4
콜롬비아	68.9	66.7	67.8	67.8	67.8	67.4
미국	65.3	64.9	64.8	65.2	65.5	67.3
일본	67.7	68.2	67.9	68.3	66.8	66.9
캐나다	64.7	63.9	64.7	64.9	65.6	65.2
독일	63.4	63.1	63.4	63.7	64.0	64.2
이탈리아	62.6	62.3	61.9	63.0	63.5	64.0
영국	63.4	63.6	63.5	63.2	63.7	63.8
폴란드	61.9	62.2	63.8	64.2	64.0	63.7
스페인	61.5	61.0	61.5	62.1	62.1	62.4
프랑스	60.0	60.4	61.0	60.7	61.0	61.9
튀르키예	61.5	60.7	61.3	61.5	61.0	60.8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단위: 세)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직전 5년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장 이탈연령임(예: '24년은 '19~'24년 기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국가별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한민국	67.9	64.9	66.0	67.4	69.9	69.6
일본	67.1	66.9	66.7	67.0	67.3	67.4
미국	64.8	64.7	65.2	65.3	65.5	66.7
멕시코	64.9	62.5	63.7	65.6	66.9	65.7
독일	63.3	63.1	62.9	63.4	63.8	63.9
캐나다	63.0	62.6	63.8	63.5	63.6	63.2
영국	62.8	63.1	62.9	62.8	63.1	63.1
스페인	61.2	60.4	61.2	61.8	62.6	63.0
이탈리아	61.7	61.3	61.4	62.0	62.7	62.6
프랑스	60.4	60.9	61.5	62.2	62.2	62.4
폴란드	59.6	60.1	60.8	61.2	61.2	61.4
콜롬비아	62.3	60.3	61.1	60.7	61.0	61.2
튀르키예	62.6	59.3	59.6	60.2	59.2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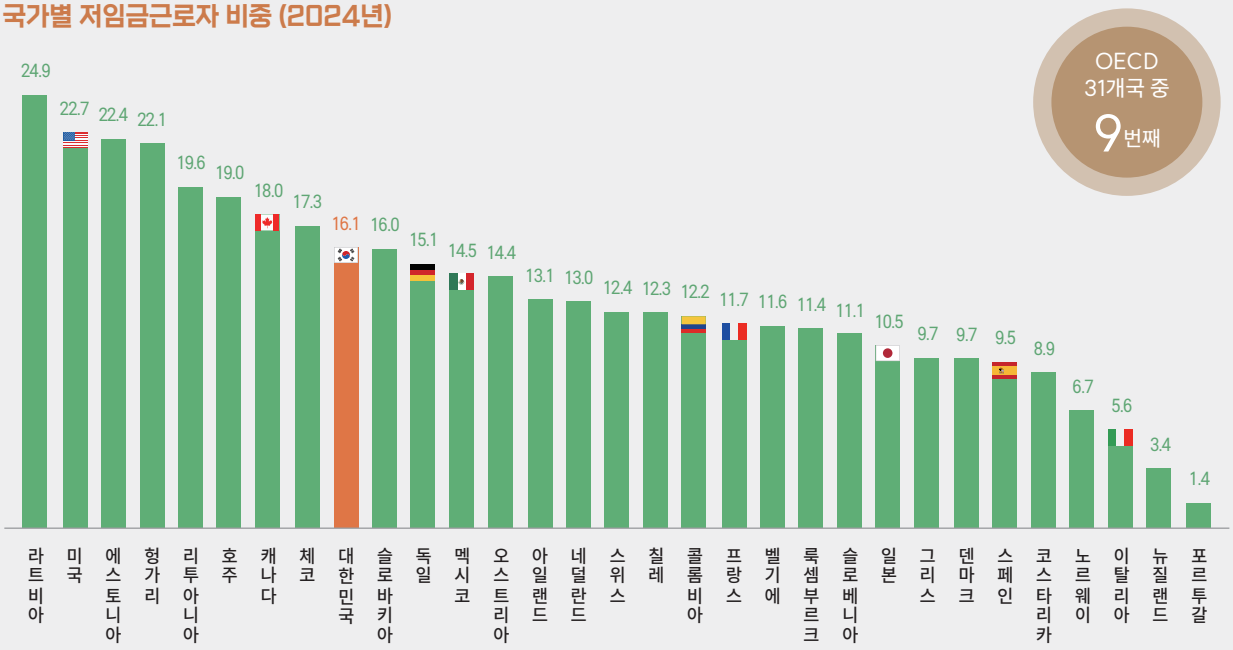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단위: 세)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직전 5년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장 이탈연령임(예: '24년은 '19~'24년 기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3. 분배지표

저임금근로자 비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중위임금(Median)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24년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 한국은 16.1%로 31개국 중 9번째로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국가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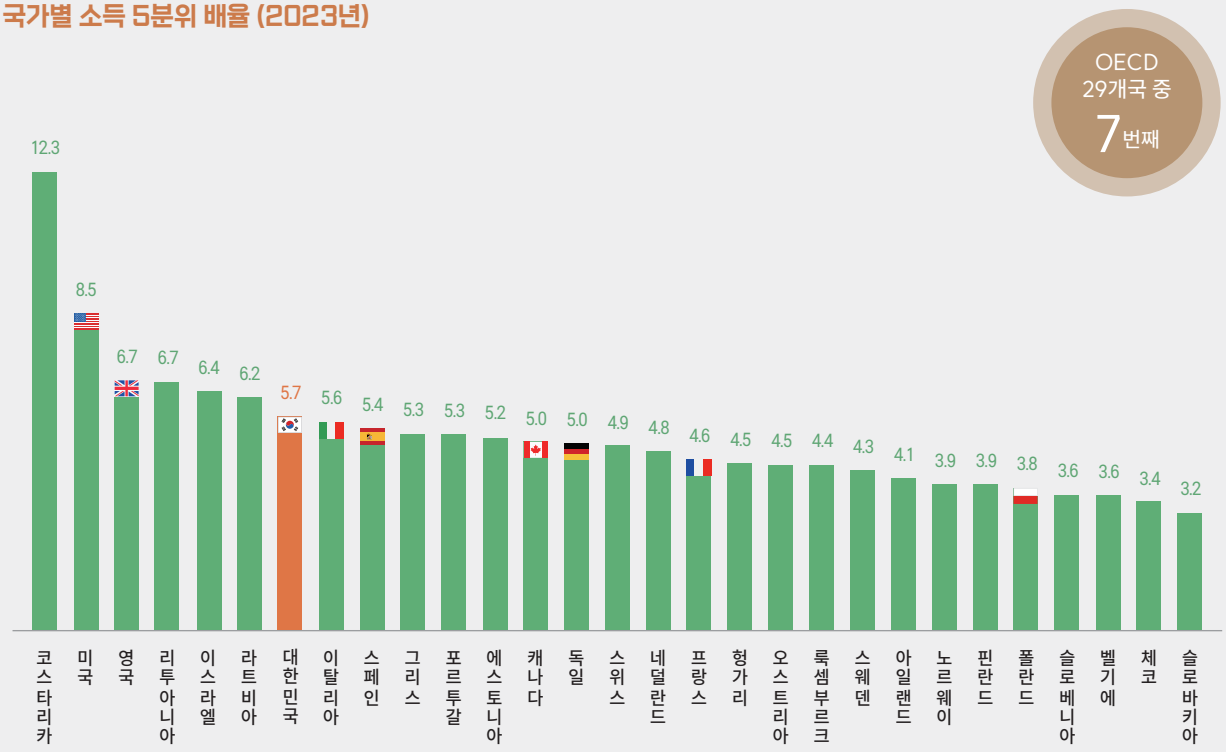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국	23.4	23.8	22.7	22.7	23.3	22.7
캐나다	19.4	18.7	19.5	19.1	19.2	18.0
대한민국	17.0	16.0	15.6	16.9	16.2	16.1
독일	17.8	17.5	16.2	16.4	31.7	15.1
멕시코	17.1	16.9	13.2	15.7	17.5	14.5
콜롬비아	11.7	12.8	11.4	12.2	12.6	12.2
프랑스	-	-	-	12.6	12.4	11.7
일본	11.8	10.9	10.7	10.3	10.4	10.5
스페인	-	-	-	11.4	9.8	9.5
이탈리아	-	-	-	6.2	5.9	5.6

자료: OECD,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단위: 세)
주 1)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
2)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 분배관련 지표는 나라마다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통계 등 출처가 다양하고, 대상자의 범위도 다양하여 직접비교 시 주의,
예) 일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여만을 기준으로 지표 산정

소득 5분위 배율

'23년 한국의 가계소득 5분위 기준 상위20%(5분위)/하위20%(1분위)의 배율은 5.7배로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높다.

국가별 소득 5분위 배율 (2023년)



국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미국	8.4	8.4	7.5	7.2	8.6	8.5
영국	6.5	6.5	6.1	6.2	6.4	6.7
대한민국	6.4	6.2	5.8	5.8	5.8	5.7
이탈리아	6.0	5.8	5.9	5.7	5.4	5.6
스페인	5.9	5.7	6.1	5.6	5.5	5.4
캐나다	4.9	4.8	4.2	4.6	4.9	5.0
독일	4.4	4.6	4.9	5.1	5.0	5.0
프랑스	-	-	4.1	4.5	4.5	4.6
폴란드	4.3	4.0	4.0	3.9	4.1	3.8
일본	6.2	-	-	6.4	-	-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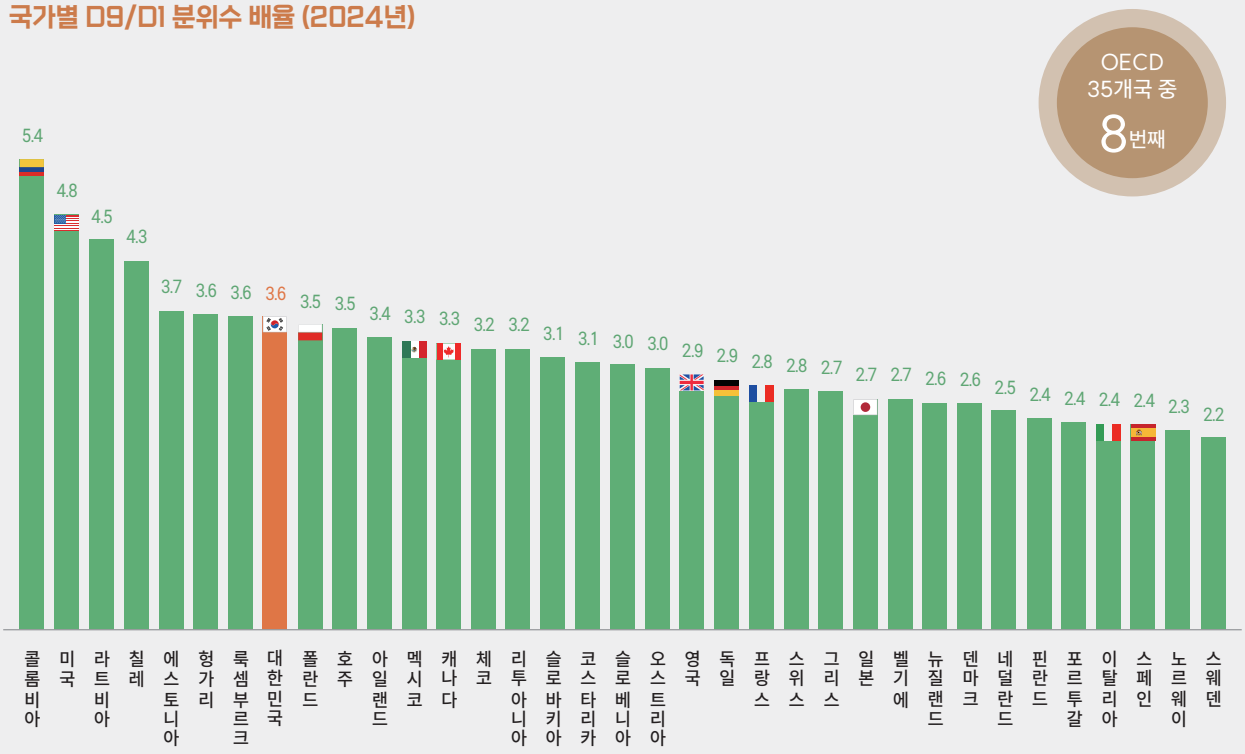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2) OECD는 소득분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눈 후 구간별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을 지표로 제공

임금 10분위수 배율

'24년 한국의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의 배율은 3.6배로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높다.

국가별 D9/D1 분위수 배율 (2024년)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콜롬비아	4.5	4.7	4.8	5.8	5.1	5.4
미국	5.0	4.8	4.8	4.6	4.7	4.8
대한민국	3.6	3.6	3.6	3.7	3.7	3.6
폴란드	–	3.5	–	3.5	3.8	3.5
멕시코	3.5	3.6	3.4	3.3	3.3	3.3
캐나다	3.4	3.4	3.3	3.3	3.3	3.3
영국	3.3	3.4	3.2	3.0	3.0	2.9
독일	3.1	3.1	3.1	3.0	5.9	2.9
프랑스	2.9	2.8	3.0	3.0	2.9	2.8
일본	2.8	2.7	2.7	2.7	2.7	2.7
이탈리아	2.6	2.7	3.1	2.6	2.3	2.4
스페인	3.7	2.5	3.6	3.0	2.5	2.4

자료: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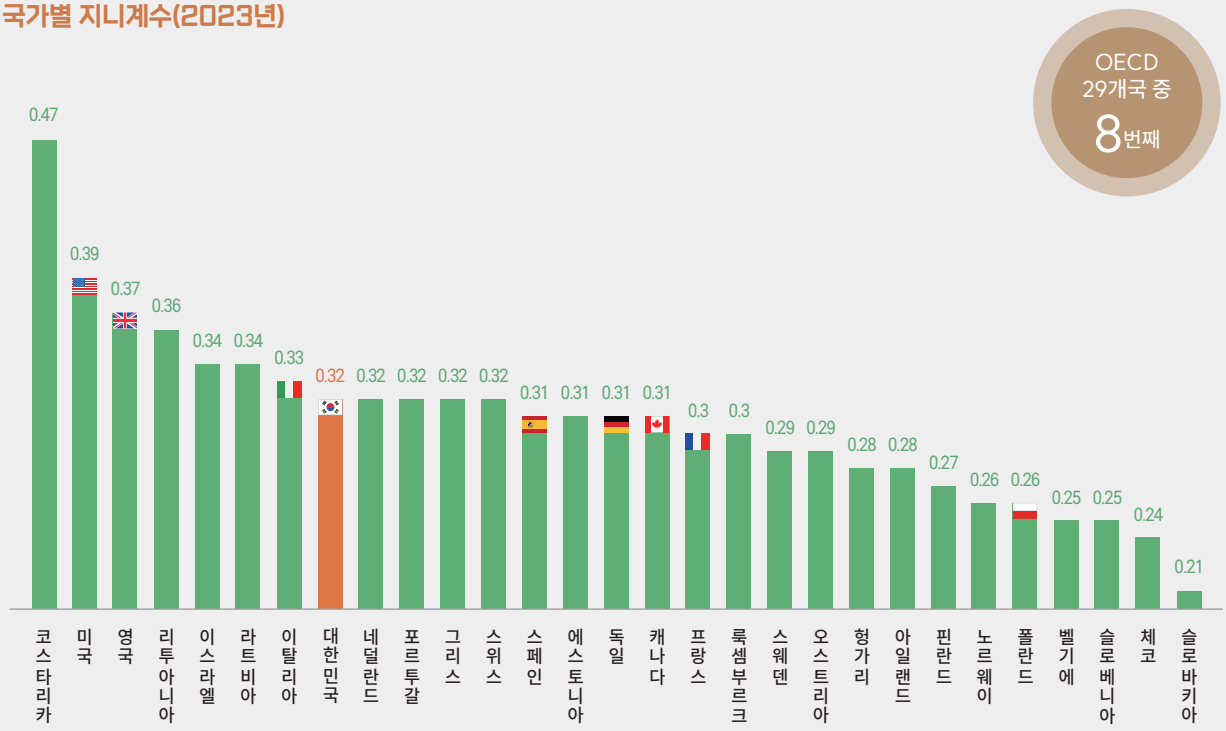
주1) 임금 10분위수 배율: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

2) OECD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분위수 배율(Decile Ratio)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분위수 배율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D9로 정의한 후 이들의 배율로서 D5/D1, D9/D5, D9/D1 등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1사이 값 중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23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3로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편이다.

국가별 지니계수(2023년)



국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미국	0.393	0.395	0.377	0.375	0.396	0.394
영국	0.366	0.366	0.355	0.354	0.365	0.367
이탈리아	0.330	0.325	0.331	0.330	0.319	0.325
대한민국	0.342	0.336	0.328	0.329	0.324	0.323
스페인	0.330	0.320	0.329	0.320	0.316	0.312
독일	0.289	0.296	0.303	0.313	0.309	0.307
캐나다	0.304	0.300	0.280	0.292	0.300	0.306
프랑스	-	-	0.278	0.298	0.297	0.299
폴란드	0.281	0.268	0.265	0.261	0.270	0.257
일본	0.334	-	-	0.33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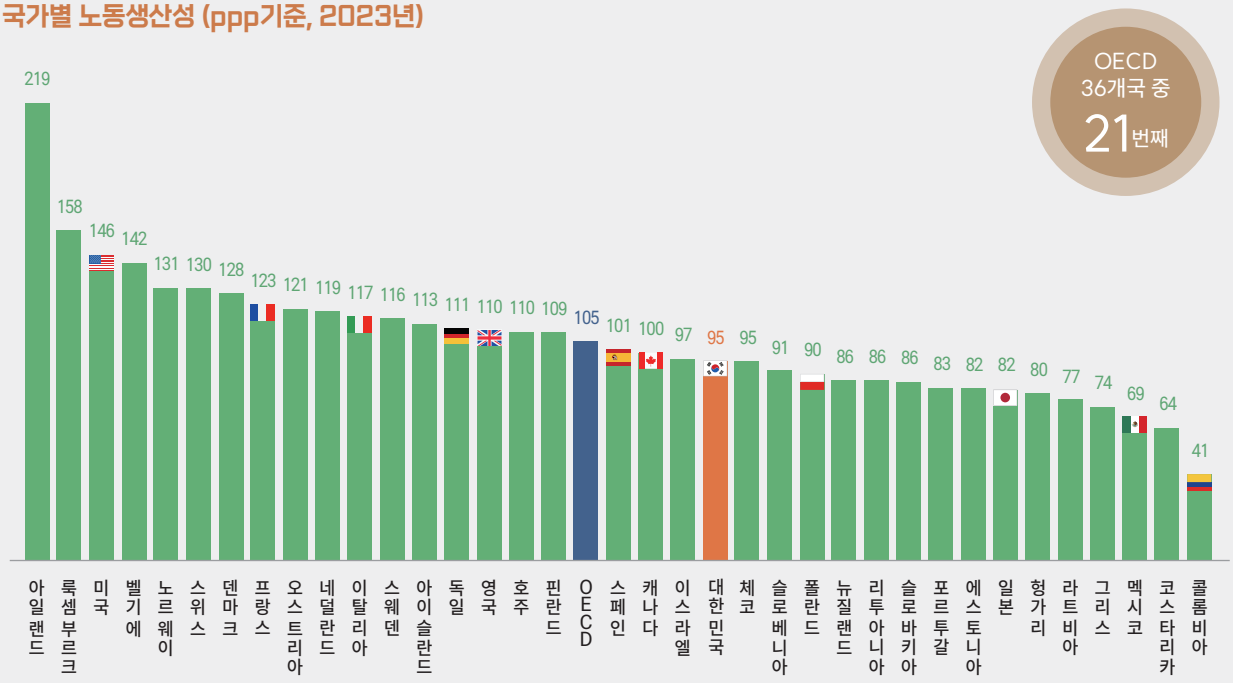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타 고용노동 지표

노동생산성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US$ PPP 환율기준으로 9.5만달러이며, OECD 36개국중 21번째이다.

국가별 노동생산성 (ppp기준, 2023년)



국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미국	135	137	142	146	145	146
프랑스	125	126	117	122	122	123
이탈리아	115	114	106	115	118	117
독일	112	112	109	112	112	111
영국	109	109	99	107	111	110
OECD	102	103	101	106	106	105
스페인	103	102	95	99	102	101
캐나다	99	99	104	102	102	100
대한민국	91	92	92	95	95	95
폴란드	83	85	83	86	89	90
일본	83	81	78	81	81	82
멕시코	66	66	63	65	67	69
콜롬비아	39	40	41	43	4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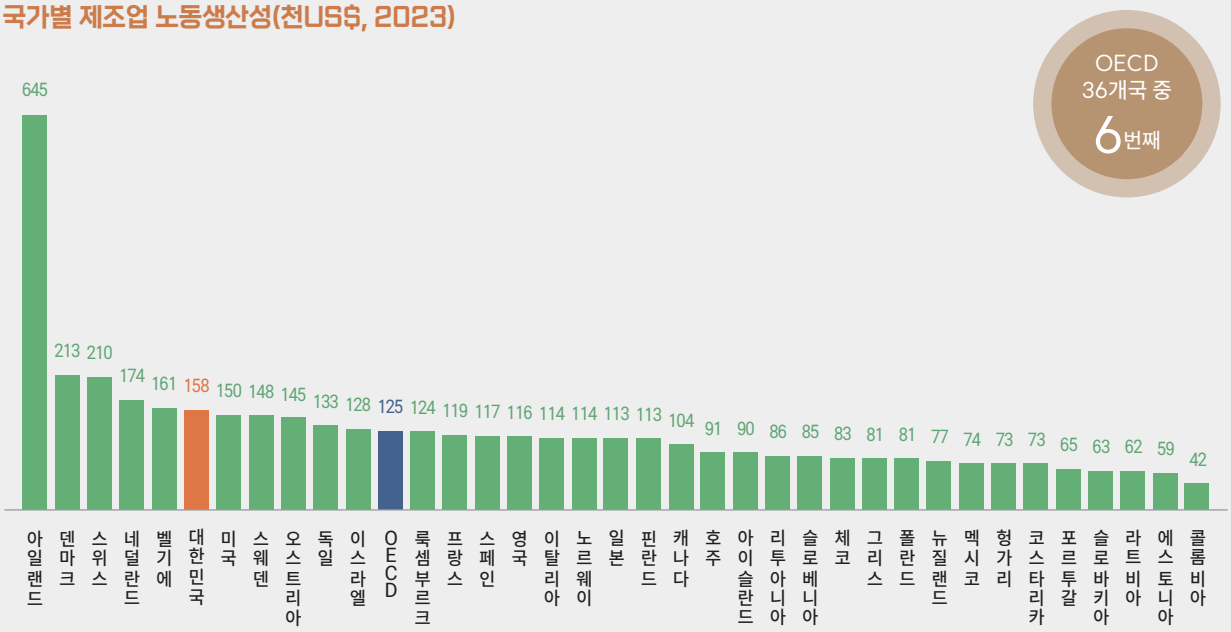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천US $)

주)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 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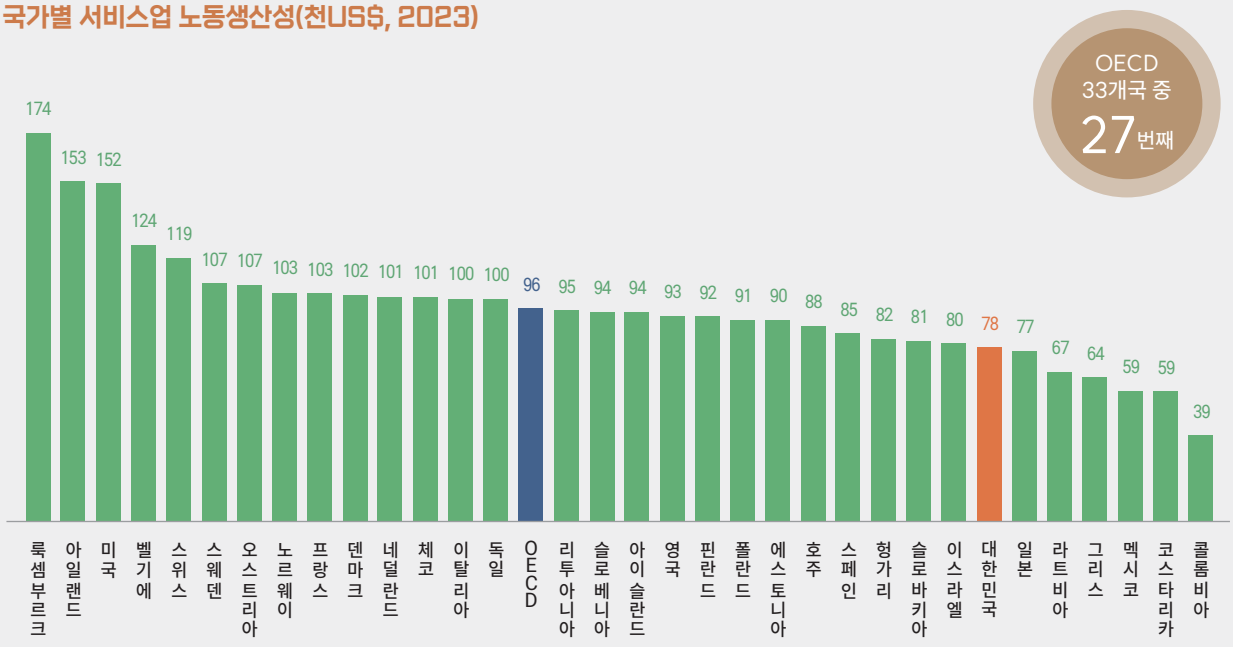
국가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3년 15만 8천 달러로 36개국 중 6번째이며 서비스업은 7만 8천달러로 33개국 중 27번째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국가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천US$, 2023)



국가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US$, 2023)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주)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5기준

발 행 인 김 영 훈

발 행 일 2026년 12월

발 행 처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www.moel.go.kr
Tel. (국번없이)1350

편집·인쇄 디자인 신성기획 (044.862.1960)

본 책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